

거란 연구의 현황과 연구 방향

Status of Research and Research Direction of Khitan Studies

이 발표논문집은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음.

행사일정

→ 등록 09:00-09:30
→ 식전행사 09:30-10:00
개회사 이성규 한국몽골학회장
축사 장호성 단국대 총장
→ 축하공연 발해의 음악과 춤 박소현 영남대

10:00-11:00	기조강연 1부 - 사회 서병국 대전대 요사 연구의 문제점과 연구 방향에 대하여 김위현 명지대 契丹研究現況與方向 陶晉生 臺灣 東吳大學
	휴식 11:00-11:10
11:10-12:10	기조강연 2부 - 사회 윤영인 영산대 契丹源流考 吉本道雅 日本 京都大 遙輦氏迪輦鮮質可汗與陶猥思迭刺部 愛新覺羅 烏拉熙春 日本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學
	점심 12:10-14:00
14:00-15:00	기조강연 3부 - 사회 이석현 경성대 契丹의特殊風俗習慣 關樹東 中國 社會科學院 遼代草原城市的興起 王明蓀 臺灣 文化大學
	휴식 15:00-15:10

15:10-16:20	1부 발표 - 사회 박원길 미래재단
	내몽골 요대 무덤에 대하여 Tala 中國 內蒙古博物院
	몽골의 거란 유적에 대하여 A.Enkhtur 몽골고고학연구소
	거란 성 契丹城 연구 복기대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
	휴식 16:20-16:30
16:30-17:40	2부 발표 - 사회 김영제 단국대
	거란 대자 연구 현황과 과제 EERDUNBATEER 내몽골대학
	거란어와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성규 단국대
	요사를 통해 본 발해 서쪽 국경 고찰 변은숙 관동대
	휴식 17:40-17:50
17:50-18:40	종합토론 - 사회 서영수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장
	김영제 단국대, 박원길 미래연구재단, 서병국 대전대, 육정임 고려대
	운영인 영산대, 이석현 경성대, 이상훈 단국대
18:40-19:00	폐회 및 이동
19:00-21:00	저녁 만찬 및 좌담회
→ 2009년 10월 18일 일	
	오전 요사 번역 관련 세미나 국립민속박물관 세미나실
	오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2009년 10월 19일 월	
	오전 단국대 죽전캠퍼스 방문
→ 행사장 안내 서울 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 행사 안내 단국대 북방문화연구소 041-550-3231	

발해의 음악과 춤

Music and Dance of Balhae in Ancient Korean Kingdom

박소현 (음악학 박사, 영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Park So-hyun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한국에서 북방문화 연구를 주도하는 '북방문화연구소'의 국제학술회의 축하공연을 준비하며, 흥미로운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구성하여 선보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에 논의를 위해 발해의 음악을 더듬어 시연(試演)의 무대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뜻 깊은 것으로 사려된다. 때문에 오늘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몽골, 일본의 여러 북방문화 관련 학자들과 발해의 음악과 무용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공연을 함께하려한다.

■ 현재 한국 국악학계에 전하는 발해악은 전무(全無)하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뛰어난 음악과 춤을 발해의 유민이 전승하였고, 송(宋)나라에서는 고구려 때부터 전승되던 거문고를 '발해금(渤海琴)', 금(金)나라에서는 발해의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무용수를 '발해교방(渤海教坊)'이라 이름붙일 정도였다. 오늘날 발해음악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거문고인 발해금, 정효공주의 고분벽화에 전하는 박판(拍板), 공후(鞀鼓), 비파(琵琶) 등 악기의 명칭뿐, 어떤 음악과 춤을 상연했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오늘 두 가지 공연으로써 발해의 유음(有音)을 더듬어보려 한다.

1. 발해금 거문고

거문고 독주 (보허사) - 거문고 연주¹ 도경태 (한국거문고양상블 회원)

현재 국악학계에서는 발해금을 거문고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또 다른 주장이 있기도 하다. 『송사』에 보면 발해금은 송나라 궁중에서 발해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기록에는 발해악을 금지시켰다는 내용이다.

■ 오늘은 발해금 거문고의 독주로 송나라에서 유입된 음악을 한국 감상하려 한다. <보허사(步虛詞)>라는 곡이 바로 그것이다. 아명으로 <황하청>이라고 하거나 또는 <현악보허자>라고도 한다. 고려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곡으로 <보허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영조(英祖) 이후부터 쓰였고, 선조 무렵부터는 향악화(한국화)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궁중음악이다. 이곡은 궁중 무용의 반주음악으로도 사용되며, 가사가 있어 성악곡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거문고 독주로 1악장만 연주한다.

2. 정효공주 고분의 박판, 공후, 비파

궁중무용 (아박무) - 무용¹ 장은성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1980년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 옹두산(龍頭山)에서 발굴된 발해국의 세 번째 왕인 대흥무(大興茂 文王, 737~792)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貞孝公主)의 고분벽화에서 박판, 공후, 비파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樂人)의 도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효공주의 비문에 의하면, 공주가 792년(大興 57년)에 세상을 떠났다가 8세기 후반에 이미 발해금 이외에 박판, 공후, 비파 등의 악기들이 발해에서 연주되었음을 시사한다.

■ 현재 공후와 비파는 한국 전통음악에서 사라졌다. 다만 박판만이 궁중음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지휘하는 집박(執拍)으로 사용되거나, 좀 더 작은 크기에 아박(牙拍)이 있어 궁중무용인 아박무(牙拍舞)에 사용된다.

■ 아박무는 고려시대 이후 전래된 것으로 '동동(動動)' 혹은 '동동무(動動舞)'라고도 한다. 『고려사』 「악지」 속악조(俗樂條)에는 '동동'이라 하여, 속악정재(俗樂正才)로 전하고, 『악학궤범』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鄉樂呈才圖儀)」에는 아박(牙拍: 아박무)이라 하여 향악정재로 전한다.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쥐고 박자를 맞추어 대무(對舞)하는 춤이다. 보통 최소 8명의 무용수가 추지만, 오늘은 독무로 공연한다.

『요사』연구의 문제점과 연구 방향에 대하여

김위현¹

1.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1. 머리에

『요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유목국가의 역사를 엮은 책이다. 따라서 농경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유목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요사』를 심도있게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 한국에서 『요사』를 연구해야 하는가? 이 책속에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다른 사서에 비하여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한국관계 사료가 다른 정사에 비하여 많이 남아 있다. 이는 북방민족이 세운 국가가 찬수하였으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삭(刪削) 없이 남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특별히 분별하여 다룰 필요가 없었고, 1년이란 짧은 기간에 편수한 사서이므로 본기와 열전을 대조하여 앞뒤가 맞게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요사』의 편찬을 살펴보면, 1343년(順帝 至正3) 4월에 요금송사를 찬수하라는 순제의 조칙을 받은 중서우승상 탈탈(脫脫)이 도총재가 되어 24명의 수사관이 찬수를 시작하였다. 『요사』는 도총재 탈탈을 위시하여 불과 10명의 수사관이 편수작업을 착수한지 1년만인 1344년(지정4) 3월에 본기30, 지32, 표8, 열전46, 도합 116권을 완성하였다. 그러자니 여러 분야에 오류와 착오, 중복 등의 문제를 낳았다. 본론에서는 요사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며, 연구에 앞서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토론코자 한다.

2. 『요사』 사료의 가치

1) 사료에 대한 이해

역사학자들로부터 『요사』는 질과 양 모두가 소루하게 다루어졌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일찍이 풍가승(馮家昇)¹⁾은

“오늘날 24사 중에는 삼국지(三國志), 주서(周書), 북제서(北齊書), 신오대사(新五代史) 같이 비교적 손쉽게 만든 사서가 있고, 위서(魏書), 송사(宋史), 원사(元史)와 같이 오류를 많이 범한 사서도 있으나 요사(遼史)와 같이 소루하게 다루어진 사서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또

“내가 일찍이 요사에 편찬원칙을 잃어버린 곳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냈는데, 첫째는 너무 간략한 것이고 둘째는 그릇되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로 말하면 거란인들의 보첩(譜牒)이나 기주(記注)는 살펴보지 않았고 송인들의 사승(私乘), 야사(野史) 같은 사료도 모으지 않았다. 때문에 취사 범위가 좁고 간략하게 되었으니 어찌 간략하게 줄여졌다 하지 않으리오?”

1. 馮家昇, 『遼史初校』, 臺北, 文海出版社, 1977, p.1.

수사의 연대로 말한다면 순제 지정 3년 4월에 사국이 설치되어서 다음 해 3월에 완성되었다. 일대의 역사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완성하였으니 잘못될 수밖에 없다.”²⁾

라고 평하였고 나계조(羅繼祖)도

“역대에 역사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찬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누락되고 오류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³⁾

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서이다. 그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문제가 많은 사서가 오히려 중요한 자료를 남기기도 하였다.

2) 『요사』에 실린 한국관계사료

다행히도 『요사』 내에는 한국 고중세사 사료가 많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 중 고구려조나 백제조를 보면 거의가 대동강 이남의 지명만 있고 내용이 없다. 또 미상지명이 거의 3분의 1이나 된다. 그러자니 만봉지역에 있던 고구려나 발해의 군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요사』 「지리지」에는 고조선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군현의 위치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이는 적어도 『요사』를 편찬할 때까지 사서에 남겨진 사료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니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필자가 2009년 6월에 고조선학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조선에 대한 사료는 동경요양부(지금 요양시)를 본래 조선 땅이라고 하였다. 또 고구려 건국 이전 즉 고구려 구성의 일민족이 되었던 예맥, 옥저, 읍루, 불열, 회월, 솔빈 철리의 옛 땅과 고구려의 선주민인 고리국, 부여 옛 땅도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또 고구려의 군현도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하다. 고구려 주현으로 그 위치 추정이 가능한 곳은 고구려현(高句麗縣), 경주(慶州), 용원현(龍原縣), 정주(定州), 보주(保州), 정동현(定東縣), 개모성(蓋牟城), 안시성(安市城), 사비성(沙卑城), 암연진(巖淵鎭), 환주(桓州), 정주(正州), 상암현(霜巖縣), 당산현(當山縣), 막힐부(鄭頴府), 동산현(銅山縣), 소주(蘇州) 등이다.

발해의 주와 현은 비교적 많이 또 자세히 남아 있다. 그 주와 현의 이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금덕현(金德縣), 계산현(雞山縣), 영풍현(永豐縣), 화산현(花山縣), 자몽현(紫蒙縣), 장녕현(長寧縣),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용원현(龍原縣), 용하군(龍河郡), 회농군(會農郡), 길리군(吉理郡), 개주(蓋州), 삼로군(杉盧郡), 철주(鐵州), 흥주(興州), 탕주(湯州), 숭주(崇州),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 초주(椒州), 청주(晴州),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 반안군(盤安郡), 비류군(沸流郡), 안원부(安遠府), 현덕부(顯德府), 솔빈부(率賓府), 웅산현(熊山縣), 영봉현(靈峰縣), 녹군현(麓郡縣), 숭산현(崇山縣), 연성현(緣城縣), 심주(瀋州), 백암성(白巖城), 백암현(白巖縣), 집주(集州), 봉집현(奉集縣), 철리군(鐵利郡), 동평부(東平府), 몽주(蒙州), 미주(美州), 산하현(山河縣), 부여성(扶餘城), 부여현(扶餘縣), 현의현(顯義縣), 강사현(強師縣), 어곡현(漁谷縣), 오희현(奧喜縣), 안정현(安定縣), 안이현(安夷縣), 부주(富州), 부수현(富壽縣), 신흥현(新興縣),

2. 全上

3. 羅繼祖, 『遼史校勘記』, 臺北, 文海出版社, 1977, p.265.

우부현(優富縣), 동평채(東平寨), 동산군(銅山郡), 회원부(懷遠府), 회복현(懷福縣), 표산현(豹山縣), 빈주(賓州), 부여부(扶餘府), 장평현(長平縣), 영녕현(永寧縣), 영평현(永平縣), 호주(湖州), 발주(渤海), 공진현(貢珍縣), 영주(郢州), 동주(銅州), 속주(涑州), 녹주(麓州), 등이다.⁴⁾

고려관계 기사도 많이 나온다. 지명, 인명, 날짜 등 『고려사』의 부족한 부분을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반면에 거란 기사가 『고려사』 중에 약 7만여 자가 있다. 이는 『고려사』가 『요사』의 부족하거나 오류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사료들이다.

3) 『요사』의 특수성

거란은 소위 정복왕조의 효시이며 일반적으로 한문화를 거부하며 자기 문화를 육성시킨 왕조로 평가된다. 게다가 『요사』 편수도 북방민족국가인 몽골이 편수하였으므로 북방유목문화의 특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사서로 평가된다.

정치적으로는 부득이 이원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복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포로를 잡아 산업전선에 투입시켰지만 그들을 관리하자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사막연변에서 목축이나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거란, 해, 실위 등의 민족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행정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한인들이나 발해인들처럼 농경 위주의 민족에게는 또 다른 법과 제도를 시행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운영을 한 것이다.

또 문화적으로는 한화가 곧 문화의 진보라는 생각이 아니고 상당부분을 수용하면서 북방 본래의 유목 관습을 유지하여 왔다. 예컨대 사시날밭이나 피서풍속, 형법 등 고유문화를 잘 지켜왔다.

언어나 문자가 없으면 그 문화의 전승이나 보존도 어려운 것이다. 거란은 일찍이 문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소문자를 창제하여 거란문을 통한 풍부한 문학작품이나 금석문 등을 남겼다. 더구나 여러 나라 문자를 병기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였다.

3. 『요사』 연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일

1) 사료 연구

『요사』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눈 닿는 곳마다 오류가 보인다고 할 정도면 사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저 몇 차례 교감이 있었을 뿐이다. 그 교감마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감자의 한계도 있지만 충분한 사서 연구를 못 한 탓도 있다.

『요사』의 경우 문장도 한 문장 한 문장 글자도 한 글자 한 글자를 사료 비판한 뒤에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거란에 대한 사료가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고학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바른 해석과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4. 김위현, 『遼史』中, 「韓中關係史料」『고조선의 정체성과 사료 다시 읽기』, 고조선학회, 2009. 6.30. 발표문.

2) 유목문화의 이해

농경사회 문화에 익숙해진 눈으로 유목사회를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컨대 궁(宮)이라는 것이 북경의 자금성처럼 웅장한 기와집이었던가 아니면 큰 겹을 지어서 사용하였던가 하는 문제, 타초곡(打草谷)은 일상적인 것이었던가, 전쟁시 농경민족 같이 식량과 의복을 후방에서 실어 날랐는가? 아니면 소나 양 등을 끌고 다니면서 식량으로 하였는가? 거란의 군사행동의 양태를 보면 점령한 곳을 금방 내어놓고 돌아가면서 물화를 약탈해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침공 목적이 약탈에 있었기에 물화나 포로를 잡고 금방 돌아가는 것이다. 피침자들은 자기 군대가 용감히 싸워서 격퇴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

또 거란의 제도가 이원적이어서 관복체계도 이원적이었다. 즉 황후와 북면관은 거란복식, 황제와 남면관은 한식 관복을 입었다.

성씨는 황족인 야율씨와 황후족인 소씨 이외에는 성이 없다. 다만 한인과 발해인들은 성을 가졌다. 그런데 요사본기에 나오는 인명은 어떤 때는 성을 쓰고, 어떤 때에는 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성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사람을 동시대에 성을 붙이지 않고 기록한 예가 더러 있었다. 그리고 자나 휘자를 바꿔가며 쓰는 경우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주 잘 알려진 거란 태조 야율아보기도 아보기는 휘자가 아니라 자이다. 그의 휘자는 역(億)이다. 『거란국지』에는 아보기는 번명(蕃名)이라 하였으니 곧 거란 이름이라는 뜻이다.⁵⁾ 또 거란 이름을 한자어로 바꾸는 과정에 각기 다르게 표기하여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컨대 아보기(阿保機)를 아포기(阿布機), 아보근(阿保謹), 안파견(安巴堅)으로도 기록하였다. 이것은 아보기 한 사람에게 국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4. 『요사』 사료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용어문제

아주 미세한 용어의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용어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나 의미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별하여 쓰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도 있다. 더구나 우리말로 옮기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내부(內附)는 와서 복종하다, 귀부(歸附)는 충심으로 와서 붙는다, 내부(來附)는 와서 붙는다, 투부(投附)는 투탁하여 붙는다 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격을 따져서 분간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 순(巡), 순지(巡地), 약지(略地), 순략(徇略), 순지(徇地) 등도 딱부러지게 나눠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제사를 올리는 것을 제(祭), 치제(致祭), 치전(致奠)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구분은 어렵다.

또 제(諸)자가 붙은 제군(諸軍), 제도(諸道), 제로(諸路) 등을 일률적으로 ‘여러’ 라는

5. 葉隆禮, 『契丹國志』, 臺北, 廣文書局, 1968, p.1.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상(上), 진상(進上), 헌(獻), 헌상(獻上) 등은 별 차이가 없는듯한데 문장마다 다르게 적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위의 몇 가지 예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많은 용어들이 정돈되지 않아서, 구분지어 보아야 할 지 같이 묶어서 보아야 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2) 『요사』 자체의 문자통일

(1) 국가명에 관한 문제

오대 국가들은 이미 있었던 국가 명을 연용해 쓴 것이다. 그래서 후대 사가들이 전후의 국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국가명 앞에 후(後)자를 덧붙이였다. 즉 양(梁)은 후량(後梁), 당(唐)은 후당(後唐), 진(晉)은 후진(後晉), 한(漢)은 후한(後漢), 주(周)는 후주(後周)로 하였다. 후 자를 붙이지 않으면 후당(後唐) 같으면 바로 전전 왕조가 당이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고, 진은 이극용(李克用)이 소종(昭宗)을 위협에서 구해 주어서 진왕(晉王)으로 봉해졌다. 그래서 이극용이 다스리는 지역을 진이라 불렀다. 진은 한때 후량과 더불어 양대 세력으로 군림하기도 하였다. 그때 후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⁶⁾ 진의 이존옥(李存勳)이 위주에서 칭제하고 국호를 당(唐), 연호를 동광(同光)이라 하였다. 그가 곧 후당 장종(莊宗)이다. 그는 반란 중에 유시에 맞아 죽고 그의 황후와 아들들은 토벌군 총수였던 이사원(李嗣源)에게 살륙되었고 이사원은 스스로 제위에 올라 명종(明宗)이 되었다. 명종이 죽자 아들 종후(從厚)가 즉위하여 민제(閔帝)가 되었다. 이때 명종의 양자인 이종가(李從珂)가 934년 민제를 쫓아내고 폐제(廢帝)가 되었다. 폐제는 명종의 여서인 석경당(石敬瑭)이 거란 태종의 지원을 받아 후당병을 물리치고 거란 태종이 석경당을 황제로 즉위시키고 나라 이름을 진으로 하고, 또 개원하여 천복(天福)이라 하였다. 그가 곧 후진 고조(高祖)이다. 그리하여 진(이극용), 당(이존옥), 후진(석경당)이 됨으로 글을 쓸 때 연대를 따져서 살펴야 된다. 특히 후한은 2제 4년간 유지되었다. 즉 947년부터 950년까지인데 고조 유지원(劉知遠) 2년, 은제(隱帝) 유승우(劉承祐)가 2년씩 재위하였다. 그 뒤 유승이 후한 일부 지역에서 자립하여 북한이라하며 거란에 의지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국명은 여전히 한으로 하였으나 후한과 구분하여 북한이라 하였다. 세조 유숭(劉崇), 효화제(孝和帝), 폐제(廢帝), 유계원(劉繼元)으로 이어졌다.

(2) 흰색수조 길조신앙

흰색 수조가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 적으로 알비노 현상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여러 고대국가에서는 흰색 수조가 길조라 여기었다. 유난히도 거란인들은 흰색을 길조(吉兆)라고 여긴 듯하다. 흰색의 짐승이 나타나면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는 그것을 길조라 받아들인 듯하다. 사서에 나타난 동물들은 백귀(白龜), 백록(白鹿), 백웅(白鷹), 백표(白표), 백토(白兔) 등인데 그 동물이 진상될 때마다 길조라 여기고 연회도 베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으면 백토를 팔준마(八駿馬)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팔준마는 과거에 이름 있던 말의 이름이다.

6. 傅樂成(辛勝夏譯), 『中國通史』, 宇鐘社, 1981, pp.592~598 참조.

(3) 통일되지 않는 지명

남경(南京)은 오늘의 북경지역이다. 주나라 무왕이 태보 석(奭)을 연왕에 봉하면서 연이라 불려졌는데 그 후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다른 이름으로 고쳐졌으나 계속 연 또는 연경이란 이름이 별칭처럼 불려졌다. 후진 석경당이 거란 태종의 후원으로 등위하고 유주 등 16주를 거란에 바치면서 태종이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또 연경(燕京)으로도 불렸다. 이후 이곳을 남경, 연, 연경, 유주 등으로 기록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

또 1024(태평4)년 2월 초하루에 조서를 내려 “압자하(鴨子河)를 혼동강(混同江)으로 고치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1057년(청녕3) 정월에도 여전히 압자하로 쓰고 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위의 2가지 예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기준이 불분명한 부족과 속국

『요사술요(遼史述要)』에 의하면, “속국표는 거란 본족의 각 부를 부족이라 하였고 부족 이외의 신복자(臣服者)를 속국(屬國)이라 하였으나 제한(界限)이 매우 명백하지 않고 부족표 중에 속국이 들어가 있고 속국표 중에 부족이 들어가 있다”⁷⁾

고 하였다.

거란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하여 기술한 기사는 『요사』 「본기」, 「백관지」, 「속국표」, 「영위지」, 「병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사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백관지」 속국관조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속국표에는 없는 나라가 있다. 여직국순화왕부, 남녀직국대왕부, 갈소관로여직국대왕부, 장백산여직국대왕부, 압록강여직국대왕부는 본기와 속국표의 여직표기와는 다르다.⁸⁾ 또 조북도 조북국대왕부 내에 조북찰랄부절도사사, 조북제부절도사사, 조북절도사사로 구분되어 있고 또 한 갈래는 서조북국대왕부, 북조북국대왕부, 서북조북대왕부로 분류되어 있으나 속국표에는 오직 조북만 나온다. 또 돌궐도 돌궐국왕부, 서돌궐국왕부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속국표와 본기에는 오직 돌궐로만 나온다. 또 백관지에만 국명이 나오고 속국표에는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자그마치 30개국이나 된다.⁹⁾

백관지 부족표에 나오는 부가 속국표에도 나오는 부는 울야, 발해, 매리급, 오고부, 발사모, 달리지, 점팔갈부이다. 이 밖에 후한, 파사 등은 백관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속국표」 함용 8년(1072) 6월조에 “振易州貧民(역주의 빈민들을 진휼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역주는 남경도의 일개 주이지 나라가 아니다.

또 중원지역의 국가로 후진, 남당, 오월은 속국표에 넣지 않고 다만 후한만 끼어 넣은 것도 기준없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백관지」 속국관조에만 나오고 본기와 속국표에는 나오질 않는 나라도 25개국이나 된다.¹⁰⁾

7. 徐 浩, 『요사술요(遼史述要)』(遼史彙編), 臺北, 鼎文書局, 1975, p.24.

(5) 오기가 가장 심한 「高麗外記」

『요사』가 가장 잘못된 곳이 많아서 여러 선학들이 교감과 호증작업을 많이 하여서 이미 많은 수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이른다. 거란과 고려가 203년간의 교섭내용을 『고려사』와 대조하여 보면 아직도 수많은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분야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출정장군, 사신 등 인명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록 당시 장군의 경우 전문에 의하였을 것이고, 사신들의 경우 옮겨 쓴 때 오류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본기와 외기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¹¹⁾

둘째, 지명도 잘못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거란과 접전지대인 한반도 서북쪽 고려와 거란의 국경지역 지명이 오류가 많다. 특히 『요사』 「외기」 기록에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셋째, 기록의 내용도 잘못된 곳이 많고 국왕의 세계가 잘못 기록된 곳도 여러 곳 있다.

넷째, 거란과 고려가 육접하고 있어서 양국의 도성과 도성간의 거리가 수천리나 떨어져 있어서 사행의 왕래시간이 수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거란사신이 고려도착시간이 거란에서 출발시간보다 이르다거나 편도에 6개월 이상, 심지어 12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여러 차례 교감을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문제가 남아있다. 위의 예는 고려와 거란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송과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다.

5. 결론 | 요사연구의 방향

거란은 907년 야율아보기가 건국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강자로 군림하였다가 1125년 천조제때 금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200여년이란 기간은 비교적 복조가 짧은 왕조지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방면에 한족 왕조와는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진 왕조이다. 여러 특징 때문에 중외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였다. 먼저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을 기준하여 중외학자들의 연구는 총 4721편이나 된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중국학자들이 쓴 것이 논저와 논문을 모두 합하여 4047편이고 외국학자들이 쓴 논저와 논문이 674편이다.¹²⁾ 이는 거란사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골고루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요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8. 金潤顯, 『遼金史研究』, 裕豊出版社, 1985, p.10.

9. 金潤顯, 上引書, p.10.

10. 金潤顯, 앞의 책, p.11.

11. 金潤顯, 앞의 책, pp.67~71 참조

1. 우선 유목국가와 문화를 보는 시각적 변화가 절실하다. 대개 이제까지의 문화를 보는 기준을 농경민족에 두고 평가를 하여왔다. 그러자니 항상 농경문화는 상등문화, 유목문화는 야만문화로 평가되어 왔다. 이제는 유목사회를 보는 안목이나 평가기준도 새로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사』를 연구하는 안목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2. 역사는 항상 강자 위주어야지 약자 위주는 있을 수 없다. 10세기 내지 13세기 초까지는 거란이 최강자였으므로 거란 위주의 역사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란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요사』는 그만큼 주요사료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3. 종종 후대 정치가들이 역사를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시간개념으로 보지 않고 현실 정치와 연관하여 보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고 아직도 그런 논리가 통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요사』는 과거의 시간 속에 존재했던 한 나라의 기록이다.

또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론개발이 필요하다. 자기 혼자 주장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주장만이 아닌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는 역사학자들만이 역사를 연구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한 분야를 두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문헌자료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있다면 다국적으로 고고발굴이 되고 그 해석과 보고서도 역시 다국적 학자들 손에 이루어져야 국제적 공신력이 확보될 것이다. 아직도 과제로 남은 거란어문 연구와 발굴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요사』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黃浦江, 『二十世紀遼金史論著目錄』, 上海辭書出版社, 2003 참조.

중국인 부류별 연구

항목	논저	개설	학자소개	서평	연구평	목록색인
수량	96	135	55	52	43	21
학술활동	사료문헌	기타	정치	경제	요송관계	
43	93	57	168	234	104	
제도	민족	사회	민족관계	인물	문화	
207	310	235	108	83	250	
종교	거란어언문자	과학기술	역사지리	묘장이각	문물고고	
103	306	58	194	511	490	

외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국어	몽골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488	27	60	7	74	13	5

『요사』연구의 현황과 방향

도진생 대만 동오대학

이제까지 많은 동서학자들의 유목생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사냥에서 점차 변화를 하다가 유목으로 변화되었다는 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또 농경에서 유목으로 비껴었다는 설은 원래 농목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여러 요인에 의하여 농업이 폐지되고 유목만 남았다는 견해와 유목에서 농업으로 옮겨었다는 견해 등 이론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서양 학자들에 의한 논란이었다. D. L. Johnson의 「유목 환경론」, Owen Lathimore의 「아시아 내의 중국변방인」, W. Bernhard의 「정복자와 규칙」 등에서 각종 이론이 제기된 바가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 연간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동북지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학자들이 만몽지역 연구에 착수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었다.

1919년 5.4 문화운동이래 점점 단대사 연구가 발전해 오다가 1949년에 와서 그쳤다. 그래서 요·송·서하·금사 연구의 기초는 비교적 빈약하였다. 중국대륙에서 단대사 연구가 역경(逆境)과 순경(順境)을 겪는 동안 홍콩이나 타이완은 비교적 안정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역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은 결국 역사연구의 정도를 벗어난 길로 들어갔다.

더구나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소위 문화대혁명을 겪는 동안 모든 역사연구가 정상발전에 엄중한 저해를 받다가 사인방이 분쇄되면서 사회과학의 봄을 맞이하였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일신되었다. 이 10년 동안 문화혁명이란 난동이 끝을 맺고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차 3중전회에서 확정한 방침, 노선이 역사학에 새로운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게 되었고 역사연구자들에게 생기가 돌아나게 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내의 역사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요사의 각 분야에 걸친 논문이 무려 5,000편이나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심도있게 연구한 논문이 아닌 급하게 쓴 글이라서 수준이 못되는 것도 많다.

앞으로의 연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첫째는 요·금·원·청사는 유목, 수렵, 농목 등을 하던 북방계 민족국가의 역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먼저 그 생활환경, 생활의 양태, 사고 등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농경사회나 해양국가에서 자기 사회의 가치와 환경, 풍속, 습관에 기준을 두고 연구한다면 그 연구는 완전히 오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요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야할까? 요나라에는 요민족 외에 발해인, 한인, 해인, 회골인, 돌궐인, 실위인 등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득이 2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원지역 통치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었다.

셋째, 아직도 연구가 미흡한 거란어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많은 거란 유적들이 정비도 미흡하고 발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진면목을 알기 어려운데 앞으로 더 빨리 발굴이 이루어져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면 보다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다.

契丹源流考

吉本 道雅 京都大學文學研究科

序言

遼朝建國以前の契丹については、中國に對する「他者」としての契丹を記述した歴代正史の契丹傳などがあるが、五代・宋以降の著作には、契丹人自身の傳承を反映したとおぼしき記述が散見するようになる。至正四年（1344）に編纂された『遼史』、とりわけその志・表の部分は、往々にして矛盾するこれら二系統の材料の整合を試みているが、たとえば、世表

考之宇文周之書，遼本炎帝之後，而耶律儼稱遼為軒轅後。儼志晚出，蓋從周書。

韓愈作可突干，劉昫、宋祁及唐會要皆作可突于。

泥禮，耶律儼遼史書為涅里，陳大任書為雅里，蓋遼太祖之始祖也。

耶律儼紀云，太祖四代祖耨里思為迭刺部夷離董，遺將只里姑、括里，大敗范陽安祿山于潢水，適當懷秀之世。則懷秀固遙輦氏之首君，為阻午可汗明矣。

蕭韓家奴有言，『先世遙輦可汗注之後，國祚中絕，自夷離董雅里立阻午可汗，大位始定。』今以唐史、遼史參考，大賀氏絕于邵固，雅里所立則懷秀也，其間唯屈列、過折二世。屈列乃可突于所立，過折以別部長為雅里所殺。唐史稱泥里為可突于餘黨，則注可汗者，殆為屈列耶？

などが、編纂者の推論をそのまま載せるように、その整合は必ずしも完成していない。

こうした次第で、『遼史』の記述は、中國系資料・契丹系資料および編纂者の解釋が複合した記述というべきだが、編纂物に通有の、原資料の多様性と編纂の重層性といった問題は、『遼史』を用いる場合、必ずしも意識されていないように思われる。

『遼史』には原資料の相異を反映した「複数の過去」が混在しているといってもよい。そうした事例の一端を示すべく、本稿では契丹の起源に關わる記述とその由來を考察するものとする。

第一章 契丹起源説の推移

『遼史』において遼朝以前の契丹に關する最もまとまった記述を提供するのは、營衛志および世表である。そこにはおよそ三系統の契丹起源説が認められる。複数の契丹起源説が存在することはつとに指摘されている*¹が、それらの出現の時期は必ずしも留意されていない。ここでは、そうした視点から契丹起源説の時代的推移を確認しておこう。

第一は、宇文部起源説である。『魏書』（天保五年554）宇文莫槐傳

匈奴宇文莫槐，出於遼東塞外，其先南單于遠屬也，世為東部大人。其語與鮮卑頗異。人皆剪髮而留其頂上，以為首飾，長過數寸則截短之。婦女披長襦及足，而無裳焉。秋收烏頭為毒藥，以射禽獸。

1. 陳述1948（第二篇「契丹民族之構成」）。

は、宇文部を匈奴の後裔として鮮卑との相異を強調する。『周書』（貞觀十年636）

太祖文皇帝姓宇文氏，諱泰，字黑獺，代武川人也。其先出自炎帝神農氏，為黃帝所滅，子孫遷居朔野。有葛烏菟者，雄武多算略，鮮卑慕之，奉以為主，遂總十二部落，世為大人。其後曰普回，因狩得玉璽三紐，有文曰皇帝璽，普回心異之，以為天授。其俗謂天曰宇，謂君曰文，因號宇文國，并以為氏焉。普回子莫那，自陰山南徙，始居遼西，是曰獻侯，為魏舅生之國。九世至侯豆歸，為慕容晃所滅。

も、「鮮卑慕之、奉以為主」と、宇文部に對して鮮卑が「他者」として記述されており、明言はしないものの*²⁾、匈奴後裔説に従うものと思われる*³⁾。

契丹を宇文部の後裔とすることは、『魏書』

庫莫奚國之先，東部宇文之別種也。初為慕容元真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其民不潔淨，而善射獵，好為寇抄。登國三年，太祖親自出討，至弱洛水南，大破之，獲其四部落，馬牛羊豕十餘萬。…（庫莫奚傳）

契丹國，在庫莫奚東，異種同類，俱竄於松漠之間。登國中，國軍大破之，遂逃迸，與庫莫奚分背。（契丹傳）

に初見する。これ以後、

奚本曰庫莫奚，東部胡之種也。為慕容氏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其俗甚為不潔，而善射獵，好為寇抄。…契丹之先，與庫莫奚異種而同類，並為慕容氏所破，俱竄於松、漠之間。（『隋書』；貞觀十年636）

奚本曰庫莫奚，其先東部胡宇文之別種也。初為慕容晃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俗甚不潔淨，而善射獵，好為寇抄。…契丹國在庫莫奚東，與庫莫奚異種同類。並為慕容晃所破，俱竄於松漠之間。（『北史』；顯慶四年659）

庫莫奚，聞於後魏及後周。其先，東部鮮卑宇文之別種也。初為慕容晃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其地在今柳城郡之北。其俗甚不潔，而善於射獵，好為寇抄。…契丹之先與庫莫奚異種而同類，并為慕容氏所破，俱竄於松漠之間。（『通典』；貞元十七年801）

などは表現の重複に明らかなように、『魏書』の記述を踏襲している。

第二は、奇首可汗*⁴⁾ 起源説である。契丹の起源を開祖の八子に求める言説は、范鎮『東齋紀事』（元豐年間1078-85）

契丹之先，有一男子乘白馬，一女子駕灰牛，相遇於遼水之上，遂為夫婦。生八男子，則前史所謂迭為君長者也。此事得於趙志忠。志忠嘗為契丹史官，必其真也。前史雖載八男子，而不及白馬、灰牛事。契丹祀天，至今用灰牛、白馬。予嘗書其事於『實錄・契丹傳』，王禹玉恐其非實，刪去之。予在陳州時，志忠知扶溝縣，嘗以書問其八男子迭相君長時為中原何代。志忠亦不能答，而云：“約是秦漢時。”恐非也。

2. 『周書』では、突厥傳「其俗被髮左衽 穹廬氈帳 隨水草遷徙 以畜牧射獵為務 賤老貴壯 寡廉恥 無禮義 猶古之匈奴也」のように、匈奴が否定的に記號化されており、そのため宇文氏の匈奴出自を明言することが忌避されたものである。

3. もっとも宇文部の屬民は鮮卑であったため、『晉書』康帝紀「慕容皝及鮮卑帥宇文歸戰于昌黎」・慕容廆載記「涉歸有憾於宇文鮮卑」・『舊唐書』尚可孤傳「尚可孤 東部鮮卑宇文之別種也 代居松、漠之間」などは、宇文部を鮮卑として記述している。

4. 奇首可汗については、愛新覺羅烏拉熙春2009bを参照。

に初見する。奇首可汗については、『遼史』本紀に、
(七年913六月) 甲申, 上登都庵山, 撫其先奇首可汗遺跡, 徘徊顧瞻而興歎焉。(太祖紀)
(會同四年941二月) 丁巳, 詔有司編始祖奇首可汗事迹。(太宗紀)
と見え、1992年に出土した耶律羽之墓誌(會同四年941)
公諱羽之、姓耶律氏、其先宗分佶首、派出石槐、歷漢・魏・隋・唐已來世為君長*⁵⁾、
にも、「佶首」として見える。

開祖八子の説は、契丹が八部編成を採ることの説話的表現である。『遼史』營衛志は、「古八部」「大賀氏八部」「遙輦氏八部」の見出しを立て、北魏以來の「八部」の存在を主張する。ここで先行研究の批判的検討を踏まえた考證を開陳することは斷念せざるを得ないが、本章の主題に関連して一つだけ指摘しておきたいことは、契丹の八部編成を明言した記述が、

其君長姓大賀氏。勝兵四萬三千人, 分為八部、(『舊唐書』契丹傳; 開運二年945)

契丹本姓大賀氏, 後分八族: 一曰利皆邸, 二曰乙失活邸, 三曰實活邸, 四曰納尾邸, 五曰頻沒邸, 六曰内會雞邸, 七曰集解邸, 八曰奚嘔邸。(『資治通鑑考異』後梁紀開平元年引『漢高祖實録』; 乾祐二年949*⁶⁾)

其族本姓大賀氏、後分為八部、一曰旦利皆部, 二曰乙失活部, 三曰實活部, 四曰納尾部, 五曰頻沒部, 六曰内會雞部, 七曰集解部, 八曰奚嘔部。(『五代會要』; 建隆二年961)

など10世紀中葉ようやく出現するという事実である。『漢高祖實録』に「大賀氏」のそれとして初見する八部を營衛志が「遙輦氏八部」とすることは説明を要するが、契丹の八部編成を明言するものには違いない。

しかしながら、遡って營衛志が「大賀氏八部」とする八部については、『冊府元龜』卷九百七十七/外臣部/降附

(貞觀二十二年648) 十一月、契丹帥窟哥・奚帥可度者並率其部内屬、以契丹部為松漠都督府、拜窟哥為使持節十州諸軍事・松漠都督。又以其別帥達稽部置峭落州、(析) [析] 紇(使) [便] 部置殫汗州、獨活部落置無逢州、芬間部置羽凌州、突使部置日連州、芮奚部置徒河州、遂斤部置萬丹州、伏部置疋黎・赤山二州、各以其酋長辱紇主為刺史、俱隸松漠焉、

が原資料に最も近い記述と思われるが、これは松漠都督府について、「契丹部」に「達稽部」以下の八部が隸屬する九部編成を記している。營衛志の「大賀氏八部」を根據に、契丹の八部編成を主張し、ここの「契丹部」を「達稽部」以下の八部の一つと重複するものとする解釋*⁷⁾は、少なくともこの記述には決して適合しない。ただ、同じく『冊府元龜』卷九百七十五/外臣部/褒異*⁸⁾

(開元十二年724) 三月癸酉、遣使賫絹錦八萬段、分賜奚及契丹、詔曰: 公主出降蕃王, 本擬安養部落, 請入朝謁, 深慮勞煩。朕知割恩, 抑而未許, 思加殊惠, 以慰遠心。奚有五部落,

5. 蓋之庸2007。

6. 『舊五代史』漢書/隱帝紀「(乾祐元年十月) 癸未、監修國史蘇逢吉、史官賈緯以所撰高祖實録二十卷上之」。

7. 田村實造1938・愛宕松男1959・舒焚1984。

8. 『冊府元龜』卷九百七十九/外臣部/和親にもほぼ同文が見える。

宜賜物三萬段。其中取二萬段先給征行遊奕兵及百姓，餘一萬段與東光公主、饒樂王衙官、刺史縣令。契丹有八部落，宜賜物五萬段。與燕郡公主、松漠王衙官、刺史縣令，其物雜以絹布，務令均平，給訖奏聞。

は、鬱于への公主下嫁の際に、松漠都督府の領州を構成する「八部」への下賜が配慮されたことを傳えており、松漠都督府に属する「八部」の存在が、八部編成の理念的規範化の契機となったことが容易に推測される*⁹⁾。

第三は、宇文部以外の鮮卑さらには東胡に関連づける説である。便宜上、鮮卑起源説と稱しておこう。この言説は耶律羽之墓誌の「派出石槐」が、後漢光和年間（178-184）に卒した檀石槐*¹⁰⁾に言及することに初見する。これに呼応したものの、10世紀中葉以降の中國文献では、『魏書』以來踏襲されてきた宇文部起源説をもはや直接に示すことはなくなっている。すなわち、

契丹，居潢水之南，黄龍之北，鮮卑之故地，…奚國，蓋匈奴之別種也，所居亦鮮卑故地，即東胡之界也，（『舊唐書』；開運二年945）

契丹者，古匈奴之種也。代居遼澤之中，潢水南岸，南距榆關一千一百里，榆關南距幽州七百里，本鮮卑之舊地也。（『舊五代史』；開寶七年974）

契丹居潢水之南。黄龍之北。鮮卑之故地。…奚。蓋匈奴之別種。所居亦鮮卑之故地。即東胡之界也。（『唐會要』；建隆二年981）

のうち、『舊五代史』では、『魏書』が宇文部を匈奴系とすることを踏まえたものか、契丹を「古匈奴之種」とするが、『舊唐書』『唐會要』では契丹の起源を直接には示さず、おそらくは『魏書』が奚・契丹を「異種同類」とすることを前提に、奚について「蓋匈奴之別種」と記すことで、間接的に契丹の匈奴系たるを示唆しているようである。ついで、

奚、本匈奴別種、即東胡之地、…契丹，本鮮卑之種也。居遼澤之中，潢水之南，（『五代會要』；建隆二年981）

契丹自後魏以來，名見中國。或曰與庫莫奚同類而異種。其居曰臯羅箇沒里。沒里者，河也。是謂潢水之南，黄龍之北，得鮮卑之故地，故又以為鮮卑之遺種。…奚，本匈奴之別種。（『新五代史』；皇祐五年1053）

契丹，本東胡種，其先為匈奴所破，保鮮卑山。魏青龍中，部酋比能稍桀驁，為幽州刺史王雄所殺，眾遂微，逃潢水之南，黄龍之北。至元魏，自號曰契丹。…奚亦東胡種，為匈奴所破，保烏丸山。漢曹操斬其帥蹋頓，蓋其後也。元魏時自號庫莫奚〔二〕，居鮮卑故地，（『新唐書』；嘉祐五年1060）

では、契丹を鮮卑に起源するものとする説が出現している*¹¹⁾。とくに『新唐書』では、東胡が匈奴に敗れて鮮卑が形成され、青龍三年（235）の軻比能殺害*¹²⁾を契機に「潢水之南，黄龍之北」に逃れたものが、北魏に至って契丹を自稱したとしており、宇文部起源説を明白に排除

9. つとに小川裕人1938が指摘するように、「遙輦氏八部」のうち七部の名稱は、「大賀氏八部」のうち七部に音韻的に近似する。かつて松漠都督府に所屬していた部落による「八部」の再建という推移を想定できる。

10. 『後漢書』烏桓鮮卑傳「光和中，檀石槐死，時年四十五。」

11. そのほか『東都事略』には「遼國，即契丹也。蓋東胡之種，在潢水之南，本鮮卑之舊地也」と見える。

12. 『三國志』烏丸鮮卑東夷傳「至三年中，雄遣勇士韓龍刺殺比能，更立其弟。」

し、北魏以前については東胡・鮮卑そのものの推移を提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に10世紀中葉以降の中國文献に認められる宇文部起源説から鮮卑起源説への転換は、遼朝において創出された鮮卑起源説が傳播した結果であると思われる。

『新唐書』の記述は、軻比能殺害による鮮卑の衰微を契丹形成の契機とするものだが、『金史』奚王回鹩保傳「贊曰：庫莫奚、契丹起於漢末」は、その或説で、後漢末年における檀石槐の死を契丹成立の契機とみなしたものであろう。

世表が耶律儼に歸する黄帝を契丹の起源とする説も、同じく鮮卑起源説に屬するものであろう。拓跋部の始祖を黄帝とすることは『魏書』序紀に見える。一方、同じく鮮卑でも慕容部について、

『十六國春秋』前燕録* ¹³⁾	『晉書』慕容廆載記
慕容廆，字弈落環，昌黎棘城鮮卑人也。昔高辛氏遊於海濱，留少子厭越以君北夷，邑於紫濛之野。世居遼左，號曰東胡。其後雄昌與匈奴爭盛，控弦之士二十餘萬，風俗、官號與匈奴略同。秦西漢之際，為西匈奴所敗，分保鮮卑山，因復以山為號也。	慕容廆字弈洛瑰，昌黎棘城鮮卑人也。其先有熊氏之苗裔，世居北夷，邑于紫蒙之野，號曰東胡。其後與匈奴並盛，控弦之士二十餘萬，風俗官號與匈奴略同。秦漢之際為匈奴所敗，分保鮮卑山，因以為號。

と、『十六國春秋』前燕録は高辛氏の子孫とするが、『晉書』（貞觀二十二年646）慕容廆載記は、有熊氏すなわち黄帝の子孫に改めている。北魏の中原制覇を経て、『魏書』序紀に見えるような鮮卑の開祖を黄帝とする言説が一般的な權威を持つようになり、『晉書』はそれに従って『十六國春秋』の記述を改変したものである*¹⁴⁾。

第一説の初見が6世紀後半に遡るのに對し、第二・第三説の存在が確言できるのは、現時点では10世紀半ばであり、實際の契丹史を考える上で、これらを第一説と同等に扱い得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また、これらは初見が降るだけでなく、内容的にもかなり不安定であった模様である。そもそも、耶律羽之墓誌では鮮卑起源説を前提に、奇首可汗起源説をも記述しており、両者は決して矛盾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そのためか、両者の混淆も時に認められる。

すなわち、『遼史』耶律曷魯傳「漢人殺我祖奚首，夷離董怨次骨，日夜思報漢人」の「奚首」は、「奇首」の同音異譯に他ならないが、これが漢人に殺されたという記述は、奇首可汗と軻比能の混淆を示唆する。

13. 湯球『十六國春秋輯補』に據る。

14. 高井康典行1994は、黄帝起源説の成立を、耶律儼が『実録』を編纂した乾統三年(1103)頃の對宋關係に關連づけて説明するが、耶律羽之墓誌にすでに鮮卑起源説が見える以上、この議論は成り立たない。

また、上掲の『東齋紀事』において、范鎮が「八子」の時代を問うたところ、趙志忠は答え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が、結局「約是秦漢時」と述べている。「秦漢時」という表現は、ただちに『十六國春秋』の「秦漢之際」に東胡が匈奴に敗れ、鮮卑が成立したという記述を連想させる。臆測を逞しくするならば、耶律羽之墓誌にうかがわれるように、遼朝では鮮卑起源説と奇首可汗起源説が併存しており、趙志忠は奇首可汗の時代について確答できなかつたため、鮮卑の起源である「秦漢時」を答えたものであろう。

第二章 『遼史』世表における起源説

『遼史』世表は、歴代正史の契丹傳などに見える中國系資料と、遼代契丹人に由來する契丹系資料を整合して、前王朝時代の契丹史の再構築を図つたものである* 15)。前章では、三系統の契丹起源説の存在を確認したが、本章では、これらが世表においてど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かを検討することで、『遼史』の性格の一端を確認する。

契丹の起源に関わる世表の記述は以下の部分に含まれている。

庖犧氏降，炎帝氏、黄帝氏子孫眾多，王畿之封建有限，王政之布濩無窮，故君四方者，多二帝子孫，而自服土中者本同出也。考之宇文周之書，遼本炎帝之後，而耶律儼稱遼為軒轅後。儼志晚出，蓋從周書。蓋炎帝之裔曰葛烏菟者，世雄朔陲，後為冒頓可汗所襲，保鮮卑山以居，號鮮卑氏。既而慕容燕破之，析其部曰宇文，曰庫莫奚，曰契丹。契丹之名，昉見于此。（世表/序）

漢 冒頓可汗以兵襲東胡，滅之。餘眾保鮮卑山，因號鮮卑。

魏 青龍中，部長比能稍桀驁，為幽州刺史王雄所害，散徙潢水之南，黃龍之北。

晉 鮮卑葛烏菟之後曰普回。普回有子莫那，自陰山南徙，始居遼西。九世為慕容晃所滅，鮮卑眾散為宇文氏，或為庫莫奚，或為契丹。

元魏 契丹國在庫莫奚東，異族同類，東部鮮卑之別支也，至是始自號契丹。為慕容氏所破，俱竄松漠之間。道武帝登國間，大破之，遂與庫莫奚分背。（世表/本文）

「漢」の部分および序文の「後為冒頓可汗所襲，保鮮卑山以居，號鮮卑氏」は、『後漢書』烏桓鮮卑列傳

烏桓者，本東胡也。漢初，匈奴冒頓滅其國，餘類保烏桓山，因以為號焉。…鮮卑者，亦東胡之支也，別依鮮卑山，故因號焉。

に基づく。「冒頓单于」を「冒頓可汗」に改變している。「魏」の部分は、上掲の『新唐書』契丹傳を用いる。「部酋」を「部長」に改めているが、下文においても、北族に對する貶意を含んだ表現は隨時改められている。「晉」の部分は、これも上掲の『周書』文帝紀を引く。序文においても、耶律儼志の黄帝起源説を「晚出」のゆえに退け、『周書』文帝紀の宇文氏炎帝起源説を用いている。ついで「晉」の部分の末尾および「元魏」の部分では、『魏書』庫莫奚傳・契丹傳を用いる。

15. 『遼史』世表については楊家駱1965を参照。その他、專論としては、王吉林1966がある。

序文を見ただけでは、世表はもっぱら宇文部起源説に傾いているかの如くだが、本文を仔細に検討すると、「晉」の部分では、宇文氏に関する記述を「鮮卑」のそれとして改変しており、さらに、「鮮卑眾散為宇文氏，或為庫莫奚，或為契丹」は、「鮮卑」が宇文氏・庫莫奚・契丹に分離したとするものであり、『魏書』庫莫奚傳が庫莫奚を「東部宇文之別種」、契丹を庫莫奚の「異種同類」とする、すなわち庫莫奚・契丹を宇文部より分離したものとする記述を實は大幅に改変している* 16)。さらに「元魏」の部分では『魏書』庫莫奚傳の「東部宇文之別種也」を「東部鮮卑之別支也」と改めている。要するに、世表は、宇文起源説を標榜し、それとのあからさまな矛盾を避けながらも、實質的には鮮卑起源説を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

奇首可汗起源説につき、世表は、

名隨代遷，字傳音轉，此其言語文字之相通，可考而知者也。其所不可知者，有若奇首可汗、胡刺可汗、蘇可汗、昭古可汗，皆遼之先，而世次不可考矣。撫其可知者，作遼世表。

として、直接の言及を避けている。時系列的な記述を採る世表においては、具体的な年代の伝えられない奇首可汗は収録のしようがなかったのである。しかし、その事實は、奇首可汗起源説の排除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元魏」の部分の後文には次の如くある。

世表/元魏	『魏書』契丹傳
<p>太武帝太平真君以來，歲致名馬。獻文時，使莫弗紇何辰來獻，始班諸國末，欣服。</p> <p>萬丹部、何大何部、伏弗郁部、羽陵部、日連部、匹絜部、黎部、吐六于部以名馬文皮來貢，得交市于和龍、密雲之間。</p>	<p>真君以來，求朝獻，歲貢名馬。顯祖時，使莫弗紇何辰奉獻，得班饗於諸國之末。</p> <p>歸而相謂，言國家之美，心皆忻慕，於是東北群狄聞之，莫不思服。</p> <p>悉萬丹部、何大何部、伏弗郁部、羽陵部、日連部、匹絜部、黎部、吐六于部等，各以其名馬文皮入獻天府，遂求為常。皆得交市於和龍、密雲之間，貢獻不絕。</p>

『魏書』契丹傳において、「悉萬丹部」以下の八部は、契丹の入貢を「聞」き、北魏への服屬を冀求した「東北群狄」であり、契丹とは別物である。ところが、世表はそのことを明示する一節を削除し、結果的に「萬丹部」以下を契丹を構成する八部として記述しているのである。營衛志においてはより直截に「古八部」の見出しを立てて、この八部を列挙した上で、

16. 景愛1984は、この改変をすでに指摘しているが、その原因を世表編纂者の疎漏に歸している点は支持できない。王民信1973（「契丹民族溯源」）は、『魏書』太祖紀「（登國三年388）五月癸亥，北征庫莫奚。六月，大破之，獲其四部雜畜十餘萬，渡弱落水」に庫莫奚のみが見えることから、この時点で契丹が初めて庫莫奚から分離したものとすが、陳述1948（第二篇「契丹民族之構成」）がつとに指摘するように、契丹傳の記述には適合しない。

17. 『魏書』契丹傳から「古八部」の存在が読み取れないことは、田村實造1938がつとに指摘している。但し、『遼史』の「古八部」創作を、「唐以後キタイの主體が八部族をもって構成されている事実から逆推」したものとする説明は不十分である。營衛志の「大賀氏八部」もなお奇首可汗起源説に基づく『遼史』の創作とすべきである。

契丹之先，曰奇首可汗，生八子。其後族屬漸盛，分為八部，居松漠之間。今永州木葉山有契丹始祖廟，奇首可汗、可敦併八子像在焉。潢河之西，土河之北，奇首可汗故壤也。

と、奇首可汗起源説を記し、また

奇首八部為高麗、蠕蠕所侵，僅以萬口附于元魏。（序文）

元魏末，莫弗賀勿于畏高麗、蠕蠕侵逼，率車三千乘、眾萬口內附，乃去奇首可汗故壤，居白狼水東。（隋契丹十部）

などにおいても、『魏書』契丹傳を引用しつつ、「奇首八部」「奇首可汗故壤」などを附加する。

そもそも、奇首可汗起源説では契丹は奇首可汗の八子に始まるのであり、従って八部は契丹史の最初から存在せねばならなかった。世表が「歸而相謂」以下の一節を削除したのは、それによって、「古八部」をいわば創出することで、奇首可汗起源説をも温存したものである*17)。

以上、冒頭部分を簡単に検討した限りでも、世表がかなり周到な配慮の下に編集されていることが了解されるであろう。世表は、基本的には正史の契丹傳に取材している。一見すれば正史の要約、切り貼りに過ぎないかのようではある。しかし、それは中國人の歴史認識、たとえば宇文部起源説にもつばら盲従することを決して意味しない。それどころか、原資料に最小限の改変を施すことによって、鮮卑起源説や奇首可汗起源説といった契丹に由來する言説を温存し、むしろ深層において、それら契丹系の認識を記述の根本に据えているのである。

結 語

筆者の當面の關心は、まずは『遼史』原資料の多様性を確認することにある。本稿の作業によって、契丹の起源説が少なくとも三系統存在し、『遼史』世表の記述がそれらをかなり巧みに整合した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三系統の起源説が提示する「過去」は本來異なるものであり、世表の提示する遼朝成立以前の契丹史には本來的な矛盾が内包されている。三系統の起源説にしても、とくに10世紀半ばによくその存在が確言される奇首可汗起源説・鮮卑起源説については、實際の契丹史の復元よりは、それらが用いられた時代における契丹人の政治的志向を正統化するための歴史認識を示すものとして扱うべきであろう。

本稿の作業の過程で獲得された所見のうち、従来さほど留意されていなかった事実として、遅くとも10世紀半ばの契丹において、宇文部起源説とは異なった鮮卑起源説が存在したことは特記に値する。本來、『周書』文帝紀は、炎帝に出自する宇文部と、黄帝に出自する拓跋部の對等性を主張するものであり、中國人の觀念において宇文部とその他の鮮卑の間に優劣があったとは思えない。契丹における鮮卑起源説の主張は、中國との關係においてではなく、むしろ北族との關係において意味が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ここで想起されるのは、契丹が、天顯元年(926)に併合した渤海である。『新唐書』渤海傳

以肅慎故地為上京、曰龍泉府、領龍・湖・渤三州、
其南為中京、曰顯德府、領盧・顯・鉄・湯・榮・興六州、
洛貊故地為東京、曰龍原府、亦曰柵城府、領慶・塩・穆・賀四州、
沃沮故地為南京、曰南海府、領沃・睛・椒三州、
高麗故地為西京、曰鴨渌府、領神・桓・豊・正四州、曰長嶺府、領瑕・河二州、
扶餘故地為扶餘府、常屯勁兵扞契丹、領扶・仙二州、

に見えるように、渤海は、その五京および扶餘府を肅慎・洛貊・沃沮・高句麗・扶餘の故地と稱していた*¹⁸⁾。きわめて興味深いことに、これらは、東北アジアに対する最初のまとまった記述であり、中国人の東北アジアに対する「常識」を規定したと思われる『三國志』烏桓鮮卑東夷傳の東夷の部分に見える夫餘・高句麗・東沃沮・挹婁・濊・韓・倭のうち韓・倭を除いた諸國を網羅している。中國に對して、渤海がこれら東北アジア諸國の統合者であることを標榜したものにほかならない。

契丹が宇文部ではなく、鮮卑に自らの起源を求めたのは、渤海のこのような姿勢に對抗し、同じく『三國志』烏丸鮮卑東夷傳に見える鮮卑を選択し、東北アジアおよび北アジアの統合者であることを標榜したものであったかと思われる。鮮卑起源説がほかならぬ耶律羽之の墓誌に初見することは決して偶然ではあるまい*¹⁹⁾。

近年における契丹文資料研究の新展開は、とりわけ契丹文によって記述された契丹人の社会が、漢文資料において記述されたそれとは時に大きく様相を異に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つつある*²⁰⁾。『遼史』など漢文資料に保存された契丹系資料は、漢文に翻譯される段階ですでに一定の改變を被っている可能性をも考慮せねばならない。『遼史』の資料的價値は大きな限界をもつものといわざるを得ないが、それでもなお、契丹史研究資料に占めるその情報量は最大であり、記述はもっとも包括的である。そのため、『遼史』の記述はいわば無意識的に契丹史に對する理解を規定し、ある場合には契丹文資料など新資料の解釋を拘束している。その限りにおいて、『遼史』の批判的研究はなお一定の有効性をもつ。本稿の作業はそうした研究の一つの可能性を示したものに他ならない。

18. この記述は、太和七年（833）～九年（835）に渤海に出兵した張建章の知見に基づくものと思われる。吉本2009参照。

19. 『遼史』耶律羽之傳「天顯元年、渤海平、立皇太子為東丹王、以羽之為中臺省右次相。」耶律羽之の家系と東丹國の關係については、愛新覺羅烏拉熙春2009cを参照。

20. 愛新覺羅烏拉熙春2006。

参考文献

- 愛新覺羅烏拉熙春2006『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
——2009a『愛新覺羅烏拉熙春女真契丹學研究』、松香堂。
——2009b「從滿文『遼史』的誤譯談起 - 以「都菴山」和「陶猥思氏族部」為中心-」、愛新覺羅烏拉熙春2009a：213-220。
——2009c「漚思涅烈家族與東丹國世選制」、愛新覺羅烏拉熙春2009a：237-246。
蔡美彪「契丹的部落組織和國家產生」、『歷史研究』1964-5/6、歷史研究編輯部編1985：20-73。
陳述1948『契丹史論證稿』、國立北平研究院史學研究所。
——1963『契丹社會經濟史稿』、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6『契丹政治史稿』、人民出版社。
方壯猷1930「契丹民族考」、『女師大學術季刊』1-2・3、楊家駱編第8冊：5-106。
馮家昇1933「契丹名號考釋」、『燕京學報』13、1933、孫進己編1988：24-71。
——1959『遼史證誤三種』、中華書局、1959。
蓋之庸2007『內蒙古遼代石刻文研究』、內蒙古大學出版社。
橋本增吉1936a「遼の建國年に就いて」、『史潮』6-1：51-86。
——1936b「舊五代史契丹傳に就いて」、『東洋史研究』2-1：36-58。
Holmgren, Jennifer 1986. “Yeh-Lü, Yao-Lien and Ta-ho: views of the hereditary prerogative in early Khitan leadership”,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 vol.34, pp.37-81。
胡鐵球・左理2003「契丹的興起與部落組織的有序化及農業的關係」、『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3-3：5-10、31。
華山・蕭國慶1958「阿保機建國以前契丹社會試探」、『文史哲』1958-6、歷史研究編輯部編1985：1-19。
賈敬顏2004『五代宋金元人邊疆行記十三種疏證稿』、中華書局。
景愛1984「契丹的起源與族屬」、『史學集刊』1984-2、孫進己編1988：19-23。
金在滿1975-76「契丹始祖開國說話의 背景과 部族의 動態에 대하여」、『大東文化研究』10：197-212・11：103-133。
李桂芝1996『遼金簡史』、福建人民出版社。
李艷陽2008「契丹始祖奇首可汗事迹考」、『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31-1：123-125。
歷史研究編輯部編1985『遼金史論文集』、遼寧人民出版社。
松井等1915「契丹勃興史」、『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137-294。
小川裕人1936「橋本增吉氏の「遼の建國年代に就いて」を讀む」、『東洋史研究』1-5：26-37。
——1937「遼の建國に就いて」、『東洋史研究』2-3：27-45。
——1938「遼室君主權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東洋史研究』3-5：1-28・3-6：42-

58·4-1 : 30-44·4-2 : 23-50。

——1940「遙輦氏傳說成立に關する史的考察」、『滿蒙史論叢』3 : 135-278。

愛宕松男1959『契丹古代史の研究』、東洋史研究会。

任愛君2004「從舍利到帝王：耶律阿保機“化家為國”的歷史背景及時代內涵」、『社會科學輯刊』2004-2 : 86-90。

——2008a「唐代契丹羈縻制度與“幽州契丹”的形成」、『中國邊疆史地研究』18-1 : 8-17。

——2008b「9世紀中後期契丹社會的組織結構與發展狀態 - 以世里氏家族研究為中心-」、『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29-6 : 42-45。

盛襄子1936「契丹源流說略」、『新亞細亞』11-3、孫進己編1988 : 8-18。

島田正郎1952『遼代社會史研究』、三和書房。

舒焚1984『遼史稿』、湖北人民出版社。

孫進己1981「契丹部落組織發展變化初探」、『社會科學輯刊』1981-4、孫進己編1988 : 995-999。

孫進己編1988『契丹史論著匯編』上、遼寧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高井康典行1994「『皇朝實錄』に見える契丹黃帝起源說の背景」、『史滴』15 : 57-60。

田村實造1938「唐代に於ける契丹族の研究—特に開國傳説の成立と八部組織に就いて-」、『滿蒙史論叢』1 : 1-86。

——1964『中國征服王朝の研究』上、東洋史研究会。

田廣林2008「契丹古八部質疑」、『社會科學戰線』2008-1 : 112-117。

津田左右吉1908「遼の制度の二重体系」、『滿鮮歷史地理研究報告』5、『津田左右吉全集』12、岩波書店、1964。

Twitchett, Deis and Tietze, Klaus-Peter 1996. “The Liao”, In Franke, Herbert and Twitchett, Denni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3-153.

王成國2001「唐代契丹民族論略」、『社會科學輯刊』2001-4 : 102-106。

——2004「論唐代契丹」、『社會科學戰線』2004-2 : 163-167。

王吉林1966「遼史世表探源」、『大陸雜誌』33-5 : 151-152。

王民信1973『契丹史論叢』、學海出版社。

Wittfogel, Karl A. and Fêng Chia-shêng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 907-1125,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蕭愛民2005a「“分三耶律為七，二審密為五”辨析—契丹遙輦氏阻午可汗二十部研究之二-」、『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26-2 : 12-15。

——2005b「關於契丹左大部與右大部 - 契丹遙輦氏阻午可汗二十部研究之三-」、『內蒙古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31-2 : 18-22。

——2005b「遼朝大賀氏考辨 - 契丹遙輦氏阻午可汗二十部研究之四-」、『內蒙古師範大

學學報』34-4：116-119。

——2006「關於契丹迭刺部的幾個問題—契丹遙輦氏阻午可汗二十部研究之一—」、「『北方文物』2006-1：70-75。

Xu, Elina-Qian 2005.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e-Dynastic Khitan, Institute for Asian and African Studies.

楊家駱1965『遼史世表長箋—遼太祖建國前一千一百年契丹史料輯考—』、中國學術史研究所。楊家駱·趙振續編『遼史長箋』、新文豐出版公司、2006。

楊家駱編1973『遼史彙編』、鼎文書局。

楊茂盛1996「試論契丹的宗族—家族鬭爭及其世選制—」、「『北方文物』1996-1：52-60。

楊樹森1984『遼史簡編』、遼寧人民出版社。

楊志玖1948「阿保機即位考辨」、「『歷史語言研究所集刊』17、孫進己編217-229。

姚從吾1951「契丹君位繼承問題的分析」、「『國立臺灣大學文史哲學報』2：81-111。

李在成1993「契丹‘古八部’聯盟의 形成과 解體」、「『東國史學』27：59-94。

——2006「‘大賀契丹’에 관한 既存 學說의 批判과 새로운 見解」、「『東洋史學研究』95：39-74。

吉本道雅2009「濊貊考」、「『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48：1-53。

張去非1964「關於契丹汗位的承襲制度」、「『歷史教學』1964-8、孫進己編1988：1000-1001。

張正明1979『契丹史略』、中華書局。

趙衛邦1958「契丹國家的形成」、「『四川大學學報』1958-2、孫進己編1988：943-964。

一 迪輦鮮質可汗與耶律玦

거린원류고

요시모토 미치마사 교토대학

서 언

요조건국이전의 거란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타자(他者)」로서의 거란을 기술한 역대정사의 거란전 등이 있지만, 5대·송 이후의 저작에는, 거란인 자신의 전승을 반영한 듯한 기술이 곳곳에 보이게 된다. 지정4년(1344)에 편찬된『요사』, 특히 그 기록·앞부분은 이따금 모순되는 이들 두 계통의 재료의 정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세표

考之宇文周之書，遼本炎帝之後，而耶律儼稱遼為軒轅後°儼志晚出，蓋從周書°

韓愈作可突干，劉昫°宋祁及唐會要皆作可突于°

泥禮，耶律儼遼史書為涅里，陳大任書為雅里，蓋遼太祖之始祖也°

耶律儼紀云，太祖四代祖耨里思為迭刺部夷離董，遺將只里姑°括里，大敗范陽安祿山于潢水，適當懷秀之世°則懷秀固遙輦氏之首君，為阻吾可汗明矣°

蕭韓家奴有言，『先世遙輦可汗注之後，國祚中絕，自夷離董雅里立阻吾可汗，大位始定°』今以唐史°遼史參考，大賀氏絕于邵固，雅里所立則懷秀也，其間唯屈列°過折二世°屈列乃可突于所立，過折以別部長為雅里所殺°唐史稱泥里為可突于餘黨，則注可汗者，殆為屈列耶？

등이지만, 편찬자의 추론을 그대로 옮긴 듯하게 그 정합이 꼭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요사』의 기술은 중국계 자료·거란계 자료 및 편찬자의 해석이 복합된 기술이어야 하지만, 편찬물에서 공통의 원 자료의 다양성과 편찬의 중층성이라는 문제는 『요사』를 사용하는 경우, 꼭 의식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는다.

『요사』에는 원 자료의 상이점을 반영한 「복수(複數)의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고 봐도 좋다. 그러한 사례의 일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본고에서는 거란의 기원에 관한 기술과 그 유래를 고찰하기로 한다.

제 1장 거란기원설의 추이

『요사』에 있어 요조이전의 거란에 관한 가장 정리가 잘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영위지 및 세표이다. 거기에는 대략 세 계통의 거란기원설이 인정된다. 복수(複數)의 거란기원설이 존재하는 것은 일찍이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¹⁾, 그들의 출현시기가 반드시 유의(留意)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거란기원설의 시대적 추이를 확인해두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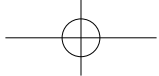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첫 번째는, 우문부기원설이다. 『위서』(천보5년 554) 우문막괴전

匈奴宇文莫槐，出於遼東塞外，其先南單于遠屬也，世為東部大人°其語與鮮卑頗異°

人皆翦髮而留其頂上，以為首飾，長過數寸則截短之°

婦女披長襦及足，而無裳焉°秋收烏頭為毒藥，以射禽獸°

1. 진술 1948(제2편 「거란민족지구성」)



는 우문부를 흉노의 후예로서 선비와의 상이점을 강조한다. 『주서』(정관10년 636)

太祖文皇帝姓宇文氏，諱泰，字黑獺，代武川人也。其先出自炎帝神農氏，為黃帝所滅，子孫遷居朔野。有葛烏菟者，雄武多算略，鮮卑慕之，奉以為主，遂總十二部落，世為大人。其後曰普回，因狩得玉璽三紐，有文曰皇帝璽，普回心異之，以為天授。其俗謂天曰宇，謂君曰文，因號宇文國，并以為氏焉。普回子莫那，自陰山南徙，始居遼西，是曰獻侯，為魏舅生之國。九世至侯豆歸，為慕容晃所滅。

도, 「선비모지, 봉이위주」라고 우문부에 대해 선비가 「타자(他者)」로서 기술되어 있으며, 확실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²⁾ 흉노후예설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³⁾

거란을 우문부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위서』

庫莫奚國之先，東部宇文之別種也。初為慕容元真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其民不潔淨，而善射獵，好為寇抄。登國三年，太祖親自出討，至弱洛水南，大破之，獲其四部落，馬牛羊豕十餘萬。…(庫莫奚傳)

契丹國，在庫莫奚東，異種同類，俱竄於松漠之間。登國中，國軍大破之，遂逃迸，與庫莫奚分背。(契丹傳)

에서 처음 볼 수 있다. 이 이후,

奚本曰庫莫奚，東部胡之種也。為慕容氏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其俗甚為不潔，而善射獵，好為寇抄。…契丹之先，與庫莫奚異種而同類，並為慕容氏所破，俱竄於松漠之間。(『隋書』；貞觀十年636)

奚本曰庫莫奚，其先東部胡宇文之別種也。初為慕容晃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俗甚不潔淨，而善射獵，好為寇抄。…契丹國在庫莫奚東，與庫莫奚異種同類。並為慕容晃所破，俱竄於松漠之間。(『北史』；顯慶四年659)

庫莫奚，聞於後魏及後周。其先，東部鮮卑宇文之別種也。初為慕容晃所破，遺落者竄匿松漠之間。其地在今柳城郡之北。其俗甚不潔，而善於射獵，好為寇抄。…契丹之先與庫莫奚異種而同類，并為慕容氏所破，俱竄於松漠之間。(『通典』；貞元十七年801)

등에서는 표현의 중복을 분명하게 『위서』의 기술을 답습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수가한⁴⁾ 기원설이다. 거란의 기원을 개조의 팔자에 요구한 언설은 범진『동제기사』(원풍년간 1078-85)

契丹之先，有一男子乘白馬，一女子駕灰牛，相遇於遼水之上，遂為夫婦。生八男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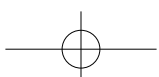
則前史所謂迭為君長者也。此事得於趙志忠。志忠嘗為契丹史官，必其真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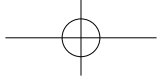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前史雖載八男子，而不及白馬灰牛事。契丹祀天，至今用灰牛白馬。予嘗書其事於『實錄·契丹傳』，王禹玉恐其非實，刪去之。予在陳州時，志忠知扶溝縣，嘗以書問其

2. 『주서』에서는 突厥傳「其俗被髮左衽，穹廬氈帳，隨水草遷徙，以畜牧射獵為務。賤老貴壯，寡廉恥，無禮義，猶古之匈奴也」처럼, 흉노가 부정적으로 기호화 되어 있어, 그 때문에 우문씨의 흉노출신을 명언하는 일이 기피되었을 것이다.

3. 원래 우문부의 속민은 선비였기 때문에, 『진서』 康帝紀「慕容皝及鮮卑帥宇文歸戰于昌黎」·慕容廆載記「涉歸有憾於宇文鮮卑」·『舊唐書』尚可孤傳「尚可孤，東部鮮卑宇文之別種也，代居松漠之間」등은, 우문부를 선비로서 기술하고 있다.

4. 기수가한에 대해서는, 愛新覺羅烏拉熙春 2009b를 참조.





八男子迭相君長時為中原何代志忠亦不能答，而云：“約是秦漢時”恐非也°

에서 처음 볼 수 있다. 기수가한에 대해서는 『요사』본기에서

(七年913六月)甲申，上登都庵山，撫其先奇首可汗遺跡，徘徊顧瞻而興歎焉。

(太祖紀)

(會同四年941二月)丁巳，詔有司編始祖奇首可汗事迹。(太宗紀)

라고 보여져, 1992년에 출토된 아을우지묘지(회동4년 941)

公諱羽之' 姓耶律氏' 其先宗分佶首' 派出石槐' 歷漢·魏·隋·唐已來世為君長⁵⁾ 에서도 「길수」로서 보여진다.

개조팔자설은, 거란이 8부 편성을 채택한 일의 설화적 표현이다. 『요사』영위지는 「고8부」「대하씨 8부」「요련씨 8부」의 표제를 세워, 북위이래의 「8부」의 존재를 주장한다. 여기에서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받은 고증을 개진하는 것은 단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본 장의 주제와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거란의 8부 편성을 명백히 한 기술이,

其君長姓大賀氏° 勝兵四萬三千人，分為八部 (『舊唐書』契丹傳；開運二年945)

契丹本姓大賀氏，後分八族：一曰利皆邸，二曰乙失活邸，三曰實活邸，四曰納尾邸，伍曰頻沒邸，六曰內會雞邸，七曰集解邸，八曰奚嗚邸 (『資治通鑑考異』後梁紀開平元年引『漢高祖實錄』；乾祐二年949⁶⁾)

其族本姓大賀氏' 後分為八部' 一曰旦利皆部，二曰乙失活部，三曰實活部，四曰納尾部，伍曰頻沒部，六曰內會雞部，七曰集解部，八曰奚嗚部 (『五代會要』；建隆二年961)

등, 10세기 중엽에 겨우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한고조실록』에 「대하씨」의 그 것으로서 초견(初見)하는 8부를 영위지가 「요련씨 8부」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거란의 8부 편성을 명언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 영위지가 「대하씨 8부」라고 하는 8부에 대해서는, 『冊府元龜』卷九百七十七/外臣部/降附

(貞觀二十二年648)十一月' 契丹帥窟哥·奚帥可度者並率其部內屬' 以契丹部為松

都督府' 拜窟哥為使持節十州諸軍事·松漠都督° 又以其別帥達稽部置峭落州' (祈)[析]紇(使)[便]部置殫汗州' 獨活部落置無逢州' 芬間部置羽凌州' 突使部置曰連州' 芮奚部置徒河州' 遂斤部置萬丹州' 伏部置疋黎·赤山二州' 各以其酋長辱紇主為刺史' 俱隸松漠焉'

이 원 자료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송막도독부에 대해 「거란부」「달계부」이하의 8부가 예속하는 9부 편성을 기술하고 있다. 영위지의 「대하씨 8부」를 근거로, 거란의 8부 편성을 주장하여, 여기에 「거란부」를 「달계부」이하의 8부의 하나로 중복하는 것으로 하는 해석⁷⁾은 적어도 이 기술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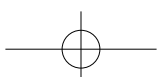
다만, 마찬가지로 『冊府元龜』卷九百七十伍/外臣部/褒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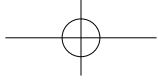
5. 蓋之庸2007°

6. 『舊五代史』漢書/隱帝紀(乾祐元年十月)癸未，監修國史蘇逢吉' 史官賈緯以所撰高祖實錄二十卷上之°

7. 타무라 시츠조우1938·아타고 마사오1959·舒焚1984

8. 『冊府元龜』卷九百七十九/外臣部/和親에서도 거의 비슷한 문장이 보인다.





(開元十二年724)三月癸酉 遣使賞絹錦八萬段 分賜奚及契丹 詔曰：公主出降蕃王，本擬安養部落，請入朝謁，深慮勞煩 朕知割恩，抑而未許，思加殊惠，以慰遠心 奚有伍部落，宜賜物三萬段 其中取二萬段先給征行遊奕兵及百姓，餘一萬段與東光公主 饒樂王衙官 刺史縣令 契丹有八部落，宜賜物伍萬段 與燕郡公主 松漠王衙官 刺史縣令，其物雜以絹布，務令均平，給訖奏聞

은, 울우로의 공주하가시에 송막도독부의 영주를 구성하는 「8부」로의 하사가 배려된 것을 전하여, 송막도독부에 속하는 「8부」의 존재가 8부 편성의 이념적 규범화의 계기가 된 것이 쉽게 추측된다.⁹⁾

세 번째는, 우문부 이외의 선비와 동호에 관련 짓는 설이다.

편의상, 선비기원설이라고 칭하여 두겠다. 이 언설은 아울우지묘지의 「과출석괴」가 후한광화년간(178-184)에 죽은 단석괴¹⁰⁾에 언급하는 것으로 초견(初見)한다.

이 것에 호응한 것인지, 10세기 중엽 이후의 중국문헌에서는 『위서』이래 답습되어 온 우문부기원설을 이제는 직접 나타내는 것이 없어졌다. 즉,

契丹，居潢水之南，黃龍之北，鮮卑之故地，…奚國，蓋匈奴之別種也，所居亦鮮卑故地，即東胡之界也，(『舊唐書』；開運二年945)

契丹者，古匈奴之種也 代居遼澤之中，潢水南岸，南距榆關一千一百里，榆關南距幽州七百里，本鮮卑之舊地也 (『舊五代史』；開寶七年974)

契丹居潢水之南 黃龍之北 鮮卑之故地 …奚 蓋匈奴之別種 所居亦鮮卑之故地。即東胡之界也 (『唐會要』；建隆二年981)

의 가운데, 『구오대사』에서는 『위서』가 우문부를 흉노계로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인지, 거란을 「고흉노지종」이라고 하지만, 『구당서』 『당회요』에서는 거란의 기원을 직접적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아마도 『위서』가 해 · 거란을 「이종동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에 대해 「개흉노지별종」이라고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란의 흉노계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하다. 계속해서,

奚 本匈奴別種 即東胡之地 …契丹，本鮮卑之種也 居遼澤之中，潢水之南，(『五代會要』；建隆二年981)

契丹自後魏以來，名見中國 或曰與庫莫奚同類而異種 其居曰臯羅箇沒里 沒里者，河也 是謂黃水之南，黃龍之北，得鮮卑之故地，故又以為鮮卑之遺種 …奚，本匈奴之別種 (『新五代史』；皇祐五年1053)

契丹，本東胡種，其先為匈奴所破，保鮮卑山 魏青龍中，部酋比能稍桀驁，為幽州刺史王雄所殺，眾遂微，逃潢水之南，黃龍之北 至元魏，自號曰契丹 …奚亦東胡種，為匈奴所破，保烏丸山 漢曹操斬其帥蹋頓，蓋其後也 元魏時自號庫莫奚(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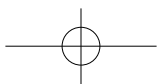
居鮮卑故地，(『新唐書』；嘉祐五年1060)

에서는 거란을 선비로 기원으로 삼는 설이 출현하고 있다.¹¹⁾

9. 일찍이 오가와 히로토1938가 지적한 듯이, 「요런세 8부」중 7부의 명칭은, 「대하세 8부」중 7부에 음운적으로 근접한다. 일찍이 송막도독부에 소속되어 있던 부락에 의한 「8부」의 재건이라고 하는 추이를 상정할 수 있다.

10. 『후한서』 烏桓鮮卑傳「光和中，檀石槐死，時年四十五」

11. 그 밖에 『동도사략』에는 「遼國 即契丹也 蓋東胡之種 在潢水之南 本鮮卑之舊地也」라고 보여진다.



특히, 『신당서』에서는 동호가 흉노에게 패하여 선비가 형성되고, 청용3년(235)의 가비능살해¹²⁾를 계기로 「황수지남, 황용지북」에 피한 것이지만, 북위에 이르러 거란을 자칭했다고 하여, 우문부기원설을 명백히 배제해, 북위이전에 대해서는 동호·선비 그 자체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10세기 중엽 이후의 중국 문헌에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우문부기원설에서부터 선비기원설로의 전환은 요조에서 창출된 선비기원설이 전파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신당서』의 기술은, 가비능살해에 의한 선비의 쇠퇴를 거란 형성의 계기로 한 것이지만, 『금사』해왕회이보전 「贊曰：庫莫奚契丹起於漢末」은, 그 후설로 후한말년에 단석괴의 죽음을 거란성립의 계기로 간주한 것일 것이다.

세표가 아울엄에게 돌아가는 황제를 거란의 기원으로 하는 설도, 마찬가지로 선비기원설에 속하는 것일 것이다. 탁발부의 시조를 황제로 하는 것은 『위서』서기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선비에서도 모용부에 대하여,

『十六國春秋』前燕錄 ¹³⁾	『晉書』慕容廆載記
慕容廆，字奕落鞬，昌黎棘城鮮卑人也。昔高辛氏遊於海濱，留少子厭越以君北夷，邑於紫濛之野。世居遼左，號曰東胡。其後雄昌與匈奴爭盛，控弦之士二十餘萬，風俗、官號與匈奴略同。秦西漢之際，為西匈奴所敗，分保鮮卑山，因復以山為號也。	慕容廆字奕洛鞬，昌黎棘城鮮卑人也。其先有熊氏之苗裔，世居北夷，邑于紫蒙之野，號曰東胡。其後與匈奴並盛，控弦之士二十餘萬，風俗官號與匈奴略同。秦漢之際為匈奴所敗，分保鮮卑山，因以為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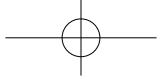
라고, 『16국춘추』전연록은 고신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진서』(貞觀二十二年646) 모용회재기는 유용씨 즉, 황제의 자손이라고 바뀌어 있다. 북위의 중원제패를 거쳐 『위서』서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선비의 개조를 황제로 하는 언설이 일반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어, 『진서』는 그에 따라 『16국춘추』의 기술을 개변한 것이다.¹⁴⁾

제 1설의 초건이 6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반해, 제2·제3설의 존재가 확인가능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10세기 중반이며, 실제 거란사를 생각하는데 있어, 이들을 제1설과 동등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들은 초건이 내릴 뿐만 아니라 내용적에서도 꽤나 불안정했던 모습이다. 원래, 아울우지묘지에서는 선비기원설을 전제로, 기수가한기원설을 기술하고 있어, 양자는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인지, 양자의 혼호(混淆)도 때로는 인정된다.

12. 『삼국지』烏丸鮮卑東夷傳「至三年中，雄遣勇士韓龍刺殺比能，更立其弟。」

13. 湯球『十六國春秋輯補』에 근거한다.

14. 타카이 야스유키(1994)는 황제기원설의 성립을 아울엄이 『실록』을 편찬한 건흥3년(1103)무렵의 대승관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아울우지묘지에 이미 선비기원설이 보여진 이상, 이 의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요사』아울갈노전 「漢人殺我祖奚首，夷離董怨次骨，日夜思報漢人」의 「해수」는 「기수」의 동음이역과 다름없지만, 이것이 한인에게 살해당했다는 기술은 기수가한과 가비능의 혼효를 시사한다.

또한, 상계의 『동재기사』에서, 범진이 「팔자(八子)」의 시대를 묻자, 조지충은 대답할 수가 없었으나, 결국 「約是秦漢時」라고 진술하고 있다. 「진한시」라고 하는 표현은 곧, 『16국춘추』의 「진한지제」에 동호가 흉노에게 패해, 선비가 성립되었다는 기술을 연상시킨다. 역측을 한다면, 아울우지묘지에서 엿보여지듯이, 요조에서는 선비기원설과 기수가한기원설이 병존하고 있으며, 조지충은 기수가한 시대에 대해 확답할 수 없었기때문에, 선비기원인 「진한시」를 대답한 것일 것이다.

제 2장 『요사』세표에서의 기원설

『요사』세표는, 역대정사의 거란전등에서 보여지는 중국계 자료와, 요대 거란인에서 유래되는 거란계 자료를 정합하여 이전의 왕조시대의 거란사의 재구축을 도모한 것이다.¹⁵⁾

전 장에서는 세 계통의 거란기원설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본 장에서는 이들이 세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요사』의 성격의 일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거란의 기원에 관한 세표의 기술은 이하의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다.

庖犧氏降，炎帝氏 黃帝氏子孫眾多，王畿之封建有限，王政之布濩無窮，故君四方者，多二帝子孫，而自服土中者本同出也°考之宇文周之書，遼本炎帝之後，而耶律儼稱遼為軒轅後°儼志晚出，蓋從周書°蓋炎帝之裔曰葛烏菟者，世雄朔陞，後為冒頓可汗所襲，保鮮卑山以居，號鮮卑氏°既而慕容燕破之，析其部曰宇文，曰庫莫奚，曰契丹°契丹之名，昉見于此°（世表/序）

漢 冒頓可汗以兵襲東胡，滅之°餘眾保鮮卑山，因號鮮卑°

魏 青龍中，部長比能稍桀驁，為幽州刺史王雄所害，散徙潢水之南，黃龍之北°

晉 鮮卑葛烏菟之後曰普回°普回有子莫那，自陰山南徙，始居遼西°九世為慕容晃所滅，鮮卑眾散為宇文氏，或為庫莫奚，或為契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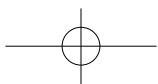
元魏 契丹國在庫莫奚東，異族同類，東部鮮卑之別支也，至是始自號契丹°為慕容氏所破，俱竄松漠之間°道武帝登國間，大破之，遂與庫莫奚分背°（世表/本文）

「漢」の部分および序文の「後為冒頓可汗所襲，保鮮卑山以居，號鮮卑氏」は『後漢書』烏桓鮮卑列傳

烏桓者，本東胡也°漢初，匈奴冒頓滅其國，餘類保烏桓山，因以為號焉°…鮮卑者，亦東胡之支也，別依鮮卑山，故因號焉°

에 근거한다. °「冒頓单于」을「冒頓可汗」으로 개변하고 있다. 「위」의 부분은 상계의 『신당서』거란전을 채택한다. 「部酋」을「部長」으로 고치고 있지만, 하문에서도, 북쪽에 대한 편의를 포함한 표현은 수시로 고쳐지고 있다. 「진」의 부분은 이것도 상계의 『주서』문제기를 인용한다.

15. 『요사』세표에 대해서는 楊家駱1965을 참조. 그 외에 전론으로서는 王吉林1966이 있다.



서문에서도 아을업지의 황제기원설을 「반출」의 이유로 물러나, 『주서』문제기의 우문씨염제기원설을 채택하고 있다. 계속해서 「진」의 부분의 말미 및 「원위」의 부분에서는 『위서』고막해전·거란전을 채택한다.

서문을 본 것만으로는 세표는 오로지 우문부기원설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검토하면, 「진」의 부분에서는 우문씨에 관한 기술을 「선비」의 그것으로서 개변하고 있으며, 게다가 「鮮卑眾散為宇文氏，或為庫莫奚，或為契丹」은 「선비」가 우문씨·고막해·거란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으로, 『위서』고막해전이 고막해를 「동부우문지별중」, 거란을 고막해의 「이종동류」로 하는, 다시말해 고막해·거란을 우문부보다 분리했다는 기술을 실은 크게 개변하고 있다.¹⁶⁾

또한 「원위」의 부분에서는 『위서』고막해전의 「동부우문지별중야」를 「동부선비지별지야」로 고치고 있다. 요컨대 세표는 우문기원설을 표방해, 그 것과의 명백한 모순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선비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수가한기원설에 대하여 세표는,

名隨代遷，字傳音轉，此其言語文字之相通，可考而知者也°其所不可知者，有若奇首可汗°胡刺可汗°蘇可汗°昭古可汗，皆遼之先，而世次不可考矣°撫其可知者，作遼世表°

로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계열적인 기술을 채택한 세표에서는 구체적인 연대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기수가한은 수록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기수가한기원설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위」의 부분의 후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世表/元魏	『魏書』契丹傳
<p>太武帝太平真君以來，歲致名馬。獻文時，使莫弗紇何辰來獻，始班諸國末，欣服。</p> <p>萬丹部、何大何部、伏弗郁部、羽陵部、日連部、匹絜部、黎部、吐六于部以名馬文皮來貢，得交市于和龍、密雲之間。</p>	<p>真君以來，求朝獻，歲貢名馬。顯祖時，使莫弗紇何辰奉獻，得班饗於諸國之末。</p> <p>歸而相謂，言國家之美，心皆忻慕，於是東北群狄聞之，莫不思服。</p> <p>悉萬丹部、何大何部、伏弗郁部、羽陵部、日連部、匹絜部、黎部、吐六于部等，各以其名馬文皮入獻天府，遂求為常。皆得交市於和龍、密雲之間，貢獻不絕。</p>

『위서』거란전에 있어 「실만단부」이하의 8부는 거란의 입공을 듣고, 북위로의 복속을 기구했던 「동북군적」이며, 거란과는 별개인 것이다. 그러나, 세표는 그 것을 명시하는 한 구절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만단부」이하를 거란을 구성하는 8부로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영위지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고8부」의 표제를 내세워, 이 8부를 열거하며,

16. 경애1984은 이 개변을 이미 지적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세표 편찬자가 빠뜨린 탓으로 하고 있는 점은 지지할 수 없다. 王民信1973(「契丹民族溯源」)는 『위서』太祖紀「(登國三年388)伍月癸亥，北正庫莫奚°六月，大破之，獲其四部雜畜十餘萬，渡弱落水」에 고막해만이 보이는 것에서, 이 시점에서 거란이 처음으로 고막해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하지만, 진술1948(제2편「거란민족지구성」)이 일찍이 지적한 것처럼 거란전의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다.

契丹之先，曰奇首可汗，生八子[°]其後族屬漸盛，分為八部，居松漠之間[°]今永州木葉山有契丹始祖廟，奇首可汗[°]可敦併八子像在焉[°]潢河之西，土河之北，奇首可汗故壤也[°]

라고, 기수가한기원설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奇首八部為高麗[°]蠕蠕所侵，僅以萬口附于元魏[°]（序文）

元魏末，莫弗賀勿于畏高麗[°]蠕蠕侵逼，率車三千乘[°]眾萬口內附，乃去奇首可汗故壤，居白狼水東[°]（隋契丹十部）

등에 있어서도 『위서』거란전을 인용하면서, 「기수팔부」「기수가한고양」등을 부가하고 있다.

원래, 기수가한기원설에서는 거란은 기수가한의 팔자(八子)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따라서 8부는 거란사의 최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표가 「귀이상이」이하의 한 구절을 삭제한 것은 그 것에 의해, 「고8부」를 말하자면 창출하는 것으로, 기수가한기원설을 보존시킨 것이다.¹⁷⁾

이상, 모두 부분을 간단히 검토하면, 세표가 상당히 주도적인 배려 하에서 편집되고 있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세표는 기본적으로는 정사의 거란전에서 취재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정사의 요약, 짜집기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 조차 하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인의 역사인식, 예를 들어 우문부기원설에 결코 전적으로 맹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원 자료에 최소한의 개편을 베푼 것에 의해, 선비기원설과 기수가한기원설이라고 하는 거란에서 유래하는 언설을 온존하며, 오히려 심층적으로, 그들 거란계의 인식을 기술의 근본으로 자리잡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어

필자의 당면의 관심은 우선 『요사』원 자료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본 고의 작업에 의해, 거란의 기원설이 적어도 세 계통이 존재하며, 『요사』세표의 기술이 그것들을 꽤나 교묘하게 정합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세 계통의 기원설이 제시하는 「과거」는 본래 다른 것이며, 세표가 제시하는 요조성립이전의 거란사에는 본래적인 모순이 내포되어있다. 세 계통의 기원설에서도 특히 10세기 중반에 겨우 그 존재가 확인되는 기수가한기원설·선비기원설에 대해서는 실제의 거란사의 복원보다는 그들이 사용되어졌던 시대에서의 거란인의 정치적 지향을 정통화시키기 위한 역사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고의 작업 과정에서 획득한 소견 가운데, 종래 그다지 유의되지 않았던 사실로써, 늦어도 10세기 중반의 거란에 있어, 우문부기원설과는 다른 선비기원설이 존재한 것은 특기(特記)라고 할만하다. 본래, 『주서』문제기는 염제의 태생인 우문부와 황제의 태생인 탁발부의 대등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중국인의 관념에 있어 우문부와 그 외의 선비의 사이에서 우열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17. 『위서』거란전에서 「고8부」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타무라 시츠조우1938이 일찍이 지적하고 있다. 다만, 『요사』의 「고8부」창작을 「당이후 키타이의 주체가 8부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역추」한 것이라고 하는 설명은 불충분하다. 영위지의 「대가씨8부」도 역시 기수가한기원설에 기초한 『요사』의 창작으로 해야 할 것이다.

거란에서의 선비기원설의 주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상기되는 것은 거란이 천현원년(926)에 병합한 발해이다. 『신당서』발해전

以肅慎故地為上京 曰龍泉府 領龍·湖·渤三州
 其南為中京 曰顯德府 領盧·顯·鉄·湯·榮·興六州
 洛貊故地為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塩·穆·賀四州
 沃沮故地為南京 曰南海府 領沃·晴·椒三州
 高麗故地為西京 曰鴨淥府 領神·桓·豊·正四州 曰長嶺府 領暇·河二州
 扶餘故地為扶餘府 常屯勁兵扞契丹 領扶·仙二州

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해는 그 5경 및 부여부를 숙신·낙맥·옥저·고구려·부여의 고지라고 칭하고 있었다.¹⁸⁾

극히 흥미로운 것으로, 이 것들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최초의 완성된 기술이며, 중국인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상식」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국지』오환선비동이전의 동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여·고구려·동옥저·읍루·예·한·왜 중에서 한·왜를 제외한 제국을 망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발해가 이들 동북아시아제국의 통합자인 것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란이 우문부가 아닌, 선비에 스스로의 기원을 요구한 것은 발해의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항하여, 마찬가지로 『삼국지』오환선비동이전에서 보이는 선비를 선택, 동북아시아 및 북아시아의 통합자인 것을 표방한 것인가로 여겨진다. 선비기원설이 다름아닌 아을우지의 묘지에서 초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¹⁹⁾

최근 거란문 자료연구의 신 전개는 특히 거란문에 의해 기술된 거란인의 사회가 한문자료로 기술된 그것과는 때때로 크게 양상을 달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⁰⁾

『요사』등 한문자료에 보존된 거란계 자료는 한문으로 번역되는 단계에서 이미 일정한 내용수정을 하고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사』의 기술은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거란사에 대한 이해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란문 자료 등 신 자료의 해석을 구속하고 있다. 그러한 이상, 『요사』의 비판적 연구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진다.

본고의 작업은 그러한 연구의 하나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18. 그 기술은 태화7년(833) ~ 9년(835)에 발해에 출사한 장건장의 지견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시모토2009 참조.

19. 『요사』아을우지전「天顯元年，渤海平，立皇太子為東丹王，以羽之為中臺省右次相」, 아을우지의 가계와 동단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愛新覺羅烏拉熙春2009c 을 참조.

20. 愛新覺羅烏拉熙春2006.

遙輦氏迪輦鮮質可汗與陶猥思迭刺部

—以契丹文『故左龍虎軍上將軍正亮功臣檢校太師只克昱敞穩墓誌』為中心—

愛新覺羅 烏拉熙春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

一. 遙輦鮮質可汗與耶律玦

「遙輦」一詞的契丹大小字標記,均已由筆者最先釋讀出來(契丹大字出現「遙輦痕德董匿葛可汗」;契丹小字出現「遙輦鮮質可汗」、「遙輦痕德董匿葛可汗」以及冠「遙輦」姓氏者數人)。這一釋讀的成功,為揭明遙輦氏在契丹王朝建立之後所處的地位及其相關問題,具有極為重要的意義。

唐天祐四年(907)正月庚寅,遼太祖即皇帝位後十天,即「詔皇族承遙輦氏九帳為第十帳。」此舉被『遼史』贊述作「遼太祖有帝王之度者三」之首項。

天顯元年(926)十一月,遼太宗即皇帝位。十二月即「詔選遙輦氏九帳子弟可任官者。」天顯四年(929)二月,復有「閱遙輦氏戶籍」之舉。此條記載,透露出遙輦氏至遲在太宗朝尚作為姓氏而存在。其他蛛絲馬跡亦有可尋:遙輦太尉謝佛留,『遼史』卷十七聖宗本紀八\太平九年(1029)又作「遙輦謝佛留」。如果不存在省文,則當是姓氏。

在遼代漢文史料中「遙輦」氏後裔多被冠以「耶律」姓氏。如:

「耶律海里,字涅刺昆,遙輦昭古可汗之裔。」『遼史』卷七十三耶律海里傳

「耶律敵刺,字合魯隱,遙輦鮮質可汗之子。」『遼史』卷七十四耶律敵刺傳

「耶律阿沒里,字蒲鄰,遙輦嘲古可汗之四世孫。」『遼史』卷七十九耶律阿沒里傳

「耶律弘古,字益訥隱,遙輦鮮質可汗之後。」『遼史』卷八十八耶律弘古傳

「耶律玦,字吾展,遙輦鮮質可汗之後。」『遼史』卷九十一耶律玦傳

「女二人。長曰渤魯里,適遙輦耶律豬兒。」漢文『蕭袍魯墓誌』(大安六年[1090])

「將軍妻曰欲混,遙輦帳燕京同知留守左僕射昝思女也。」漢文『大遼永清公主墓誌銘』(壽昌元年[1095])。昝思其人即大安四年(1088)十二月「癸未,以孟父敵穩耶律慎思為中京留守。」(『遼史』卷二十五道宗本紀五)之耶律慎思。

『金史』中「遙輦」氏亦冠以「耶律」姓氏。如:

「耶律塗山系出遙輦氏,在遼世為顯族。」『金史』卷八十二耶律塗山傳

「耶律安禮本名納合,系出遙輦氏。」『金史』卷八十三耶律安禮傳

『金史』有「遙輦昭古牙」者,載其作奚人,又曰「遼外戚」。其姓可能是「遙里」氏。

在契丹文墓誌中¹⁾,「遙輦」則明確作為姓氏出現:

(1)『奪里懶太山將軍妻永清郡主二人之墓誌』(壽昌元年[1095])

墓主奪里懶太山次女合哥娘子,所適之夫乃遙輦阿刺里²⁾。

(2)『梁國王位誌銘』(乾統七年[1107])

蕭孝誠第七子時時鄰迪烈(知玄)之第四子乙信太保之妻儼吉懶娘子,乃遙輦阿刺里龍虎之女³⁾。

在契丹文墓誌中出現的遙輦氏,其通婚對象皆為后族,其姓氏皆非「耶律」而明確記載為「遙輦」。這種漢文記述與契丹文記述之間出現的差異,表明後者沒有使用「耶律」作為皇族的統一

1. 本文所引契丹大小字墓誌的內容,皆為筆者所譯。

2.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 2009年版。p.225。

3.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 2009年版。p.257。

姓氏,正如漢文中的「蕭氏」一樣,契丹文墓誌中不僅沒有使用「蕭氏」作為與「耶律氏」通婚的各氏族姓氏的統稱,而且從未出現過與漢文「蕭」可以對應的這樣一個姓氏⁴⁾。

遼太祖受遙輦氏可汗之禪,尊遙輦氏九帳于皇族一帳之上,是故有遼一代遙輦氏位列皇族之中。漢文史料率稱遙輦氏子嗣為耶律氏,或即基于這一史實。但契丹文墓誌依然錄遙輦氏族原姓,這與『遼史』列傳不同而同于營衛志的記述。

『遼史』營衛志中/部族上:

涅里相阻午可汗,分三耶律為七,二審密為五,并前八部為二十部。三耶律:一曰大賀,二曰遙輦,三曰世里,即皇族也。二審密:一曰乙室已,二曰拔里,即國舅也。

對這一段史料有三種不同的理解:

其一是,認為「即皇族也」一句所指代的是大賀、遙輦、世里⁵⁾。

其二是,認為「即皇族也」一句所指代的僅限于世里,不同意遙輦氏屬於皇族⁶⁾。

其三是,認為大賀氏與遙輦氏在部落聯盟時期可稱作「皇族」,但在王朝時期就不再成為皇族了⁷⁾。

拋開其他史料暫且不論,先作就事論事解。「即皇族也」一句與下文「即國舅也」一句顯然為駢句,乙室已與拔里之為國舅,早已有漢文、契丹文雙方史料予以證實,則此處「即國舅也」所指代的斷不可能只是拔里,而是總擴二審密的全部。既然如此,則「即皇族也」一句所指代的也絕不會只是世里,而是涵蓋三耶律的全部。『遼史』這段記述中「皇族」的範圍,無疑是指大賀、遙輦、世里三氏。

若囿于漢文史料,迄今為止的確尚未發現有關遙輦氏屬皇族方面的記載。但從契丹文墓誌中卻可以窺見遙輦氏子嗣系于孟父房的明確記錄。

(1) 『高隱太師墓誌銘』(清寧三年[1057])

墓主高隱福留,國舅族乙室已氏。其長女畢家女,所適之夫乃孟父房鮮質可汗帳之某人⁸⁾。

(2) 『特免郭哥駙馬次妻曷魯里夫人墓誌碑銘』(大康四年[1078])

墓主特免郭哥,國舅族烏隗氏。其次妻曷魯里夫人所生長女佛留姐,所適之夫乃遙輦孟父房鮮質可汗帳之袁寧迪烈令公之子阿刺里太保⁹⁾。

根據以上兩則記事,筆者在『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中論證了遙輦鮮質可汗後裔隸屬於孟父房這一被『遼史』漏載的重要史實¹⁰⁾。

一帳三房是遼太祖即位後產生的稱謂,而三房中可見夷離董之稱,卻不見可汗之稱。奚六部

4.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2006年版。pp.17~40。

5. 傅樂煥:『遼史叢考』中華書局,1984年版。p.312。楊若薇:『遼朝政治軍事制度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1年版。p.80。

6. 劉浦江:『遼朝橫帳考』,『北大史學』第8輯,北京大學出版社。2001年。

7. 王善軍:『論遼代皇族』,『民族研究』2003年第5期。

8.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2009年版。p.25。

9.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2009年版。p.165。

10.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2006年版。p.15。

大王有稱可汗之例,但遙輦氏與奚六部又無孟父房之稱。鮮質可汗的子嗣在遼代曾隸屬於橫帳三父房的史實,只有契丹文墓誌方才透露出這一消息。

筆者在『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中曾推測『遼史』卷九十一有傳的遙輦鮮質可汗後裔耶律玦「召為孟父房做穩」,大約正是因為其房族系于孟父房之故¹¹⁾。契丹文『故左龍虎軍上將軍正亮功臣檢校太師只克昱做穩墓誌』¹²⁾(咸雍七年[1071])的問世,證實當初筆者這一推測確當無誤。墓主之字「只克」、名「昱」。即『遼史』所見耶律玦、『續資治通鑑長編』所見耶律克。「克」,余母字。但契丹語「只克」的詞首輔音為舌葉塞擦音,漢語譯音多用「只」、「直」等字表示該詞的詞首音節qj;「克」所表音的只是詞末音節ən。因此,「耶律克」很可能是漏記了「克」前面的一個譯音字。

墓誌開篇載:

胡里只契丹¹³⁾之大孝大忱只克昱做穩,乃孟父房鮮質可汗之遙輦帳之人。鮮質汗乃陶猥思迭刺部摩思摩隗石烈……¹⁴⁾四代之汗。其後痕德董霞里葛可汗將大位傳于霞瀨益石烈耶律彌里阿廬朶里¹⁵⁾太祖皇帝。太祖皇帝將先捺鉢之九遙輦帳順次排列。太宗天子皇帝嗣國,可汗之兄弟依年歲輩份以□□扎撒之號,代掌孟父。

這段記載,不見于迄今發現的所有契丹文墓誌,極具史料價值。惟其中「痕德董霞里葛可汗」之名「霞里葛」不同于另外三件契丹文墓誌所記錄的「匿葛」,當是綴字形近致誤。

由此可知,遙輦氏鮮質可汗後裔之被納入孟父房並代掌其房族政教事務,早在太宗時期。因此,遼朝皇族的構造,並非一成不變,而是如下表所示經歷了由太祖朝至太宗朝的遞變過程:

太祖朝		太宗朝
世里氏(耶律氏)	御帳 族三父帳	斡魯朶諸宮帳 皇族三父帳

		二院皇族
遙輦氏	遙輦九帳	遙輦氏→孟父房
大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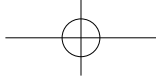
11. 拙作『契丹文墓誌より見た遼史』松香堂2006年版。p.15。

12. 本墓誌2004年出土于中國內蒙古自治區赤峰敖漢旗2009年由筆者首次譯釋全文。

13. 契丹文墓誌所見契丹國號的全稱是 Mos Diau-d Kitai Hulji Gur(大中央契丹胡里只國)或 Mos Diau-d Hulji Kitai Gur(大中央胡里只契丹國)。本墓誌的 Hulji Kitai(胡里只契丹),是略稱中的一種。

14. 此處約殘缺五個單詞。

15. 「阿廬朶里」,契丹語原型作aldor。見于『遼史』卷百十六國語解「阿廬朶里一名阿魯敦。貴顯名。遼于越官兼此者,惟曷魯耳。」『遼史』卷一太祖本紀上/神冊元年「三月丙辰,以迭烈部夷離董曷魯為阿廬朶里于越。」『遼史』卷七十三耶律曷魯傳「太祖既備禮受冊,拜曷魯為阿魯敦于越。阿魯敦者,遼言盛名也。」『遼史』卷六十六皇族表「阿魯敦于越曷魯」。是可知其有「貴顯」、「盛名」之意。從音義雙方將契丹語aldor與蒙古語aldar(盛名、榮譽)相比較,可證兩詞具有同源關係,且契丹語第二音節尚保持着較蒙古語古老的語音形式。契丹文墓誌中多處出現「門第貴顯」、「子孫貴顯」、「貴顯之位」、「貴顯之帳」、「貴顯之人」的詞組,皆為同一語詞的使用環境。然『遼史』將「阿廬朶里」等同于「阿魯敦」則為誤記。「阿魯敦」,契丹語原型作aldon,與「阿廬朶里」同根而非同一詞。「阿魯敦」專用于女性而「阿廬朶里」則專用于男性。契丹語此種同根詞後綴標示性別差異後綴-r/-n的構詞方式,尚多見于動詞和序數詞,筆者在「契丹語的性·數·格」(『東亞文史論叢』2006年第1號)及「契丹古俗“妻連夫名”與“子連父名”——再論契丹人“字”的詞性問題一」(『立命館文學』602號,2005年。收入『愛新覺羅烏拉熙春女真契丹學研究』松香堂,2009年版)有詳細的論證。



關於遙輦可汗的記事,在迄今發現的契丹文墓誌中只出現了鮮質可汗與痕德董可汗二人。

(1) 契丹大字『涅鄰劉家奴詳穩墓誌碑銘』重熙二十年(1051)

太祖皇帝自遙輦痕德董匿葛可汗承繼天位。

(2) 契丹小字『紉鄰王墓誌銘』(咸雍八年[1072])

太祖皇帝自遙輦痕德董匿葛可汗承繼大位。

(3) 契丹小字『奪里懶太山將軍妻永清郡主二人之墓誌』(壽昌元年[1095])

墓主奪里懶太山長子昕太保續弦妻欲混娘子,乃遙輦鮮質汗帳之燕京留守左僕射春思之女。

(9) 契丹小字『故顯武將軍上師居士拔里公之墓誌』¹⁶⁾(金世宗大定十五年[1175])

墓主緬隱胡烏里長子烏里只夷末里之妻阿古鄰,乃遙輦鮮質可汗帳之今(金世宗時)德州防禦鎮國馬安之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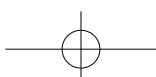
據『遼史』,遙輦氏末代可汗痕德董,立于唐天復元年(901)、殂于唐天祐三年(906)十二月。但據『五代會要』卷二十九契丹「(後梁開平二年[908]五月)前國王欽德并其大臣皆有貢獻。」¹⁷⁾此處之「欽德」即「痕德董」的同音異譯,表明其遜位兩年後尚在世,可見『遼史』所載殂年不確。「痕德董」乃其人之字,『遼史』未載其名。但契丹文墓誌三處名與字俱現,其名兩處作「匿葛」、一處作「霞里葛」。前者互見于契丹大小字墓誌,故知前者為正、後者為誤。

鮮質可汗,『新唐書』卷二百一十九北狄傳/契丹、『冊府元龜』卷九百七十二作「習爾之」;『遼史』卷六十三世表作「習爾」。據契丹文所表之音sandǰi,可知後者將詞末音節漏譯(漢文漏譯契丹人名的詞末音節者甚多,如上舉「欽德」即同例)。『遼史』卷七十四耶律敵刺傳:鮮質可汗之子耶律敵刺,于遼太祖踐祚之際「與敵穩海里同心輔政」,其父與遼太祖之父德祖當是同時代人。『遼史』卷四十五百官志一/北面諸帳官釋遙輦九帳大常袞司:「掌遙輦洼可汗、阻午可汗、胡刺可汗、蘇可汗、鮮質可汗、昭古可汗、耶瀾可汗、巴刺可汗、痕德董可汗九世宮分之事。」卷六十三世表:「契丹王習爾,是為巴刺可汗。咸通中,再遣使貢獻,部落寢強。契丹王欽德,習爾之族也,是為痕德董可汗。光啓中,鈔掠奚、室韋諸部,皆役服之,數與劉仁恭相攻。晚年政衰。八部大人,法常三歲代,迭刺部耶律阿保機建旗鼓,自為一部,不肯受代,自號為王,盡有契丹國,遙輦氏遂亡。」習爾,即鮮質的同音異譯,故知將鮮質可汗與巴刺可汗順序顛倒。

鮮質,乃其名;其字漢文史料無載;惟契丹文墓誌記作「迪輦」。關於鮮質可汗的子孫,由前引『遼史』卷七十四耶律敵刺傳、卷八十八耶律弘古傳、卷九十一耶律玦傳可知:合魯隱敵刺乃其子,統和間人益訥隱弘古、興·道間人吾展玦皆世系不明。筆者最新解讀的『故左龍虎軍上將軍正亮功臣檢校太師只克昱敵穩墓誌』(咸雍七年[1071]),正是耶律玦本人墓誌,記述了自始祖迪輦鮮質可汗以降十代人的世系。這是明確記載遙輦氏一族的史料(1993年9月出土于內蒙古自治區敖漢旗新地鄉老虎

16. 此墓誌中的「顯武將軍」曾被劉鳳翥等人錯譯作「宣武將軍」。「顯」見母字;「宣」,心母字,兩者的契丹小字表音字截然不同。金朝武散官從五品中曰「顯武將軍」,從五品下曰「宣武將軍」。一字錯譯導致墓主官階被妄降一階。

17. 『冊府元龜』卷九百七十二「(梁太祖開平元年)五月契丹國王阿保機遣使進良馬十四、金花鞍轡、貂鼠皮頭冠並裘男口一名蘇、年十歲女口一名警,年十二。契丹王妻亦附進良馬一匹、朝霞錦金花頭冠、麝香。前國王欽德亦進馬。」



溝村的『習然鎮國墓誌銘』[大定十一年(1171)]以及敖漢旗新地鄉英風溝7號墓,都有蛛絲馬跡顯示墓主有可能是遙輦氏後裔。但尚乏確證,對揭示契丹建國後遙輦可汗的本帳所屬情況及其子嗣的歷史具有彌足珍貴的價值。

墓誌載:只克昱(耶律玦、耶律克)乃迪輦鮮質可汗第八代之裔。生于聖宗開泰三年(1014),薨于道宗咸雍六年(1070)十一月二十九日夜。享年五十七歲。

遙輦氏只克昱(耶律玦·耶律克)世系表	
1	迪輦鮮質 可汗
2	鐸宛迪魯古 做穩(孟父房做穩) ¹⁸⁾
	合魯隱敵刺 奚六部吐里
3	霞馬葛 郎君
4	迪捺海里 天雲軍詳穩 ¹⁹⁾
5	丑隱三 世燭(遙輦帳世燭)
6	曷朮隱達烈里 副樞(追封使相)
7	長子: 留隱菩薩奴 都監(拜做穩。領某節度使。聖宗時居郎君孩兒班,授雲清之兵馬[都監],病故) 妻:小蓮夫人(迷里吉懿唐太師與藺氏公主之子迪烈侍中·得里勃夫人之次女)
	次子:齊隱高六 侍中
8	留隱菩薩奴 長子: 只克昱 做穩(左龍虎軍上將軍正亮功臣,孟父房做穩)
	妻:國哥(封蘭陵郡夫人。只克昱外祖父迪烈侍中之弟蒲奴太保·阿奴娘子之女)
	配偶: 胡都董(本墓誌撰者 ²⁰⁾)
	次子: 烏盧本豬糞 太尉(授觀察,孟父房都監。已故)
	齊隱高六 長子: 迪烈 令公
9	長女: 阿睦葛 娘子(適別部國舅宰相惕隱司海里郎君)
	次女: 滑哥 娘子(亡故)
	三女: 圓智只克 大師
	只克昱 長女: 烏盧本 娘子(適別部國舅只魯古只惕隱司 ²¹⁾ 胡都董鐵里鉢里太師 ²²⁾ 之次子胡都董郎君 ²³⁾)
	次女: 克石魯 娘子(未嫁)
9	三女: 阿郭 娘子(適胡都董鐵里鉢里太師之弟蒲奴隱圖古辭尚書之長子迪輦司徒 ²⁴⁾)
	四男: 構石 ²⁵⁾ 少傅(未授祇候。封父母之號)
	妻:摩散 娘子(別部國舅小翁帳鐸盧宛撻不也里將軍·阿郭娘子之女)
9	五女: 永洛 娘子(在室)

18. 此人與『遼史』卷七十四有傳的合魯隱敵刺當為兄弟,但孰者為長尚不明。

19. 此人即『遼史』卷十六聖宗本紀七/開泰七年[1018]十二月遼師伐高麗之際沒于陣的天雲軍詳穩海里。

20. 迄今為止的契丹文墓誌撰者,皆為男性。胡都董以一女性且非墓主正室而撰寫夫君墓誌在契丹文化史上極具意義。

21. 即國舅夷離畢帳。

22. 忽沒里四世孫、蒲奴隱圖古辭尚書之兄。據筆者所譯契丹小字『蒲奴隱圖尚書墓誌銘』(咸雍四年[1068])載墓主蒲奴隱圖古辭曾任遙輦做穩都監。

23. 契丹小字『蒲奴隱圖尚書墓誌銘』書丹者。

24. 據筆者所譯契丹小字『蒲奴隱圖尚書墓誌銘』,墓主蒲奴隱圖古辭與妻殿八公主生育二男五女:長子迪輦司徒、次子阿古郎君、長女菩薩女娘子、次女官奴、三女徐氏女、四女彌勒女、五女冬哥。

10	構石 長子：吉里吉
	次子：馬思古

墓主略歷如下：

聖宗開泰三年(1014)生。

興宗重熙二年(1033)二十整 補雲軍內。

重熙四年(1035)二十二歲 獲祇候位。

重熙五年(1036)二十三歲 預修起居注事,補印牌司郎君。二十歲中,轉通進。

重熙十二年(1043)左院通進某使。

重熙十四年(1045)南院承旨,知轉運某事。是年,母夫人故去。南院同知。發病。至斡魯朶,再改外。回任某都太保。文班太保。承敕同知崇聖。封小將軍。南京統軍都監。某都太保。惕隱司都監。預興宗陵寢事。道宗即位,復任文班太保。授觀察。再領某節度使,實知某都林牙事。居西京西南關口。總領太皇太后陵寢事。授上將軍²⁶⁾。副樞之職。

道宗清寧五年(1059)出使宋國²⁷⁾。回遷西南招討都監上將軍,南京之同簽。同年應召,除南院林牙,至第二年使居林牙之職。

清寧八年(1062)與秦國大王²⁸⁾同知(遼)興軍之事,地方之事,製作銘頌。

清寧十年(1064)加檢校太尉,除漢兒副樞。

咸雍元年(1065)序次,封二字功臣,守太子少傅。同年總領部署職。

咸雍二年(1066)冬,秦國王為西京之留守²⁹⁾,使任副樞,居通判之職。

咸雍三年(1067),加左龍虎軍上將軍,任通判。加檢校太師。食邑二千五百,食實封二百五十。至斡魯朶,除北院副樞。承敕知郎君孩兒班。膺契丹品五、漢兒品五。

咸雍四年(1068)秋。聖神殿帳汗召諸官。再任副樞。掌國部族之事。十二月,為做穩。南京之留守。

咸雍五年(1069)冬,總兵官。同任樞密諸官。

咸雍六年(1070)冬,十一月二十九日病。是夜二更薨。同年十二月,安厝于北院今之邊境。

咸雍七年(1071),八月二十日,夫人、構石同子吉里吉、馬思古、配偶胡都董、姊妹阿陸葛娘子、大師、女兒烏盧本、克石魯、阿郭以及雙方親屬會葬。奉夫太師之靈柩于北院某地掩閉。

對比『遼史』卷九十一耶律玦傳,可以做出多處增補訂正。茲在維持傳文原貌的基礎上,依據墓誌記載增訂若干文字置于括號內。

25. 此名或可能是漢語「狗屎」的譯音。契丹人有名「驢糞」、「豬糞」者,但「狗屎」之名尚未見。暫音譯作「構石」。

26. 此「上將軍」據『續資治通鑑長編』卷百八十九宋仁宗嘉祐四年(乙亥,1059)夏四月條可知,乃右監門衛上將軍。

27. 『續資治通鑑長編』卷百八十九宋仁宗嘉祐四年(乙亥,1059)夏四月「契丹國母遣右監門衛上將軍耶律克,起居郎、知制誥王觀、契丹遣彰聖軍節度使蕭拱崇、祿卿馬堯咨來賀乾元節。」

28. 秦國大王即道宗幼弟弘世(阿璉)。漢文『皇弟秦越國王耶律弘世墓誌』(大安三年:「皇上嗣位之四載,授守太尉、兼中書令、秦國王、判中丞司事。六年,授上京留守、判臨潢府尹事。八年,改授判遼興軍節度使事。」)是可知耶律玦同知(遼)興軍節度使事,在清寧八年。契丹文墓誌未系年月。又弘世秦國王之封,『遼史』系在清寧二年,弘世本人墓誌則在四年。

29. 秦國王弘世任西京留守,漢文『皇弟秦越國王耶律弘世墓誌』系于咸雍六年,與契丹文墓誌的記載(咸雍二年)相左。耶律玦于咸雍六年薨逝,故可知弘世本人墓誌記載有誤。

耶律玦，字吾展，遙輦鮮質可汗之後(遙輦氏迪輦鮮質可汗第八代之裔)。重熙初(五年)，召修國史，補符寶郎，累遷知北院副部署事。入見太后，后顧左右曰：「先皇謂玦必為偉人，果然。」(道宗嗣位，)除樞密副使，(清寧五年出使宋國，)出為西南面招討都監，歷同簽南京留守事、南面林牙。(清寧八年)皇弟秦國王(弘世)為遼興軍節度使，以玦同知使事，多所匡正。十年，復為樞密副使(加檢校太尉，除漢兒副樞)。咸雍初(元年)，(封二字功臣，守太子少傅。)兼北院副部署。(咸雍二年冬)及秦國王(弘世)為西京留守，請玦為佐，從之。歲中獄空者三，(咸雍四年十二月)召為孟父房啟穩。玦不喜貨殖，帝知其貧，賜宮戶十。嘗謂宰相曰：「契丹忠正無如玦者，漢人則劉伸而已。然熟察之，玦優于伸。」先是，西北諸部久不能平，上遣玦問狀，執弛慢者痛繩之。(咸雍六年十一月二十九日)以酒疾卒。

二. 陶猥思迭刺部與奚王族姓氏「迭刺」

『故左龍虎軍上將軍正亮功臣檢校太師只克昱啟穩墓誌』披露出來的最為重要的信息是：鮮質可汗所屬部名「陶猥思迭刺部」與石烈名「摩思摩隗石烈」。墓誌載只克昱薨後靈柩安葬于北院某地，表明遙輦帳的摩思摩隗石烈隸屬北院，亦即五院部。『遼史』卷三十三營衛志下載「析五石烈為五院，六爪為六院」，五院部下列四石烈之名：大蔑孤石烈、小蔑孤石烈、甌昆石烈、乙習本石烈。墓誌中摩思摩隗石烈的出現，證實五院部的石烈數目並非四個而是五個。如此，則可以推測卷百十六國語解所載「五石烈即五院。非是分院為五，以五石烈為一院也。六爪。爪，百數也。遼有六百家奚，後為六院，義與五院同。」並非空穴之語，六院部很可能擁有六個石烈，只不過目前尚未出現在既存的契丹文墓誌里。

據筆者迄今的研究，證實隸屬於五院部的姓氏有：甌昆氏、布猥氏、遙輦氏(其中布猥帳所屬石烈尚不明)。隸屬於六院部的姓氏有：耶律氏、蔑古乃氏、拔里氏。如下表所示

五院部		六院部	
大蔑孤石烈		轄懶(霞瀨益)石烈	耶律彌里
小蔑孤石烈		阿速石烈	
甌昆石烈	甌昆宰相帳	斡納撥石烈	蔑古乃彌里
乙習本石烈		斡納阿刺(溫納何刺)石烈	拔里氏
摩思摩隗石烈	遙輦可汗帳		

隨著今後契丹文字資料的不斷出現，將會填補所屬不明的氏族、彌里以及六院部可能存在的另外兩個石烈的名稱。

在天贊元年(922)太祖分置五、六院之前，遙輦帳的摩思摩隗石烈、世里氏的霞瀨益石烈皆屬同一部內。這個部，『遼史』卷一太祖本紀上稱之為「契丹迭刺部」：

太祖大聖大明神烈天皇帝、姓耶律氏、諱億、字阿保機、小字啜里只、契丹迭刺部霞瀨益

石烈鄉耶律彌里人。

然而契丹文墓誌則作：

tois dælqa nio'ur hiarai firə jalut miri
陶猥思迭刺部霞瀨益石烈耶律彌里

首二詞tois dælqa是太祖出身部之名，亦即「陶猥思迭刺」。

tois即『契丹國志』所云「陶猥思」³⁰的契丹語原型，與意為「塵土」的蒙古書面語togoso(口語to:s)、達斡爾語to:s、布利亞特語to:h、撒拉語doz、維吾爾語tozan)同源，所以漢語將「陶猥思河」意譯作「土河」。陶猥思河即世里河之北段，故又名北世里河(『契丹國志』作「北乜里沒里」。「乜」是「世」之誤；「沒里」，契丹語之「河」)，即今自西北至東南斜瓦內蒙古自治區阿魯科爾沁旗境內的哈黑爾河。契丹先祖世居陶猥思河畔，所以取該河之名作為部族之徽稱。

dælqa詞根部位的dæl，契丹大小字皆用兼具「南」、「腹」二義的表意字表示。筆者最初根據蒙古語具有相近語音形式的emune/hebeli二詞將其構擬做həməl。現根據最新解讀的複數表音字組合形式，重新構擬做dæl。dælqa，是詞組dælqar(本義：腹[dæl]+手[qar])的同根詞，即以dæl為詞根後續名詞性構詞後綴qa。契丹語的dælqar可譯作漢語的「宗室、宗親」，但在意義上則大有異趣。它一方面用於指稱二院皇族、亦即遠支皇族；一方面又表示遼太祖先祖習輦涅里與遙輦氏阻午可汗的關係，『遼史』曰「宗室」、契丹文墓誌則記之為dælqar。以dæl為詞根的派生體詞，如dælhan、dælhai、dælhar、dæluqi等，皆含有與「腹」本義相關的派生意義。由此推知dælqa義近「胞族」，也可酌譯作「氏族」。tois dælqa nio'ur即「陶猥思氏族部」。但契丹語的dælqa並非意味着有共同祖先的一個氏族(clan)，它還包括屬於不同祖先的親族(sibes)在內。關於這一點，契丹文墓誌記述得很明白：析為五、六院的母體，正是tois dælqa nio'ur(陶猥思氏族部)。如上表所示，該部是以甌昆氏、布猥氏、遙輦氏、耶律氏(世里氏)、蔑古乃氏、拔里氏等多個氏族所構成，表明dælqa與元代八思巴文獻中出現的ajimaq在意義上有近似的一面³¹。『遼史』未將「陶猥思」譯出，代之以「契丹」；dælqa則音譯作「迭刺」。這就是『遼史』卷一太祖本紀上「契丹迭刺部」的由來。

但同樣的音譯「迭刺」，在契丹文中卻至少對應於三個不同的單詞。

第一，便是上舉部名dælqa。

第二，是太祖弟「迭刺」之名dirqa。該詞詞根dir，是契丹語數詞「七」的女性形；詞綴qa，是體詞構詞後綴。

第三，作為奚人姓氏的dælar(擬音據契丹大字。契丹小字有兩讀形：dælar、dæliar)在契丹文墓誌中大量出現。該姓氏一般都出現在「奚可汗帳」詞組之前，表明這是奚王族的姓氏。奚王姓氏迄今未見漢語譯音出現，但遼代北方漢語的「迭」*tia與dælar的第一音節dæ相吻合；「刺」*la與第二音節lar亦相吻合，從而可音譯作「迭刺」。

30. 『契丹國志』契丹國初興本末：「契丹之始也，中國簡典所不載。遠夷草昧，復無書可攷，其年代不可得而詳也。本其風物，地有二水。曰北乜里沒里，復名陶猥思沒里者，是其一也，其源出自中京西馬孟山，東北流，華言所謂土河是也。」

31. N. Poppe-J. R. Knueger, *The Mongolian Monuments in Hp'ags-pa Script*, p.97, Wisbaden, 1957.

需要引起注意的是:太祖弟「迭剌」之名又音譯作「迭烈哥」。「迭烈」,音譯的是詞根dir;「哥」,音譯的是詞綴qa。毋庸說,「迭烈哥」的音譯較「迭剌」更貼切于契丹語原型的讀音。與dirqa音韻結構相似的部名dælqa,也應以「迭烈哥」的形式音譯較為恰當。質言之,「迭剌」這一音譯,最為貼切者當屬不含後綴qa的奚人姓氏dælar。

『遼史』的「迭剌部」,貌似契丹文墓誌「陶猥思迭剌部」的略稱。但經詳細考證,此種將問題簡單化的解釋難以成立。首先需要明確的是:無論漢文還是契丹文,遼朝同時代資料中無一處出現「迭剌部」這一稱謂。

有學者將『張哥墓誌』³²⁾(遼興宗重熙四年[1035])所載「奚耶律太保」理解成「奚迭剌部太保」,但契丹文字的解讀結果已證明:jælut(耶律)、dælqa~dælar(迭剌)非同一詞;喻、定二母譯音用字從無互通之例(「耶」為喻母字、「迭」為定母字)。事實上,此處的「耶律」實乃官名「拽剌」³³⁾的異譯,契丹語原型作jalä。『遼史』卷四十六百官志二/北面部族官載奚六部有「奚拽剌詳穩」,墓主張哥之父具劣所任「奚王府撻纒母呵長管」與北面部族官所載奚六部「先離撻覽官」當為同一官職,父子兩代皆供職于奚王府,「拽剌太保」乃奚王府下屬官員。因此,『張哥墓誌』的「奚耶律太保」只可資補充『遼史』北面部族官的闕漏,而不能用于證明遼代漢文石刻出現過「迭剌部」。

實質上,遼太祖出身部名之所以被稱作「迭剌部」的原因就在于:第一,太祖曾就任「大迭烈府夷離董」;第二,太祖的權力基盤乃「奚迭剌部」。這大約是金代以降由誤解而產生的認識。

關於「大迭烈府夷離董」,見『遼史』卷一太祖本紀:

唐天復元年,歲辛酉,痕德董可汗立,以太祖為本部夷離董,專征討,連破室韋、于厥及奚帥轄刺哥,俘獲甚衆。冬十月,授大迭烈府夷離董人。

痕德董可汗以太祖為本部夷離董,事在唐天復元年(901)。「本部」,即太祖出身部。如上所述,太祖出身部的契丹文作:tois dælqa nio'ur(陶猥思迭剌部)。『遼史』太祖本紀在「痕德董可汗立,以太祖為本部夷離董」之後,又有「冬十月,授大迭烈府夷離董。」這個「大迭烈府」,顯然與太祖的「本部」不是一回事。太祖之所以被授予大迭烈府夷離董,是基于「連破室韋、于厥及奚帥轄刺哥,俘獲甚衆。」這一連串功績方得以晉升的。因此,大迭烈府夷離董的地位必然高于本部夷離董。按『遼史』的理解,「本部」當指「迭剌部」³⁴⁾。然而,國語解卻載:

大迭烈府 即迭剌部之府也。初,阻午可汗與其弟撒里本領之,及太祖以部夷離董即位,因強大難制,析為二院。烈、刺音相近。

32. 墓誌錄文載『滿洲金石志』與『遼代石刻文編』。

33. 『遼史』卷百十六國語解「拽剌,官名。軍制有拽剌司」。卷四十六百官志二/北面部族官「拽剌軍詳穩司。走卒謂之拽剌。」

34. 太祖本紀的「本部夷離董」在耶律曷魯傳中作「迭剌部夷離董」。傳曰:「太祖素有大志,而知曷魯賢,軍國事非曷魯議不行。會討越兀與烏古部,曷魯為前鋒,戰有功。及太祖為迭剌部夷離董,討奚部……」營衛志下:「涅刺越兀部。以涅刺室韋戶置。」可知越兀即室韋,烏古與于厥乃同音異譯。因此,太祖本紀的「本部夷離董」即「迭剌部夷離董」。

將「迭烈」與「迭刺」視為同一詞，這與太祖本紀的記述不合。並且，「烈、刺音相近」之說也不符合遼代的音譯規則。『金史』中有將「迭刺」與「迪烈(列)」混用之處，而這種混用在『遼史』的原始資料中本不存在。事實上，「大迭烈府」是與營衛志「分三耶律為七」相關者，茲不贅述。

然則部名何以使用「迭刺」，很可能在音譯過程中發生過與奚人姓氏dælar相混同的情況。

據『遼史』卷一太祖本紀上：太祖在遙輦可汗時代「為撻馬狝沙里。時小黃室韋不附，太祖以計降之。伐越兀及烏古、六奚、比沙狝諸部，克之。國人號阿主沙里。」太祖當上本部夷離董之後，「專征討，連破室韋、于厥及奚帥轄刺哥，俘獲甚衆。」可知奚是太祖征討的主要對象之一，所俘獲的衆多奚族人戶就成為陶猥思迭刺部得以不斷充實壯大的基礎。據『遼史』卷三十三營衛志下：「迭刺迭達部。本鮮質可汗所俘奚七百戶，太祖即位，以為十四石烈，置為部。」此條與太祖本紀上「先是德祖俘奚七千戶，徙饒樂之清河，至是創為奚迭刺部，分十三縣。」為同一事件，把原本是「遙輦鮮質可汗討之，俘其拒敵者七百戶，撫其降者」(卷三十三營衛志下)移花接木到德祖頭上，又將七百戶增改作七千戶以誇大德祖的「功績」。卷七十三耶律欲穩傳載：「及平刺葛等亂，以功遷奚迭刺部夷離董。」耶律欲穩祖父臺押在簡獻皇后與諸子罹難時有救助之功，所以臺押死後獲配享廟廷的榮譽。因為這層關係，太祖先命欲穩「典司近部」以遏止覬覦皇位的族人，繼平定刺葛之亂後又遷升欲穩為奚迭刺部夷離董。由此可知奚迭刺部在太祖來說是極為重要的經營對象，安排擔任該部夷離董的須擇如欲穩這般特別倚重之人。在卷九十八耶律胡呂傳中，欲穩任職夷離董的「奚迭刺部」又作「迭刺部」，可見是同一部。此外，「奚迭刺部」還見于卷九十四耶律斡臘傳，傳載：「耶律斡臘，字斯寧，奚迭刺部人。」以上幾處「奚迭刺部」，皆是耶律儼遼史被更動過程中未與「迭刺迭達部」(又作「迭達迭刺部」)統一起來之遺留物，其所指無一例外皆是由鮮質可汗俘獲的奚王迭刺氏部民所構成的新部。

因此，上引太祖本紀開篇的記述中將「迭刺部」說成是太祖出身部，與契丹文墓誌的記述相矛盾。契丹文墓誌的大量事例證實：言及太祖出身部之時，無一處將「陶猥思」略去只稱之為「迭刺」者。「迭刺」是奚王族姓氏，與太祖出身部無關。據契丹文墓誌記載：與耶律氏通婚的「審密」，迭刺氏占壓倒多數。迭刺氏在絕大多數的場合都與「奚可汗帳」詞組連寫作「迭刺奚可汗帳」，從遼興宗重熙二十年(1051)至遼天祚帝乾統八年(1108)持續出現在契丹大小字墓誌中，表明奚王帳在遼朝一代始終維持獨立的族帳。「勃魯恩可汗帳」的說法直到金朝大定年間依然存在。『遼史』載太祖弟迭烈哥圖為奚王，契丹文墓誌載其家族七度與迭刺氏通婚。迭烈哥重孫迪輦謝六的岳父，即『遼史』卷八十五有傳的蕭觀音奴³⁵，契丹文墓誌稱其作「奚可汗帳jænin大王」，明載其姓氏即「迭刺」。

迭刺氏是統轄奚六部的王族，契丹文墓誌在言及奚六部其他姓氏的場合，則使用不同于「迭刺奚可汗帳」的諸如「契丹國之六部遙里」這樣的表現。遙里，居奚六部之首，『金史』、『元史』載奚人姓氏有姚里，顯然即『遼史』遙里的同音異譯。

以上論證結果表明：金人或元人，出于誤解太祖所任「大迭烈府夷離董」一職的本義，遂將太祖本部之名訛作「迭烈部」，再與奚迭刺部的「迭刺」相混淆，從而導致「迭烈部」、「迭刺部」以重

35. 『遼史』蕭觀音奴傳「蕭觀音奴，字耶寧，奚王搭斡之孫。統和十二年，為右祗候郎君班詳穩，遷奚六部大王。」「耶寧」，即契丹語jænin的譯音。

文的形式並現于『遼史』。國語解的「大迭烈府。即迭刺部之府也。初，阻午可汗與其弟撒里本領之，及太祖以部夷離董即位，因強大難制，析為二院。烈、刺音相近。」簡直就是為更改部名一事所做的註解。

最後，關於「迭刺部」乃金代以降出自誤解的產物這一推論，從檢證『遼史』本身也可以得到旁證。

『遼史』的原資料構成包含耶律儼遼史與陳大任遼史。欲探究現在的『遼史』的哪一部分來自何者，首先需要關注的就是「世表」這一記述：

泥禮，耶律儼遼史書為涅里，陳大任書為雅里，蓋遼太祖之始祖也。

從而可以此為線索來檢證『遼史』的「涅里」「雅里」的用例：

(1) 卷三十二營衛志中「至涅里始制部族，各有分地。太祖之興，以迭刺部強熾，析為五院、六院。」

(2) 同上「當唐開元、天寶間，大賀氏既微，遼始祖涅里立迪輦祖里為阻午可汗。時契丹因萬榮之敗，部落凋散，即故有族眾分為八部。涅里所統迭刺部自為別部，不與其列。并遙輦、迭刺亦十部也。」

(3) 同上「涅里相阻午可汗，分三耶律為七，二審密為五，并前八部為二十部。三耶律：一曰大賀，二曰遙輦，三曰世里，即皇族也。二審密：一曰乙室己，二曰拔里，即國舅也。其分部皆未詳；可知者曰迭刺，曰乙室，曰品，曰楛特，曰烏隗，曰突呂不，曰捏刺，曰突舉，又有右大部、左大部，凡十，逸其二。大賀、遙輦析為，而世里合為一，茲所以迭刺部終遙輦之世，強不可制云。」

(4) 卷六十三世表「大賀氏微，別部長過折代之。過折尋滅，迭刺部長涅里立迪輦祖里為阻午可汗，更號遙輦氏。唐賜國姓，曰李懷秀。既而懷秀叛唐，更封楛落為王。而涅里之後曰耨里思者，左右懷秀。楛落至于屈戌幾百年，國勢復振。」

由此可見，「迭刺部」這一稱謂皆與「涅里」相隨伴。

與此相反我們可以發現：

(1) 卷二太祖本紀下「傳至雅里，始立制度，置官屬，刻木為契，穴地為牢。讓阻午而不肯自立。雅里生毗牒。毗牒生頰頰。頰頰生耨里思，大度寡欲，令不嚴而人化，是為肅祖。肅祖生薩刺德，嘗與黃室韋挑戰，矢貫數札，是為懿祖。懿祖生勻德實，始教民稼穡，善畜牧，國以殷富，是為玄祖。玄祖生撒刺的，仁民愛物，始置鐵冶，教民鼓鑄，是為德祖，即太祖之父也。世為契丹遙輦氏之夷離董，執其政柄。」

(2) 卷六十一刑法志上「及阻午可汗知宗室雅里之賢，命為夷離董以掌刑辟，豈非士師之官，非賢者不可為乎。」

(3) 卷六十三世表「蕭韓家奴有言，先世遙輦可汗洼之後，國祚中絕，自夷離董雅里立阻午可汗，大位始定。」

(4) 卷七十三耶律曷魯傳「會遙輦痕德董可汗歿，群臣奉遺命請立太祖。太祖辭曰：昔吾祖夷離董雅里嘗以不當立而辭，今若等復為是言，何歟？」

(5) 卷九十六蕭韓家奴傳「十三年春，上疏曰：臣聞先世遙輦可汗洼之後，國祚中絕；自夷

離董雅里立阻午，大位始定。然上世俗朴，未有尊稱。臣以為三皇禮文未備，正與遙輦氏同。後世之君以禮樂治天下，而崇本追遠之義興焉。近者唐高祖創立先廟，尊四世為帝。昔我太祖代遙輦即位，乃製文字，修禮法，建天皇帝名號，制宮室以示威服，興利除害，混一海內。厥後累聖相承，自夷離董湖烈以下，大號未加，天皇帝之考夷離董的魯猶以名呼。臣以為宜依唐典，追崇四祖為皇帝，則陛下弘業有光，墜典復舉矣。疏奏，帝納之，始行追冊玄、德二祖之禮。」

以上諸例中使用「雅里」的部分無一處出現「迭刺部」。並且，與「迭刺部長」相應的稱號無一不是「夷離董」。毋庸置疑，「夷離董」才是原始表現。

關於耶律儼，《遼史》卷二十七天祚皇帝本紀載乾統三年(1103)十一月命耶律儼纂『太祖諸帝實錄』。但是不能據此就將編纂『遼史』所利用的耶律儼的著作視為遼末的實錄。因為，天祚紀/天慶三年(1113)十二月已見「耶律儼薨」，而曆象志的閏考·朔考直至保大四年(1124)尚載「耶律儼」的見述。這一事實表明，被視作耶律儼編著、利用于『遼史』的資料，在耶律儼死後仍然在續編，從而可以懷疑金代以降其內容存在改變、加筆的可能。如果『實錄』中確實出現「迭刺部」，那麼就與遼代的漢文石刻中無一處出現「迭刺部」的事實顯然相矛盾。

因此可以這樣推測：『遼史』所謂的耶律儼遼史，並非遼末的資料，而是假託耶律儼之名的金代以降的資料群。

(1) 契丹文墓誌關於遼朝先祖的記述都來自家譜³⁶；墓誌的撰寫者多是當朝契丹文壇名士³⁷。則同時代的漢文實錄不可能與這些契丹文家譜的記述相左。因此，改變漢文部名的時間，必是在遼朝滅亡以後的某個時間。

(2) 元修『遼史』，史料來源多歧。各有各的表現形式、各有各的訴求目的。從上述「迭刺部」不見于陳大任遼史、只見于耶律儼遼史就可以斷定：改變太祖出身部名的，是以耶律儼遼史為底本之所為。對比耶律儼遼史和陳大任遼史關於遼朝先祖活動的記事——前者用「國相」而後者用「夷離董」，前者的敘述處處流露出漢儒的增潤文筆，而後者則是對遼朝先祖事蹟的平鋪直敘——就是旁證。

36. 契丹文的表現是：「依據譜牒撰寫」。

37. 如耶律良、蒲魯董、耶律固(蒲魯董之孫)、司家奴、蒲速韓陳團奴等，皆為興、道二朝的文壇名士。

以上比證結果表明：「迭剌部」不是太祖出身部的原始記錄。契丹文資料的解讀進一步明確了這一推論：

- (1)太祖出身部的契丹語原名是「陶猥思迭剌部」³⁸⁾。
- (2)析為五、六院的母體,不是「迭剌部」而是「陶猥思迭剌部」³⁹⁾。
- (3)太祖一族八代所任之夷離董不是「迭剌部夷離董」而是「陶猥思迭剌部夷離董」⁴⁰⁾。

尤其是與(3)對應的另一種「八代膺宗室之號」⁴¹⁾的表現,與『遼史』刑法志上「及阻午可汗知宗室雅里之賢,命為夷離董以掌刑辟」交相印證。

38. 見于十件契丹文墓誌(皆引自筆者的譯文):『大中央胡里只契丹國之故左龍虎軍上將軍正亮功臣檢校太師只衍昱徽穩之墓誌』(遼道宗咸雍七年[1071])、『大中央胡里只契丹國六院部蒲古只夷離董帳回里本生員墓誌』(遼道宗大康八年[1082])、『大中央胡里只契丹國耶律撒懶相公墓誌銘』(遼道宗大安八年[1092])、『大中央胡里只契丹國可汗橫帳仲父房烏盧本太尉墓誌銘』(遼道宗大安十年[1094])、『奪里懶太山將軍妻永清郡主二人之墓誌』(遼道宗壽昌元年[1095])、『大胡里只契丹國可汗橫帳惕隱司仲父房國隱寧詳穩位誌銘』(遼道宗壽昌五年[1099])、『大中央胡里只契丹國六院諸領于越孟父房窩篤宛副署位誌』(遼天祚帝乾統二年[1102])、『惕隱司孟父房蜀國王帳耶律夷里衍太保位誌』(遼天祚帝乾統三年[1103])、『惕隱司孟父房白隱太傅位誌碑銘』(遼天祚帝乾統五年[1105])、『大耶律椿特迪魯董將軍妻撻體娘子墓誌銘』(遼天祚帝天慶五年[1115])。

39. 見于筆者所譯『國隱寧詳穩位誌銘』。

40. 見于筆者所譯『白隱太傅位誌碑銘』。

41. 『耶律夷里衍太保位誌』載其先祖「八代膺宗室之號」,與之對應『白隱太傅位誌碑銘』則載「八代膺陶猥思迭剌部夷離董之號」。是可知前者的「宗室」即指後者的「陶猥思迭剌部夷離董」。太祖一族八代人世為契丹遙輦氏之夷離董,即:1.習撻涅里、2.牙新洽慎、3.懿祖、4.痕得隱帖剌、5.玄祖、6.諧領蒲古只、7.曷魯隱匣馬葛、8.敵輦巖木古。此家族與遙輦氏可汗的關係即漢文的「宗室」、契丹文的dæl qar。

거리의 특수 풍속과 습관

關樹東 中國 社會科學院

王國維先生《蒙古割記·安答》云：“《秘史》記成吉思汗、札木合幼年初作安答時，互易髀石、襍頭。及攻克蔑兒乞，又互易帶馬，重新作安答。是安答云者，必以易物為訂交條件。故《親征錄》注云：安答，交友之物。其語至確也。此亦契丹舊俗。《遼史·聖宗紀上》與斜軫於太后前易弓矢鞍馬約以為友（統和元年），又與麻都骨世勳易衣馬為好（開泰四年），與夷離畢、兵部尚書蕭榮寧定為友契，以重君臣之好（同上）。《道宗紀》阻卜酋長余古赧及愛的來朝，詔燕王延禧相結為友（大安二年）。與蒙古結安答之俗完全相似。則蒙古語中安答一語，或即自契丹語出也。”¹⁾賈敬顏先生又補充說：“《遼史》又多見‘刺血友’一稱，帝與臣下、臣下與臣下之間，皆得行之……余疑所謂刺血友，仍系‘安答’關係，是結為‘安答’者，不止于易物一事也。”並引《耶律信先傳》、《耶律弘古傳》、《耶律馬六傳》為證。²⁾本文在前賢考證的基礎上，試對遼朝皇帝結義交友作進一步的考論。

前揭賈文又列舉遼太祖與晉高祖“易袍馬約為兄弟”。據《新五代史》卷72《四裔附錄第一·契丹》（中華書局校勘本第887頁）：“梁將篡唐，晉王李克用使人聘于契丹，阿保機以兵三十萬會克用於雲州東城。置酒，酒酣，握手約為兄弟。克用贈以金帛甚厚，期共舉兵擊梁。阿保機遺晉馬千匹。”《舊五代史》卷137《外國列傳第一·契丹》（中華書局校勘本第1828頁）所記略同，如謂李克用“大具享禮，延入帳中，約為兄弟”，阿保機“賜予甚厚，留馬三千匹以答貺”。《遼史》記作“太祖以騎兵七萬會克用於雲州，宴酣，克用借兵以報劉仁恭木瓜澗之役，太祖許之。易袍馬，約為兄弟。”³⁾易物訂交習俗在我國古代北方民族中有悠久的歷史。契丹阿保機和沙陀李克用結成的純粹是政治盟友，但他們利用了北方民族舉行結義儀式結為兄弟，飲酒，握手，互易袍馬，並互贈禮物的民俗。後來，李克用之子唐莊宗李存勖“欲結契丹為援，常以叔父事阿保機，以叔母事述律後”（胡注：以晉王李克用與阿保機結為兄弟也。）⁴⁾《資治通鑑》記載後唐明宗遣供奉官姚坤告哀于契丹，阿保機聞聽莊宗為亂兵所害，慟哭曰：“我朝定兒也……”《資治通鑑》接着解釋說：“虜言‘朝定’，猶華言朋友也。”⁵⁾阿保機謂唐莊宗李存勖是他的“朝定兒”，就是因為他和李克用是結義兄弟，所謂“晉王與我約為兄弟，河南天子，即吾兒也”。⁶⁾而實際上他們的政治同盟早在李克用生前就破裂了。“朝定”一詞可能來源於回鶻語。伯希和敦煌寫本第3016號背面（P.3016V）《△乙致令公狀》（《天成二年〈927年〉慕容歸盈致曹議金狀》）記載沙、瓜、甘三州同時遣使入京朝貢，沙州使團隨員張員進與甘州回鶻使團的副使是“朝定”關係，因而他對甘州回鶻的消息比較靈通。這種“朝定”關

1. 《觀堂集林》卷16《史林八》，第814頁，第三冊，中華書局，1959年6月。

2. 賈敬顏：《民族歷史文化萃要》三五《刺血友——“安答”》，第68—69頁，吉林教育出版社，1990年7月。

3. 《遼史》卷一《太祖本紀上》唐天復五年十月，第1冊第2頁，中華書局校勘本。

4. 《資治通鑑》卷269後梁均王貞明二年（916年）十二月末條，第8810頁，中華書局校勘本。

5. 《資治通鑑》卷275後唐明宗天成元年（926年）七月壬申條，第8989頁。《說郛》卷21引宋人楊伯喈《臆乘》：“朝定：契丹主聞唐莊宗為亂兵所害，哭曰：‘我朝定死也。’虜言‘朝定’，猶華言‘朋友’也。”賈敬顏先生在《契丹文》一文中認為“朝定”就是漢語“朝廷”的音譯，見中國民族古文字研究會編《中國民族古文字》第85—108頁。參見孫伯君、聶鴻音著《契丹語研究》第二章《詞語匯考》對“朝定”的考釋，第55頁，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年8月。蔣禮鴻先生著《敦煌變文字義通釋》認為敦煌變文中的“朝庭”“朝廷”本指處所，引申為同朝的朋友，詞義擴及一般的朋友；後來他徵引《資治通鑑》卷275的“朝定”一詞，訂正解釋“朝庭”“朝廷”就是“朝定”，來源於契丹語。見《敦煌變文字義通釋》（六版增定本），第35頁、第614頁，上海古籍出版社，1997年。

6. 《新五代史》卷72《四裔附錄第一·契丹》，第3冊第889頁。

係就是結義朋友。⁷⁾回鶻西遷後，部分回鶻人留居契丹族中，遼太祖皇后的家族就是回鶻人後裔，契丹文化深受回鶻文化的影響，契丹語中有回鶻語外來語並不奇怪。⁸⁾

青少年時代的耶律阿保機與本家族的兄弟耶律曷魯“相與易裘馬為好”。在後來的建國大業中，耶律曷魯是阿保機最堅定的支持者，居二十一開國功臣之首。去世後，“既葬，賜名其阡（指通往墳墓的道路）宴答，山曰於越峪。”⁹⁾李桂芝教授認為契丹語“宴答”就是蒙古語的“安答”，義為“盟友”“義兄弟”。¹⁰⁾可能“宴答”（“安答”）是阿爾泰語系蒙古語族的辭彙，而“朝定”是阿爾泰語系突厥語族辭彙，契丹人同時使用“朝定”和“安答”也是可能的。“朝定”和“安答”，不是一般的朋友，而是情同手足、生死與共的結義朋友。蒙古成吉思汗早年與劄木合結為安答，他們“聽得在前老人每言語裏說，但凡做安答呵，便是一個性命般，不相捨棄，做性命的救護麼道”。¹¹⁾蒙古族同宗同族之人也可以結為“安答”即結義兄弟。如成吉思汗第二子察合台的後人八剌與第三子窩闊台的後人海都彼此結成安答，他們的子孫彼此都以“安答”相稱。¹²⁾《遼史》卷73《耶律欲穩傳》記載：“後諸帝以太祖之與欲穩也為故，往往取其子孫為友。”賈敬顏先生據此認為“必太祖與欲穩為‘安答’，而後諸帝以是為例，與欲穩子孫世世為友”。¹³⁾可見，契丹、蒙古都有子孫世代為“安答”的情況。

契丹統治者與番、漢官員主要靠中原王朝的一套天命觀、忠孝觀、皇權至上等思想觀念維持君臣名分。對於剛剛跨出部落聯盟時代的契丹人，皇權至上和忠君的觀念尚待強化。遼朝皇帝借助本民族結義互助的習俗來增強臣下對皇帝的效忠，強化皇權，鞏固自己的統治地位，無疑是明智的選擇。如遼穆宗於世宗被弒後即位，皇族內部覬覦皇位者蠢蠢欲動，皇位朝不保夕，他為捍衛皇位採取的一項舉措就是與侍衛大臣耶律夷臘葛結為“布衣交”，在君臣關係之外加上一層結義朋友的關係，建立起一種親密無間、生死與共的私交，“一切機密事必與之謀”。¹⁴⁾穆宗幸夷臘葛私第宴飲，賞賜他金銀、名馬、牧地、宮戶，這裏穆宗大概已經拋開君臣關係，而是沿用契丹族民間結義朋友之間交往的慣例。¹⁵⁾穆宗於秋捺鉢讓夷臘葛射殺只有皇帝才能射獵的一種歧角鹿，也是用溫情脈脈的結義關係和夷臘葛射獵遊玩。

7. 詳見楊寶玉、吳麗娛：《P3016V<ム乙致令公狀>考釋》，《敦煌研究》2006年第3期。

8. 參見楊富學：《回鶻語文對契丹的影響》，《民族語文》2005年第1期。

9. 《遼史》卷73《耶律曷魯傳》。

10. 見白壽彝主編《中國通史》第七卷《中古時代五代遼宋夏金時期（下）》丁編傳記第十六章第一節“耶律曷魯傳”，第1275頁注③，上海人民出版社，1999年。孫伯君、聶鴻音著《契丹語研究》第二章《詞語匯考》亦采此說，見該書第119頁。

11. 余大鈞譯注《蒙古秘史》，附錄：明初音寫、譯注本《元朝秘史》總譯，卷三，第117節，第541頁，河北人民出版社，2007年。

12. 拉施特《史集》第2卷，第164頁，商務印書館，1985年。詳見陳高華、史衛民著《中國風俗通史·元代卷》第十二章第四節《結義習俗》，第491—492頁，上海文藝出版社，2001年。

13. 見前揭氏著《民族歷史文化萃要》三五《刺血友——“安答”》。據《遼史》卷73本傳，耶律欲穩原為突呂不部人，其祖父台押于阿保機父輩有救難之恩，阿保機念念不忘，十分器重耶律欲穩。阿保機稱汗建置宮分，欲穩率領族人、門客最早隸屬宮分，成為“腹心部”的成員，屢立戰功。

14. 《遼史》卷78《耶律夷臘葛傳》：夷臘葛本宮分人，“應曆初，以父任入侍。數歲，始為殿前都點檢。時上新即位，疑諸王有異志，引夷臘葛為布衣交，一切機密事必與之謀。遷寄班都知，賜宮戶。”寄班都知位在殿前都點檢之下，故“數歲，始為殿前都點檢”一句應在“遷寄班都知，賜宮戶”以後。穆宗與夷臘葛定交可能在即位之初，夷臘葛尚非殿前都點檢。應歷年間宗室諸王的叛亂，見《遼史穆宗本紀》，參見卷78《蕭海瓌傳》《蕭護思傳》。

15. 史載穆宗經常連日酣飲，並多次幸近侍私第宴飲。見《遼史穆宗本紀》。這種宴飲顯然與君臣間的曲宴不同，屬於私人宴飲。

統和元年（983年）八月，聖宗與北院樞密使耶律斜軫“於太后前易弓矢鞍馬，約以為友”。耶律斜軫，遼朝二十一開國功臣之一、太祖阿保機族弟耶律曷魯之孫。從輩分看，聖宗是阿保機的玄孫，比斜軫小兩輩。從年齡看，聖宗是年十三歲，斜軫正值壯年，應當年長聖宗二十歲以上。從身份看，一為君，一為朝廷首輔。蕭思溫曾向景宗舉薦斜軫有經國之才，後來斜軫娶了承天太后的侄女。承天太后親自主持君臣二人的結義儀式，顯然是希望在宗親、姻親的基礎上，再借助契丹族結義互助的習俗，令斜軫忠心耿耿地輔佐聖宗。這是因為，景宗崩逝後，聖宗母子面臨嚴峻的形勢。聖宗雖是景宗長子，但遼朝尚未確立嫡長子繼承制，景宗生前未立太子。按照契丹舊俗，太祖阿保機的子孫都有資格被推舉為皇帝。遼初以來，圍繞皇位繼承的血腥鬥爭從未斷過。承天太后家族在國舅諸帳中實力相對較弱，他的父親於景宗即位後不久被人謀殺，兩個伯父也早已作古。當時的形勢是“諸王宗室二百餘人擁兵握政，盈布朝廷。后當朝雖久，然少姻援助，諸皇子幼稚，內外震恐”。¹⁶⁾外部，宋太宗統一北漢後，立志收復燕雲地區，北伐失利後正重新積聚重兵。遼景宗去世後，遼朝母寡子幼，政局不穩，給宋朝提供了可乘之機。斜軫出身六院部皇族，景宗時期歷任西南面招討使、南院大王、樞密副使，參加了乾亨（979—982年）年間的歷次對宋作戰。他在皇族中輩分高，戰功卓著，又是太后的姻親，景宗駕崩後，太后任命斜軫為北院樞密使，希望他在穩定政局，抵禦外敵中發揮中流砥柱作用。統和前期，斜軫多次掛帥（遼軍都統）出征，或隨太后出征，最終卒于南伐途中，可謂鞠躬盡瘁，死而後已。¹⁷⁾

耶律弘古，皇族孟父房，其兄耶律化哥於統和末、開泰初曾任北院樞密使。統和以來，弘古歷任朔州順義軍節度使、北面林牙、應州彰國軍節度使兼山北道兵馬都部署、奉聖州武定軍節度使，加同中書門下平章事（使相）。《遼史》本傳載：“太平六年（1026年），拜惕隱，討阻卜有功。聖宗嘗刺臂血與弘古盟為友，禮遇尤異，拜南府宰相，改上京留守。”¹⁸⁾刺臂血盟為友，契丹人俗稱“刺血友”。遼興宗與皇族仲父房的耶律瑰引為“刺血友”，“分如同氣”。瑰引早逝，其幼子耶律信先“幼養於宮”，即由遼興宗收養。¹⁹⁾賈敬顏先生解釋：“‘同氣’本謂有血緣關係之親屬，既為刺血友，則情同手足矣。”“刺血友”仍系“安答”關係。²⁰⁾耶律弘古與同為孟父房楚國王後裔的耶律馬六也是“刺血友”。耶律弘古任惕隱時，薦舉耶律馬六補宿直官，反映了盟友間政治上互相幫助的事實。從傳文看，聖宗與弘古結為刺血友，是對他的戰功和政績的褒獎；這種盟友關係使他獲得異常的禮遇，並晉升北面宰相。

開泰四年（1015年），聖宗“與夷離畢、兵部尚書蕭榮寧定為交契，以重君臣之好。”²¹⁾這裏夷離畢是實職，兵部尚書是官階。遼朝的夷離畢官分左、右二員。開泰四年的左夷離畢為蕭合

16. 《契丹國志》卷18《耶律隆運傳》。

17. 參見《遼史》卷八《景宗本紀上》保寧八年六月，乾亨元年二月卷10《聖宗本紀一》統和元年八月、三年八月、四年三月、四月，卷83《耶律斜軫傳》。保寧八年六月誤記作北院大王。

18. 《遼史》卷95《耶律弘古傳》

19. 《遼史》卷90《耶律義先傳》附《耶律信先傳》。卷96《耶律仁先傳》謂出自孟父房，而據《耶律仁先墓誌》實為仲父房。《墓誌》見向南編《遼代石刻文編》第352頁，河北教育出版社，1995年。

20. 見前揭氏著《民族歷史文化萃要》三五《刺血友——“安答”》。

21. 參見《遼史》卷15《聖宗本紀六》開泰四年九月。

卓，任右夷離畢者待考。²²⁾ 蕭榮寧或者是時任右夷離畢者，或者就是蕭合卓。蕭合卓於開泰三年授左夷離畢，開泰五年四月由左夷離畢遷北院樞密使。出身於突呂不部平民家庭的蕭合卓，由吏職起家，為人“謹恪”，“明習典故，善占對。以是尤被寵渥，升北院樞密使。”他任樞密使長達9年。²³⁾ 與聖宗“定為交契”的蕭榮寧，很可能就是蕭合卓，一為漢名，一為契丹名。

遼朝皇帝又有詩友。國舅少父房的蕭勞古，“以善屬文，為聖宗詩友。”²⁴⁾ 六院部人耶律谷欲工文章，涅刺部人蕭韓家奴博覽群書，興宗與他們結為詩友。²⁵⁾ 遼景宗以來，儒學和漢文化逐漸復蘇。聖宗“幼喜書翰，十歲能詩”。²⁶⁾ 聖宗統和初期，兼任侍讀學士的翰林學士承旨馬得臣在一封奏書中說：“臣又聞二帝耽玩經史，數引公卿講學，至於日昃。故當時天下翕然嚮風，以隆文治。今陛下游心典籍，分解章句，臣願研究經理，深造而篤行之。”²⁷⁾ 聖宗統和六年，詔開貢舉，²⁸⁾ 自此到聖宗末年，大抵每年開科一次，科舉取士制度化。史稱遼朝“至景、聖間，則科目聿興，士有由下僚擢陞侍從，駢駢寵儒之美”。²⁹⁾ 儒學和漢文化對契丹貴族的吸引力日益增強。聖宗、興宗與契丹人結為詩友，正是部分契丹貴族崇尚文學的生動例證。興宗詩友耶律谷欲，聖宗統和中為本部太保，太平中官至南院大王，興宗重熙間卒，享年九十。興宗“數問治要”於這位老臣，他“多所匡建”。統和十四年入仕的涅刺部人蕭韓家奴，“少好學，弱冠入南山讀書，博覽經史，通遼、漢文字。”興宗重熙四年（1035年）遷祖州天成軍節度使，改任彰愍宮使，“帝與語，才之，命為詩友。”興宗向他詢問外任時的見聞，他借炒栗諷諫政事。後擢翰林都林牙，“自是日見親信，每入侍，賜坐。遇勝日，帝與飲酒賦詩，以相酬酢，君臣相得無比。韓家奴知無不言，雖諧謔不忘規諷。”³⁰⁾ 這種詩友間節日聚會酌酒賦詩的文化現象，盛行於燕京一帶。³¹⁾ 遼朝君臣結為詩友或受此影響。興宗命蕭韓家奴、耶律谷欲與耶律庶成編纂遙輦氏以來契丹事蹟及諸帝《實錄》，修訂禮典。蕭韓家奴還奉詔翻譯《貞觀政要》等書。³²⁾ 可見，興宗的詩友是遼朝宿儒碩德之人，實際兼有教授、侍讀、修撰、顧問、諫議之責。因為亦師亦友，他們深受皇帝寵信。蕭朴于聖宗太平年間累官北府宰相、北院樞密使，固然有其出身后族、博學多智、善知人主意等因素，但他的父親蕭勞古是聖宗詩友這個因素可能也是起了作用的。³³⁾ 由于契丹族有結義交友的習俗，我們有理由相信皇帝的詩友也屬於“安答”關係。

22. 開泰三年六月，右夷離畢蕭敵烈轉任國舅詳穩，繼任的右夷離畢無考，至五年二月耶律韓留授任右夷離畢。見《遼史》卷15《聖宗本紀六》，第175頁、178頁，參見卷88《蕭敵烈傳》。

23. 《遼史》卷81《蕭合卓傳》，參見《遼史》卷15《聖宗本紀六》開泰五年四月；卷17《聖宗本紀八》太平五年十二月。

24. 《遼史》卷80《蕭朴傳》。

25. 《遼史》卷103《文學上蕭韓家奴傳》，卷104《文學下耶律谷欲傳》。

26. 《遼史》卷10《聖宗本紀一序》。

27. 《遼史》卷80《馬得臣傳》。

28. 《遼史》卷12《聖宗本紀三》統和六年十二月。

29. 《遼史》卷103《文學列傳序》。

30. 《遼史》卷103《文學上蕭韓家奴傳》，卷104《文學下耶律谷欲傳》。

31. 《遼史》卷104《文學下王鼎傳》。

32. 《遼史》卷103《文學上蕭韓家奴傳》，參見卷104《文學下耶律谷欲傳》。

33. 《遼史》卷80《蕭朴傳》。

遼朝皇帝也有基本上不帶政治色彩的私人結義朋友。如遼興宗酷愛音樂、曲藝，宮廷宴會上，經常攜后妃“入伶人樂隊”演出，並與眾多伶人交好，“嘗與教坊使王稅輕等數十人約為兄弟，出入其家，至拜其父母”。賈敬顏先生以為“此‘兄弟’亦謂刺血友，即‘安答’也”。³⁴⁾

結義交友作為契丹族的固有習俗，普遍存在於遼代契丹族的各個階層中，並影響到其他民族。見諸記載者，大概只是遼朝皇帝結義交友——“安答”關係的一小部分。綜上所述，大致有五種情況，一種是與外族首領的政治結盟，如阿保機與李克用。遼道宗讓皇孫、燕國王延禧與阻蔔酋長“相結為友”，³⁵⁾也屬於這種情況。第二種情況是與重臣、功臣、寵臣結義，如遼太祖與耶律曷魯，遼穆宗與耶律夷臘葛，遼聖宗與耶律斜軫、耶律弘古；或與勳臣之後，如遼聖宗與世勳麻都骨結義。第三種情況是世交，如遼朝歷代皇帝與耶律欲穩後裔的結義。這兩種類型屬於皇帝對臣下的激勵機制，以結義作為褒獎功勳，鞏固君臣關係，強化皇權的手段。第四種情況是備文學顧問、詩文酬唱的詩（文）友，這與皇帝的個人愛好有一定關係，但更多地是出於文治的政治需要。第五種情況是主要出於個人興趣和愛好結成的朋友，如興宗與教坊使王稅輕等人的結義，這是最具民間色彩的結義類型。以皇族和后族為核心的契丹貴族世代把持政權是遼朝政治體制的基本特點。貴族政治建立在重視血親和姻親的基礎上。遼朝皇帝以結義交友作為血親和姻親的延伸和補充，建立對內對外的政治同盟，歸根到底是為加強君主的權力、鞏固國家政權服務的。在君臣名分和忠君觀念日益深入、君主專制制度牢固確立之後，遼朝皇帝與臣下結義交友的現象應該是趨于消失的。大康七年（1081年）十一月，道宗幸新皇后之兄、駙馬都尉蕭酬斡第，正要宴飲，宰相梁穎進諫說：“天子不可飲人臣家。”道宗遂“即還宮”。³⁶⁾皇帝在皇后娘家宴飲既已不合禮制，那麼與臣下“約為兄弟，出入其家，至拜其父母”就更不合時宜了。

34. 《契丹國志》卷8《興宗文成皇帝》重熙十五年，第83頁。賈說見前揭《民族歷史文化萃要》三五《刺血友——“安答”》。

35. 《遼史》卷24《道宗本紀四》大安二年（1086年）六月。

36. 《遼史》卷24《道宗本紀四》大康七年十一月條。參見卷100《蕭酬斡傳》。

契丹的特殊風俗習慣

關樹東 中國社會科學院

왕국유가 쓴『蒙古割記·安答』에는 ‘『秘史』記成吉思汗、札木合幼年初作安答時，互易髀石、襪頭。及攻克蔑兒乞，又互易帶馬，重新作安答。是安答云者，必以易物為訂交條件’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라『親征錄』에는 ‘安答，交友之物。其話至確也。此亦契丹舊俗’이라고 해석해 놓았다. 『遼史·聖宗紀上』에서도 ‘與斜軫於太后前易弓矢鞍馬約以為友（統和元年），又與麻都骨世勳易衣馬為好（開泰四年），與夷離畢、兵部尚書蕭榮寧定為友契，以重君臣之好’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道宗紀』에 ‘阻卜酋長余古赧及愛的來朝，詔燕王延禧相結為友（大安二年）’이라는 기록도 있다. 몽골 ‘결안답’의 습관과 유사하여 몽골어에 있는 ‘안답’이라는 단어는 거란어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¹⁾ 이에 대해 가경언은 “『遼史』又多見‘刺血友’一稱，帝與臣下、臣下與臣下之間，皆得行之……余疑所謂刺血友，仍系‘安答’關係，是結為‘安答’者，不止于易物一事也”라고 보충하고 있다. 그리고 『耶律信先傳』, 『耶律弘古傳』, 『耶律馬六傳』 등을 인용하여 논증하고 있다.²⁾ 본고에는 전학들의 논증을 바탕으로 요대에 황제 결의 교우에 대한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자 한다.

가연언은 앞의 논문에서 遼 태조와 晉 고조를 ‘易袍馬約為兄弟’했다는 기록도 나열하고 있다. 『신오대사』 72권(『四裔附錄第一·契丹』, 중화서국 교감본 p.887)에는 ‘梁將篡唐，晉王李克用使人聘于契丹，阿保機以兵三十萬會克用於雲州東城。置酒，酒酣，握手約為兄弟。克用贈以金帛甚厚，期共舉兵擊梁。阿保機遺晉馬千匹’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구오대사』 137권(『外國列傳第一·契丹』, 중화서국 교감본 p1828)에 기록된 내용과 약간 다르다. 예를 들면 이극용이 ‘大具享禮，延入帳中，約為兄弟’라고 하고 야를아보기가 ‘賜予甚厚，留馬三千匹以答貺’이라 기록하고 있다. 반면『요사』는 ‘太祖以騎兵七萬會克用於雲州，宴酣，克用借兵以報劉仁恭木瓜澗之役，太祖許之。易袍馬，約為兄弟’라고 기록하고 있다.³⁾ 물품을 교역하여 우의를 결하는 습속은 고대 북방민족에서 유고한 역사를 갖고 있다. 거란 야를아보기와 사타 이극용의 결의는 순수한 정치적인 맹우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북방 민족의 결의 의식을 활용하여 형제로 결하였고 음주, 악수, 옷과 말을 서로 교역하고 선물도 서로 교환하는 습속을 이용하였다. 이후 이극용의 아들인 후당 장종 이존욱에 대해 ‘欲結契丹為援，常以叔父事阿保機，以叔母事述律後’(호주: 以晉王李克用與阿保機結為兄弟也)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며.⁴⁾ 『자치통감』에는 後唐 명종이 공봉관 요곤을 파견하여 거란에게 애도를 표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야를아보기가 장종이 난병에게 죽은 것을 듣고 ‘我朝定兒也……’라고 말하였는데 『자치통감』은 이에 대해 “虜言‘朝定’，猶華言朋友也”라고 해석하였다.⁵⁾ 즉 야를아보기가 後唐 장종을 자기의 ‘朝定兒’로 부른 것은 야를아보기와 이극용이 결의형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실제로는 야를아보기와 이극용의 정체동맹은 이극용이 죽기 전에 이미 끝났지만 야를아보기는 “晉王與我約為兄弟，河南天子，即吾兒也”⁶⁾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朝定’이라는 용어는 아마 위구르語에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백희화 둔황사본 제3016호 뒷면에

1. 『관당집림』, 16권, 「사람8」, p.814. 제3책, 중화서국, 1959년 6월.
 2. 가경언, 『민족역사문화수요』, 35권 『차혈우—안답』, p.p.68-69. 길림교육출판사, 1990년 7월.
 3. 『요사』 1권, 「태조본기상」, 당천복오년십월, 제1책, p.2. 중화서국 교감본.
 4. 『자치통감』, 269권, 후량균왕정명2년(916년) 12월말조, p.8810. 중화서국 교감본.
 5. 『자치통감』에
 6. 『신오대사』, 72권, 『사이부록제일·거란』, 제3책, p.889.

남아있는(P.2016Y) 『ム乙致令公狀』(천성이년<927년> 모용귀영이 조의금에게 쓴 상)에 있는 기록을 보면 사, 과, 감 삼주는 동시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도에 조공하였는데 사주 사단의 수원인 장원진과 감주 사단의 부사가 ‘朝定’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감주회홀의 정보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朝定’관계는 역시 결의 친구관계이다.⁷⁾ 위구르족이 서쪽으로 이동한 후 일부 위구르인이 거란족에 남아 체류하고 있었으며 遼 태조왕후의 가족이 역시 위구르족이다. 거란문화는 위구르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란어 속에 위구르어가 있는 것을 별 이상한 것이 없다.

야를아보기는 청소년 시절 같은 가족의 형제인 야를갈노와 ‘相與易裘馬為好’의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遼를 건국할 때 야를갈노는 야를아보기의 가장 확실한 지지자로서 21명 개국공신에 첫 번째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요사』에 야를갈노가 죽은 뒤 ‘既葬, 賜名其阡 (指通往墳墓的道路) 宴答, 山曰於越峪’라는 기록이 보인다.⁸⁾ 이계지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거란어의 ‘宴答’이라는 단어가 몽고말에 ‘안답’과 같고 그의 뜻은 역시 ‘맹우’, ‘의형제’이다.⁹⁾ 아마 ‘宴答(안답)’은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의 단어이며 ‘朝定’은 알타이어계 돌궐족의 단어일 것이다. 물론 거란인이 ‘朝定’과 ‘宴答’을 동시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朝定’과 ‘宴答’은 일반의 친구관계 아닌 같이 생사할 수 있는 중요한 결의 친구관계이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 與 劄木合과 안답관계를 맺었는데 그들이 ‘聽得在前老人每言語裏說, 但凡做安答呵, 便是一個性命般, 不相捨棄, 做性命的救護麼道’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몽골에서는 동종동족 사람들과도 ‘안답’(결의형제)관계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인 察合台的 후인 八刺與와 셋째 아들인 窩闊台的 후인 海都彼此가 안답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서로 ‘안답’으로 불렸다.¹¹⁾ 『요사』73권 「야를육은전」을 보면 “後諸帝以太祖之與欲穩也為故, 往往取其子孫為友”라는 기록이 있다. 가경언도 이에 근거하여 “必太祖與欲穩為‘安答’, 而後諸帝以是為例, 與欲穩子孫世世為友”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 따라서 이런 점들을 볼 때 거란·몽골 모두 자손세대 ‘안답’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락연맹시대에서 넘어 가지 얼마 안 되는 거란인들은 황권지상과 충군의 관념을 아직까지 강화의 필요가 있었다. 遼의 황제는 번·한 관원과는 주로 중원왕조의 ‘천명관·충효관·황권지상’ 등의 사상관념을 통한 군신의 명분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朝廷의 신하들과는 거란의 민족 결의호조의 습속을 통해 황제에 대한 孝와 忠를 강요하여 황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다. 예를 들면 遼 목종이 세종을 도살한 이후 황위를 취득하였지만 황족 내부에 불안정 요소가 많고 황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목종은 황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신 야를이랍갈과 ‘보의교’관계를 맺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신관계이외에도 결의관계도

7. 양보옥 · 오려오, 『P.3016V「사을치령공상」고석』, 『돈황연구』2006제3기.

8. 『요사』, 73권, 『야를?노전』

9. 백수이 주편, 『중국통사』, 7권, 『중고시대 · 오대오송하금시기(하)』정편전기 제16장 제1절, ‘야를?노전’, p.1275. 주3, 상해인민출판사, 1999년; 손백군 · 섭홍음 저, 『거란어연구』제2장, 『사어회고』에도 이 학설을 택하다. p.119.

10. 여대균 역주, 『몽골비사』, 부록: 명초은사, 역주본 『원조비사』, 3권, 제117절, p.541. 하북인민출판사, 2007년.

11. 랍시득, 『사집』, 제2권, p.164. 상무인서관, 1985년. 또 진고화 · 사위민 합저, 『중국풍속통사 · 원대권』, 제12장제4절, 『결의습속』, pp.491-492. 상해문예출판사, 2001년.

12. 전개서, 『민족역사문화수요』, 35권, 「자혈우—안답」. 『요사』73권 본전에 “耶律欲穩原為突呂不部人, 其祖父台押于阿保機父輩有救難之恩, 阿保機念念不忘, 十分器重耶律欲穩. 阿保機稱汗建置宮分, 欲穩率領族人, 門客最早隸屬宮分, 成為腹心部的成員, 屢立戰功”이라는 기록이 있다.

있으며 친밀무간 · 같이 생사의 사인관계도 만들었다. 이는 “一切機密事必與之謀”라고 말할 수 있다. ¹³⁾ 목종이 이랍갈을 좋아해서 자택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금, 은, 말, 목지, 관호 등을 하사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목종이 이미 군신관계를 포기하였으며 거란족 민간에 있는 결의친구의 사교 관계에 의한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¹⁴⁾ 목종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랍갈에게 황제만 사살할 수 있는 기각록을 하사한 것도 역시 온정한 결의관계가 있어 이랍갈과 유완한 것이다.

통하 8년(983년) 8월, 遼 성종과 복원 추밀사 야를사진은 “於太后前易弓矢鞍馬, 約以為友”하였다. 야를사진은 遼 21명 개국공신 중 한명이며 대조 야를아보기 동족 동생인 야를갈노의 손자이다. 항렬을 보면 성종이 야를아보기의 현손이며 사진보다 2배를 어린다. 나이를 보면 성종은 당시에 13살이며 사진이 장년이고 성종보다 20살 많다. 신분으로 보면 황제와 대신의 관계이다. 소사온이 야를사진이 經國의 재능이 있음을 알고 경종에게 추천하였다. 이후에 야를사진은 승천황후의 조카딸과 결혼하였다. 승천황후가 군신 2인의 결혼식을 주관(사회)하였는데 역시 현저히 종친과 인친의 관계를 바탕으로 거란의 결의호조의 습속을 이용하여 야를사진이 충직하게 성종을 보좌할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종 사거이후 성종 모자가 어려운 형세를 직면하기 때문이다. 성종은 경종의 장자이지만 遼대에 적장자 계승제도를 아직 확정되지 않고 경종이 생전에 태자를 정하지 않았다. 거란의 습속에 따르면 대조 야를아보기의 자손들은 모두 황제로 추천된 자격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초기 이래 황위 계승을 중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승천태후 가족도 국구가족이었지만 실력이 비교적 약하는 편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경종 즉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모살되었으며 2명의 백부도 이미 죽은 뒤였다. 당시의 형세는 “諸王宗室二百餘人擁兵握政, 盈布朝廷. 后當朝雖久, 然少姻媿助, 諸皇子幼稚, 內外震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¹⁵⁾ 외부에서는 宋 태종이 북한을 통일 이후에 연운지역을 수복하는 마음을 먹어 북벌 실패 후 다시 병사들을 모으고 있었다. 遼 경종이 사거 이후 遼는 母寡子幼의 상태이며 政況이 안정되지 않아 송조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야를사진은 육원부 황족에 출신이며 경종시기에 서남면 조토사·남원대왕·수밀부사 등을 맡고 있었다. 건형년간(979-982년)에 송과의 전쟁을 참여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따라서 야를사진은 황족 중에서도 배분이 높고 전공이 현저하였다. 또한 태후의 인척이었다. 경종 사거 이후 태후는 야를사진을 복원추밀사로 임명하여 政局을 안정시키고 송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통화전기에는 야를사진이 수번 인솔자로서 출진하거나 태후의 명에 따라 출진하였다. 최종적으로 남벌의 과정에 죽었으며 “可謂鞠躬盡瘁, 死而後已”라고 말할 수 있겠다. ¹⁶⁾

야를홍고는 황족 명부방이며 그의 형인 야를화가가 통화말~개태초년에 복원추밀사를 맡고 있었다. 통화 이래 야를홍고가 삭주 순의군 절도사, 북면임아, 응주장국군 절도사 겸 산북도 명마도부서, 봉성주무정군 절도사, 가동 중서문하 평장사 등을 역임하였다. 『요사』 본재의 기록을

13. 『요사』, 78권, 「야를이랍갈전」: 夷臘葛本凶分人, “應曆初, 以父任入侍. 數歲, 始為殿前都點檢. 時上新即位, 疑諸王有異志, 引夷臘葛為布衣交, 一切機密事必與之謀. 遷寄班都知, 賜宮戶.” 寄班都知位在殿前都點檢之下, 故“數歲, 始為殿前都點檢”一句應在“遷寄班都知, 賜宮戶”以後. 穆宗與夷臘葛定交可能在即位之初, 夷臘葛尚非殿前都點檢. 應歷年間宗室諸王的叛亂, 「요사 · 목종본기」, 78원 「초해이전」과 「초호사전」을 참조.

14. 『요사 · 목종본기』, “史載穆宗經常連日酣飲, 並多次幸近侍私第宴飲”.

15. 『거란국지』, 18권, 「야를룡운전」.

16. 『요사』, 8권, 『경종본기상』; 10권 『성종본기일』; 83권, 『야를사진전』등을 참조.

보면 “太平六年(1026年), 拜陽隱, 討阻卜有功。聖宗嘗刺臂血與弘古盟為友, 禮遇尤異, 拜南府宰相, 改上京留守”라는 기록이 있다.¹⁷⁾ 즉 팔을 찔러 피로 결맹했기 때문에 이들 관계를 ‘자혈우’라고 불린다. 遼 흥종과 황족 중부방의 야를규인이 ‘자혈우’하고 ‘분여동기’를 하였다. 야를규인이 일찍 죽어 그의 막내 아들인 야를신선이 ‘幼養於宮’하여 요 흥종을 수양하였다.¹⁸⁾ 가경안은 동기의 뜻을 “有血緣關係之親屬, 既為刺血友, 則情同手足矣”로 해석하였다. ‘자혈우’는 역시 ‘안답’의 관계이다.¹⁹⁾ 야를홍고는 같은 맹부방 초국왕의 후예인 야를마육과도 역시 ‘자혈우’관계이다. 야를홍고가 양은을 임하였을 때 야를마육을 추천하여 보속직관을 담당케 한 것이 역시 맹우 간에 정치상 서로 협조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을 보면 성종과 홍고는 자혈우 관계를 맺었고 역시 그의 전공과 정적을 표장한 것이다. 이러한 맹우의 관계를 통한 그가 중요한 대우를 받았고 복면 재상을 승진하였다.

개태 4년(1015년)에 성종이 ‘與夷離畢, 兵部尚書蕭榮寧定為交契, 以重君臣之好’로 한다. 앞에 있는 이리필이 실제적인 직위이며 병부상서는 官階이다. 遼의 이리필관은 좌 · 우 양원료로 구성되었다. 개태 4년에 좌이리필은 소합탁이었지만 우이리필자는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²⁰⁾ 우이리필자는 소영녕이거나 아니면 소합탁이다. 소합탁은 개태 3년에 좌이리필을 받았고 개태 5년 4월 좌이리필에서 복원추밀사로 옮기게 되었다. 여부부 평명가족 출신인 소합탁은 일찍부터 사람에게 조심스러웠고 그에 대해 “明習典故, 善占對。以是尤被寵渥, 升北院樞密使”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는 추밀사 자리에 9년간 근무하였다.²¹⁾ 성종과 ‘定為交契’하는 소영녕은 소합탁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는 한족 이름, 또 하나는 거란족 이름이다.

遼 황제는 신우(시 친구)도 있다. 국구 소부방의 소노고는 ‘以善屬文, 為聖宗詩友’라고 하였다.²²⁾ 육원부인 야를곡육은 문장을 좋아하였으며 열탈부인 소한가노가 많은 책을 읽어 보았다. 흥종은 그들과 시우관계를 만들었다.²³⁾ 遼 경종 이래 유학과 한문화가 점차 회복되었다. 그리고 성종은 ‘幼喜書翰, 十歲能詩’²⁴⁾ 이란 기록이 있을 정도 시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성종 통화초기에 시독학사를 겸하는 한림학사인 마득신이 쓴 주서에는 ‘臣又聞二帝耽玩經史, 數引公卿講學, 至於日昃。故當時天下翕然嚮風, 以隆文治。今陛下游心典籍, 分解章句, 臣願研究經理, 深造而篤行之’라고 쓰여 있다.²⁵⁾ 성종 통화 육년에 개공거를 실시하여²⁶⁾ 때부터 성종말년까지 대략 해마다 한번 열고 과거취사는 제도화된다. 역사상에는 ‘至景、聖間, 則科目聿興, 士有由下僚擢陞侍從, 駢駢寵儒之美’라는 기록이 남아있다.²⁷⁾ 이에 따라 유학 및 한문화가 거란 귀족한테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성종 · 흥종이 시우관계를 만들었고 역시 일부 거란귀족 또한 문학을 숭상하여 시우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흥종의 시우인 야를곡육은 성종 통화중에는

17. 『요사』, 95권, 『야를홍고전』.

18. 『요사』, 90권, 『야를의선전』, 부『야를신선전』; 96권, 『야를인선전』.

19. 전개서, 『민족역사문화수요』, 35, 『자혈우—안답』.

20. 『요사』15권, 『성종본기육』, p.175 · p.178; 88권, 『소적열전』.

21. 『요사』81권, 『소합탁전』, 『요사』15권, 『성종본기육』, 개태오년사원; 17권, 『성종본기팔』, 태평오년십이월.

22. 『요사』, 80권, 『소박전』.

23. 『요사』, 103권, 『문학상 · 소한가노전』; 104권, 『문학하 · 야를곡육전』.

24. 『요사』, 10권, 『성종본기일서』.

25. 『요사』, 80권, 『마득신전』.

26. 『요사』, 12권, 『성종본기삼』, 통화육년십이월.

27. 『요사』, 103권, 『문학열전서』.

본부 태보에 태평중에는 남원태왕까지 임명되었고 홍중 종희중에 향년 90살로 죽었다. 홍중은 여러 번에 걸쳐 야를고육한테 문정하였는데 그를 ‘多所匡建’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통화14년에入仕한 열탈부인 소한가노는 ‘少好學, 弱冠入南山讀書, 博覽經史, 通遼、漢文字’이다. 홍중 종희 4년(1035년)에 조주 천성군 절도사에 천하였고 장민공사로 개임하였다. 그 또한 홍중과 시우관계를 맺었는데 홍중이 그에게 외임시의 견문을 문의하였으며 그는 ‘초를’을 통한 정사를 건언하기 하였다. 이후 한림도 임아까지 승진하였는데 그에 대해 『요사』는 自是日見親信, 每入侍, 賜坐。遇勝日, 帝與飲酒賦詩, 以相酬酢, 君臣相得無比。韓家奴知無不言, 雖諧謔不忘規諷’으로 기록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시우간의 명절에 모여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문화 현상이 연경일대에 성행하기도 하였다.²⁹⁾ 遼 군신들이 시우를 만든 것이 아마 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중이 소한가노 · 야를고육과 야를서성에게 명령하여 요런시 이래의 거란 사적과 제 황제의 『실록』을 편찬하여 예전을 수정하였다. 소한가노는 소를 받았고 『정관정요』 등의 책을 번역하였다.³⁰⁾ 그래서 이를 보면 홍중의 시우는 요조 ‘속유석덕’인 사람이며 실제로 교수 · 시독 · 수천 · 고문 · 건의 등의 책임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제의 시우는 선생과 친구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소박은 성종 태평 때에 북부재상 · 북원추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귀족출신이고 博學多智하며 선지인이었던 점도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소노고가 성종의 시우일 점도 관련이 있었다.³¹⁾ 거란족이 결의교우의 습관이 있어 우리가 황제의 시우도 ‘안답’관계에 속한 것을 믿을 수 있다.

遼 황제의 거의 정치적인 요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 친구도 있다. 예를 들면 요홍중이 음악과 설창 예술 등을 많이 좋아해서 공정 연회에 항상 후비와 같이 ‘入伶人樂隊’라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한테 갈채를 보내주라고 하였다. 그는 ‘嘗與教坊使王稅輕等數十人約為兄弟, 出入其家, 至拜其父母’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가정안은 “此‘兄弟’亦謂刺血友, 即‘安答’也”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³²⁾

결의교우는 거란족의 고유한 습속이며 보편적으로 요대 거란 각 계층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다른 민족까지도 양향을 준다.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요조 황제 결의교우인 ‘안답’관계인 부분뿐이다. 종합으로 보면 대략 5개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외족 수령과의 정치연맹이다. 예를 들면 야를아보기와 이극용이나 요도종이 황손 · 연국왕 연희보고 추포추장과 ‘상결위우’하였다.³³⁾ 이는 역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두 번째 경우는 중신 · 공신 · 총신과 결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태조와 야를갈노, 요목종과 야를이랍갈, 요성종과 야를사진 · 야를홍고 등이 있다. 또한 공신의 후예와 결의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요성종과 세훈마도골의 결의관계이다. 세 번째 경우는 세교이다. 예를 들면 요조 역대 황제가 야를고육의 후예들과 결의하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이 황제가 신하의 격려제도에 속하며 결의를 통한 공신들을 장려하여 군신관계를 공고하여 황권을 강화한 수단이다. 네 번째 경우는 문학 고문, 시가 · 음악 등을 통한 만든 친구관계이다. 이는 황제의 개인 애호와도 관계가 있지만 문치의 수구를 고려한 것도 많이 있다. 다섯 번째 경우는 개인 흥미와 애호를

28. 『요사』, 103권, 『문학상 · 소한가노전』; 104권, 『문학하 · 야를고육전』.

29. 『요사』, 104권, 『문학하 · 왕정전』.

30. 『요사』, 103권, 『문학상 · 소한가노전』; 104권, 『문학하 · 야를고육전』.

31. 『요사』, 80권, 『소박전』.

32. 『거란국지』, 8권, 『홍중문성황제』, 종희15년, p.83. 가경안, 『민족역사문화수요』, 35, 『자혈우—‘안답’』.

33. 『요사』, 24권, 『도종본기사』, 대안2년(1086년) 6월.

통한 친구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흥종이 교방사 왕예경 등과의 결의는 민간 의미가 가장 있는 결의 유형이다. 황족과 후족을 핵심으로 거란 귀족 세대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요조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귀족 정치는 혈친과 인친을 중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건립하였다. 요조 황제는 결의관계를 혈친과 인친의 보충과 연신으로 보고 있으며 대내적과 대외적인 정치 연맹을 건립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여 국가정권을 공고하는 것을 위함이었다. 군신의 명분과 충군 관념이 날로 강화하여 군주전제 제도가 견고하게 확립 이후 요조 황제와 신하의 결의교우 현상이 점차 소실되었다. 대강7년(1081년) 11월, 도종 행신황후의 오빠 · 부마도위 소수한제가 연회에 음주하였을 때 재상 양영 건언하여 ‘天子不可飲人臣家。’道宗遂“即還宮”이라고 말하였다.³⁴⁾ 황제가 황후 집에 음주하는 것이 예제와 불합하면 신하와 ‘約為兄弟, 出入其家, 至拜其父母’라는 것이 더욱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34. 『요사』, 24권, 『도종본기사』, 대강7년11월조; 100권, 『소수한전』.

遼代草原城市的興起

王明蓀 中國文化大學

一、 前言

二、 遼代前期的城市建立

三、 遼代後期的城市

四、 結語

一、 前言

人類為自然界的一部份，是生態環境中的有機組成，人類的生存與生活受自然界的影響而發生關聯，社會的物質與精神生活在不同的環境中有著不同的面貌與內涵。自然界生態環境與人類生存及生活應是處於互動而相互影響的狀態。由於自然地理的不同，生物及非生物因素亦有所不同，生存於其間的人類即有其相異的生活方式；及其社會文化等。在中國古代的文獻。《禮記·王制》中說：

凡居民財，必因天地寒煖燥濕，廣谷大川異制，民生其間者異俗，剛柔輕重，遲速異齊，五味異和，器械異制，衣服異宜。

不但說明不同的地理環境有不同的生活方式與文化，也說明能造成不同的民族性。又指出中國與蠻夷戎狄「皆有安居、和味、宜服、利用、備器，五方之民，言語不通，嗜欲不同」。這種看法表現出對不同民族的不同生活與文化有所理解，也含有一種客觀的尊重。

但以中國自居的華夏民族卻往往表現出相當強烈的夷夏觀來，不論是西周太史史伯以「親」、「頑」來分別夷夏；或者如《公羊傳》所說：「夷狄也，而亟病中國，南夷與北狄交，中國不絕若線」。夷夏觀念與攘夷運動已盛行於先秦時期，其結果是蠻夷漸被摒於華夏的外圍，而北方的長城線正是最好的寫照。《史記》上記載：「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是指秦、趙、燕三國各修其長城以拒胡。到漢初文帝時，遣使致匈奴書中說：「先帝制：長城以北，引弓之國，受命單于，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這應是指秦漢統一中國後，以長城為胡漢內外的分界，也可以說是北方夷夏的國界。自此明確地宣稱以後，大體上長城一線成為傳統中國與北方民族的界線，而因之形成農業漢族與游牧草原民族的分界，則如《禮記》上所說，生活方式、社會民族、制度文化各方面都有所相異區別的兩個天下。

兩個不同的天下，以長城分別為塞內、外之地，各有其不同的生活與文化，且稱之為農業文化與草原文化。草原文化以匈奴為例，是「隨畜牧而轉移，……逐水草遷徙，毋城郭常處耕田之業，然亦各有分地」。而後的北方草原民族，大體上生活都是如此。雖說或有極少粗淺的農業，但絕大部分仍是以漁獵游牧為主的生活，因之，「毋城郭常處耕田之業」正是草原的生活面貌。南方長城之內施行城郭州縣之制，北方長城之外則為游牧分地之制；城郭對於游牧民族而言是不能實

施且無必要的。

長城以北是中國歷史上的草原地區，即游牧民族的生聚之地，除河北、山西北部部分地方外，關外之地還包括東北地方，而主要的是指泛稱為蒙古高原的內外蒙古地方。長城線雖然有所變動，在每個歷史時代裡，仍以當時的長城為北方的國防底線，沿長城線內外多建立有軍事駐防之地，而當國勢強盛時，往往又能深入草原之地建立戰略要地及軍事鎮駐之點，如漢、唐時期最為讀史者所熟知。這些地點應是草原城鎮建立之始，不論其規模大小，其目的都是軍事國防性質，而且多為漢族朝廷所建。草原民族本身既是逐水草遷徙，似乎完全不需城郭之制，應無建立城郭的必要。從考古資料來看，由石器時代就存在的聚落遺址尚不能算是城鎮之地，而由草原民族所建立的城鎮更是無幾，有些還是沿用漢族所建的城鎮。以內蒙古為例，筆者查閱統計的結果，游牧民族在十世紀以前，只有北朝城址二座，北魏城址十九座，但北朝有漢族朝代，且北魏有沿用前朝的城鎮五座。雖然城址或有毀夷，或調查不盡，但可供參考。文獻上北魏塞外城郭當不只此數，東部東北地區、內蒙古、河西走廊的涼州至鄯善、焉耆鎮，初步估計約有七十左右縣鎮城市；其中亦不乏有沿用前朝的城鎮。

十世紀初，契丹族興起，建立以內蒙古東部為核心的草原帝國，之後東向擴展滅渤海國而有東北之地，北向領有外蒙古，南方取得燕雲十六州漢地，西北到額爾濟斯河，西南與西夏為鄰。隨著帝國擴張而有州縣城郭之制的建立。遼代州縣城除去沿用舊有如渤海、燕雲十六州地方城市外，又大量興建新城於草原之中，造成塞外城市的空前發展，而後也多為後代金、元等沿襲，影響至於明、清兩個時代，因此可說中國草原城市的興起是始於遼代。

二、 遼代前期草原城市的建立

契丹人為漁獵游牧民族，生聚於塞外偏東北地方，生活方式與歷史上北方民族類似，即如《史記》上所載匈奴的游牧生活一般，是「逐水草遷徙，毋城郭常處耕田之業」。《遼史》記載契丹的地理與生活是「并、營以北，勁風多寒，隨陽遷徙，歲無寧居」，又言：「順寒暑，逐水草畜牧」可知是如匈奴一般的游牧生活。在遼太祖耶律阿保機之前，其叔父述瀾時，在潢河（內蒙古西喇木侖河）「始置城邑」並開始有較具規模的農業生活與生產組織，可見農業與定居城市具有關聯。述瀾征伐的功績頗著，南、北方都有發展，其中征伐的對象有北方民族及漢族，對契丹草原帝國的建立已有良好的基礎，故史稱其「始興板築，置城邑，教民種桑麻，習織組，已有廣土眾民之志」。當時所築城邑數量如何，情形並不清楚，應該不只興築一個城邑而已。

在此前唐代時期，契丹人曾有城邑的記錄，《資治通鑑》中記載契丹別部孫萬榮於柳城（朝陽一帶）西北「依險築城」，留有老幼婦女、器械資材；後為突厥可汗默啜出兵「取契丹新城」。當時契丹的城邑情況不甚清楚，但卻是契丹較早所築之城。早期契丹於北朝、隋唐時，或因款塞內附，或因降附，往往為這些朝廷分配為府州來羈縻治理，約略規範其生聚之地，雖編為府州形式，但未必即如漢制的城郭之治，應僅止於以府州名號加於其部族，即使是唐代以契丹族為松漠都督府，也未必有府治的城邑，所謂「契丹州十七，府一」的記載當作如此來看。在漢制州縣名號下，契丹人的生活仍應未有城郭之制，所謂設置的府州應只是地望所在，松漠都督府當即為契

丹牙帳所在，各部的刺史州是地理上的區域，未必即如漢制的城郭。

契丹人原為傳統游牧的生活，開始有農業生活加入應是逐漸發展而來。在耶律阿保機之前，有叔父述瀾的「始置城邑」，但再早些已可看見契丹人有著農業式生活的加入。太祖阿保機之祖父勻德實（玄祖）時「始教民稼穡」，是為有規模的農耕開始，應稍有定居的生活，或為村落寨堡的聚落，既有農業定居的生活，逐漸乃有城邑的發展，故到下一代的述瀾時，就有必要「始興版築，置城邑」。契丹人自行發展的草原城市成為新的生活形態部份。當時既稱之為「城邑」，應不只是聚落似的村落，大概有木、石土等建築起的「城圍」，至少是像個城的村寨、堡寨之類，規模並不清楚，與往後的州縣城應有些差異，此有待進一步考察。

遼代草原城市興築的第一個高潮是在太祖建國前後時期，當時正值南方中原之地為唐末戰亂之時，社會動盪，而遼太祖也乘時攻略邊境，俘獲人畜物資。史載長城邊幽燕一帶的情形：

是時，劉守光暴虐，幽、涿之人多亡入契丹，阿保機乘機入塞，攻陷城邑，俘其人民，依唐州縣置城以居之。

說明華北東部長城一帶，漢人出塞依附契丹，或被俘北遷至契丹境。遼太祖以這些漢人築城來治理，開始有漢式的州縣城郭之治，而且又移民至灤河上游的炭山東南地帶，以當地有鹽鐵之利，且土地適宜種植五穀，太祖率漢人耕種，「為治城郭邑至廛市如幽州制，漢人安之，不復思歸」，這是移民築城的典型例子。這一類在契丹控制下，由漢人所築的城邑可稱之為漢城，漢城的居民主要以漢人及渤海人的農業民族為主，間有其他各族人。但若以遼代城市的興築有其時間先後，有些漢城或城市並不在一個時期完成。

遼太祖建國前已注意到漢人及其農業資源與城市建設的重要，故而在興起發展時應已形成為其國策，致力於擴張亦即是致力於收取農業資源，包括城市建設的城郭之制。較具規模的城市在太祖即位前是龍化州（內蒙奈曼旗，教來河北岸），建於唐天復二年（902），此地原是契丹始祖奇首可汗的龍興之地，號稱龍庭，太祖攻破代北時，即遷移漢人建城居之。太祖即位後的神冊三年（918）建國都上京臨潢府（內蒙巴林左旗），是北方民族在草原建立國都城市的重要里程碑。這二個例子之外，太祖在位約廿二年，所興築的城市甚多，約略估計新築的州縣城，以縣計有三十五左右，其次為後繼的太宗，約有十五座左右，世宗、穆宗、景宗三朝共有十餘座左右，這是遼代前期除去倚郭不計所新建城市的概數，即約有六十餘座以州（軍）縣建置的新城。但其中有燕雲漢地的新城約十三座，屬於長城之外所新建的城市則約有五十座左右；其外尚有些許資料不詳的情形未能記入。如上京道有十三座頭下軍州欠明確，但都是草原上的新建城市，且可推斷當屬前期遼初時，則草原新城可計為六十餘座。這些新城多集中在上京道之地，佔有將近一半之數，其餘分佈在東京的二十餘座，中京道及西京道各數座。以上京道為例，大體即今內外蒙古及東北西部的小部份之地，《遼史·地理志》列出的軍、府、州、城有廿五座，實際上至少應有卅八府州城，若將未詳及誤載不計，又倚郭縣除外，當有五十三府州縣建置，其中新建者有四十四城，所佔的比率達八成多，而四十四座城市中又有約三十座為遼代前期所創建，尤以太祖時期居多。

遼代前期係以聖宗之前的五朝為別。《遼史》載遼朝疆域的行政區劃是五京、六府，州、軍、城百五十有六，縣二百有九，另有部族五十二，屬國六十。但實際在州縣的數目上有訛誤之處，初步考察列載出州縣的名稱計數即應有府州一七五、縣二一八左右，其中有沿用舊城，亦有興築的新城市，府州還有倚縣在內；同時其地理位置或長城之內，或在塞外之地。在長城之內者即以

燕雲十六州漢地為代表，在遼代是南京、西京兩道，但只有南京道全部州縣城市皆在長城之內，其中也有數座城市為遼初時新建，但佔八成的絕大多數城市為沿用舊城，南京道的居民幾乎全是五代時石敬瑭割地的原居民，僅少部份為漢人移民，雖說是遼代前期且為遼初時的州縣城市，但其性質與遼代草原城市的興起無關，故不擬論述。

西京道的情形類似南京道，為石敬瑭所割讓的雲州之地，但遼代西京道政區除石晉割地建為一府、九個州外，其餘尚有六（五）州、二軍地區為契丹族本身擴張所得之地。整個西京道的十七（六）州軍、廿五縣（倚縣十城除外），新建的城市佔四成半左右。但西京道有五州、一軍位在長城之外，則也是草原城市的興建，而其中又有半數是在前期的遼初時所新建。

三、 遼代後期的草原城市

遼代自中期聖宗時始歷興、道、天祚三朝別為後期，因自前期尤以遼初二朝時為築城的第一波高潮，至中期聖宗時又興起第二波築城之高潮。聖宗在位近五十年之久，又興築大量的城市，略超過遼初太祖、太宗時建城的數量，可以想見其時築城移民的盛況。聖宗時期正是遼朝鼎盛之時，與南方宋朝締結澶淵之盟（統和廿二年，1004），南、北二朝從此維持長期且穩定的和平關係，期間除去曾發生過二次關係緊張的局面，即遼興宗時與宋仁宗朝的增幣交涉，遼道宗時與宋神宗朝的劃界交涉，此二次事件應為讀史者所熟知。遼宋二國締結澶淵之盟後三年，聖宗即開始興建中京都城，同時建置中京道政區，增築新城，移民居州縣。中京的興建及中京道的形成是當時重要的政策，也是草原城市興起的重要里程。

中京大定府（內蒙寧城縣大明公社）之地原為奚族生聚之所，史載聖宗曾過七金山土河（老哈河）之濱，南望有雲氣似閣樓，乃有意在此興建都城，統和廿四年（1006）奚族五帳院獻地，於是二年間完全新建的中京。而後中京常為遼朝接見宋朝使臣的京城，其建築規模畫仿宋朝汴京之制，宋朝使臣對中京城亦頗有記載。聖宗收奚族之地有其國內政治與戰略的考量，地理上又居四京之中，與稱為南朝大國的宋朝來往也有利便之處。中京道其他州縣城的建置，還有另外的政治因素，即因渤海國王族大延琳的叛亂，聖宗在亂平後將部分渤海人移民往上京、中京道之地，同時又移有漢民等農業人口前來；於是對該地區有較廣的土地開發利用，增加國家農業資源，遂造成大量城市產生於草原之中。中京道城市原即寥寥無幾，遼初已有新建城市為城郭之制，到中期聖宗時又移民築新城，完成中京道政區的建置，初步估計中京道州縣新城佔八成半以上，不計倚縣達三十五座（另有未詳者），而其中有二十六座皆興築於聖宗時期，其餘則為遼代初期所建。中京道城市建設與移民尚有值得注意之處，即聖宗時初建中京後即築城來完成政區的建置，移民入政區同時並行，在二十六座新城中約有六成移民是來自所謂「京民」，應是為開發中京道而移農業人口如漢人、渤海人等前來，因而築城增置新州縣，同時也有來自其他地區人口，「京民」是否即為疏解各地如上京的生態環境壓力而往新開發的中京道？是值得注意的問題。

遼代後期築城移民的高潮在聖宗時期的半個世紀左右，其中最值得注意的是中京道建置的完成，直到遼末皆未見有何變更。聖宗在中京道築的新城除灤河縣、遷州、潤州三城在長城之內，其餘皆在草原地區，最足代表草原城市的興起。在塞外東北地方的東京道，以縣為單位而除去倚郭

外，當有一百十七城，其中新建城市約七十二座，沿用舊城者四十一，其餘則記載不詳，則可知新建城市佔62%左右，但新城建置的時期仍有近四成未能明確，由所知的情況來看，前期對東京道的移民築城要略多於後期。原來遼初攻滅渤海國時即著手移民築城，主要是移民往上京道，同時在東京道內也有移居，並將原有渤海州縣建置加以調整以及廢置，這些作法基本上是對征服地區的控制政策，又可利用人力資源與農業技術往腹地開發。到中期聖宗時又因渤海大延琳叛亂，再度移民出入，以分散及均衡東京道人口，同時也因中京道的開發需要農業人口，故而初、中期東京道的築城移民，在政策上有著相似的背景。

原來渤海國在東北地區設州縣城郭之制，行政劃分為五京、十五府、六十二州（六十州），一百零七縣，其中有卅一州未見屬縣，故除去倚縣加無屬縣之州，總計州縣城為八十九城。遼代併廢與新置的東京道，共有州縣城為一百十七城，但遼代東京道較渤海國疆域為廣，多出遼西之地，即遼陽四周的十餘州之地，雖然遼代東京道城市較渤海國為多，但大體廢置興建與渤海國原建置規模相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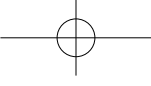
四、結語

契丹族生聚於草原地帶，在長城以北的塞外，自古以來即為游牧民族的生息之地。古代以匈奴為游牧類型的代表，其生活方式與社會文化等與長城之內的漢族極為不同，而與漢族間的相處及和戰關係等，與往後歷史上各朝代的關係大體類似。基本上是南、北兩個天下，二國之間在文化上有其獨立的發展，亦有其交流複合。不同的地理環境有不同的生活方式，北方游牧民族遂以漁獵游牧為主要生產與生活方式，也因之不似農業民族有定居城市與農業生活，因此城市的需要簡略地說是農業經濟的需要，游牧生活方式應不必要也不易於建立城市。

在長城以北的塞外草原，除去如漢、唐時代於長城線外邊區有些許城鎮，主要是基於國防軍事上的考慮，甚至深入草原建立都護、都督府之類的城鎮，也是在於國家戰略上的緣故，並不作為政區治理與生聚之地。即如鮮卑的北魏，將國政中心南移入中原之地，而北方原來生聚的草原又有柔然的興起，同樣的游牧民族，北魏已幾乎成為南方漢族式的國家，對於柔然則採取以往漢族朝廷對游牧民族的作法，即建立國防線以及軍事據點，故北魏在長城外圍有城鎮的建立。

北方游牧民族建立的城市極少數是作為生聚與行政之地，如統萬城、樂盛城等，稍多的城市建立是軍鎮性質。北魏可說是在塞外建城的基礎，到十世紀契丹族興起時，草原城市遂大量興起。在東北塞外，是因渤海國倣唐制而建城，也是基於地理環境與農業生活的需要，同時早在漢代時期已將城郭之制建立於東北，後來在東北地區的政權或國家基本上是農業民族，或兼漁獵、畜牧等，其城郭之制的可行性遠高於蒙古草原之地。

遼代在興建城市上的需要與城郭之制的施行仍是基於農業民族與農業經濟的需要。太祖阿保機的興起已認知到游牧民族與農業民族結合的力量，造成這種草原的新形勢，促使其掌握住農業經濟的資源，乃極力推動城市的建立，及其後繼者都能秉持此政策，遂有城郭之制的完成。東北地區與燕雲之地本即農業與城郭之制，遼代在原則上繼續維持，不過有所興廢及調整，因此仍有不少新建的城市，以東北的東京道較多，有七十餘座，佔全部城市的62%，其次為西京道，佔全部城市



的四成半，但在塞外草原的只有七座新城。南京道只有數城為新建，而南京道城市全在長城之內。上京道全在塞外草原地區，新城建置有四十餘，佔當地城市達八成半左右，可說幾乎全是新建的城市，也最能代表草原城市的興起。中京道的新城有三十五座左右，其中有三個州縣在長城之內，其餘皆在塞外。新城佔全部城市的八成餘，其情形與上京道類似，足以代表草原城市的興起。以上京、中京二道而言，新興的草原城市共約八十座左右，若加上東京道及西京道的塞外城市，其總數有一百六十左右，佔遼代政區州縣城市則近六成左右。這可說明在遼代以前的草原是空前之創舉，也可說明草原城市的興起是在於遼代。

遼代草原城市的興起

王明蓀 臺灣文化大學

I. 머리말

인류는 자연계의 일부분으로서 생태환경의 중요한 구성이며 인류의 생존 및 생활이 자연계의 영향에 따라 관련이 있고 사회의 물질과 정신생활이 각 환경에 서로 일치하지 않은 면모와 내용이 있다. 자연계의 생태환경과 인류생존 및 생활이 서로 영향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자연지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물과 비 생물도 서로 다르며 그 안에 생존하고 있는 인류도 서로 상이한 생활방식과 사회문화가 있다. 중국 고대문헌인 『예기·왕제』에 기록을 보면:

凡居民財，必因天地寒煖燥濕，廣谷大川異制，民生其間者異俗，剛柔輕重，遲速異齊，五味異和，器械異制，衣服異宜.¹⁾

지리환경에 따라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생활방식은 문화뿐만 아니라 不動의 민족성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蠻·夷·戎·狄 등이

“皆有安居、和味、宜服、利用、備器，五方之民，言語不通，嗜欲不同”이란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不動 민족의 不動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있으며 객관성의 존중과도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화하족은 항상 강력한 ‘夷夏觀’을 표현하였다. 서주 태사 사백이 ‘친’과 ‘완’으로 夷夏를 구별하거나²⁾ 『공양전』에 ‘夷狄也，而亟病中國，南夷與北狄交，中國不絕若線’이라는 내용도 있다.³⁾ 夷夏관념과 洋夷운동이 先秦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그의 결과는 蠻夷를 점차 華夏의 외곽으로 배제하였다. 북방지역에 있는 장성도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⁴⁾ 『사기』를 보면 ‘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라는 기록이 있다.⁵⁾ 이는 진, 조, 한 삼국이 각자 장성을 만들고 호를 방어한 것이다. 西漢 초 문제 때에 사신을 파견하여 흉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先帝制：長城以北，引弓之國，受命單于，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⁶⁾

라 하고 있다. 이는 역시 진한이 중국을 통일 이후에도 장성을 경계로 胡와 漢을 분리하였으며 장성이 역시 북방 夷와 夏의 국경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명확하게 알려진 것처럼 이후에 장성이 전통적인 중국과 북방민족의 경계로 되었으며 농업을 하는 한족과 유목을 하는 초원민족이 형성되었다. 역시 『예기』에 기록한 것처럼 생활방식, 사회민족, 제도문화 등 여러 면에서 양자의 큰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양 지역에서 장성을 경계로 새내, 새외로 구분하였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생활과 문화가 있고 각각 농업문화와 초원문화라고 부른다. 초원문화는 훈뉴를 예로 볼 수 있으며

1. 『예기』(대북: 동승출판사업공사, 영인본 십삼경주소본), 12권, p.26.

2. 『국어』(대북: 하락서국, 民國69년), 16권(정어), p.507.

3. 『춘추공양전』(삼삼경주소본), 권18, 성공15년, p.7.

4. 중국 선진시기의 이하관념과 양이운동은 본인이 쓴 『중국 민족과 북방사론·한진편』(대북: 단청도서출판공사, 民國76년), p.p.19-67에 참조하기 바람.

5. 『사기』(북경: 중화서국, 1982년), 110권, 「흉노열전」p.2886.

6. 각주5, p.2902.

‘隨畜牧而轉移，……逐水草遷徙，毋城郭常處耕田之業，然亦各有分地’⁷⁾

라는 기록처럼 생활하고 있었다. 그 후에 북방초원민족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많지 않은 조약한 농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로수렵유목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毋城郭常處耕田之業’이라는 것은 초원의 생활면모로 볼 수 있다. 장성 이남지역에서는 성곽주현제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북방 장성 이외의 지역에서 유목분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성곽은 유목민족한테 실행할 수 없는 불필요의 시설이었다.

장성 이북지역은 중국 역사상의 초원지역이며 역시 유목민족이 취거지이다. 河北·山西의 북부지역을 제외하며 산해관 이외의 지역에서 동북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몽고고원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장성의 위치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각 역사시기에 당시의 장성을 국방경계로 설치하고 있으며 장성에 따라 많은 군사지가 있다. 군력이 좀 강하면 초원 북지에 전략적인 거점과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漢·唐시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초원 성진의 최초 모델이며 규모, 크기와 무관하여 그들의 목적이 모두 군사 방어진이며 대부분이 한족 왕조가 만든 것이다. 초원민족 자체가 수초에 따라 거주하고 있으며 성곽이 필요 없는 것이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석기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취락이 현재 의미상의 城鎮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초원 민족이 만든 성진이 많지 않으며 일부는 한족의 성진을 재활용한 것이다. 내몽고를 예로 들면 필자가 통계한 결과는 10세기 이전에 유목민족이 만든 성지는 북조에 속한 것이 2기, 북위에 속한 것이 19기만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북조 때 한족 도시를 재활용하여 북위에서도 전에 성지를 활용한 것이 모두 5기가 있다.⁸⁾ 고대 성지가 파괴되거나 조사를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문헌을 보면 북위의 새외 성곽도 이보다 훨씬 많고 동북지역, 내몽고, 河西 주량의 양주 지선진, 연치진 등에 약 70기정도로 추정되었다.⁹⁾ 그 가운데 이전시기의 성, 진을 재활용한 것도 있다.

10세기 초에 거란족이 흥기되었으며 내몽고 동부를 중심으로 초원제국을 건립하였다. 그후에 동으로 발해를 멸하여 동북지역을 점하고 북으로 몽골나라, 남으로 연운16주의 한족 지역, 서북으로 額爾濟斯河, 서남으로 西夏와 인접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제국의 확장과 주현 성곽지도의 건립에 따라 요대의 주현 중에 전에 있었던 발해, 연운 16주의 도시 이외에 더 많은 초원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는 새외 성시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후대인 금, 원 등 시기에도 계속 활용하고 있고 명, 청 양 시대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 초원도시의 흥기는 요대부터로 말할 수 있다.

7. 각주5, p.2879.

8. 국가문물국 편저, 『중국문물지도집』(서안지도출판사, 2003년), 『내몽고자치구 분책』하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9. 북위의 새외 성진은 『위서』(북경: 중화서국) 106권 상, 중, 하에 기록과 담기양 편저 『중국역사지도집』(북경: 지도출판사, 1982년) 제4책-(동진 십육국 남북조시기)에 기재한 것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II. 요대전기 초원성시의 건립

거란인들은 어로와 수렵을 겸한 유목민족으로 새외 동북지방에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역사상 다른 북방민족과 유사한데 『사기』 훈뉴전에 기록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즉 ‘逐水草遷徙，毋城郭常處耕田之業’이라는 것이다. 『요사』에는

‘并、營以北，勁風多寒，隨陽遷徙，歲無寧居’이며 ‘順寒暑，逐水草畜牧’¹⁰⁾

라 하여 거란인의 생활모습을 나타낸 기록도 있다. 이를 보면 역시 훈뉴처럼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遼 태조 야를아보기 이전에 그의 삼촌은 술란시 황하(현재 내몽고 서랍목윤하)일대에서 ‘始置城邑’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규모의 생활과 생산도 운영하고 있었다.¹¹⁾ 이를 보면 농업과 정착 생활이 거란과 관련성이 있다. 술란은 전공이 현저하여 남과 북방에 모두 발전이 있다, 그의 전별 대상은 주로 북방민족과 한족이며 거란제국의 형성에 대한 좋은 기초를 만들었다. 그래서 역사에는

‘始興板築，置城邑，教民種桑麻，習織組，已有廣土眾民之志’¹²⁾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만든 성읍의 수량, 상황을 확실하게 모르지만 한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당나라시기 이전에 거란인들이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資治通鑑』에서도 확인되었다. 거란 별부인 손만영이 류성(현재 조양 일대) 서북에 ‘依險築城’하여 그 안에 노인, 아동, 여성, 기계 물품 등을 거주케 했다는 기록이다. 이후에 돌궐의 가한이 파병하여 ‘取契丹新城’이라는 기록이 있다.¹³⁾ 당시에 거란의 성읍 상황을 확실하게 모르지만 거란의 초기 성읍으로 볼 수 있다. 초기 거란이 북조, 수당시기에 내부나 항부에 인해 당시 왕조가 설치한 부주에 의한 관리되었거나 부주 형식으로 편입되었지만 한제의 성곽제도일 아닐 수도 있다. 각 부족이 부주의 명칭만 사용하고 당대 거란족의 송막도도부도 역시 부치에 소재한 성읍이 없다. 즉 ‘契丹州十七，府一’이라는 기록을 통한 볼 수 있다.¹⁴⁾ 한제 주현의 명칭이 있지만 거란족의 생활에 성곽 제도가 없다. 설치한 부주는 지명뿐이다. 송막도도부가 당시 거란 아장에 소재하여 각부의 자사주도 역시 지리적인 개념이며 한제의 성곽일 수 없다.

거란인들이 원래 전통적인 유목 생활이며 그들의 농업상황이 그 이후에 점차 발전되었다. 야를아보기 이전에 그 삼촌 술란의 ‘始置城邑’이라는 기록을 통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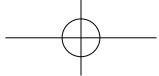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10. 『요사』(북경: 중화서국) 31권, 「영위지상」, p.361; 34권 「병위지상」, p.395.

11. 『요사』56권, 「의위지이」, p.905.

12. 『요사』2권, 「태조하」, p.24; 37권, 「지리지1」에 ‘祖州之地有越王城」,以「太祖伯(叔)父于越王述魯(述瀾),西伐党項吐渾,俘其民放牧於此,因建城」이라는 기록이 있다.

13. 『자치통감』(대북: 세계서국, 민국 63년), 206권, 「당기 22」, p.6521.

14. 『신당서』(북경: 중화서국), 43권 하, 「지리지 7하」, p.1126.



시기에 거란인들의 농업생활을 볼 수 있다. 태조 아를아보기의 할아버지 균덕보(현조)시에 ‘始教民稼穡’¹⁵⁾라는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일정한 규모의 농경이 시작되었고 정착생활이나 촌읍과 비슷한 취락도 있었다. 농업 정착생활부터 시작하여 점차 성읍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후대 술란시에 ‘始興版築, 置城邑’한 것이다. 거란인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초원성시는 그 신생활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에는 ‘성읍’으로 칭하였으며 취락과 비슷한 촌락뿐만 아니라 목석 등으로 만든 ‘토위’시설도 있을 것이며 성읍과 비슷한 촌채나 보채 등과 비슷하다. 그의 규모가 모르지만 이후의 주현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앞으로 깊은 고찰을 필요하다.

요대 초원 성시의 첫째 건축 고조는 태조가 건국 전후에 이며 당시에는 중국 남방 중원지역에서 당말 전란시기이다. 그 때 사회가 불안하고 있으며 요태조가 변경지역을 진공하여 많은 인력과 축력 물자를 얻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장성 운연 일대는 이런 상황이었다.

‘是時, 劉守光暴虐, 幽、涿之人多亡入契丹, 阿保機乘機入塞, 攻陷城邑, 俘其人民, 依唐州縣置城以居之’.¹⁶⁾

당시 화북 동부 장성일대에 한인들이 출세하여 거란에 의탁하거나 북으로 포로로 되었으며 거란경역으로 이전되었다. 遼 태조가 이런 한인들을 이용하여 성을 만들고 관리한다. 이때부터 한식의 주현성곽이 나타난다. 또한 난하 상류의 탄산동남으로 이민하여 현지에 소금과 철이 있으며 토양도 오곡을 잘 재배할 수 있어서 태조가 한인들을 인솔하여 경작하게 하였다.

‘為治城郭邑至廛市如幽州制, 漢人安之, 不復思歸’¹⁷⁾

라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으며 전형적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거란의 통제 밑에 한인들이 만든 성읍이 한성이라고 불린다.¹⁸⁾ 한성의 거주민이 주로 한인과 발해인 등이며 농업 민족을 위주로 다른 민족도 있었다. 그러나 요대성시의 건축이 시간전후가 있어 일부 한성이나 도시가 같은 시기에 만든 것이 아니다.

요태조가 건국이전에 한인과 그들의 농업자원 및 성시 건설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나라의 흥기와 발전 시에 국책으로 정하였다. 국책 속에는 확장과 농업자원의 수취를 중시하여 성시 건설의 성곽제도도 포함되고 있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城市는 태조가 즉위 전에 만든 용화주(내몽고 내만기, 교래하의 북쪽)가 있으며 당 천복2년(902년)에 건설되었다. 이 지역은 거란 시조인 기수가한의 용흥지이며 용정이라고 불린다. 태조가 대북을 진공할 때 한인들을 이전하여 만들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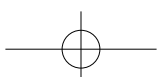
15. 각주12, 『태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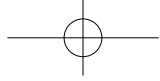
16. 구양수, 『오대사기』, (북경: 중화서국), 72권, 「사이부록제일」, p.886.

17. 각주 16과 같음.

18. 요대 성시와 한성에 대한 비교적 이른 연구는 진술, 『거란사론증고』(국립 북평연구원 사학연구소, 민국 37년) (『요사회편』, 대북, 정문서국, 민국62년, 7책에 제수록)에 언급한 특구성과 성시 16주가 있다. 『거란사회경제사고』(북경: 삼련서점, 1963년)에도 요대 초원도시에 비교적 많은 기술이 있다. 요종오, 「설아보기시대적한성」, 북대『국학계간』(민국24년)에 간재하였으며 『동북사론총』(대북: 정중서국, 민국48년, 하책)에도 있다. 요선생님이 일찍 거란성시의 흥기와 의의를 중시하여 연구하였다.

19. 『요사』, 37권, 「지리지 1」p.447에 참조.





태조가 즉위 후 신책 3년(918년)에 국도인 상경 임황부(내몽고 파림좌기)를 건립하면서 북방 민족이 초원에 건립한 도시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되었다.²⁰⁾ 이 2개의 예 이외 태조가 재위 22년 동안 건축한 城市가 많으며 신축한 주현도 약 35개의 현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조의 뒤를 잇은 태종시기에는 약 15기정도가 세종, 목종, 경종 3세에는 10여기의 城市가 건설되었다. 이는 요대 전기에 기곽을 제외한 신축도시이며 모두 약 60여기의 주(군)현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연운한지의 신성이 약 13기가 되었다. 장성 이외 지역에서 신축한 도시는 약 50기 정도가 되었다. 이 밖에 자료가 미상하기 때문에 집계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경도에는 13기의 두하군주가 초원에 건설한 신축도시이며 요대 초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신축도시는 약 60여기로 판단되었다. 이 신축도시들이 대부분이 상경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반정도 점하고 있다. 나머지 20여기가 동경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경도와 서경도에 각 수기만 있다. 상경도를 예로 들면 신축도시들이 대부분이 현재 내몽고와 몽골, 그리고 동북지역의 서부 일부만 위치하고 있다. 『요사·지리지』에 나열한 군, 부, 주, 성 등이 모두 25기가 있으며 실제로는 최소한 38부주성이 있다. 기록 미상이나 기곽현도 제외하면 모두 53부주현이 있다. 그 가운데 신축된 것이 약 44성이 있다. 그 비율이 약 80%정도 달하다. 44기 도시에도 약 30기정도 요대 전기에 건축한 것이며 특히 태조시기에 만든 것이 가장 많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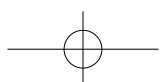
요대전기는 성종 이전에 5조를 지칭한다. 『요사』에는 요조 강역의 행정구획은 오경육부, 주·군, 성은 156, 현은 209개가 있다. 이 밖에 부족이 52와 속국이 60개가 있다.²²⁾ 그러나 실제 주현의 수량이 착오가 있으며 주현 명칭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 결과를 보면 부주 약 175, 현 218개정도가 있다. 그 가운데 구성을 재활용한 경우도 있고 신축 성시도 있으며 부주에 기현도 있다. 그리고 이 성시들의 지리위치는 장성 이내나 새와에 분포하고 있었다. 장성 이내에는 연운16주의 한지를 대표하여 요대에는 남경과 서경 양도에 속하지만 남경도에만 모두 주현이 장성 이내에 위치한다. 그 가운데 몇 기만 요초기에 만든 것이며 나머지 80%정도 구성을 재활용한 것이다. 남경도의 거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대시에 석경당 영지에 있었던 원주민이며 일부 소수만 한족 이민이다. 요대전기 요나라가 만든 주현 성시이지만 그의 성격이 요대 초원성시의 흥기와 무관하여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서경도의 경우는 남경도와 유사하며 역시 석경당의 할지인 운주 지역에 것이다. 그러나 요대 서경도 정구는 석진 할지에 일부 구주를 설치하였지만 나머지 6(5)주, 2군 지역이 거란족의 자체 확장지역이다. 전체 서경도에 17(16)주군, 25현(기현 10성 제외) 중에 신축 도시가 약 45%정도 달하다. 그러나 서경도에 5주, 1군이 장성 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초원성시이며 그 가운데 약 반정도 성시는 요초에 만든 것이다.

20. 각주 16, 『거란사회경제사고』, p86; 차기사흠, 「거란과 그 들의 도시(상)」, 『동방잡지』북간, 15권, 10기, p.p.39-40; 왕명신, 「요상경의 흥건을 통한 본 새외 도시의 발전 상황」, 『국제 송사연토회』(대북. 중국문화대학, 민국 77년), p.p.7-22.

21. 요대 신축도시는 주로 『요사·지리지』의 기록을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그 자료는 행정 구획 중에 주, 현 등만 언급하고 다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신축 성시의 추정은 필자가 쓴 「요대정구지건치여이민축성」, 『중국중고사연구』1(대북: 난대출판사, 2002년), p.p.247-249.

22. 37권, 「지리지일」p438참조.



Ⅲ. 요대후기의 초원성시

요대는 중기 성종시기부터 흥, 도, 천조 삼시기까지 후기로 보고 있다. 요대 전기 특히 요초에 축성의 1차 극성기가 형성되었으며 중기 성종시기부터 제 2차 축성 극성기가 형성되었다. 성종이 재위 시기는 약 50년이며 이 시기에 많은 성시를 만들었다. 遼 태조와 태종시기에 만든 것보다 약간 많은 수이다. 이를 통해 당시 축성 이민의 성황을 상상할 수 있다. 성종시기는 요대의 전성기이며 남방 송나라와 澶淵之盟을 체결하였고(통화 22년, 1004년) 이후 2번의 긴장된 시기(遼 흥종 때에 송인종과의 증폐 교섭 및 遼 도종 때에 송신종과 회계 교섭)를 제외하고 남북 양조는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遼·宋 양국의 澶淵之盟 이후 3년 후 성종은 중경도성을 건축하는 동시에 중경도 정구를 설치하여 신성을 축조하여 주현으로 이민하였다. 중경의 건조와 중경도의 형성은 당시의 중요한 정책이며 역시 초원 도시 흥기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중경 대정부(내몽고 년성현 대명진)는 원래 계족의 지역이며 역사 기록을 보면 성종이 칠금산토타(노합하)를 넘어 갔고 남쪽으로 운기를 보면 각루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성을 축조할 생각이 생겼다. 통화 24년(1006년)에 계족 오장원이 땅을 바쳐 2년 동안 신 중경을 축조하였다. 이후에 중경은 遼가 남송 사신을 접견하는 수도가 되었으며 그 건축의 규모는 송조 변경을 모방하여 축조한 것이다. 송조 사신도 중경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²³⁾ 성종이 계족의 땅을 받아 중경을 축조한 배경은 그의 국내 정치 및 전략적 고려와 관련이 있다. 또한 중경이 나머지 4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조 대국과의 교류도 상대적으로 편리하다.²⁴⁾ 중경도 이외의 기타 주의 설치도 또 다른 정치 요인이 있는데 발해국 왕족 대연령이 반란하기 때문에 성종이 그것을 평반 이후 부분 발해인들을 상경, 중경도로 이동시키기 위함이었다.²⁵⁾ 동시에 한족 등 농업 인민들도 이 지역으로 이민하여 광범위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국가의 농업 자원이 증가시키기 위함도 있었다. 때문에 많은 도시가 초원에 형성되었다. 중경도에는 원래 도시가 많지 않은데 遼초 신축도시의 체도가 있어 중기 성종시기부터 이민을 실행하고 중경동의 정구를 설치하였다. 중경도에는 신현성이 약 80%정도로 추정되면 기현 35기는 알 수 없다. 이 가운데 26기는 모두 성종시기에 건조되었으며 나머지는 요대 초기에 건조되어 것이다.²⁶⁾ 중경도의 건설과 이민에 대한 유의점이 있어 성종시에 중경을 만들었고 축성을 통한 정구의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이민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26기의 신성에 약 60%의 이민이 '경민'에 온 것이며 중경도를 개발하기 위한 인구는 농업인구(한인, 발해인)이다. 그래서 축성에 따라 신 주현을 설치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온 인구도 있으며 그 중에 '경민'이 각지에 특히 상경에 있는 거주민들이 생태환경의 압력을 비하기 위한 중경으로 이전한 것인지 유의해야 문제이다.²⁷⁾

23. 중경성의 건조와 규모는 송조사신의 기록은 필자가 쓴 「요대상경여중경지성시형태」, 『중국중고사연구』2기(대북: 난대출판사, 2003년), p.p.257-275.

24. 중경의 역사적 위치와 그의 성격에 대한 필자가 쓴 「론요대오경지성질」, 『사학집간』23기(대북: 중국문화대학 사학연구소, 2009년), p.p.143-191.

25. 『요사』17권, 「성종 8」, p.p.203-205; 37권, 「지리지1」, p.440; 17권, p.206; 39권, 「지리지3」, p.489.

26. 각주21, 「요대정구지건치여이민축성」.

27. '경민'이 상경의 인민인가? 이에 대한 확실할 근거가 없다. 한무리, 「遼代前中期西拉木倫河流域以及毗 地區農業人口探論」, 『사회과학집간』137기(2001년), p.p.104-109; 필자, 「遼代之城市生活資源與戶口構成」, 『중국중고사연구』8기(대북: 난대출판사, 2008), p.p.171-196.

요대후기에 축성 이민의 극성기는 성종시기의 반세기정도 해당하고 있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중경도의 설치 및 완성이며 요말까지 변경되지 않다. 성종이 중경도에 축조한 신성은 난하현, 천주, 윤주 3개만 장성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모두 초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한 초원성시의 흥기를 볼 수 있다. 새외 동북지역의 동경도에 현을 단위로 기현을 제외하며 모두 117개의 성이 있다. 그 가운데 신축한 것이 72기가 있고 구성을 재활용한 것이 모두 41기가 있다. 남은 것이 기록 이상이다. 이를 통한 보면 신축성시가 약 62%정도달하지만 신축성시에 약 40%정도 확실하지 않는다. 지금 알려진 상황을 보면 동경도로 이민한 것이 후기보다 전기에 약간 많다.²⁸⁾ 원래 요초에 발해로 진출할 때부터 이민축성이 이미 시작하였다. 주로 상경도로 이민하였는데 동시에 동경도내에도 이민이 있었다. 그리고 원래 발해의 주현을 조정과 폐기하였으며 이런 작업이 모두 현지의 통제와 인력자원을 이용하여 농업기술을 중심지에서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중기 성종 때에 발해 대연령이 반란하기 때문에 다시 이 지역으로 이민하였고 동경도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균형을 맞추었다. 동시에 중경도를 개발하기 때문에 농업인구를 필요하였는데 초기와 중기에 동경도의 축성이민과 정책상 비슷한 배경이 있다.

원래 발해국이 동북지역에서 주현성곽을 설치하였는데 행정상에 오경, 십오부, 육십이주(육십주), 백칠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31개의 주에 속현이 확인되지 않고 기현과 속현이 없는 주를 제외하며 모두 주와 현성이 89개가 있다.²⁹⁾ 요대의 것을 폐기하고 다시 설치한 동경도에는 모두 주현이 117개가 있으며 요대 동경도가 발해국보다 훨씬 넓다. 요서지역 즉 요양 주변에 10여개의 주도 추가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요대 동경도의 성시가 발해국보다 많지만 그들의 폐기와 건조 규모는 발해와 거의 비슷하다.

IV. 맺음말

거란은 초원지역에 등장하였으며 장성 이북의 새외지역은 옛날부터 유목민족의 생활지이다. 고대 흉노를 대표하는 유목유형은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회문화 등이 장성이내의 한족과 많이 다르다. 한족과의 접촉과 화전 등의 관계를 통한 역사상에 다른 왕조와의 관계도 거의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남과 북에 두 나라가 있으며 양 나라의 문화가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고 서로 간의 교류와 융합도 있다. 不動의 지리환경에 不動의 생활방식이 있고 북방 유목민족이 어로수렵유목을 위주로 하는 생산과 생활방식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민족의 정착 성시와 농업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성시는 농업경제에 필요한 것이며 유목생활의 방식이 성시 건설이 쉽지 않다.

장성 이북의 새외초원에서 한당시기에 장성일대에 설치한 일부 성진이 주로 국방 군사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며 심지어 초원지대까지 도호, 도도부 등의 성진을 설치하는 역시 국가의 전략적 고려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장소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생활한 지역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선비족이 건립한 북위가 국가의 중심을 남에 중원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북방 원래 생활한 지역에서 유연이

28. 각주 21, 필자, 「요대정구지건치어이민축성」.

29. 왕승례, 『발해간사』(합이빈: 흑룡강인민출판사, 1984), p.p.76-82.

다시 등장하였다. 같은 유목민족이지만 북위는 거의 남방 한족식 국가로 되었고 유연한테 과거에 한족이 유목민족한테 사용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역시 국방선과 군사 거점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북위는 장성 외곽에 성진을 건립하였다.

북방유목민족이 건립한 성시는 극소수만 생활지로 이용하였으며(예: 통만성, 낙성) 더 많은 성시의 건립 목적이 군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위가 해외에 성시를 설치하는 이유는 10세기에 거란족이 흥기하였을 때 초원 성시가 많이 흥기되었기 때문이다. 동북 해외에 발해국이 당을 모방하여 성시를 설치하였으며 역시 지리환경과 농업생활의 요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대부터 성곽제도를 동북지역에서 설치하였으며 그 이후에 동북지역의 정권이 거의 농업민족이나 어로수렵과 축목을 겸하는 것이다. 거기서 성곽제도의 가행성이 몽고고원보다 훨씬 높다.

요대에 성시의 설치와 성곽제도의 실행하는 배경도 역시 농업민족과 농업경제의 요구이다. 태조 야를아보기는 이미 유목민족과 농업민족의 결합한 힘을 잘 이해하였으며 초원의 신 형세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제의 자원을 장악하였고 성시의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이 이런 정책을 계승하여 성곽제도가 점차 완벽하게 되었다. 동북지역과 연운지역에서 원래 농업과 성곽제도가 있는 지역이며 요대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유지하였지만 약간의 흥폐와 조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신축성시들이 동북에 있는 동경도에 비교적 많고 약 70여기가 달하며 전부 도시의 62% 점하다. 그 다음에는 서경도이며 전부성시의 약 45%정도 달하지만 해외 초원에 있는 것이 7기만 있다. 남경도에 수기의 성시만 신축하였는데 남경도의 성시는 모두 정성이내에 위치한다. 상경도는 모두 해외 초원지역에 있으며 신축성시는 약 40여기에 달하고 현지성시의 85%정도 달하다. 거의 대부분 성시는 신축한 것이며 역시 초원도시의 흥기를 보인다. 중경도에 신축한 도시는 약 35기가 있으며 그의 경우는 상경도와 유사하다 역시 초원성시의 흥기를 대표하였다. 상경과 중경도에 신축한 초원성시가 약 80여기가 있으며 동경도와 서경도의 해외 성시와 합치면 모두 160여기가 달하다. 요대 정구에 주현성시의 60%정도 해당하다. 이를 보면 요대이전에는 초원에는 성시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역시 초원성시의 흥기는 요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内蒙古地区辽代考古学研究

塔拉 内蒙古博物院

一、内蒙古地区辽代考古学研究历史回顾

二、内蒙古地区辽代考古学研究现状与课题

一、辽代考古学研究历史回顾

(一) 第一个阶段是20世纪初到40年代。

内蒙古地区辽代考古研究始于20世纪初。最早是由西方学者进行的，他们主要以探险考察的名义在内蒙古地区进行调查和盗掘。

这一时期辽代考古学还主要处于萌芽状态，主要是一些调查、盗掘和实测，缺乏科学性，而且绝大部分是以民间的形式或以个人身份进行的。

1912年和1920年，法国神甫闵宣化（Joseph L. Mullie）曾调查内蒙古东部的辽代遗址。

1914年和1922年，当时的林西县长和法国神甫闵宣化对辽庆陵进行了近现代以来的首次挖掘，“以查勘林东垦地，道出其地，读碑文，识为辽圣宗陵，意其必富宝藏，遂于民国三年秘密发掘”，他们挖掘了中陵，发表了平面图。

1922年，法国传教士梅岭蕊（Louis Maric Kervyn）探查了中陵，发现哀册两方，并将上面的契丹小字抄录发表。

1930年，热河军阀汤玉麟之子汤佐荣对庆陵进行了大规模的挖掘，三陵的石刻哀册全部出土。

1931年，日本东亚考古学会内蒙古调查团江上波夫、田村实造等调查了庆陵。

此后的几年，鸟居龙藏（1930和1933年）、关野贞（1934年）、黑田源次（1935年）相继探查、挖掘了庆陵。

1936年江上波夫、赤崛英三调查了上京、庆州等城址。

1939年京都帝国大学的田村实造、小林行雄等人调查并实测了庆陵和庆州城，这次工作认真仔细，有大量的实测图，临摹壁画，带走了部分文物，并于1953年发表了报告《庆陵》。

1944年岛田正郎挖掘了祖州城。1944年，东洋陶瓷研究所的小山富士夫、黑田源次、上元之节等人组织了对赤峰缸瓦窑的挖掘。

同是1944年，小山富士夫等人调查并发掘了林东窑。

(二) 第二个阶段是20世纪40年代到六十年代。

新中国成立以后，内蒙古地区辽代考古有了长足的发展。

新中国成立初期，辽代考古工作主要侧重于城址的调查、勘探、测绘、试掘与抢救性发掘工作，同时对墓葬、窑址等研究也有发展，但主动性发掘较少，对考古数据的科学归纳和系统性研究不够。

这一时期内蒙古地区辽代考古学文化的研究是逐步走向深入的。

1953年热河省博物馆筹备组对赤峰市红山区盔甲山南麓辽驸马赠卫国王夫妇合葬墓的发掘

1962年内蒙古自治区文物工作队对辽上京城址的勘探与试掘
1964年内蒙古昭乌达盟文物工作站赤峰缸瓦窑的调查等。

(三) 第三个阶段是60年代以后尤其是80年代以后。

二十世纪八十年代以来，辽代考古获得了蓬勃发展，辽代考古新发现层出不穷，各种与之有关的科学研究也不断深入。

现在已经基本理清了辽代城郭制度和丧葬制度；通过对出土遗物的研究，对复原辽代历史，了解辽代的政治制度、经济制度、社会习俗以及对外友好交流等都有提供了详实的实物数据。

在这一阶段大规模的墓葬发掘中，有些属于前所未有的重大发现。

1986年在奈曼旗发现的陈国公主墓

1992年在阿鲁科尔沁旗清理的耶律羽之及其家族墓

1994年在阿鲁科尔沁旗宝山墓地发掘清理的两座贵族墓葬

2001年—2002年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对辽上京城址的全面测绘、勘探和局部试掘

2002年对辽中京半截塔塔基的发掘

2003年吐尔基山辽墓的发掘等

二、辽代考古学研究现状与课题

(一) 城郭制度

最新统计辽代城址有560余座，其中内蒙古的辽代城址有80余座。

按其功能和作用，我们可以将辽代城市分为都城、州县城、头下州城、奉陵邑和边防城五种类型。

1、都城

在内蒙古有上京临潢府和中京大定府故城。

辽上京位于内蒙古赤峰市巴林左旗林东镇，是辽代五京中营建最早、也是最重要的一个都城，是我国北方兴建的第一座草原大都市。

辽上京由南北二城组成，分为皇城和汉城，皇城在北，汉城在南，两城之间共享一城墙。皇城是契丹统治者居住的地方，分为大内和外城两部分。皇城平面呈不规则的六边形。汉城在皇城的南面，略呈方形。

辽上京早期的考古工作最早是由外国学者进行的。1962年内蒙古自治区文物工作队对辽上京城址进行了勘探与试掘。1997年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会同中国历史博物馆对辽上京进行了航空摄影勘察。2001年—2002年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对辽上京城址进行了全面勘测、钻探和试掘，分别对皇城正南街、皇城东部建筑基址、汉城南面进行了试掘，出土了一批重要的文物数据；对皇城南墙进行了解剖，对城墙的结构、功能有了初步的了解。

辽中京位于赤峰市宁城县大明镇铁匠营子乡，座落在老哈河北岸的冲积平原上。

辽中京城市布局仿北宋汴京的制度，共计三重，即外城、内城和宫城。外城平面呈长方形，东西长4200米，南北宽3500米。内城在外城中央偏北，呈长方形，东西长2200米，南北宽1500米。宫城即大内，位于内城北部中央，平面呈正方形，边长1000米，

辽中京早期的考古工作最早也是由外国学者进行的。1959年—1960年，内蒙古文物工作队对辽上京城址进行了钻探、发掘，基本上清楚了辽中京的建筑结构和城市格局。1986年，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为了配合大明塔维修工程，对中京城进行了大面积的勘探与发掘。1997年，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会同中国历史博物馆对辽中京城址进行了航空摄影勘察。

辽中京是辽王朝重要的政治、经济中心，其城市格局更多的体现了北宋的城市制度。

2、州县城

分两种情况：

一种是在西京道内以汉人为主的农业区域，辽代营建的城市仍依照唐代的城市制度，分为上、中、下三等。

另一种是在契丹本土内的上中京道境内，城市制度并不依照唐代的城市制度，且多不加筑马面、角台和瓮城门，只是州县城的规模大小有区别。

3、头下州

最早是诸王、外戚、大臣把战争中俘虏据为私有财产，筑城郭安置的私城，后来契丹王朝规定只有横帐诸王、国舅、公主设立，城中居住俘虏和媵户，被城主奴役从事农牧业生产，设置官吏管理和兵卒监督劳动，而城主并不住在城内，仍居住在逐水草游牧的毡帐中。一般都不加筑马面、角台和瓮城门。

4、奉陵邑

奉陵邑是专为皇帝陵园守卫和祭祀而修建的城郭，城内主要建筑为停放皇帝的梓宫和祭奠用的大殿、享堂以及膳房等，驻守的节度使及所属官员居住于次要的角隅，守陵户居住在外郭及城外关厢地带。

内蒙古地区有辽祖陵、庆陵和怀陵三个陵园，其奉陵邑分别为祖州、庆州和怀州。

5、边防城

边防城是专为驻守官兵而修建的城郭，城中不住百姓，主要功能是防御，都筑有马面、角台和瓮城门等。

如陈巴尔虎旗浩特陶海古城，应是辽通化州城址，城垣平面呈方形，边长500米，加筑有马面、角台，南北墙正中各开一门，并加筑有瓮城门。

(二) 墓葬制度

辽王朝自辽太祖耶律阿保机称帝到其灭亡的209年之间，在其辽阔的疆域内遗留下了大量的墓

葬，包括契丹人的墓葬和汉人的墓葬，主要分布于现在的内蒙古自治区、辽宁省、北京市和河北、山西二省北部一带。

内蒙古地区辽墓的考古调查始于二十世纪初，最早也是有外国人进行得；建国以后辽代墓葬考古蓬勃发展，得到了科学的发掘和记录。

1、辽代帝陵

辽王朝自辽太祖耶律阿保机称帝到其灭亡传国209年，历经九帝。

其陵墓主要分布为五区：内蒙古巴林左旗的祖陵，葬辽太祖；内蒙古巴林右旗的怀陵，葬辽太宗和辽穆宗；内蒙古巴林右旗的庆陵，葬有辽圣宗、辽兴宗和辽道宗；辽宁翳巫闾山东丹人皇王的显陵，葬有辽世宗；辽宁北镇西南的干陵，葬有辽景宗和天祚帝。

龟趺山基址——辽太祖纪功碑楼

2、辽代墓葬

现在已经发现的辽代墓葬可以分为两类：一类是契丹贵族墓，一类是汉族官吏墓葬。契丹贵族墓多分布在辽代的上京道和中京道内，东京道内的西北部分也有发现，而且多是聚族而葬；汉族官吏墓多分布在辽代的南京、西京和东京附近

内蒙古地区（北区）辽墓可以分为早、中、晚三期。

早期是从辽建国初期到辽圣宗以前的时期，这个时期的墓葬以吐尔基山辽墓、宝山辽墓、耶律羽之墓为代表。

大型墓葬多有长斜坡墓道；墓室主要是方形或者圆角方形的石室墓或砖室墓，少量为圆形；大部分为单室墓，个别带有简单的耳室；壁画内容丰富，有侍奉图、出行图、人物肖像图等，多绘于墓室；葬具有木制的棺床、棺以及小账等，随葬品多金银器（生活用具）、马具、兵器和丝织品等，实用陶瓷器数量众多；部分贵族墓葬开始出现墓志。

中小型墓多为土坑竖穴墓。

吐尔基山辽墓

墓葬位于通辽市科尔沁左翼后旗吐尔基山东南麓的山坡上，南距吐尔基山水库行政村约1公里，西南面有吐尔基山红领巾水库，西北有哲里木盟采石矿。

(二) 墓葬介绍

墓葬方向为115°。该墓葬由墓道、墓门、甬道、墓室及耳室组成。墓道为长斜坡墓道，长48米，已经部分被破坏，两壁用石块垒砌，应是为了防止塌方而为；墓门口有封门石封住，封门石长

2.06米，宽1.50米，厚0.45-0.50米；甬道长2.00米，宽1.38米，高1.50米，在甬道中间有一道木门，两扇对开，每扇门各有上下三排铜鎏金门钉，门上有一把铁锁，已经锈死；墓室近似于正方形，长3.92米，宽3.70米，最高3.36米，迭涩顶，藻井直径约为1.78米，墓室四壁应有壁画，但由于墓室内进过水，绝大部分已经脱落，仅藻井及墓门上方残存一部分；耳室位于墓室的前部，呈长方形，左耳室长1.36米，宽0.90米，高0.98米，右耳室长1.30米，宽0.86米，高0.99米，两个耳室均有木门。

(四) 随葬品

n 出土的随葬品主要有铜器、银器、金器、漆器、木器、马具、玻璃器以及丝织品等。铜器有钟、铜铃、牌饰、铜泡等，大部分为铜鎏金；银器有银盒、银篲、银壶等；金器有单耳八棱金杯、摩羯形嵌绿松石金耳坠、金手镯、金戒指、针等；漆器有漆盒、漆盘等；马具有包银木马鞍、马镫、带饰、牌饰等；玻璃器为一玻璃杯；在淤沙及棺上还发现大量的丝织品，墓主人身穿11层衣服。

(五) 小结

重大发现——吐尔基山墓葬是契丹贵族的墓葬，也是近年来中国辽代考古的最重要发现之一。

出土遗物——吐尔基山辽墓出土了大量的珍贵文物，有漆器、木器、金银器、丝织品、铜器、瓷器、铁器以及玻璃器等。

重要意义——吐尔基山辽墓的发现，对研究辽代的社会生活、风俗习惯、服饰、艺术以及丧葬习俗都有十分重要的意义。

问题一：墓主人究竟是谁？

辽代墓葬中很多都有墓志来描述墓主人的生平事迹，但该墓没有，因而墓主人的身份只有通过历史记载来进行推断了。

问题二：墓主人究竟是干什么的？

在草原地区流行原始宗教萨满教，而且传说最早萨满巫师是女性，萨满服一般罩有披肩或坎肩，在披肩或坎肩上刺绣有左日右月图案，而吐尔基山辽墓墓主人穿着的衣服上也有丝线缝系的代表太阳和月亮的金银牌饰，恰恰也是左日右月，而且吐尔基山辽墓墓主人的头部金箍和现代达斡尔族萨满巫师的头饰也有相似之处，因而墓主人有可能是一个萨满巫师（太巫或大巫）。

问题三：墓主人究竟是怎么死的？

墓主人的年龄经检测为30—35岁，那么她是怎么死的？在其体内发现了水银，故有人认为是毒杀。但是契丹人有一个习俗，就是在人死后，再灌入水银，据说是能够防止尸体腐烂，这在以前的考古发掘中也有发现。经过中国武警总医院鉴定，确认水银是在墓主人死后灌入进行防腐的。

耶律羽之墓

(一) 耶律羽之简介

n 耶律羽之生于唐大顺元年（890年），契丹迭刺部人。自幼聪慧，才能过人，通晓多部族语言。早年参与军谋，为阿保机所器重。天显元年（926年），太祖征灭渤海，改其国为东丹国，册封皇太子耶律倍为人皇王，任命耶律羽之为中台右平章事（即右次相），因办事勤恪，建树颇丰，不久即加太尉掌军事，翌年又加太傅判盐铁，封东平郡开国公。天显二年太宗即位，耶律羽之迁升为左相。天显

五年，人皇王忧太宗见疑，漂海奔唐，嗣后东丹国实际由耶律羽之主政。天显十三年，太宗受大晋之册礼，改元会同，特召耶律羽之入朝，表彰其为通敏、博达、启运功臣，加特进参议朝政，进阶上柱国。同年改东平为东京，耶律羽之终前亦兼东京太傅之职。

（二）地理位置

耶律羽之墓位于内蒙古自治区赤峰市阿鲁科尔沁旗罕苏木苏木朝克图山的南坡上，南距阿鲁科尔沁旗政府所在地130余公里。

（三）墓葬概况

n 墓葬为砖石结构，由墓道、门庭、墓门、甬道、东西耳室和主室组成。方向175度。墓道为阶梯式；门庭呈长方形，连接墓门的两侧砌砖墙；墓门由磨制精细的大型石构件组成，包括门额、门柱、门楣及两扇石门；甬道呈长方形，石条垒砌，抹有白灰面，残存有壁画；东西耳室位于甬道两侧，平面呈方形，迭涩攒尖顶；主室平面呈方形，做工精细讲究，装饰华丽，室内四壁及顶部均以绿色琉璃砖砌筑，迭涩攒尖顶，以大型琉璃砖封顶。

（五）小结

耶律羽之墓规模宏大，结构精细讲究，墓室以琉璃砖为建筑材料，坚固美观，这种四壁生辉的设计在众多辽墓中堪称一绝。大量随葬品做工精湛，许多文物在工艺和造型上都极具特色。墓志洋洋千余言，史料丰富，有助于对文献史实的堪补，特别是有关契丹与鲜卑关系的记载殊为珍贵。

耶律羽之墓的发现，再现了辽当时在政治经济、文化艺术等方面所取得的成就，反映了契丹文化除传统因素外，亦包含诸多外来因素。

中期是辽圣宗到辽兴宗时期，这个时期的墓葬以陈国公主墓、韩匡嗣墓为代表。

墓葬的墓道多为阶梯状墓道；墓门多有封门石和封门砖封住；仿木结构砖雕门楼开始出现，在甬道部位开始出现对称的小龛；墓室多为圆形和圆角方形砖室墓，开始出现六角形和八角形墓；墓室也开始出现砖雕仿木结构；墓顶多为穹窿顶；柏木质的弧形护壁流行，弧形护壁直到顶部，多数有木制小账、石棺等葬具，开始出现各种材质的面具、网络；随葬器物金银器较多，还出现了波斯等地的玻璃器，马具开始明器化；壁画的内容更加丰富，墓道和天井部位一般绘有出行图，前室和甬道顶部是绘画的重点区域，一般墓主人对坐图、男女侍奉图、行猎图等。

陈国公主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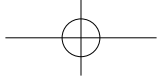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一）陈国公主与驸马简介

墓志记载：陈国公主乃景宗第二子秦晋国王耶律隆庆之女，正妃萧氏所生。初封太平公主，进封为越国公主，追封陈国公主。陈国公主卒于开泰七年，祔葬于驸马萧绍矩“先太师之莹”。

驸马都尉萧绍矩是萧思温之孙、萧燕燕（景宗睿智皇后）之侄，萧绍矩曾任泰宁军节度使，追封检校太师。

（二）地理位置

n 陈国公主与驸马合葬墓位于内蒙古自治区通辽市奈曼旗青龙山镇东北10公里斯布格图村西的



的山南坡上，地处辽西山地北缘的浅山丘陵地带。驸马萧绍矩家族墓地就在这里。

(一) 陈国公主与驸马简介

墓志记载：陈国公主乃景宗第二子秦晋国王耶律隆庆之女，正妃萧氏所生。初封太平公主，进封为越国公主，追封陈国公主。陈国公主卒于开泰七年，祔葬于驸马萧绍矩“先太师之莹”。

驸马都尉萧绍矩是萧思温之孙、萧燕燕（景宗睿智皇后）之侄，萧绍矩曾任泰宁军节度使，追封检校太师。

(二) 地理位置

陈国公主与驸马合葬墓位于内蒙古自治区通辽市奈曼旗青龙山镇东北10公里斯布格图村西的山南坡上，地处辽西山地北缘的浅山丘陵地带。驸马萧绍矩家族墓地就在这里。

(三) 墓葬介绍

陈国公主与驸马合葬墓由墓道、天井、墓门、前室、东西耳室和主室组成。方向为136度。墓道为斜坡阶梯式，东西两壁绘有侍从牵马图；天井近似于长方形，上宽下窄，前接墓道，后接墓门；墓门为仿木结构砖砌建筑；前室为长方形，券顶，东西两壁各有一个迭涩顶的壁龛，东西两壁绘有男女仆役和手持骨朵的侍卫、展翅飞翔的白鹤，顶部绘有日、月、星、云、天象等；耳室平面呈圆形，券门，穹隆顶，双扇木门对开；主室平面呈圆形，四周有弧形木护壁。

(四) 随葬品

陈国公主与驸马合葬墓随葬品十分丰富，又很精致。主要出于前室、主室、尸床和东西耳室。东耳室主要是饮食器具；西耳室主要是马具和一些仪卫明器；主室的随葬品主要位于尸床和供台上，在室内还发现一些金银器、玻璃器、银带、蹀躞带、玉器、木弓囊、铜器以及玛瑙、琥珀、水晶、珍珠等佩饰。

(五) 小结

陈国公主与驸马合葬墓是一座辽代中期典型的契丹贵族墓葬，是一次重要的发掘，在辽代考古学上有极其重要的意义。墓中出土随葬品丰富多彩，许多随葬品保存完整，有些精品为首次发现。其随葬品不仅反映出契丹传统的民族生活习俗，也反映出了契丹族吸收汉文化因素，创造出自己独特的民族文化，以及与汉文化和西方文化的交往等。这些珍贵的实物资料为研究契丹社会的政治、经济、历史、生活习俗以及与汉文化的交往关系以及中西文化的交流提供了重要的数据。

韩匡嗣墓 (M3)

(一) 韩匡嗣简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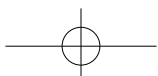
韩匡嗣是辽代开国功臣韩知古之子，其家族为辽代望族。韩匡嗣五子为韩德让（耶律隆运）官拜大丞相，因功绩卓著于统和二十二年（1004年），赐国姓耶律，使韩氏一族附籍“横帐”

(二) 地理位置

韩匡嗣墓位于内蒙古自治区赤峰市巴林左旗白音乌拉苏木白音罕山南坡上，东南距四方城城址15公里，距辽上京故城82公里。此处也是韩氏家族墓地，而韩匡嗣即是埋葬在其中的辈分最高的人。

(三) 墓葬介绍

韩匡嗣墓为砖结构多室墓，方向为南偏东37度，由墓道、天井、墓门、甬道、前室、左右耳室和主室组成。墓道为斜坡式墓道；天井平面呈长方形；墓门砖砌，呈拱形，仿木结构建筑；甬道平面



呈长方形，砖筑，连接墓门及前室，左右两壁各有一壁龛；前室平面呈圆角方形，迭涩穹隆顶，左右各有一个耳室，四壁有仿木结构砖雕建筑构件；左右耳室平面呈长方形，迭涩攒尖顶，四壁有仿木结构砖雕建筑构件；主室砖筑，平面呈圆形，叠涩穹隆顶，四周有弧形护壁，后部有石制尸床。

(四) 小结

作为辽政权的忠实捍卫者，韩氏家族与辽王朝兴衰休戚相关。韩匡嗣墓及韩氏家族墓地的发现，弥补了史书中的诸多缺憾，为研究辽代政权组成及汉族与契丹的关系提供了宝贵的数据。其壁画对研究辽代风土人情、衣冠制度、文化习俗等是不可多得的珍贵资料。

晚期是辽道宗到辽亡时期，这一时期以耶律弘世墓和耶律弘本墓为代表。

这一时期的显著特点是多边形砖室墓大量流行，方形墓和圆形墓并存；仿木结构砖雕门楼流行；墓室的主室规模变小，前室退化，一般变为长方形券顶甬道；墓室内多砖雕仿木结构；大部分墓葬没有天井或者从属于墓道，墓道靠近墓门处多铺有地砖；柏木质的弧形护壁流行，弧形护壁直到顶部，许多墓葬在耳室也使用，部分木护壁上有彩绘的画；壁画内容更加丰富，有的甚至有几层壁画，绘制过多次，内容多侍奉图、乐舞图以及各种生活场面图等，有的墓门两侧绘制有侍卫、门神、主要绘制在墓道、墓室以及耳室甬道等处；随葬品中三彩器和黄釉瓷器增多，兵器已经很少见。

내몽고지역 요대 고고학 연구

탐람 내몽고 고고연구소장 겸 박물관 원장

I. 내몽고지역 요대 고고학의 연구사 회고

내몽고지역 요나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1). 1900년대~1940년대(서양 학자들의 도굴과 탐험을 통하여 조사됨)

- 1912년과 1920년에 프랑스 신사인 Joseph L. Mullie이 내몽고 동부의 요대 유적을 조사.
- 1914년과 1922년에 임서현장과 Mullie이 요대 경릉에 대한 처음으로 발굴 조사하였으며

중릉의 평면도도 실측함.

- 1922년 프랑스 선교사 Louis Maric Keryyn이 중릉을 답사하여 애책 2방을 발견.
- 1930년 군벌 탕옥린의 아들이 경릉에 대한 대규모 발굴하였으며 석각과 애책이 출토.
- 1931년 일본 동아고고학회 내몽고 조사단(江上波夫, 田村實造)이 경릉을 조사.
- 鳥居龍藏(1930년과 1934년), 關野貞(1934년), 黒田源次(1935년) 등이 경릉을 발굴.
- 1936년에 江上波夫와 赤堀英三이 상경과 경주 등지의 성지를 조사.
- 1939년에 경도 제국대학의 田村實造와 小林行雄 등이 경릉과 경주성에 대한 실측하였으며 벽화와 일부 유물도 가지고 갔고 1953년에 『경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1944년에 島田正郎이 조주성을 발굴하였으며 1944년에 동양 도자기연구소의 小山富士夫, 黒田源次, 上元之節 등이 적봉 향와요를 조사.
- 1944년에 小山富士夫 등이 임동요를 조사.

2). 1950년대~1960년대(성지의 측량, 시굴 등 조사와 무덤 · 가마 등에 대한 연구시작)

- 1953년에 열하성박물관 준비팀이 적봉시 홍산구 회갑산 남쪽의 요대 부마 증 위국 국왕 부부합장묘 발굴 조사.
- 1962년에 내몽고자치구 문물공작팀이 요상경 성지 탐사 및 시굴 조사.
- 1964년에 내몽고 소오달맹 문물공작팀이 적봉 향와요 가마터에 대한 조사 실시.

3). 1960년대~현재(요대 능침제도와 상장제도를 연구하였으며 발견이 많음)

- 1986년에 내만기에 진국공주묘 발굴 조사.
- 1992년에 아오과이심기에 야를우지 및 그의 가족묘지 발굴 조사.
- 1994년에 아노과이심기 보산묘지에 귀족무덤 2기 조사.
- 2001~2002년 요상경 성지에 대한 전면 측량 및 일부 시굴 조사.
- 2002년에 요중경 반절답 기동 발굴 조사.
- 2003년에 도이기산 요묘 발굴 조사.

II. 내몽고지역 요대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1) 성곽제도

- 요대 城地가 약 560여기가 있으며 내몽고에는 약 80여기가 있음.
- 城地의 기능에 따라 도성, 두현성, 두하주성, 봉릉읍과 변방성 5개의 유형이 있음.
- 도성은 내몽고에 상경 임황부와 중경 대정부가 있음.
- 요상경은 내몽고 파림좌기 임동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대 오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도성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도성이며 중국 북장 초원에 만든 첫 번째 초원도시이다. 요상경은 북과 남에 위치하는 황성과 한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성이 중간에 같은 성벽을 이용한다. 황성은 거란 황제가 거주한 것이며 다시 대내와 외성 양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요상경은 해방 전에는 외국학자에 의해 조사되다가 1962년 중국학자가 처음으로 탐사와 시굴을 실행하였다. 1997년에 내몽고문물연구소와 중국 국가박물관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항공 탐사하였으며 2001~2002년에 내몽고문물연구소가 다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탐사, 측량 및 시굴 조사를 실행하였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상경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규모, 성벽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요중경은 내몽고 적봉시 녕성현 대명진과 청장영자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합하의 북쪽 총적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요중경의 구조 배치는 북송 변경을 모방하여 외성, 내성과 황성으로 구성되었다. 외성의 평면은 정사각형이며 동서 길이 4,200m, 남북 너비 3,500m이다. 내성은 외성 중앙 약간 북쪽으로 빠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역시 정사각형을 띄고 있으며 동서길이 2,200m, 남북 너비 1,500m이다. 황성은 또 대내로 하고 내성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정사각형이며 변장이 1,000m이다. 요중경도 역시 외국학자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1959~1962년에 내몽고문물공작팀이 탐사 및 시굴을 처음으로 실행하였다. 1986년에 내몽고 문물고고연구소가 대명탐의 수선 작업과 같이 요중경에 대한 대규모의 전면 탐사 및 시굴조사를 실행하였다. 1997년에 내몽고문물연구소와 중국 국가박물관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항공 탐사하였다. 요중경은 요양조의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중심도시이며 북송의 도시 제도도 잘 반영되어 있다.

- 주현성은 2개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서경도 한족인 거주하는 구역에 당대의 城市제도를 모방하여 상, 중, 하 3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것이다. 또 하나는 거란 본토범위 상경 및 중경도에 당대의 성시제도를 모방하지 않으며 치, 각대, 웅성 등도 없고 규모와 크기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 두하주는 제왕, 외척, 대신들이 포로들을 사유화 되고 축성하여 안치한 장소이다. 이 성에 있는 노예들이 주로 농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성주는 성안에 거주하지 않고 성 밖에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성은 역시 치, 각대, 웅성 등이 없는 것이다.

- 봉릉읍은 황제 능원을 수비하기 때문에 만든 성이다. 성안에 주로 황제 관목을 안배하는 재궁과 제사용 대전, 향당, 선방 등이 있다. 수비 인원들이 주로 성의 모서리나 외성, 성외 관상부분에 거주하고 있었다. 내몽고지역에서 조릉, 경릉, 회릉이 있는데 이와 대응하여 조주, 경주, 화주 3개의 봉릉읍이 있다.

- 변방성은 수비 사병들을 위한 건조한 성시이며 성안에 일반 거주민이 없다. 성의 기능이 주로 방어이며 거의 대부분이 치, 각대, 웅성을 설치하고 있다. 진파이호기에 위치하는

호특토해고성은 요대 통화주의 성터이며 평면 형태는 사각형을 띄고 있으며 변장이 500m이며 치, 각대 등이 있다. 남과 북쪽 성벽에 성문이 설치하고 있으며 웅성도 설치하고 있다.

2) 묘장제도

· 요대는 모두 209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주로 거란족과 한인의 무덤이며 현재 내몽고, 요녕, 북경, 산서, 하북 등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내몽고의 요대 무덤은 최초로 역시 외국학자가 하다가 해방 후에 중국학자들이 전면적인 과학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하였다.

· 요대의 황제는 모두 9분이 있으며 그들의 능묘는 주로 5개의 묘구에 위치하고 있다. 내몽고 파림좌기의 조릉에는 요태조만 안장되어 있다. 내몽고 파림우기의 회릉에 주로 요태종과 요목종이 안장되어 있다. 내몽고 파림우기의 경릉에 주로 요성종, 요경종, 요도종이 안장되어 있다. 요녕 현릉에 주로 요세종이 안장되어 있다. 요녕 북진의 간릉에 요경종과 천조제이 안장되어 있다.

· 2007년에 내몽고문화고고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공동으로 조릉에 대해 조사하였다.

· 조릉 1호묘에 대한 몇가지 인식과 문제점이 있는데 시대문제(요조기), 매장자 신분(미상), 장식(단인장? 합장묘?), 장차(일차장? 이차장?), 묘정부가 무너지는 원인 등이 있다.

· 구부산 기지(요태조 궁터비)의 조사.

· 요대 묘장은 크게 2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란 귀족무덤과 일반 한족 관리의 무덤이다. 귀족무덤이 대부분이 상경도와 중경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족 무덤이 대부분이 남경도, 중경도, 서경도에 분포하고 있다. 요대 묘장은 시기에 따라 조기, 중기, 만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조기 무덤은 요초부터 요성종까지에 속하면 대표적인 무덤이 토이기산요묘, 보산요묘, 야를우지요묘 등이 있다. 대형묘장은 대부분이 비교적 긴 경사 묘도가 있고 묘실은 방형이나 원각 방형의 석실묘와 전실묘이며 소량적인 무덤은 원형묘이다. 대부분이 단실묘이며 일부 무덤만 이실이 있다. 벽화는 주로 묘실에 있으며 그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주로 출행도, 시봉도, 인물도가 있다. 장구는 목제 관상, 관 및 소장이 있고 부장품이 금은 생활용품, 마구, 무기, 비단 제품 등이 있다. 일부 귀족 무덤에 묘지도 있다. 중소형 무덤이 대부분이 토갱수혈묘이다.

· 토이기산요묘는 통요시 과이십좌익후기의 동남쪽 토이기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은 토이기땀마을까지 약 1km 떨어지고 서남쪽에 토이기산 홍영건땀, 서북쪽에 광산이 하나 있다. 무덤의 장축방향이 115°이며 묘도, 묘문, 용도, 묘실과 이실로 구성되었다. 묘도는 긴 경사 이루고 있으며 전체 길이 약 48m이다. 묘문쪽에 큰 돌이 하나 있으며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봉쇄석의 크기는 2.06*1.50*0.45-0.50m이다. 용도 중앙에 철문이 대칭으로 2개가 있으며 문에 금동 못이 3개가 있다. 또한 문에 쇠도 하나 있는데 녹이 심해서 열 수 없다. 묘실이 거의 사각형을 띄고 있으며 길이 3.92m, 너비 3.70m, 최대 높이 3.36m이다. 정부 직경이 1.78m이며 묘실 사벽에 벽화가 있지만 물이 스며들어 대부분이 탈락되었다. 이실이 묘실 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 형태는 사각형을 띄고 있다. 좌측 이실의 크기는 1.36*0.90*0.98m이며 우측 이실의 크기는 1.36*0.86*0.99m이다. 양 이실에 모두 목문이 안치되어 있었다. 묘실 후반부에 채회 관상과 관이 있으며 그 채회 내용이 주로 선학, 봉황, 목단, 상운 등이 있다. 선학은 금동으로 만들고 주변에 현수한

방울도 있다. 관목의 머리 부분에서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쇠가 하나있다. 문의 양쪽에 인물상을 그리고 있었다. 관상은 8층의 수미상으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난간이 있다. 난간 사이에 6머리의 동제 사자도 있고 그 위에 중앙부분에 봉황을 그리고 있다. 내관 정면에 동물 3세트가 있다. 부장품이 주로 금기, 은기, 동기, 철기, 목기, 칠기, 마구, 유리제품, 비단 등이 있다. 묘주인은 11겹의 옷을 입고 있었다. 토이기산 요대 묘는 근년에 중국 요대 고고학의 중요한 발견이며 이는 요대의 사회, 봉속, 경제, 문화 등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향후에 연구하는 과제는 무덤 주인공의 신분, 당시 사회에의 위치, 사망원인 등이 있다.

· 야를우지묘는 적봉시 아로과이십기 한소목소목 남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아로과이십기정부까지 약 130km 떨어진다. 무덤이 전석구조를 갖고 있고 장축방향이 175°이며 묘도, 문정, 묘문, 용도, 동서 이실과 묘실로 구성되었다. 묘도는 계단식이고 문정이 장방형이다. 묘문은 문액, 문주, 문미와 문으로 조성되었다. 용도는 긴 사각형이며 양쪽에 벽화가 있다. 동서 이실은 용도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 형태는 정사각형을 하고 있다. 묘실의 평면형태 역시 정사각형이며 사벽과 정상부에 유리장식 벽돌과 기와로 장식되었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이 주로 금은기, 토자기, 차나구, 비단, 동기, 철기, 옥기, 마노, 수정 등이 있다. 이 무덤을 통한 요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면을 모두 연구할 수 있으며 특히 출토된 외제 유물을 통한 당시 요의 대외교류도 연구할 수 있다.

· 요대 중기의 무덤이 주로 요성중부터 요흥중까지에 속하며 이 시기에 대표적인 무덤이 진국공주묘, 한광사묘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묘도는 대부분이 계단식이며 묘문에 봉문석과 봉문주가 등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목조를 모방한 구조도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용도에 대칭적인 감실도 설치되어 있었다. 묘실의 평면구조는 원형이나 원각방형 전실묘이며 육각형과 팔각형 전실묘도 등장하였다. 정부는 대부분이 궁륭정이며 목제 소장과 석관이 장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무덤 주인공의 얼굴에 마스크나 망상장식품이 있는데 외제 유물도 많이 발견되었다. 마구는 명기화 되고 벽화 내용은 더욱 다양하다.

· 진국공주는 요경중 2번째 아들의 딸이며 개태 7년에 사망하였다. 진국공주와 부마의 합장묘는 내몽고 통요시 내만기 청룡산진 동북쪽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은 묘도, 천정, 묘문, 전실, 동서 이실과 묘실로 구성되었다. 무덤의 장축방향이 136°이다. 묘도는 경사 계단식이며 그의 양쪽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천정은 정사각형과 가깝고 상관하협의 구조이다. 묘문은 목제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정사각형이며 동 서 양쪽에 감실이 각 하나 있다. 동서 양 벽에 수비인과 백학을 그리고 있으며 정상부에 일, 월, 성, 운 등의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실과 묘실의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이실은 궁륭정이다. 이 무덤에서 부장품이 주로 전실과 묘실, 관상, 이실에 출토되었으며 조로 금은기, 유리기, 옥기, 동기, 마노, 수정, 진주 등이 있다. 진국공주묘는 요대 중기의 대표적인 무덤이며 고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많은 부장품이 완벽하게 남아 있으며 그들의 통한 거란과 한족의 교류를 잘 확인할 수 있다.

· 한광사는 요대 건국 공신 한지고의 아들이며 그의 가족이 요대의 귀족이다. 한광사묘는 적봉시 파립좌기 백음오랍소목 백음한산의 남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에 사방성까지 약 15km 떨어지고 요상경까지 약 82km 떨어진다. 무덤이 전실 다실묘이며 장축방향은 남동 37°이다.

무덤은 묘도, 천정, 묘문, 용도, 전실, 좌우이실과 묘실로 구성되었다. 묘도는 경사식이며 천정은 정사각형이다. 묘문이 벽돌로 만든 공문이며 목제 구조를 모방한 것이다. 용도 편면은 정사각형이며 양 벽에 감실도 있다. 전실의 평면 형태는 원각방형이며 궁륭정구조이다. 이실의 평면형태도 정사각형으로 띄고 있으며 사벽에 벽돌 조각 장식 구조가 있다. 주실의 평면은 정사각형으로 띄고 있으며 정부는 역시 궁륭정이다. 한광사묘를 통한 요대 사회에 한족과 거란귀족의 관계, 그리고 현지의 풍습, 의관제도 등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 만기는 요도중 이후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대표적인 무덤은 야를홍세묘와 야를홍본묘이 있다. 이 시기 무덤의 특징은 다각 전실묘가 많이 성행되었으며 사각형묘와 원형묘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목제 구조를 모방한 장식이 많이 나타나고 묘실의 규모가 축소하고 전실이 퇴화되었다. 대부분 무덤이 천정이 없거나 천정과 용도가 같이 있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묘도 바닥에 묘문과 인접한 부분에 벽돌이 많이 사용하였고 나무로 만든 보호 장비가 많이 유행되었다. 벽화 내용이 더욱 다양하고 심지어 다층 벽화도 등장하였다. 부장품에 삼채기나 황유자기가 많아지고 무기가 점차 안 보인다.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АГ ДАХЬ
ХЯТАНЫ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ХЭВ
ШИНЖИЙН ТУХАЙД

А.Энхтөр.
(Монгол Улс,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

Нүүдэлчидийн төрт улсууд нь түүхэн цаг хугацаанд ээлж дараалан тал нутгийг эрхшээлдээ оруулж байсан ба өмнөх улсынхаа соёл боловсролыг уламжлан авч шинээр дэлгэрүүлэн хөгжүүлж байсан нь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д нэгэнт ил болоод байна. Үүний нэг жишээ бол Хятан улсын үед Монгол аймгуудын нутагт байгуулсан хотууд юм.

Судалгааны тойм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агт анх Хятаны хот суурингуудыг судлах ажлыг XIX зууны сүүлчээс эхэлжээ. 1870-аад онд Оросын эрдэмтэн А. Падерин одоогийн Монгол Улсын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нутагт буй Хар бух балгасыг олж судалжээ [Падерин.А .1874. 350-370].

Үүний дараа В. В. Радлов, Н. М. Ядринцев нарын удирдсан судалгааны анги Орхон, Туул голын хөндий дэх эртний Уйгур, Хятан, Монголчуудын олон хот сууринг анх удаа илрүүлэн олж, нэлээдийнх нь тодорхойлолт,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нь үйлдэж,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сан байна [Радлов В. В., 1892,1893; Н. М. Ядринцев.1892 .1893;].

Оросын эрдэмтдийн энэ ажил нь ерөөс монгол төдийгүй, Төв Азийн нүүдэлчд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ууд болоод бичиг үсгийн дурсгалыг анх илрүүлэн, судлаачдын сонорт хүргэж, чингэснээр энэ чиглэлийн судалгааны шанг татаж, цаашдын шинжилгээний зам мөрийг гаргаж өгсөн байна.

1909 онд фин эрдэмтэн Ж.Гранэ тэргүүтэй судлаачид Монгол орны баруун хойт, умарт хэсгээр аялан явахдаа Туул голын савд буй Хятан зарим хот Хадаасангийн балгас үзэж түүний дотор буй чулуун барилгуудын суварганы фото зургийг авч хэвлүүлсэн байна [Grano.J.G, 1910.].

1920-иод онд Оросын судлаач С.Кондратьев Онон голын саваас Хятаны үеийн чулуун хэрэм илрүүлэн олж, анхны тодорхойлолт хийж, судлаачдад мэдээлсэн аж. Энэхүү хэрэм одоогийн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Биндэр сумын нутаг дахь Өглөгчийн хэрэм бөгөөд С.Кондратьев Хэрмийн тухайн үеийн өндрийн хэмжээ хэрмийн хаалга зэргийг тодорхойлон харцуулсан гэрэл зураг авч үлдээсэн нь түүхэн чухал баримт болон үлджээ[Кондратьев.С. 1926].

1926 онд Монголч эрдэмтэн Н.Н.Поппе Б.Бамбаев нар Туул гол даган Орхонг хүртэл аялахдаа Туулын хөндийд буй Хятаны үеийн Чинтолгойн Хэрэмийг үзэж, хэрэмийн дотор байсан хоёр чулуун мэлхийг үзэж тэмлдэглэсэн байна[Поппе.Н.Н. 1926].

Оросын эрдэмтэн Д. Д. Букинич 1930-аад оны эх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хүрээлэнд ажиллаж байхдаа, мөн урьд эрдэмтдийн илрүүлэн олсон Чин толгой /Хадаасангийн/ хотын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үйлдэн Хэрмийн дотор байсан хоёр чулуун мэлхийн орчимд малтлага хийн тодохойлолт гар зургийг үйлдэн баримтжуулсан ба мөн өмнөд хэрмийн дотор нэгэн барилгын туурийг малтан баганы суурь чулууд дээврийн ваар их хэмжээгээр илэрүүлэн олж зарим олдвор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г түүхийн музейд шилжүүлэн өгсөн байна[Букинич. Д.Д. 1933-1934.]

Оросын эрдэмтэн С. В. Киселев, Монголын археологич Х. Пэрлээ нар 1940-өөд оны сүүлч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аг Орхон голын савд явуулсан шинжилгээ нь

Монголын хот суурингийн судалгааг шинэ санал дүгнэлт, биет олдвороор баяжуулсан юм. Энэ ажлын хүрээнд Хадаасангийн балгасанд хэд хэдэн газар жижиг сорилын малтлага хийж Хятаны үеийн дурсгал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на [Киселев.С.В. 1947]. Эрдэмтэн С. В. Киселев Монголын эртний хотуудын тухай нэгэн сэдэвт зохиол хэвлүүлсэн ба үүндээ Хүннү Уйгур Хятан Монголын үеийн хотууд дэвсгэр зургийн хамт хэвлүүлж хот байгуулалтын онцлогын тухай бичиж хэвлүүлсэн байна [Киселев.С.В. 1965].

1950-иад оноос Х.Пэрлээ,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нутагт буй Чин толгойн балгас, Талын улаан балгас, Хар бухын балгас,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Мөрөн сумын нутаг Хэрлэн мөрний хөндийд орших Зүүн хэрэм, Баруун хэрэм, Дорнод аймгийн нутагт буй Хэрлэн барс,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Батширээт сумын нутагт буй Өглөгчийн хэрэм зэрэг 10 орчим хотуудыг малтан шинжилж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мэдээтэй харьцуулан судалжээ[Пэрлээ.Х. 1957 ;1959,].

Хятаны үеийн хотууд нь цэргийн бэхлэлт байхын хамт гар үйлдвэр, тариалангийн ажил эрхэлдэг байсан бөгөөд тэдгээрийг малтан шинжлэхэд Хятан нарын аж ахуйн үйлдвэрлэл төдийгүй тэдний оюун санааны хөгжилтэй холбогдох сонирхолтой олдворууд нилээд гарсан байна[Пэрлээ.Х., 1957., 1959].

Х.Пэрлээ Хятаны түүх,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ыг судлан тэдний аж ахуй, угсаа гарвал,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соёлыг нэгтгэж ганц сэдэвт зохиол туурвисан юм[Пэрлээ.Х, 1959]. Энэ нь Монгол ба Төв Азийн түүхэнд Хятан нарын эзлэх байр суурийг гаргаж чад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томоохон бүтээл болсон билээ. Тэрээр Хятан нарын соёлын холбогдолтой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нилээд илэрүүлэн хэвлэсэнээс Чинтолгойн балгасны дээврийн ваарны дээрхи бичээс, Хэнтий аймгийн Салбар уулын ханан хаданд сийлсэн бичээс зэрэг сонин дурсгал олон байгаа бөгөөд Хятан нарын бичээсийг эрдэмтэд өнөө хэр тайлан уншаагүй байна.

Х.Пэрлээ, 1951 онд Дундговь аймгийн Сайнцагаан сумын нутагт буй булш, 1967, 1968 онд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Батширээт сумын нутаг Төгсийн өвдөг, Хурхын гол, Жаргалантын голын сав газарт хорь гаруй булш малтан шинжилж тэдгээрийг хятан нарын булш гэдэг саналыг дэвшүүлжээ[Пэрлээ.Х.1982]. Эдгээр булшнаас төмөр эдлэл, сумч хутга, дуулганы төмөр ялтас, хээтэй шавар сав, морь, малын яс зэрэг эд өлгийн зүйлс олдсоны гадна, гал түлж ёслол үйлддэг байсан нь малтлагаар илэрчээ.

Д.Цэвээндорж, 1986 онд Говь-Алтай аймгийн Цогт сумын Хиргист хоолой гэдэг газар хүннүгийн булшны даланг хожим хонхойлон 7 хүнийг оршуулсан оршуулгыг малтан шинжилсэн юм. Оршуулгаас гарсан гоёл чимэглэл, эд өлгийн зүйл нэн ялангуяа жад, сумны зэв, хуяг зэргээс Хятаны үеийн оршуулга байж болох тухай санал дэвшүүлсэн юм[Худяков.Ю.С, Цэвээндорж..Д, 1988].

1970 оны үед Х.Пэрлээ Э.В.Шавкунов нар Харбухын балгасны эвдэрхий чулуун суварганы нуранхайгаас монголчуудын бичгийн соёлын үнэт өв болох үйсэн дээр бичсэн ном олсон нь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вьд гойд ховор олдвор юм. Үйсэн номууд нь хэдэн арван нэр төрөл, 7х4 см (сантиметр)-ээс 14х5 см хэмжээтэй хуудас бүхий, хуудас бүрийг хүрээлэн шугамдаж, алаглан гоёсон, хуудасны ар өвөр, мөрийн тоог жигдэлж, хэвшин тогтсон нарийн дүрэм журмаар үйлдсэн, ихээхэн дадлага туршлага бүхий олон бичээчийн уран гараар бүтсэн зүйл байжээ. Энэ хятаны хотын туурин дээр хожим монголчууд дахин сүм дугана бариж байсныг нотолсон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аг дахь эртний болоод дундад зууны үеийн нүүдэлчд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судалгаанд Х. Пэрлээгийн бүтээл хүндтэй байр суурь эзэлж байна. Тэрбээр олон жилийн судалгааныхаа ажилд тулгуурлан,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товчоон” хэмээх бүтээл туурвин, түүндээ Хүннү улс / манай тооллын өмнөх III зуунаас манай тооллын I зуун/-аас эхлэн, ХҮП зууны сүүл үеийг хүртэл Төв азид тогтнож агсан нүүдэлчдийн төр улсуудын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агт үлдээсэн хот суурингуудын ерөнхий дүр зургийг гаргаж, нүүдэлчдийн хот суурингууд нь суурин ард түмний хотуудаас ялгарах зарим онцлогтойг тодруулан тавьжээ. Зохиогч өөрөө үзэж, судалж чадаагүй боловч бусдаас сонсож дуулсан хуучин хот балгадын нэрс, байрлалыг зохиолдоо хавсаргаж өгсөн нь хойшдын судалгаан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мэдээ занги болжээ[Пэрлээ.Х, 1961]. Х. Пэрлээ мөн бусад зохиолууддаа, Монгол нутагт буй эртний хот суурины тухай судалгааны бүтээлээ нийтлүүлсээр байсан бөгөөд Хятаны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судалгаа ихээхэн хувийг нь эзэлж байсан юм[Пэрлээ.Х,1959].

1980 оны үе Оросын эрдэмтэн Ивлева.Л. Монгол нутаг дахь Хятан гүрний хотуудыг Хойд Хятад Өвөр монголын нутаг дахь хятаны хотуудтай харицуулан судласан байна[Ивлев.А.Л, 1984].

1990 оноос Монгол улс зах зээлийн харилцаанд шилжин, дэлхий дахинд нээлттэй болсноор, манай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урьдынхаас өргөжсөний зэрэгцээ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орнуудын судалгааны онол-арга зүй,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 нэвтэрч байна.

Энэ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г шинэ ахиц дэвшилд хөтөлж байгааг тэмдэглүүштэй. Сүүлийн арав гаруй жилд гадаадын эрдэмтэдтэй Монголын эртний судлаачи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тодорхой үр дүнд хүрсээр байна.

1990 оноос эхэлсэн Чингис хааны булшыг хайх “Гурван гол ” хэмээх Монгол-Японы хамтарсан шинжилгээний анги Хэнтий аймгийн Өглөгчийн хэрэмийн орчинд агаарийн зургийн хайгуул болон геофизикийн судалгаа хийжээ[Цэвээндорж.Д, Баяр.Д, Мэнэс.Г,Билэгт.Л, Батсайхан.Б.1990 ; Като.С, Tsurumaru.G, 1991] Энэ судалгааны анги мөн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Мөрөн сумын нутаг Зүүн хэрэм Баруун хэрэм зэрэг хотын агаарын зургыг авч Салбар уулын хятан бичгийг үзэж судалсан байна Мөн Өглөгчийн хэрмэнд очиж хэмжилт хийжээ. [Цэвээндорж.Д, Баяр.Д, Энхбат.Б, Цогтбаатар.Б 1992,1993]

Монгол-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ны баг Сүхбаатар аймгийн Дарьганга сумын Сүмтийн тойромоос Хятан улсын үеийн хот хэмээн малтан судалсан байна[Mongol joint study-2.3.4.. Seoul., 1994,1995,].

Японы эрдэмтэн Ширайши Монгол нутаг дахь эртний хотуудыг судлан, ганц сэдэвт зохиол бичсэн нь сүүлийн үед эл сэдвээр гарсан дорвилог бүтээлийн тоонд зүй ёсоор орж байна. Тэрээр Монгол улсад буй эрт байгуулагдаад хулширсан нэлээд хот балгадын он цагийг нарийвчлан гаргаж, хот байгуулалт нь ямархуу байсныг тодруулахыг хичээсэн ба Хятаны үеийн хэд хэдэн хотын тухай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г тулган үзэж, дурсгалуудын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хийжээ[Ширайши, 2001].

Монгол –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Мон-Сол” төслийн судлаачид 1998 онд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Биндэр сумын нутаг Өглөгчийн голд чулуун зэвсэгийн дархны газар хүрэл зэвсгийн үеийн дөрвөлжин булш малтан судлах явцдаа Өглөгчийн хэрмийн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үйлдэн тайландаа хавсарган хэвлүүлсэн байна.

2000-2002 онд Монгол-Америкийн хамтарсан “Чингис хаан” экспедици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Биндэр сумын нутагт Өглөгчийн хэрмэнд хайгуул болон малтлага

судалгаа хийжээ [Наваан.Д, Өлзийбаяр.С, 2002]. Тус экспедиц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Америкийн талаас Дамаск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музейн эрхлэгч профессор Амор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дэд профессор Д.Наваан ШУА-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илтан нар ажилласан байна. Дээрх судлаачид Өглөгчийн хэрмийн дотор нийт 10 хэсэг газар малтлага явуулж Чулуун залган өрж хийсэн “Г” хэлбэртэй байгууламж илрүүлэн олж тахилгын байгууламж эсвэл сууц хэмээн үзсэн байна.

2002-2003 онд Үндэсний Түүхийн музейн эртний судалгааны анги Монгол улсын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нутагт буй Хар бух балгасыг судлан, түүний ХҮІ-ХҮІІ зууны үед хамаарах чулуун барилгын хоёр тасалгаанд малтлага хийн цэвэрлэх ялдамд хотын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шинэчлэн үйлдсэн байна[Очир.А, Энхтөр.А., Эрдэнэболд ,2005]. Мөн уг балгасны их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гадна баригдсан хэрэм болон бусад дурсгалуудыг бас нэмэн илрүүлсэн юм. Тийнхүү Хар бух балгасны зарим хэсэгт малтлага, судалгаа хийхийн зэрэгцээ Туул, Орхон голын хөндий дагуу газруудад хайгуул хийж, Хятан улсын үед холбогдох нэлээд хэдэн хот, суурингийн үлдцийг шинээр илрүүлэн олсон юм[Очир.А, Энхтөр.А.2004].

Энэхүү хэдэн арван жил үргэлжилсэ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гаас 10 гаруй хэрэмт хот Мөн тооны жижиг суурин газарууд хилийн хэрэм зам зэргийг олж илрүүлээд байна. Эдгээр дурсгалыг байршилаар нь авч үзвэл Туул голын сав Хэрлэн Онон голын сав , Орхон голын сав гэсэн гурван хэсэг газар төвлөж байсныг харж болно.эл хотуудыг танилцуулбал дараах мэт байна.

Туул голын сав дахь хотууд

Чин толгойн балгас.

Чин толгой балгасыг баруун хойноос зүүн урагш чиглүүлж байгуулсан аж. Энэ балгас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2’ 810”,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7014’ 460”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77 метр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Чин толгой нь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ан дэлдсэн хэрэмтэй хот байжээ. Уг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хойноос урагш нь 260 хэмд чиглэсэн байрлалтай. Хэрмийн хойт тал 680 метр, баруун хана 1260 метр, өмнөд тал 680 метр, зүүн хана нь 1260 метр хэмжээтэй. Хэрэм ерөнхийдөө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Хэрмийг дундуур нь баруунаас зүүн тийш нь шороо дагтшируулан хамарлаж, хойт, өмнөд хоёр хэсэг болгон хуваажээ. Хойт этгээдийн зүүн тал нь 700 метр, баруун тал нь 700 метр дөрвөлжин байгуулалтай. Түүний урд талын зүүн хэсэгт гадагш сунган барьсан чих бүхий гулдан хаалга байсны ор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Тэр хаалга нь 10 метр орчим зайтай аж. Уг хаалгын гурван талыг хаасан шавар хэрэм барьж хамгаалсан аж. Түүний хэмжээ нь 45х45 метр юм. Хойт хэрмийн баруун, зүүн хоёр талд гадагш сунган барьсан чих бүхүй хаалгатай. Тэр хоёр хаалгыг холбосон гол гудамжтай. Гол гудамжны урт нь 640 метр, өргөн нь 28 метр ажээ. Чин 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хойт хэсэгт нь нэлээд олон барилга байсны ор үлдэц нь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Харин түүний урд хэсэгт нь хойтохоо бодвол арай цөөн барилга байсан аж.

Шороон хэрмийн урд хэсгийн баруун хан нь 600 метр, өмнөд хана нь 640

метр, зүүн тал нь 600 метр хэмжээтэй. Энэ хэсгийн зүүн өмнө талд бас чих бүхий гулдан хаалгатай байсан аж. Одоо хаалганы өргөн 6 метр орчим ор үлджээ.

Урд хэсэг нь мөн баруун, зүүн хоёр талдаа нэг, нэг чих бүхүй гулдан хаалгатай бөгөөд хоёр хаалгыг холбосон гудамжтай байжээ. Энэ гудамжнаас өмнөд хаалгыг чиглэсэн бас нэг гудам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Түүний урт нь 500 метр, өргөн нь 38 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Чин 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хэрмийн хойд талд нь 6, өмнө нь 6, баруун талд 10, зүүн талд 10, хэрмийн дөрвөн өнцөг тус бүр нэг, бүгд 36 цонжтой байсны үлдэц овойн харагдана. Тэдгээр цонжийг нь хэрмээс гадагш түлхэн байгуулсан байжээ.

Чин 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сууриараа 35 метр өргөн, дээгүүрээ 4.5 метр өргөн байна. Уг хэрэм газры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нь 2,5-4 метр өндөр байна.

Шороон далан,суваг Чин толгойн балгасны баруун хойноос зүүн урагш чиглүүлэн, балгасны баруун хойт өнцгийг ороолгосон маягтай татсан 1км урт далан зарим хэсэгтээ тодорхой, зарим газраа бүдэгрэн балархайшсан байна. Энэ далан нь нэг талаас хэрэм рүү бороо үерийн ус орохоос хамгаалсан, нөгөө талаас Чин толгойгоос бууж ирсэн хурын усыг хуримтлуулан, тариалангийн тариг руу чиглүүлэн урсга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аж.

Уг далангийн баруун үзүүр нь хэрмийн арын сувагтай нийл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байна. Бас Чин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төв хэрмийн зүүн өмнөд хаалганы орчноос нэгэн жижиг далантай суваг зүүн тийш чиглэн, нэгэн жижиг нуурын ёроол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онхор хүртэл 250 метр орчим үрнэлжилсэн байна.

Чин толгой дээрх байгууламж. Чин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хойт талд 0,8 км орчимд, нэгэн толгой байна. Түүнийг Чин толгой гэнэ. Уг толгойн оройд чулуу өрж өндөрлөн, сүрлэг байгууламж буй болгожээ. Эл байгууламж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3429",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13.358"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1016 метр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Тэрхүү толгойн орой дээрх чулуун байгууламжийн суурийн периметр нь 214 метр, өндөр нь газрын төвшнөөс дээш 12 метр аж. Түүний суурийн талбай нь 3249 квадрат 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Уг чулуун байгууламжийг бүтээхдээ, дөрвөн өнцөг гарган, өнцгүүдээс доош нь чулуугаар хамарласан байна. Чулуун байгууламжийн орой дээрх тэгш хэсэгт багажаархан барилга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Барилгын дээврийн тосгуур болон нөмрөг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хөх тоосгоны хэлтэрхийнүүд уг байгууламж дээр нэлээд байна [Очир.А, Энхтөр., 2004].

Улаан хэрэм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 нуур сумын нутаг Баянулаан уулын зүүн хормой Шар тал хоёрын нийлэх уулзвар газарт томхон шороон хэрэм байна. Үүнийг анх эрдэмтэн Х.Пэрлээ илэрүүлэн олжээ . Энэ хэрэм нь улаан шороог дагтаршуулан босгосон учир холоос улайран харагдана. Нутгийнхан түүнийг Талын улаан хэрэм, Улаан хэрэм хэмээнэ. Энэхүү Улаан хэрмийн хавьд бид 2002-2003 онд хайгуул хийж түүний баруун өмнө, баруун баруун хойно нь гадуураа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хэрэмгүй хэдэн байгууламжийн үлдэц байсныг илэрүүлэн олсон юм. Тэрчлэн улаан хэрэмийн баруун талын хойт, урд хоёр өнцгөөс урагш болоод хойш нь шороон далан татсан байсан нь илэрч мэдэгдсэн юм. Чингээд бид Улаан хэрэмийн тодорхойлолт,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шинээр үйлдсэн билээ. Чингэхдээ Х. Пэрлээгийн анх илэрүүлсэн том хэрэмийг Улаан хэрэм -1, хожим бидний илэрүүлсэн байгууламжуудыг Улаан хэрэм

2. 3. 4. 5. гэхчлэн нэрлэн дугаарлав.

Улаан хэрэм 1.

Энэхүү хэрэм нь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ан үйлдсэн бөгөөд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Уг хэрэм нь хойт уртрагын 47055.824",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 32. 432" хэмд, далайн түвшнөөс дээш 973 метр өндөр оршино. Түүний хойт, урд хоёр хана тус бүр 400 м, баруун болон зүүн хана тус бүр нь 390 м орчим урт байна. Хэрмийн дундаж өндөр 2. 5-3 метр, өргөн нь сууриараа 18-34 метр, дээгүүрээ 2. 5-4 метр байна. Эл хэрэм нь баруун, өмнөд, зүүн гурван талдаа чих бүхий том хаалгатай байжээ.

Тэдгээр хаалганууд нь дунджаар 27x24м хэмжээтэй аж. Улаан хэрмийг тойруулан, ухсан гүнзгий сувагтай байжээ. Одоо ч тодорхой байгаа шуудуу нь хамгаалалтын зориулалттай бөгөөд түүний гүн нь 2-3 метр, өргөн нь 5-8 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Хэрмийн хойт хананд 5, зүүн хананд 5, баруун хананд 5, өмнөд хананд 4 ширхэг гадагш түлхсэн цонж байсны ор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Уг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алгыг зүүн хаалгатай холбосон гол гудамжтай. Түүний урт нь 390 метр, өргөн нь 30 метр орчим байжээ. Мөн хэрмийн өмнөд хаалганаас хойд ханыг чиглэсэн гудам нь гол гудмыг өнгөрөөд төгссөн байна. Энэ гудамны өргөн 50 м орчим байна. Дээрх гол гудамууд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тэдгээрт ирж нийлсэн олон жижиг гудам байсан нь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Энэ хэрмийн баруун, зүүн хоёр хаалганы чих нь бага зэрэг эвдэрчээ.

Энэ хэрмийн дотор олон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 байжээ. Тэдгээр барилгын байрлалыг дэвсгэр зурагт бололцооны хирээр тусгахыг хичээв. Улаан хэрэм-1 нь олон хүн нягт суурьшс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сайтай шороон хэрэмт хот байжээ. Энэ хэрмийн дотоод байда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хамгаалалт зэргээс нь үзвэл, гол төлөв хятаны цэргийн эрх баригсад болон худалдаачид, гар урчууд,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 захирагч нар суу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Улаан хэрэм 1-ийн дотороос барилгын дээврийн ваар, дусал хээтэй ваар савын зүйлс, чулуун тээрэм, нухуур чулуу зэрэг зүйлс мөн олноор байна.

Суваг. Улаан хэрэм 1-ийн зүүн хойд болон баруун өмнө өнцгөөс хоёр тийш нь татсан шороон далангийн ор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Уг даланг байгуулахдаа газрын доод талд шороог нь гарган өндрөлсөн байна. Бид энэхүү хоёр сувгийн баруун өмнөш татсаныг I суваг, зүүн хойш татсныг II суваг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сон юм. Сувгийн байрлалыг харахад, уулнаас буух бороо хурын усыг хуримтлуулан, Улаан хэрэм 1-ийн хамгаалалтын сувагруу оруулж, хэрэмийг хамгаалах буюу эсвэл уулаас буусан хурын усыг хуримтлуулан тогтоож, тариа ногоо услах зориулалттай бололтой. Сувгийн зарим хэсгийн гүн бараг мэдэгдэхгүй шахам болж эдгэрсэн байна.

I сувгийн урт 1600 метр, өргөн нь 1-1,5 метр, гүн 0,3-0,5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II суваг зүүн хойд зүгт чиглэн 1800 метр үргэлжилжээ. Энэ сувгийн өргөн 1-1,5 метр, гүн 0,3-0,5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Талын хэрэм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нуур сумын нутаг Хар нүдэнгийн Шар талын дэрсэн дотор нэгэн шороон хэрэм байна. Нутгийнхан үүнийг Талын хэрэм хэмээн нэрлэдэг ажээ.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ан барьсан эл хэрмийн хойд талын хана 250 м, Өмнө талын

хана 290м, зүүн хана 320 м, баруун хана 300м урттай юм. Баруун зүүн хана тус бүр нь сууриараа 12-14 м, дээгүүрээ 4м өргөн юм. Шороон хэрмийн өргөн харилцан адилгүй, дунджаар 0,5-1м орчим байна. Энэ хэрэм нь хойт, урд хоёр талдаа чих бүхүй нэг нэг хаалгатай байсан аж. Тэдгээр хаалга нь дунжаар 20-25 м хэмжээтэй байжээ. Харин чихний хэмжээ нь тус бүр 20х20м орчим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Ялангуяа хойт хаалганы чих усанд идэгдэн элэгдсэн учир сайн мэдэгдэхгүй байна. Уг хэрмийн баруун өмнөд булан, зүүн өмнөд ханын дотор талд шороон овгор байгаа нь барилгын ор бололтой. Ер нь хэрмийн дотор хэд хэдэн барилга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ор мөр байна. Эл хэрэм хойд уртрагийн 47055.218”,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34.446”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50 м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л хэрмнээс баруун зүгт 3 км орчимд Улаан хэрэм, зүүн хойд зүгт 6 км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байрлана.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Туул голын зүүн хөвөөний эрэгт тулган барьсан нэгэн эртний хотын үлдэцийг бид 2002 онд анх олж үзсэн бөгөөд 2003 оны 7 дугаар сард уг балгасыг дахин үзэж, түүний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нь үйлдэж, хэрмийн дотор болоод гадна талд ил хэвтсэн олдворыг түүвэрлэн авч, тэдгээрийн заримынх нь тодорхойлолтыг үйлдэх зэргээр анхны судалгаа хийсэн юм.

Энэ хот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Төв аймгийн Заамар сумын нутаг Хэрмэн дэнж хэмээх газарт оршино. Туул гол руу зүүн биеэс нь шахаж тогтсон Агит, Төмст хэмээх хоёр уулын дундах цалгай хөндийн өмнөт хэсгийг нутгийнхан Хэрмэн дэнж, уг дэнж дээр буй эртний балгасыг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хэмээн нэрийджээ.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зүүн этгээдэд 2.5 км-т Агит хэмээх уул, баруун хойт этгээдэд 2.5 км-т Төмст хэмээх уул байна. Эл хоёр уулын хоорондох цалгай хөндий нь дундуураа нэгэн жалгаар хуваагдсан бөгөөд уг жалганы зүүн биеийн талбиун цагаан дэнжид өмсгөсөн байдлаар балгасыг барьжээ.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эсрэг талд Туул голын нөгөө хөвөөнд бас нэгэн шороон хэрэмт балгасны туурь байна. Түүнийг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гэнэ.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нь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нуур сумын нутагт оршино. Заамар, Баяннуур хоёр сум Туул голоор хиллэдэг ажээ. Эл хоёр балгас хоорондоо 3 км орчим зайтай бөгөөд аль нэгнээс нь нөгөө нь ил тод харагдана. Туул гол нь хоёр балгасны хоорондох хэсэгтээ морь, машинаар гардаг өргөн гарамтай аж.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зүүн хойд зүгт 22 км-т Заамар сумын төв, баруун урд зүгт 20 км-т Баяннуур сумын төв оршино.

Хэрмэн дэнжийн төв балгасны дээд, доод талд шавар дэлдэж босгосон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хэрэмгүй хэдэн жижиг суурин газар байна. Тэдгээр нь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дагуул жижиг хотууд байсны үлдэц юм. Мөн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дээд, доод биед Туул голоос салгаж татсан хоёр суваг байсны ор байна.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уудын ерөнхий байдал.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нь хэд хэдэн хэсгээс бүрдсэн нэлээд том хот байжээ. Тэдгээр балгасны үлдэцүүдийг зүүн талаас нь эхлэн дугаарлаж товч тодорхойлолтыг хийж байна.

Хэрмэн дэнж -1. Эл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баруун, зүүн хана тус бүр 160 метр, хойд, өмнөд тал нь тус бүр 110 метр хэмжээтэй,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Хэрмийн одоогийн үлдэц газрын төвшнөөс 0.5 метр орчим өндөр гүдийжээ. Энэ хэрэм төв

хэрмийн зүүн хананаас 1 км, Туул голоос 200 метр орчим зайтай, дэнж дээр оршино. Түүний баруун, зүүн хананы гадуур сувагтай байжээ. Сувгийн одоогийн гүн нь 0.3-0.5 метр орчим аж. Хэрмийн зүүн өмнөдөд 18 метр орчим сэтэрхий байгаа нь хаалганы ор аж. Хэрмийн төв хэсэгт 40х 25 м харьцаатай нэгэн барилга, түүний хойд талд залгуулан 30х15 харьцаатай барилга барьсан байна. Хэрмийн дундах барилгын зүүн, баруун талд хэрмийн ханатай залгуулан барьсан барилгын ор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Хэрмийн байрл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8'562",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39'376"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73 м-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Хэрмэн дэнж- 2. Эл хэрэм нь өмнө зүгт Туул гол руу харсан хаалгатай байж. Тэр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баруун, зүүн хана нь 45 метр, хойд, урд тал нь тус бүр 40 метр хэмжээтэй, тэгш өнцөгт маягийн зохиомжтой. Шороон хэрмийн хойд ханыг дагуулан барьсан барилгын туурь байна. Тэр туурь нь газры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0,5 метр орчим гүдийн харагдана. Уг барилгын баруун зүүн талыг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холбосон намхан шороон далан байжээ.

Хэрмийн байрл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8'551",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40'776"-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73 м-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Хэрмэн дэнж-3. Энэ хэрмийн байрл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8'254",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40'776"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69 м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нэ суурин нь дөрөвдүгээр хэрмийн зүүн доод талд 20метрийн зайтай байрлажээ. Энэ нь гадуураа ямар нэгэн хэрэмгүй. Зүүн, баруун талаараа нарийн жалгаар тусгаарлагдсан дэнж дээр байна. Энд бие биеэс нь залгуулан барьсан 15 тасалгааны ор гүвийн харагдана. Эл шавар хэрэмийн үлдэц 03-06м өндөртэй, 2-8 метрийн өргөнтэй ажээ. Барилгын тууриуд нь нь хойноос урагш 250 метр, зүүнээс баруун тийш 130 орчим метр өргөн талбай эзэлсэн байна. Эдгээр тууриудын төвд 10 метрийн өргөн, 170 метр урт гудамж хойноос урагш чиглэсэн байрлалтай орших бөгөөд энэ гудм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нарийн гудам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эрмэн дэнж-4. Энэ хэрэм нь хойт уртрагын 47058'210",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40'476"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75 м-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нэ суурин төв хэрмийн зүүн талд бага дэнж дээр байралжээ. Энэ нь гадуураа ямар нэгэн хэрэмгүй, харин баруун, зүүн талаараа Туул голруу нийлсэн жалгаар тусгаарлагдсан байна. Хэдэн тасалгааг залгуулан барьсан байжээ. Хэрмэн дэнж 4 нь 110м урт талбайг эзэлсэн байжээ. Түүний зарим шороон хэрмийн үлдэцийн өндөр нь 0.3-0.5м орчим юм. Энэ хэрмийн шороон хана нь намхан байсны дээр ихээхэн элэгджээ.

Хэрмэн дэнж-5. Эл дурсгал нь өндөр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хамгийн том хэмжээтэй,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төв хэсэг нь юм. Байрл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8'723",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40'102"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85 м -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л төв хэсэг шороон хэрмээр тусгаарлагдсан гурван хэсгээс бүрджээ. Эл төв хэсгийн зүүн талын урагш сунгаж барьсан өндөр шороон хэрэмт хэсэг нь дундуураа хэрмээр тусгаарлагдан, хойт, өмнөд хоёр хэсэгт хуваагдсан байна. Харин төв хэсгийн баруун талыг нь зүүн хэсгээс нь шууд залган намхан шороон далангаар тойруулан хамгаалжээ. Эл баруун хэсэг нь дотроо дахин хуваагдаагүй аж. Төв хэрмийн зүүн этгээдийн хойд, өмнөд хэсгийг баруунаас зүүн тийш нь хамарлан тусгаарласан өндөр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байжээ.

Гол хэрэмт хэсгийн зүүн этгээдийн хойд хэсэг нь бусдаасаа хамгийн өндөр

хэрэмтэй, дотроо урд хаалганаас чанх хойш чиглэсэн гол гудамжаар баруун, зүүн хоёр хэсэгт хуваагдана.

Хэрэм нь өдгөө 4-9. 5 метр өндөр, сууриараа 25-32 метр, дээгүүр 3-6 метр өргөн байна. Энэ хэсгийн хойд хананы дунд хэсэгт хаалга мэт онгорхой байна. Энэ нь угийн хаалга байгаагүй, хожмын эвдрэлийн явцад үүссэн онгорхой бололтой. Хэрмэн ханыг босгохдоо, нойтон шаварыг нэг удаад 14-20 см зузаан хийж дэлдэн дагтшируулаад, дахин тийм зузаантайгаар зуурсан шавар дээр нь хийж дэлдэх аргаар хийжээ. Тийм учраас хэрмийн хананд шаварын олон үе тодорхой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Мөн хэрмийг бэхж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хэрмийн зузаантай адил урттай моднуудыг шавар зуурмагийн дотор хөндлөн тавьсан байжээ. Одоо тэдгээр моднууд нь ялзран алга болоод харин байсан газарт нь нүхнүүд үлдсэн байна.

Гол хэсгийн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цонжтой байжээ.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бүгд 8 цонж байсан нь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Хойд талын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на нь 360 метр, хойд хана нь 310 метр, урд тал нь 380 метр, зүүн хана нь 330 метр урттай, хэрэм ерөнхийдөө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аж. Гол хэрмийн зүүн этгээдийн хойд, урд хэсгийг заагласан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дунд хэсэгтэй том гулдан хаалгатай байжээ. Тэр хаалганы одоогийн өргөн нь 15 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Төв хэрмийн хойд тал нь урд хаалганаас чанх хойд зүг рүү чиглэсэн гудамжаар баруун, зүүн хэсэг болон хуваагдсан байжээ. Эл төв гудамжны өргөн нь 8-10 метр, урт нь 34 метр юм. Гол гудамжны баруун, зүүн талаас ирж нийлсэн хэдэн жижиг гудамж байсны ор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Тэдгээр бага гудамжууд нь янз бүрийн өргөн, урттай аж. Гол гудамжны хоёр талаар олон барилга байсны ор мөр харагдана. Тэдгээр барилгын зарим нь бас тусгай жижиг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байжээ. Тийм давхар хэрэмтэй барилгуудын нэлээдийг их хэрмээс нь залган барьсан ажээ.

Төв хэрмийн зүүн хэсгийн өмнөд этгээдийн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на нь 200 метр, зүүн хана нь 230 метр урт юм. Энэ хэрмийн ар тал нь хойд хэрмийн өмнөд хэсэг болох тул мэдээж 380 метр урт юм. Эл өмнөд хэсгийн урд тал нь шороон хэрэмгүй, түүний баруун, зүүн хоёр ханыг нь шууд Туул голын мөргөцөгт тулгаад орхижээ. Харин Туул руу буусан хоёр гудамж (зам) мэт зүйл байна. Эл хоёр гудамжны хооронд 34 метр орчим зайтай. Тэрхүү 2 гудамжны төгсгөлд хоёр шороон дов босгожээ. Энэ хаалга байсаны ор үлдэц бололтой байна.

Өмнөд хэсгийн доторхи байшин барилгын ор үлдэц хойт хэрмийнхээс ихээхэн цөөн аж.

Дээр дурдсан төв хэсгийн хойт, өмнөд хоёр хэрмийн араар болон баруун, зүүн талын хэрмийн гадна талаар дагууд нь суваг татсан байна.

Тэрхүү сувгийн өргөн нь 1. 5-3. 5 метр, гүн нь 0. 5-0. 7 метр, сувгийн гаднах шороон далангийн өндөр нь 0. 5-1 метр орчим юм.

Гол хэсгийн хойт, урд хоёр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нанаас залган, баруун тийш нь намхан шороон хэрэм барьжээ. Эл намхан шороон далан барихдаа, уг дэнжийн хэвгий, жалга, тэгш бус байрлалыг харгалзсанаас болоод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тэгш хэмтэй болж чадаагүй бололтой. Ялангуяа уг далангийн хойт талын хэсэг нь хоёр үзүүрээрээ бага зэрэг дотогшлон, дугуйрсан маягтай болжээ. Түүний баруун, зүүн хоёр өнцгийг далангаар хөвч мэт холбосон ажээ.

Баруун хэсгийн шороон далан нь 0. 5-1 метр орчим өндөртэй, түүний хойд болон баруун ханын гаднах сувгийн гүн нь 0. 5-0. 6 метр, өргөн нь 2-3. 5 метр аж. Эл сувгийн шороог мөн л гадагш нь гаргаж, жижиг далан мэт зүйлийг үүсгэжээ.

Баруун хэсгийн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ар тал нь 780 метр, баруун тал нь 760 метр урт үргэлжилжээ. Энэхүү хэрэмд нийт 13 жижиг овгор байгаа нь цонжны ор үлдэц бололтой.

Хэрмийн өмнөд талын шороон далан нь 640 метр урт бөгөөд нэлээд их эвдэрч, тасарсан байна. Баруун хэрмийн дотор ямар нэг барилга, байшингийн ор туурь ажиглагдахгүй байна. Харин төв хэсэгт нь том гэрийн буйр мэт нэгэн зүйл байна. Энэ хэрэмд зөвхөн гэр, майхан, асар мэт түр хугацааны сууц барьж суудаг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Урьдах судлаачид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гадуур тойруулан ухсан сувгийг усан татаал байсан хэмээн үзсээр иржээ. Бидний бодлоор бол, тэр суваг нь зарим тохиолдолд усгүй хуурай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ыг тойруулан малтсан шуудуу нь хуурай байсан хэмээн бид үзэж байна. Учир нь уг балгасны төв хэсгийн баруун, зүүн ханын дагуух сувагт ус байнга тогтох бололцоогүй, уг газар нь Туул гол руу ихээхэн тонгоруу тул сувагт орсон ус шууд гол руу урсан нийлэх нь тодорхой байна. Тиймээс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ыг тойрсон шуудуу нь гаднын довтолгооноос хамгаалсан хуурай, гүнзгий суваг байсан гэж үзэх нь бодит байдалд илүү нийцтэй болно. Тэрчлэн дээрх жишээ баримтаас улбаалан эрт, дундад зууны үеийн нүүдэлчдийн хот, сууриныг тойруулан малтсан сувгуудын нэлээд нь хамгаалалтын хуурай шуудуу байсан гэсэн саналыг хэлж болно.

Хэрмэн дэнж – 6. Хэрмэн дэнжийн төв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талд Туул голын зүүн хөвөөний намхан дэвсэг дээр байна. Энэ хэрэм нь төв хэрмээс 1.5 км, Туул голоос хойш 250 метрт орших бөгөөд түүний байрл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8'592",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38'720" хэмийн солбил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60 м-ийн өндөрт байна. Эл хэрэм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агаад гадуураа суваг, бас шороон далантай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эрмийн хойд тал болон баруун хойд, зүүн хэсэгт шороон далан, сувгийн ор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Сувгийн одоогийн гүн 0.3-0.6 м ба шавар хэрмийн үлдэгдэл 0.5 м өндөр гүвийн харагдана. Хэрэмийн хойд болон өмнөд хана тус бүр урт нь 100 метр, харин зүүн болон баруун хана нь тус тус 143 метр байна. Хэрмийн дотор барилгын сууриуд нь 0.5-0.8 метр өндөр гувгар болж үлджээ. Хэрмийн дотор талд хойноос урагш нь хамарлан, түүнийг зүүн, баруун хоёр хэсэг болгон хуваасан байжээ.

Тариалангийн сувгууд.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ойролцоо Туул голоос салган татаж шуудуу байгуулан, тариа, хүнсний ногоо усал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Өдгөө тийм хоёр сувгийн үлдэц байгаа юм. Түүний нэгийг нь Агит уулын Туул гол руу шахсан хадан хошууны дээд талын голын тохойгоос зүүн хойш салган татжээ. Энэ сувгийн Туул гол баруун тийш тохойрсон хэсгээс салгасан нь усны урсгалын хүчийг харгалзсаныг бололтой. Сувгийг Туул голын баруунтай нумарсан тохойд хөвч маягтай татжээ. Уг суваг 4 км үргэлжлээд балгасны төв хэсгийн дээхнэ ирж, голдоо нийлсэн аж. Эл сувгийн баруун талын том тохойд тарьсан хүнсний ногоо, тариаг түүнээс ус салган гүйлгэж усал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оёр дахь сувгийг төв хэрмээс баруун зүгт Хэрмэн дэнж-6-гийн доохно талд Туул голоос салгаж, Төмст уулын хөлийг барьж татсан байна. Эл суваг 3.5 км уруудан явсаар буцаад голдоо нийлжээ. Эл сувгийн шороог газрын доод талд нь гаргаж, жижиг далан мэт болгосон аж. Төмст уулаас бууж ирсэн үер, хурын ус мөн сувагт ордог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Суваг татсан хэсэгт Туул гол мөн л баруун

тийш тохойрсон бөгөөд суваг, гол хоёрын хоорондох тэр тохойд ногоо, тариа тарьж, шуудууны усыг салган, түүнийг усалж байсан гэмээр байна.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нуур сумын нутаг Хараат уулын зүүн хормойн үзүүрийн өндөр дэнж дээр эртний нэгэн шороон хэрэм байна. Хойд уртрагийн 47057.214”,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39. 918”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гөөс дээш 978 метрийн өндөрт оршдог уг хэрмийг нутгийнхан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гэнэ. Уг хэрмийн хойгуур 800м орчим Туул гол урсан өнгөрнө. Энэ хэрмийн ард Туул голын хойт хөвөөнд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ил харагдана. Цагаан дэнжээс Туул голыг гатлан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т хүрхэд 2,3 км зайтай.

Цагаан дэнжийн хэрэм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ан дэлдэх аргаар уг хэрмийг цогцлоожээ. Энэ хэрэмий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н нэг онцлог нь гадна том хэрэмийн дотор давхар хэрмүүдтэй юм.

Гадна том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тал нь 200 м хойд тал нь 165 м, зүүн тал нь 200 м, өмнө тал нь 165 метр орчим урттай байна. Уг хэрмийн дундач өндөр нь 0,6-1,2 м, сууриараа 9-10 метр, дээгүүрээ 3 метр орчим өргөнтэй байна. Хэрмийн өмнө талын дунд хэсэгт хаалгатай, хаалганы зай 33 метр орчим хэмжээтэй аж. Уг хаалга нь дотогшоо 30 метр цөмөрсөн хоёр нударгатай. Уг нударгын хоёр үзүүрийг хооронд нь шороон хэрэмээр ойртуулаад, 7 метр орчим зай үлдээж, орц гаргажээ. Нударгатай хаалганы дотор 5 метр орчим зайд мөн хөндлөн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Түүний өндөр нь гадна хэрэмтэйгээ бараг адилхан юм. Энэхүү дотор хэрмийн дунд хэсэгт нудрага бүхий гадна хаалганы харалдаа хоёр талыг нь өндөрлөсөн сүрлэг хаалга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Энэ хаалга байсан хэсэг бусдаасаа нэлээд өндөр овгор харагдана. Уг хаалганы хоёр талын яс модны суурь байсан боловуу гэмээр дөрвөлжлөн зассан цагаан боржин чулуу 2ш байна. Гадна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нын дотор талд 8 метр зайтай давхар шороон хэрэм байгуулан, урд талын дотуур хэрэмтэй залгажээ. Энэ хэрэм үндсэн хэрэмнээсээ намхан, бас арай нарийхан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Цагаан дэнжийн хэрмийн төв дунд нь 3 шороон байгууламж байна. Түүний урд болон дунд талын байгууламжууд нь адилхан 30метр урт, 10 метр өргөн, 0, 6 метр өндөр,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Хойт талын байгууламж нь арай жижиг юм. Түүний урт 12м, өргөн 10м, өндөр нь нөгөө хоёроосоо арай өндөр байна. Эл гурван байгууламжийг шороогоор үйлдсэн бөгөөд дээд хэсэг нь тэгш хавтгай юм. Тэдгээрийг хооронд нь хүзүүвч мэт нарийн шороон гувгараар холбосон нь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Уг байгууламжууд бас давхар дөрвөлжин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Тэр хэрэм нь намхан, нарийн байжээ. Түүний одоогийн үлдэцний өргөн 1м, өндөр 0.3м орчим байна. Гадуурх том хэрмийн зүүн хэсэгт ямар нэг шороон байгууламж байсны ул мөр овгорууд байна. Чухам ямар хэлбэ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зүйл байсан нь одоо мэдэгдэхгүй болжээ. Гадаад том хэрмийн хойд талын дунд нэгэн бага сэтэрхий байгаа нь орцны үлдэц үү, эсвэл элэгдэлийн улмаас гарсан сэтэрхий юм уу гэдэг нь тодорхойгүй.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ны орчимоос барилгын материал, янз бүрийн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ер олдохгүй байна. Цагаа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нь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тай холбоотой бөгөөд нэгэн цаг үе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дурсгал хэмээн бид үзэж байна.

Хар бух балгас .

Энэ хотын туурь нь шороон болон чулуун байгууламжаас бүрдсэн аж. Уг хотын гадуурх том хэрмийг нь нарийн ширхэгтэй шар шавар дагтаршуулан хийсэн байна. Эл дөрвөлжин шороон хэрмийг IX-XI зууны үед Хятан нар босгожээ. Хожим ХҮІ-ХҮІІІ зууны эхэн үед Монголчууд эртний Хятаны үеийн том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дотор чулуун барилга, хэрэм барьж ашиглаж байжээ. Тиймээс энэ балгасын туурь нь түүхийн хоёр өөр цаг үед холбогдоно.

Уг балгас нь Хар бух голын дунд урсгалд, голын баруун эргээс 600 метр зайтай орших бөгөөд балгасны зүүн талд Борогчингийн бор тал, хойд талд нь Хар бух голын тохой, голын цаад талд Бөөр толгой, Бөөр нуур, түүний цаана 5 км (километр) орчим зайтай Ямаат уул байна.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талд Хүрэмт хэмээх галт уулын хүрмэн чулуу зонхилсон жижиг уул байна. Түүний дунд биеэс эх авсан Намуун булаг хэмээх жижиг булаг баруун өмнөш урсч Хар бух голд нийлнэ. Хэрмийн өмнө талд 1 км зайтай Хадаасан толгой, 3 км-ийн цаана Буурал уул бараална.

Балгас ерөнхийдөө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Тэгэхдээ түүний зүүн болон хойд хана нь харилцан адилгүй хэмжээтэй учир балгасны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яг тэгш хэмтэй болж чадаагүй аж.

Хэрмийн гадна талаар сувагаар хүрээлсэн ба түүнээс салбарлуулан олон суваг татсан ажээ. Уг том суваг нь Хар бух голоос эх авч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алганы орчимд ирээд хэрэм тойрсон сувагтай нийлж байна. Үндсэн суваг нь чулуун хашлагатай, шороон далантай байжээ. Хэрмийн хойд талын 7 хана 660 м (метр) урттай, зүүн талын хана 760 м урттай, өмнө талын хана 670 м урттай, баруун хана нь 690 м урттай юм.

Хэрэм нь сууриараа 28 м, дээгүүрээ 3-4 м өргөнтэй, түүний одоогийн өндөр нь 2-2,5 м байна. Хэрмийн дөрвөн талын хана тус бүрдээ нэг сонор хаалгатай буюу чихтэй.

Баруун талын хананд 7 цонж байна. Цонж хоорондын зай 15-20 м. Хотыг хүрээлсэн сувгийн өргөн 3-3,5 м байна. Сувгийн гаднах шороон далан 1-1,5 м, өндөр нь 0,3-1,0 м ажээ. Хэрмийн дотор талд 4 хаалгыг холбосон хойноос урагш, баруунаас зүүн тийш чиглэсэн өргөн гудамжтай. Гол гудамжууд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олон гудамжны ор мөр ихэд бүдгэрчээ.

Хотын төв хэсэгт 40 м-ийн диаметртэй дараалсан 2 шороон өндөр овгортой, түүний дөрвөн талаас хашсан 200 м-ийн урттай, 150 м-ийн өргөнтэй, хойноос урагш байрлалтай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байжээ. Түүний төв хэсэг нь баруун, зүүн тийш чиглэсэн хоёр нарийн хэрэмтэй нийлжээ. Энэ дөрвөлжин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ойд талд мөн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хоёр барилгын туурь байна. Энэ барилгын хэмжээ 50х40 м юм. Түүний одоогийн өндөр нь 0,7-1,0 м, тэгш гадаргуутай, овгор хэлбэртэй. Дээрх 2 шороон барилгын зүүн талд цуварсан 2 шороон байгууламж байх бөгөөд чухам яма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биш байна. Хэрмийн зүүн хойд хэсэгт хойноос урагш чиглэсэн 3 нарийн гудамтай, уг гудамууд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нэгээс нөгөөд дамжин орох хаалга бүхий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барилгын туурь ажиглагдана. 130-180 м хэмжээтэй шороон далангийн дотор давхар шороон хэрэмтэй, 12х15 м хэмжээ бүхий шороон байгуулам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Түүний хойд талд тус тусдаа жижиг шороон далангаар хүрээлэгдсэн 10х15 м хэмжээтэй байгууламж байжээ. Түүний одоогийн өндөр 0,7-

0,8 м бөгөөд эдгээрийг хэрмийн хойд болон зүүн хананд тулган байгуулсан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эрмийн зүүн өмнөд хэсгийн төв дунд хойд, өмнөд хаалгыг холбосон өргөн гудамжн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4 нарийн гудамжтай. Тэдгээрийн гудамж дотор 120х120 м орчим хэмжээтэй, шавар барилгын туурь буй бөгөөд энэ орчмоос хүрмэн чулуугаар хийсэн уур, боржин чулуугаар хийсэн тээрмийн чулууны хагархай, ваар савны хэлтэрхий нэлээд хэмжээгээр илэрсэн юм.

Хэрмийн баруун өмнөд хэсгийн төв дунд 110х120 м хэмжээтэй,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2 тасалгаа бүхий шороон далант барилгын туурь байх ба түүний баруун өмнө талд 50х20 м хэмжээтэй, мөн шороон далант барилга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Тэдгээр барилгын тууриуд нь хэрмийн зүүн өмнөд хэсгийн барилгын тууриудтай ижи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байсан нь туурийн байдлаас мэдэгдэж байна.

Хэрмийн гадна зүүн хойд өнцгийн харалдаа тэгш бус хэмтэ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шороон далант нэг хэрэм байжээ. Эл хэрэм нь зүүнээс баруун тийш 300 м, хойноос урагш 180 м орчим хэмжээтэй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Энэ хэрмийн зүүн талд түүнтэй залгуулан шороон далан байгуулсан байжээ. Түүний өргөн 100 м, урт нь 220 м юм. Эл шороон хэрмийг нэвт усан суваг татаж гаргасан нь сонирхолтой юм. Энэ нь хожуу газар тариалан эрхлэх явцад үүсгэсэн суваг байж болох юм.

Хэрмийн дотор талд болон ойр орчиноос Хятан улсын үед хамаарах ваар савны хагархай, шаазан эдлэлийн хэсгүүд элбэг олно. Эдгээр шавар сав, суулганы хэсгүүдийн зарим нь IX зууны үеийн Уйгарчуудын дурсгалтай ижилсэ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Хар бух балгаснаас олдсонтой адил хэлбэр маяг, хээ угалз бүхий сав суулга Хар мөрөн, Дорнод тэнгисийн сав нутгаар ч тархсан байсныг судлаачид тогтоосон байна.

Хар бух балгасыг X-XI зууны үетэй холбох үндэслэл нь Хятан гүрний үеийн томхон хот болох Чин толгой балгаснаас олдсон хятан ваартай ижил хэлбэр маягийн ваар олдсон явдал юм. Мөн түүнчлэн эртний судлалын ном зохиолд “хятан хээ” хэмээн нэршсэн хурц үзүүртэй зүйлээр хонхойлгон зурж гаргасан ухам (дусал) хээтэй сав суулганы хагархай энэ хотоос олон тоогоор олддог нь түүний эзэн холбогдогч хийгээд он цагийг гэрчилж байгаа юм.

Энэхүү хотын тууриас олдож буй сав суулганы хагархай нь ихэвчлэн толигор гадаргуутай, хээтэй, гадагш эрмэгдүүлэн гаргасан амсартай, ихэнхи нь эргэх хүрдний тусламжтайгаар хийгдсэн байдаг. Тэрхүү сав суулганы хагархайг ажиглавал, уг сав нь ихэвчлэн том хэмжээтэй байсныг гэрчлэх бөгөөд Азид өргөн дэлгэр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сан айраг, дарс, үр тариа, будаа зэрэг хүнсний зүйл агуулах зориулалттай том ваар савнуудыг санагдуулах ажээ. Уг балгаснаас олдсон том ваар савны хагархайн хананы зузаан дунжаар 0,2-0,4 см хэмжээтэй юм.

Шороон хэрмийн эргэн тойронд хуучин тариа ногоо тарьж байсны ул мөр тариг, услалтын суваг шуудууны ор, тариа будаа цайруулах, тээрэмдэх зориулалттай тээрмийн болон чулуу уурын хагархай зэрэг зүйлс тааралдах ажээ. Мөн хэрмийн дотор барилгын ор олон байгаа нь тэнд олон хүн сууж, хэрмийн гадуур тариа ногоо тарьж, амь зууж байсныг нотолж байна..

Эмгэнтийн хэрэм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үрэгхангай сумын нутаг, Бүсийн ханан хэмээх уулын өвөр этгээдэд орших шороо чулуу хольж үйлдсэн нэгэн хэрмийг нутгийнхан “Эмгэнтийн

хэрэм”, “Бүсийн ханангийн хэрэм” хэмээн нэрийдэнэ. Уг хэрмийг анх Х. Пэрлээ илэрүүлэн олж, дэвсгэр зургийг нь хийж нийтэлсэн байна. Бүсийн ханан уулаас 800 метр орчим зайтай зүүн өмнө зүг харсан их хадтай уулыг Эмгэнт, түүний өмнөх жижиг хадтай толгойг Зараа толгой хэмээн нэрийддэг байна.

Эл хэрэм нь Бүсийн ханан уулын өмнө бэлд, Хар бух голын зүүн хөвөөнд, тэгш цагаан гадаргуу бүхий газар байрлажээ. Уг хэрэм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8005.146”,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6008.931”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73 метр өндөрт оршино. Хэрэм ерөнхийдөө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сан суурин дээр хоёр талд нь чулуу өрж түүний дунд нь шавар хийж дагтаршуулах аргаар уг хэрмийг бүтээжээ. Хэрмийн үлдэцийн одоогийн өндөр 1,2-0,9 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Хэрмийн хойд, өмнөд хоёр талд 3х3, 5 метрийн сэтэрхий байгаа нь хаалга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Хэрмийн зүүн болон баруун хана нь тус бүр 360м, хойд болон өмнөд хана нь тус бүр 370м хэмжээтэй аж. Хэрмийн хананы өргөн сууриараа 10 метр орчим юм. Энэ хэрмийн орчноос Хятаны үеийн дусал хээтэй ваарны хагархай, долгиотсон хээтэй дээврийн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нэлээд олдож байна.

Хэрмэн дэрс

Энэ шороон хэрэм нь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Гурван-Булаг сумын нутаг Их цагаан толгой хэмээх жижиг толгойн зүүн биед оршино.

Гурван булаг сумын төвөөс хойт зүгт Дэрсэн хэрэм хүртэл 5,4 км зайтай юм. Хэрэм буй газар нь тэгш гадаргуутай, ширгэдэг голын хөндий юм.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талд Их цагаан толгой 1, 2 км-т, баруун хойд талд Гүн бүрд нуур 1, 5 км зайтай оршино.

Хэрмийн ерөнхи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нь дөрвөлжин бөгөөд дотроо ямар нэгэн барилгын туурь ажиглагдахгүй байна. Эл хэрэм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47.839”,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3029.383” -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гөөс дээш 1070 метр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Хэрмийн зүүн хойд булан үерийн усанд идэгдэн сэтэрч, алга болсон байна Баруун хана нь 280 метр, зүүн хана 300 м, хойд хана нь 290 м, өмнөд хана нь 300 метр хэмжээтэй. Энэ хэрэм зүүн урагш харсан хаалгатай. Хаалга нь хамгаалалтын шороон чих(сонор)-тэй байжээ. Уг хэрэм нам дор газар байрласан тул үерийн усанд идэгдэж, дотор нь байсан байшин барилгын үлдэц, гадуур нь татсан суваг, далан үгүй болжээ. Өдгөө уг хэрмийн зүүн хананы дагуу 2 метрийн өргөнтэй шороон далан, хэрмийн төв дундах 6 метрийн диаметртэй шороон овгор л үлджээ.

Хэрмийн доторх овгорын орчмоос дээврийн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сав суулганы хагархай, цагаан хув мэт зүйлээр хийсэн эд өлгийн зүйлсийг түүвэрлэн олсон юм. Эл балгасны тууриас дусал хээтэй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олдож байна. Энэхүү дусал хээтэй ваарыг Хятан улсын үед өргөн үйлдвэрлэн хэрэглэж байжээ.

Найдаг уулын дөрвөлжин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нутаг Найдаг уулын өвөрт, Савангийн голын баруун хөвөөнд шороон хэрэмт нэгэн суурингийн туурь байна. Энэ туурийг нутгийнхан “Дөрвөлжин” хэмээн нэрлэх бөгөөд энэ нь Түдэв гүний хүрээнээс зүүн өмнө зүгт 1 км, Хангидайн хаднаас баруун өмнө зүгт 1км орчим зайтай оршино. Хэрмийн зүүн, баруун ханыг хөндлөн огтлон гарсан машин замтай, мөн хойт урд

зүүн талын ханыг дайрсан малын зам байна. Хэрмийн зүүн талын хананд 1x8 м хэмжээтэй дөрвөлжин чулуун хашлага байгуулжээ.

Энэ хэрэм нь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ай, хэрмийн гадна, дотор талд барилгын ор мөр ажиглагдахгүй байна. Хэрмийн зүүн, баруун ханын урт 108 м, хойд болон өмнөд талын ханын урт 100 м хэмжээтэй. Хэрмийн одоогийн өндөр 0,4-0,6 м ажээ. Энэ хэрэм нь хойд 47052'249", зүүн уртрагын 103053'051"-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нөөс дээш 1015м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нэ тууриас мөн дусал хээтэ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олдож байна.

Цогтын гэрийн буйр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Лах багийн нутаг, Савангийн голын баруун хөвөөнд буй цуварсан овгоруудыг нутгийнхан Цогт тайжийн гэрийн буйр хэмээн нэрийднэ. Эл хоёр шороон овгор нь баруун өмнөд этгээдээс зүүн тийш цувран байрласан бөгөөд дугуй хэлбэртэй, гэрийн буйртай төстэй юм. Эл дурсг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45.214",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3053.918"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гөөс дээш 1079 метрийн өндөрт оршино. Баруун дээд талын овгор хэсэг нь ойролцоогоор 40 м диаметртэй, Зүүн доод талынх нь овгор хэсэг нь 25 метр диаметртэй, зарим газартаа чулуу шигтгэн байгуулсан болох нь ажиглагдана.

Тэдгээр овгорыг хэвгий газар байгуулсан ажээ. Уг хоёр овгор нь одоо газры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60-120 см дундаж өндөртэй байна. Эл овгоруудын орчмоос Хятаны үеийн дусал хээтэ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болон төвгөр чимэглэлтэ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г түүвэрлэн олов. Энэ дурсгалын баруун хойтох Найдаг уулын Савангийн гол руу түрж орсон хадан цохиот хошууны орой дээр нэгэн чулуун байгууламж байна. Тэр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44.973",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3053.637"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гөөс дээш 1165 метр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л чулуун байгууламж нь 10x6 метрийн хэмжээтэй, ерөнхийдөө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байгалийн чулууг тэр хэвээр нь өрж босгосон харуулын байр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Чулуун өрлөг нь одоогоор өндөр 1, 4-0, 7 метр орчим өндөр байна.

Цагаан үзүүрийн хэрэм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Лах багийн нутаг Савангийн голын баруун хөвөөнд Цагаан үзүүр хэмээх нэгэн хошуу байна. Уг хошуу нь баруунаасаа зүүн тийш нь гол руугаа түрж тогтжээ. Уг хошууны үзүүрт, Савангийн голын хөндийн цагаан дэрсэн дотор шороон далан бүхий эртний суурингийн туурь байна. Эл хотын туурийг нутгийнхан Цагаан үзүүрийн Дөрвөлжин хэрэм хэмээнэ.

Уг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зүүн урд талд Лах уул, хойд талд нь Найдаг уул, баруун талд нь Цагаан үзүүр хэмээх жижиг хадтай толгой оршино. Шороо дагшруулан үйлдсэн уг хэрмийн хананы үлдцийн одоогийн өндөр 0,6-1м орчим юм. Хэрэм гадна талаараа суваг, шороон далантай байжээ. Одоо шороон далангийн өндөр 0, 3-0, 5 м орчим юм. Хэрмийн зүүн хананы дунд хавьд өндөрлөг шороон овгор байх бөгөөд энэ нь үүд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Энэ хэрэм тэгш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тал бүр нь 200 м, хэмжээтэй аж. Хэрмийг тойрсон сувгийн гүн 0, 3 м орчим юм. Энэ хэрэм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38.343"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3053.388"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1106 м өндөрт оршино. Хэрмийн орчноос дусал хээтэ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олдож

байна. Цагаан үзүүрийн балгасны баруун хойно 3км орчимд нэгэн шороон далангийн ор үлдэц байна. 2,5 км орчим уг даланг урдаас хойш нь чиглүүлэн байгуулж, Савангийн голын баруун талаас нь орсон амыг хаажээ. Савангийн голын баруун талын өндөр уулнаас бууж ирсэн бороо хурын үер усыг энэ далангаар тогтоон барьдаг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Тэгээд Цагаан үзүүрийн балгасанд суугсад түүний хойт болон зүүн талд буй нам дор газарт тариа, хүнсний ногоо тарьдаг. Тэр тариагаа далангийн усаар усалдаг байсан гэмээр байна.

Дэрсэн хэрэм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нуур сумын төвөөс зүүн хойт зүгт 4 км орчимд, Баян улаан уулын баруун өмнөд дэрстэй хөндийн хойт захад эртний суурингийн үлдэц байна. Түүнийг анх Монголын эрдэмтэн Х. Пэрлээ сонсч мэдээлсэн боловч дэвсгэр зэрэг сэлтийг нь хийж судлаагүй ажээ. Энэ хэрмийн хойт дэвсэг дээр мөн бас нэг шавар хэрэмийн үлдэц байсныг бид шинээр илэрүүлэн олсон юм. Өөрөөр хэлбэл, дэрсэн хэрэм нь хоёр хэрмээс бүрдэж байна. Иймд Х. Пэрлээгийн илрүүлсэн хэрмийг Дэрсэн хэрэм-1, хожим бидний илэрүүлсэн хэрмийг Дэрсэн хэрэм-2 хэмээн нэрлэж байна.

Дэрсэн хэрэм-1. Шавар дэлдэж үйлдсэн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Түүний хойт хана нь 250м, урд хана нь 290м, баруун хана нь 250 м зүүн хана нь 300 м хэмжээтэй байна. Уг шавар хэрэм зүүн болон өмнө талынхаа ханын дунд хэсэгт тус бүр нэг нэг хаалгатай байжээ. Тэдгээр хаалганы хоёр тал өндөр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одоо шавар овоо мэт хошоод өндөрлөг зүйл үлджээ. Тэдгээр нь одоо 1,5-2м өндөр. Уг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хананы дунд, мөн баруун өнцөг, зүүн талын ханын өмнөд хэсэг нь үерийн усанд элэгдэн сэтэрсэн байна. Хэрэм нь сууриараа 4-10 м, дэгүүрээ 1-2 м орчим өргөн хэмжээтэй. Хэрмийн дотор цөөн барилга, байшин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Түүний төв хэсэгт нэгэн овгор байна. Эл овгор нь. 45 м орчим диаметртэй, 1,5м өндөр юм. Энэ хэрмийн үлдэцийн өргөн харилцан адилгүй. Дунд талаараа 3-4м өргөнтэй юм. Энэ хэрэм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3.222”,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28.541”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нөөс дээш 960м өндөрт оршино.

Дэрсэн хэрэм-2. Баян улаан уулын урагш нь түрсэн намхан дэвсэг дээр уг хэрэмийг байгуулжээ. Хэрэм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мжтой. Шавар дагтаршуулан уг хэрмийг босгосон байжээ. Түүний хойт болон өмнөд хана нь тус бүр 300м, баруун болон зүүн хана нь тус бүр 82м хэмжээтэй. Уг хэрэм нь урд, хойд хоёр талдаа хаалгатай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сэтэрхий байна. Одоогоор Уг хэрмийн өндөр нь газрын түвшнээс дээш 0,3-0,4 метр орчим аж. Энэ хэрэм угаасаа Дэрсэн хэрэм 1-ээс намхан байсан аж. Дэрсэн хэрэм 2-ын байрлал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3.221”,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28.548” хэмийн солбицол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дээш 960 метрийн өндөрт байна. Шороон хэрмийн одоогийн өндөр 0,2-0,4 м юм. Түүний өргөн нь 4 - 3 метр хэмжээтэй. Хэрмийн дотор талд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ийн ор мэдэгдэхгүй байна. . Дэрсэн хэрэм 1,2-ын баруун, өмнө, зүүн тал нь зэгс дэрстэй нам доор чийглэг газар юм. Тэнд эртний суваг шуудууны болон тариалангийн таригийн ор мөр байна. Дэрсэн хэрмүүдэд оршин суугчид тариа ногоо тарьж түүгээрээ хүнсэлдэг байсан нь дээрх баримтаас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Ондгойн дөрвөлжин.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Баяннуур сумын нутагт, Баянулаан уулын зүүн өврийн дэвсэг дээр нэгэн дөрвөлжин шороон хэрмийн үлдэгдэл байна. Түүнийг нутгийнхан Ондгойн хэрэм, Ондгойн дөрвөлжин хэмээн нэрийднэ. Энэ хэрмийн зүүн биед 0.5 км орчимд нэгэн худаг байна. Түүнийг Ондгойн худаг гэнэ. Уг хэрэм Дэрсэн хэрмүүдийн хойд зүгт, Талын улаан хэрмийн өмнө этгээдэд оршино. Энэ хэрэм дөрвөлж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баруунаас зүүн тийш сунасан хэлбэртэй юм. Хэрмийн хойт болон урд хана тус бүр 200м, зүүн болон баруун хана тус бүр нь 120м хэмжээтэй. Хэрмийн шорооны үлдэц нь 0,2-0,3м өндөр байна. Хэрэм нь урд зүг харсан хаалгатай. Хаалганы хэмжээ нь 4 метр орчим байна. хаалганы дотор тал нь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ан үйлдсэн хөндлөн хаалттай аж. Хэрмийн зүүн ханын хойт үзүүрт сэтэрхий мэт намссан нь элэгдэл, эсвэл хаалга байсны алин нь болох нь мэдэгдэхгүй байна. Хэрмийн төв дунд 20 метр голчтой, 0,6 м өндөр овгор байна. Энэ овгорын хавиас дээврийн болон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олдож байна.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ваарын хагархай нь дусал хээтэй аж. Хэрмийн дундах овгор нь барилга байсны ор үлдэц бололтой. Ондгой хэрэм нь хойд уртрагын 47054. 223” , зүүн өргөрөгийн 1040 30. 311” хэмд, далайн төвшинөөс 971 метр өндөрт оршино. Энэ хэрмийг Хятан улсын цагт байгууллан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аж.

Зүүн хэрэм.

Хэнтий аймгийн Мөрөн сумын нутагт зэрэгцээ хоёр хэрэм байдгийг археологич Х.Пэрлээ 1952-1953 оны хооронд малтан шинжилжээ.

Зүүн хэрмийн хэмжээ, өмнө тал 420 м, баруун тал 502 м, хойт тал 510 м, зүүн тал 507 м. Баруун болон урд талдаа нэг, хойд болон зүүн талдаа тус бүр хоёр хаалга бүхий шороо дагтаршуулж хийсэн, гадуураа усан татаал шуудуу бүхий хэрэмтэй байжээ. Хэрмийн дөрвөн буланд болон нийтдээ 28 харуулын цонж байсан байна. Хэрмийн одоогийн өндөр нь 1,5-2 м. өргөн нь 4-6 м. Хэрмийн өмнөд ба зүүн далдавчтай хаалгуудаас эхэлж төв дунд хүртэл үргэлжилсэн, хоёр талаараа хэрэмтэй, хоёр өргөн чөлөө гудамж байжээ.

Хэрмийн дотуур хэсэг барилгын ор туурь мэдэгддэгийн заримыг тусгай өндөр довжоон дээр барьсан байжээ. Эндхийн барилгыг барьсан байдал, орсон хэрэглэгдэхүүнээр нь хэд хувааж болно. Үүнд:

1. Тусгай бяцхан хэрэмтэй хөх тоосгон дээвэртэй барилгууд
2. Тусгай хэрэмгүй, дээврийг нь ваарласан барилгууд
3. Хэрэмгүй, дээврийн вааргүй барилгууд

Эндхийн барилгуудыг ханз хэрэглэн халаадаг байжээ. Нутгийн байгалийн нөхцөлд тохируулан аргал голдуу түлдэг, ур дарх хийдэг газарт илч сайтай залуу мод, битүү шатаасан хусны нүүрс хэрэглэж байжээ.

Малтлагаас үзэхэд энд ваар сав, төмөр эдлэл, барилгын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хийдэг хэдэн төрлийн үйлдвэр байсны хамгийн их хэмжээтэй нь ваар савны үйлдвэр юм. Зүүн хэрмийн гол аж ахуй нь мал, тариалан хоёр байжээ. Малтлагаас малын яс их гарсан нь хонь үхрийнх олон, адуу тэмээнийх цөөвтөр байжээ. Гар тээрэм, үр тариа хадгалах том шавар ваарны үлдэц, тарианы чулуун уур, нүдүүр, анжисны төмөр хошууны хугархай, тариа цайруулах ингийн төмөр цөн, монгол аму будааны

үлдвэр зэрэг зүйл гарсан байна. Хэрлэн голоос ус татаж байсан шуудууны ор өмнө талд нь мэдэгддэг. 1020-1031 оны хооронд цутгасан тайпин гэсэн хятад бичигтэй Кидан улсын хүрэл зоос олджээ. Зоос нь тус хэрмийн он цагийг тогтоохо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олдвор болжээ.

Баруун хэрэм.

Зүүн хэрмээс баруун тийш 2 км зайд Баруун хэрэм оршдог. Хэрмийн урд тал нь 826 м, баруун тал 803 м, хойт тал 825 м, зүүн тал 862 м урттай, хэрмийн ханын зузаан одоогоор 7-12 м, 1,5-3 м-ийн өндөртэй байна. Өмнөө хоёр, зүүн талдаа гурав, баруун ба хойт талдаа тус бүр нэжгээд хаалгатай байжээ. Хэрмийн дээгүүр болон өнцөгт цонж байсны үлдэгдэл овгорууд бий. Гадуураа мөн усан сувагтай. Үүнийг дундуур нь хэрмээр тасалж, зримд нь барилга байшин барьсан, зарим нь огт хоосон байжээ. Энэ хэрмийг Зүүн хэрмийн аж ахуйн газар, өөрөөр хэлбэл одоо хоосон байгаа газруудад хүнсний ногоо тарьж, барилгатай хэсгүүдэд аму будаа агуулан байсан гэж судлаачид үзэж байна. Энэхүү хэрмийг, судлаачид, 1012, 1015 оны үед Хэрлэнгийн дээд биеэр нутаглах аймгууд Кидан улсын эсрэг босч тэмцсэнийг кидан нар цэрэглэн дарж, амьд үлдэгсдийг Хэрлэн голын эхэнд хоёр дахин хот барьж суулгасан гэх мэдээтэй харьцуулан нягталж үүнийг мөн гэж үзсэн байна.

Барс хот-1.

Дорнод аймгийн Цагаан Овоо сумын нутаг Хэрлэн голын хойт биед, Баруун Дөрөө нуурын зүүн урд байрлах өндөр суврагат их хэрмийг археологийн ном зохиолд Барс хот-1 хэмээн нэрлэдэг. 1953 онд энэ бүс нутагт хийсэн археологийн хайгуулын явцад 3 хэрмийн үлдэгдэл олдсон ба эдгээрийг хооронд нь ялгахын тулд Барс хот гэж нэрлэгддэг суварга бүхий их хэрэмт хотыг Барс-1 гэж бичиж тэмдэглэх болжээ. Энэхүү хэрмийн их хэрмийн хэмжээ нь 1600-1800 м, зузаан нь 4 м, өндөр нь 1,5-2 м байна. Хэрмийн баруун өмнөд хэсэгт дотроо дөрвөн барилгын ор бүхий өндөр шороон довжоон дээр чулуугаар барьсан бага хэрмийн ор байна. Х.Пэрлээ 1953-1955 онуудад энэ хэрмийн доторхи дөрвөн барилга, бага хэрмийн орчин тойрны жижиг барилгын суурь, мөн шохой шатааж байсан зуухны ор зэргийг малтан шинжилж олон тооны бурхны сэнтий, дээврийн хөх тоосгон ваар, том жижиг хэмжээний угалзтай, угалзгүй тоосго, шавар баримал, ур хийц сайтай бурхны үлдэгдэл, бурхны баримал, сийлбэртэй мод, цац зэргийг илрүүлэн олж энэ газар нь бурхан шүтээний газар байжээ гэж дүгнэсэн байна. Хэрмийн дотор болон зүүн талд 5, 7 давхар хоёр суварга байсан ба таван давхар суварга нь 1940-өөд оны үед нурж, одоо долоон давхар суварга нь л үлджээ.

Барс-1-ийн бага хэрмэнд хийсэн малтлагаас харахад Кидан улсад буддын шашин их дэлгэрч, олон хүрээ хийд байгуулсан ба олон мянган ламтай байсан гэсэн Киданы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мэдээтэй таарч байгаа юм. Ийнхүү энд явуулсан багахан хэмжээний малтлагаас бурхан шашны зан үйлтэй холбоотой олдворууд гарсан боловч бүхэлдээ их хот цэргийн хуаран байжээ. Кидан улс эзэлсэн баруун хойд талынхаа аймаг угсаатны эсэргүүцлийг дарж байхын тулд Хэрлэн голын хөндийд гол төлөв нүүдэлчдээс бүрдүүлсэн олон анги цэрэг суулгаж байсны нэг хэсэг нь Барс хотын их хэрмэнд түр суурьшин сууж байсан байж болох юм.

Түүх сурвалжын мэдээнээс үзвэл Хятан улсын хаан Елюй Амьбагян 923 онд Монгол нутагт довтлон орж Орхон голны хөндий Уйгурын Харбалгас хүрсэн байна . Тэр цагт Монгол нутагт хот байгуулж цэрэг суулгаагаагүй бөгөөд Хэрлэн Орхон голын сав газрын олон аймгаас алба хураах журам тогтоосон байжээ.

10 зууны хоёрдугаар хагасаас Хятан улс Орхон Хэрлэнгийн сав газруудын олон аймгийг урвах дагах нь хэмжээгүй олон гэж тэднийг дарангуйлан захирах бодлого явуулж эхэлсэн байна. Мөн үүний зэрэгцээ Баруун Ся улс хүчирхэгжин Хятан улсын Өрнө дахинтай хийдэг уламжлалт худалдааны зам болох \торгоны зам\ Таримын голын хөндий Теньшань уулын корридорыг хааж боон татвар татаасаа нэмэх зэргээр ихээхэн хүндрэл учруулах болсон байна. Иймээс Хятан улс урвах дагах нь хэмжээгүй Монгол аймгуудыг хянах, өрнөтэй харилцах худалдааны шинэ зам нээх зорилгоор \хуучин Уйгур улсын үед ашиглагдаж байсан худалдааны замыг дахин сэргээх\ Орхон Туул Хэрлэн голын савд Чжэнь-чжоу, И-Чжоу, Бо-Чжоу хэмээх цэргийн гурван тойрог нэлээд хэдэн бэхлэлт хотыг барисан байна. Ийнхүү шинээр хот барихдаа өмнө эзэлсэн авсан улсын иргэдийг цөллөн суулгаж хот хэрэм бариул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тэр хотыг ямар үндэс угсааны хүн бариснаас шалтгаалан хот хэрэмийн хэлбэр бүтэц хэв маягт тусгалаа олдог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Шинээр хот барихын зэрэгцээ Хуучин Уйгур улсын үеийн хотуудыг ч сэргээн засаад ашиглаж байжээ.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гаас илэрч олддоод буй Хятан улсын үед хамаарах хот сууриныг үүрэг зориулалтаар нь Цэргийн тойргын төв, Бэхлэлт хот, дагуул суурин Хэрэмийн зохин байгуулалт хэв шинжээр нь гурав ангилан авч үзэж болхоор байна.

1. Хятаны хэв шинжит хот
 2. Зүрчид Бохайн хэв шинжит хот
 3. Уйгурынхэв шинжит хот буюу сэргээн зассан Уйгурын хот
- Хэмээн ангилан авч үзэж байна.

Хятаны хэв шинжит бэхлэлт хот

Энэхүү ангилалд Чинтолгойн хэрэм, Харбухын балгас, Улаан хэрэм Зүүн хэрэм Талын хэрэм , оруулж болхоор байна. Энэ төрлийн хот нь гол ялгаа нь хэрмий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т шавар дагтиршуулан хийсэн өндөр хана бүхий хэрэмтэй хэрмийн дунд цонж буюу тулгуур ханатай байна. Цонж нь хэрмийн ханыг бэлэхээс гадна харуул хамгаалалтын үүрэгтэй байна. Мөн хэрмийн гадуур татсан гүнзгий сувагтай нягт холбогдох ба цонж гадагшаа түрсэн газарт тодорхой зайтайгаа суваг тойрон гарч байхаар барисан байна.

Хэрмийн хаалга хэрэмээс гадгиш түрж гарсан хэрэм бүхий \сонор чих\ хэлбэрийн хаалгатай байна. Энэ ангилалын хотын хаалга хоёр буюу түүнээс дээш байх ба хэрэмийн дотор талаар хаалганаас хаалга хүртэл шулуун өргөн гудамтай, эл өргөн гудам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олон нарийн гудам бүхий барилгуудтай байхаар зохион барисан байна. Энэхүү шинжүүдийг илүү тод хадгалсан хот бол Улаан хэрэм , Чинтолгой хэрэм юм.

Зүрчид Бохайн хэв шинжит хот

Эл ангилалд Эмгэнтийн хэрэм Өглөгчийн голын хэрэм оруулж байна.

Энэхүү ангилалд орсон хотын хэрмийн ханыг чулуугаар бариж дотор нь шавар дагтаршуулан босгодог байна. Хаалга дан болон гулдан хаалгатай байна. Мөн зарим хэрэм нь уул дамнуулан барисан байдаг байна.

Уйгурын хэв шинжит буюу Хятан улсын үед сэргээн зассан хуучин Уйгурын хот

Энэ ангилалд Хар балгас, Чилэн балгас, Хэрмэн дэнж, гэх мэт хэдэн үе дамжин суурьшиж байсан хотуудыг оруулж байна.

Эдгээр хэрэмт хотууд нь гадна хуучин Уйгур улсын үед байгуулсан хотууд бөгөөд хожим Хятан нар дахин сэргээн зассаад суусан хотууд юм. Эл хотын хэрэм нь Хуучин уйгурын хотын хэв шинж болох зүүн зүг харсан нэг хаалгатай нэг их хэрэм түүнийг тойрсон тусгайлсан олон жижиг хэрэм гудамтай байна. Үүний дээр Хятан улсын гэх ваар сав баримт материал их илэрч олдог болхыг тэмдэг лэх хэрэгтэй юм. Мөн Хятан барилгын хэв маяг оруулан дахин сэргээсэн ул мөрийг хадгалсан байдгаараа онцлог юм.

Түүх Сударт нэр нь гардаг хятан улсын хилийн хотууд

Хатан хот буюу Чжэнь-Жоу.

Энэ хотыг Киданы татвар хатан 994 онд бариулжээ. Баруун хойт хязгаарын Зү-Бү олон аймгийг баримтлан захирч тохинуулахаар цэргийн гурван тойрог дараалан барьсны нэг нь Чжэнь-Жоу хот юм. Энэ хотын тухай сурвалж бичигт Хэдун хот бол хуучин Уйгурын Хотун хот мөн түүнийг ташааран, Хэдун хэмээн бичих болжээ гэсэн байна. Үүний дээр Хятан улсын Шэнь Цзунь хааны намтарт Хэдун хотыг 1004 онд Чжэнь-Жоу хэмээн халж нэрлэсэн байдаг гэжээ. Хэдун хотыг хаана байж болох талаар олон орны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ид санал дүгнэлтээ гаргасан байна.

- 1.Хэдун хот Орхон голоос умард этгээдэд байсан
- 2.Хэдун хот бол хэрлэн гол байсан
- 3.Уйгурын Хэдун хот Орхон голын хөндийд байсан
- 4.Уйгурын Хэдун хот бол Туул голын савд буй

Мөн Пэрлээ.Х, Очир.А Монгол улсын одоогийн Булган аймгийн Дашинчилэн сумын нутагт байгаа Чин толгой гэдэг их балгас Чжэнь-Жоу хотын ор үлдэц болох нь илэрхий юм хэмээн үзсэн байна.

Чжэнь-Жоуд баруун хойт (гадаад) аймгийн 20 000 дарангуй цэрэг сууж байснаас гадна бохай, хятад, зөрчид ялтан 700 гаруй өрх айлыг нүүлгэн ирүүлж цөлөн суулгасан байжээ. Тэр үед хотын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ажил цэргийн хүчээр ихэд өргөжин тэлсэн байна: хэмээн тэмдгэлжээ. Үүнээс үзэхэд хүн ам олонтой газар тариалан сайн хөгжсөн нэлээд том хот байсан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Дээрх судлаачдын саналаас Орхон гол Хэдун хотыг холбогдуулан авч үзсэн санал илүү ойр байгаа бөгөөд тэндээс нэлээд тооны сав суулга хятан ы үеийн дурсгалууд илэрч олддогын зэрэгцээ Хар балгасны үндсэн шилтгээнт хэрэм нь дахин засаж суусан хэд хэдэн шинж байна.

1. Хэрэмийг тойрсон суварга хэмээн нэрлэдэг шавар барилга тэр нь Уйгур улсын үед бол давхар хэрэм байгаад хожим хэрэмийг таслан өөр зориулалттай

болгон таслаж одоогийн нэг талдаа 8, нөгөө талдаа 7 цамхаг болгон хожим босгосон бололтой байна.

2. Хэрмийн баруун талд буй хаалга байна. Энэ нь Хятаны хэрмийн хаалгы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гадна төрхөөрөө их адилхан байна. \чих мэт \

3. Хар балгасын хэрмийн хойно буй Хотонт уулын орой дээр буй найман талт цамхаг байна. энэ цамхаг нь Хятаны үед барисан цагаан суварга Хэрлэн барс 1 суварга зэрэгтэй адилшаалтай байна.

4. Хотын хэрмийн цар хүрээ,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ул мөр юм. Агаарын зургаас ажиглавал Баруун зүүн хойд талуудад их хэмжээний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 суваг тарианы тариг байна.

5. Хот байгаа газрын нэр юм. Харбалгасыг түшүүлэн барисан уулын нэрт Хотонт гэх бөгөөд Эрт цагт тэр уулыг Хатант уул гэж байгаад Хотонт хэмээх нэрлэх болсон байна. Мөн уулын оройд буй найман талт байгууламжыг Хатаны шарил хэмээн яридаг байгаа зэргээс үзхэд Одоогийн Харбалгас нь Уйгурын Хэдун хотын нэр он цагын уртад бага зэрэг өөрчлөгдөн уулын нэр болон хадгалагдан үлдсэн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нутгаас Хар балгасыг оруул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Эл хотыг Уйгурын нийслэл Хот хэмээн үзсэн бөгөөд Энэ хот нэгдүгээрт цар хүрээ том бөгөөд Орхон голын хөндийн тухайн үед Южи аймагтай хил залгаа нутаг юм

Төгсгөл

Эндээс тунгаан үзвэл Хятан нар Монгол аймгуудын нутагт 10 дугаар зууны сүүлчээс эхлэн хот байгуулан цэрэг суулгах болсоныг харж болхоор байна

Сурвалжын мэдээнд гарч буй Чжэнь-жоу, И-чжоу, Бо-Чжоу хэмээх хот буюу цэргийн тойрог байсан ба нэг тойрог нь Хэд хэдэн хэрэмт хотын сүлжээ байжээ гэж үзэж болхоор байна. Эдгээр хотууд нь хоорондоо 20-30 км зайтай байхаар бодож байгуулсан ба өөр хоорондоо дохио өгөх галт цамхаг, харуулын байрыг ч бариж байсан байна.

Эдгээр цэргийн тойргын хамгийн Баруун хойт талын тойрог нь Чжэнь- Чжоу буюу уйгурын хуучин нутаг Орхон голын хөндий түүний төв нь одоогий Харбалгас байсан хэмээн үзэж байна. Удаах тойрог нь Туул голын савд буй Чинтолгой, Улаанхэрэм, Харбухын балгас, гурав дахь тойрог нь Хэрлэн Онон голын савд буй Өглөгчин хэрэм, Зүүн хэрэм, Баруун хэрэм, Хэрлэн барс-1 хот байж болхоор байна.

Анхаарал тависанд баярллаа

Монгол хэлээр

1. Амартүвшин.Ч,Рэгзэн.Г, Пак Жаншиг. Хятаны үеийн хотын туриас олдсон ширмэн эдлэлийн хийц загварын өөрчлөлт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Т XXXIII,Ф.9 УБ.,2005 тал 128-143.
2. Амартүвшин.Ч,Уильям Ханичёрч. 2006 Эртний нүүдэлчдийн төрийн байгууламжинд хийсэн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 УБ
3. Баяр.Д. Хөгшин тээлийн балгас дахь анхны малтлага судалгаа.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Т XXXIII, Ф.16 УБ., 2002 тал 155-176.
4. Баяр.Д. Уйгурын Байбалык хотын тухай тэмдэглэл. //Studia Archeologica.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Т (XXI) Ф. 10 УБ., 2003 тал 93-109.
5. Баяр.Д. Эрдэнэбат.У.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Хар Хорум хотыг археологийн талаар судалсан нь. //Studia Archeologica.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Т (XXI) Ф.12, УБ., 2003 тал 113-129.
6. Доржсүрэн.Ц. Умард Хүннү. УБ., 1961,
7. Доржсүрэн.Ц.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УБ., 2003.
8.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2. //Korea-Mongol joint study-2. Seoul., 1993.
9.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3. //Korea- Mongol joint study-3. Seoul., 1994.
10.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4. //Korea-Mongol joint study-4. Seoul., 1995.
11. Монгол-Туркийн хамтарсан хээ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2000, 2001, 2002 оны тай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хөмрөгт буй.
12. Монгол-Германы ХарХорум экспедицийн 2000, 2001 оны тайлан (KAR-2) УБ.,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хөмрөгт буй.
13. Монгол-Японы хамтарсан “Шинэ зуун” төсл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нгийн 2001, 2002, 2003 оны тай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т буй.
14. Очир.А. Энхтөр.А. Эрдэнэболд.Л. Чин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тухай- <<Nomadic studies>> (Нүүдэл судлал). 2004 18 тал 53-59.
15. Очир.А. Энхтөр.А. Чилэн балгасны тухай “Үндэсний Монгол судлал” УБ, 2004 тал 6-13
16. Очир.А. Энхтөр.А.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II Симпозиумын илтгэлийн эмхтгэл>> Сөүл 2004. Монгол хэлээр 15-23-р талд,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24-38-р талд
17. Сэр-Оджав.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 илтгэлийн эмхтгэл. УБ.,2003.
18. Сэр-Оджав.Н. Баяр.Д. 1979-1980 оны Хар хорины шинжилгээний ангийн тай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19. Ханс-Георг Хюттель Уламбаярын Эрдэнэбат. Хар Балгас ба Хархорум-Орхоны хөндий дэх хожуу нүүдэлчдийн суурьшмал хоёр хот УБ., 2009
20. .Худяков.Ю.С, Цэвээндорж.Д, Реконструкция комплекса вооружение

панцирного войно из памятника Цогт-Хиргист хоолой в Гобийском-Алтай-
`Проблемы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I. М., 1988,стр 22-28

21. Цэвээндорж.Д. Худяков.В.С.. Керамика Орду-балыка. //Археологий
Север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1982г.

22. Цэвээндорж.Д. Батсайхан.З. Төрбат.Ц. Сүннүгийн хот суурины
асуудалд. УБ., //Монгол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мэдээ. 1994 он. 13-4.

23. Цэвээндорж.Д. Монголын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I, II. УБ., 2003 он.

24. Пэрлээ.Х.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товчоон.
УБ., 1961 он.

25. Пэрлээ.Х. Хятан нар тэдний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гдсон нь. УБ., 1959 он.

26. Х.Пэрлээ. Хятан улсын хоёр бэхлэлт (хот)-ийн үлдэгдэл УБ.1957;

27. Х.Пэрлээ. Хэрлэн барс гэдэг эвдэрхий хотыг малтан шинжилсэн тухай.
ШУХБ нийгмийн ухааны анги ¹ 2 УБ.,1957;

28. Х.Пэрлээ. Хятан нар тэдний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гдсон нь УБ. 1959.
Т.С.Т.И.ф.И;

29. Х.Пэрлээ. Зүүн хэрэм гэдэг эвдэрхий хотыг 1953 онд малтсан нь.
УБ.,1956;

30. Х.Пэрлээ. К истории древних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ении в Монголии. СА. 13.,
1957. стр 43-44.

31. Пэрлээ.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лүүд I, II. УБ., 2001

32. Пэрлээ.Х. Монгол ба Төв Азийн соё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хоёр ховор
сурвалж бичиг. УБ., 1974. //Monumenta historica. Т. VI. F. 1-2.

33. Эрдэнэбат.У. Саарь хээрийн халиут орд хаана байсан бэ? //Studia
Archeologica. Т XVII, F.11, УБ.,1996 тал 136-143.

Орос хэлээр

34. Артемьева.Н.Г.Домо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журчженей Приморья(ХII-ХII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пресс 1998

35. Букиныч.Д.Д. Общий отчет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работам за 1933-1934
гг.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Ф-9,
Т-11, ХН-23.

36. Болдин.В.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в 2004 году/Отчё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Бохо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России в 2004г., Сөүл .,2005г/

37. Букинич Д.Д. Дневник разведок и раскопок на обратном пути от Эрдэни-
цзу до Уланбатора 1933г.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хөмрөгт хадгалагдаж буй.

38. Владимирцов.В.Я., Отчет поездке на Бага Хэнтий.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
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Ф-9, Т-3, ХН-07.

39. Данилов.С.В. Города в кочевых обще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лан-Удэ.
2004.

40. Казакевич.В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Монголии в свете археологии //
Современная Монголии ¹⁴(7)УБ.,1934.с ,3-24

41. Казакевич.В.А. Отчет поездке Хэсэк байши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42. Козлов.П.К. Краткий отчет о Монголо-Тибетской экспедиции-II. //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1923-1926 гг. ¹⁴.

43. Кондратьев.С. Краткая заметка о старинной крепности в Уклекчи 1926.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Ф-9, Т-6.

44. Ивлиев.А.Л. Городища киданей.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 средней 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и см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ладивосток., 1983

45. Кисилев.С.В. Монголия в древности.-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Серия истории и философии. 1947г. ¹⁴.

46. Кисилев.С.В. Древние города Монголии.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57г. ¹².

47. Кисилев.С.В. Древние Монгольские города. М., 1965г.

48. Кюннер. Н.В. Китайские известия о народах Южной Сибир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М 1961. Материалы комиссии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Монгольской и Танну Тувинской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Бурят Монгольской СССР>> Вып. 4. Ленинград1929. стр 8-9

49. Мэнь-гу-ю-му-цзи. Записка о Монгольских кочевьяхъ. Перевод с китайского П.С.Попо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5, стр-339;

50. Мацуй Хитоси. Киданьский город Кэдуньчэн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географии и истории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Т- I, Токио., 1915. стр 295. Үүнийг А.Г.Малявкин.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йгуров в IX-XII вв. Новосибирск., 1974. 142,180 талаас дам эшлэв.

51. Киселев С.В. Монголия в древности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Сер. истории и философии” 4. М., 1947. Стр 95.

52. Падерин.А. О Каракоруме и других развалинах близ Орхона-II. //Извест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IX. Вып. 10, СПб; 1874. Стр. 350-370.

53. Поппе Н.Н. Отчёт о поездке на Орхон летом1926 года.

54. Позднеев.А. Монголия и Монголы. Спб., 1896. Т I.

55. Радлов.В.В. Атлас древностей Монгол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ып. I, 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2г,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I. 1892г, вып. II. 1893г, вып. III. 1896г, вып. IV. 1899 г: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V.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1г: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2. Стр 2-54.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5. Стр 48-59.

56. Шавкунов.Е.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Л., 1968

57. Ядринцев.Н.М.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отчет о поездке 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целью в северную Монголию и вершины Орхона. //ИВСОРГО-Иркутск. 1889. т. XX. ¹⁴. стр 1-13.

Бусад хэлээр

58. Album of the Turkish monuments in Mongolia. Ankara 2001.

59. Grano.J.G. Archaologische Beobachtungen von meiner reise in Suesibirien und

der nordwest Mongolei im Jahre 1909. Helsingfors. 1910.

60. Joint Korea-Mongol expedition: Eastern Mongolia. //Korea-Mongol joint Studies Association, Mongolia academy of sciences. Seoul., 1992.

61. Мацуй Хитоси. Киданьский город Кэдуньчэн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географии и истории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Т- I, Токио., 1915. стр 295. Үүнийг А.Г.Малявкин.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йгуров в IX-XII вв. Новосибирск., 1974. 142,180 талаас дам эшлэв.

62. Qara qorum city /Mongolia/ I. Preliminary report of the excavations 2000-2001. Bonn Contributions to Asian Archeology. vol-1. 2002.

63. Shiraishi Noriyuki. Chingis khan no kougogaku. Tokyo 2001. /Япон хэлээр/.

64. Такао Moriyasy and Ayudai Ochir. Edited by, Provisional Report of Researches on historical sites and inscriptions in Mongolia from 1996 to 1998. The Society of Central Eurasian studies. Tokyo 1999.

65. Wittfogel.K.A, FENG CHIA-S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1949. p.67-68

66. Ростхорн.А. Төв Азийн уулын цайз (эрдмтэн Хиртийн ойн ёслолын цуврал бичиг) 1920. Нью-Йорк, тал 292 (герман хэл дээр).

몽골국내 거란시대 성시(城市)의 전형성(典型性)에 대하여

A. 앙흐터르 (Enkhtur) 몽골국, 몽골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유목민 국가는 역사 시대에 차례로 초원을 장악하면서 이전 국가의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이 확대, 발전시켰으며 이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통하여 이미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한 예가 거란시대에 몽골 부족들의 활동지에 건설한 성시이다.

연구 개황

몽골국에서의 첫 거란 성시 연구 작업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1870년대 러시아 학자 A.파데린(A.Падерин)이 지금의 몽골국 볼강도 다쉬칠린군내에 위치한 하르 보호 발가스 성터를 발견, 조사하였다. [파데린 Падерин.А .1874. 350-370].

그 다음 V.V.라들로프(V.V.Радлов)와 N.M.야드린체프(N.M.Ядринцев)가 이끄는 조사단이 오르혼강과 툽강의 하곡평원의 고대 위구르, 거란, 몽골인들의 많은 성시를 처음 발견하여, 대부분의 해제와 평면도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자료에 편입시켰다. [라들로프РадловВ. В., 1892,1893; 야드린체프Н. М. Ядринцев.1892 .1893;].

러시아 학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몽골만이 아니라 중앙 아시아 유목민들의 고고유물과 문자유물을 처음 발견하여 연구자들에게 알림으로서 이 분야 연구에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향후 연구의 길을 닦아 주었다.

1909년 핀란드 학자 J.그라네를 단장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몽골의 서북과 북부지역을 답사할 때 툽강 유역에 위치하는 일부 거란 성터인 하다이산긴 발가스 성터라고 보았으며 그 가운데 있는 석제건축물인 탑의 사진을 찍어 출간하였다. [Grano.J.G, 1910.].

1920년대 러시아 학자 S.콘드라티예프(S.Кондратьев)가 오논강 유역에서 거란 시대 석성을 발견하였으며, 최초의 해제를 작성하여, 연구자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이 성곽은 지금의 헨티도 빈데르군에 있는 어글릭친 헤렘이며 S.콘드라티예프는 성곽의 당시 높이와 성문 등을 해제하고 증명 사진을 찍어서 남겼는데 이는 중요한 자료로 남았다. [콘드라티예프 Кондратьев.С. 1926].

1926년 몽골학 학자인 N.N.뽀뽀(N.N.Поппе)와 B.밤바예브(B.Бамбаев)가 툽강을 따라 오르혼강까지 답사할 때 툽강 기슭의 평원에 있는 거란 시대 칭톨고이 헤렘을 보았으며 성곽 내부에 있던 돌거북 2기를 보고 기록하였다. [뽀뽀 Поппе.Н.Н. 1926].

러시아 학자 D.D.부키니치(D.Д.Букинич)는 1930년대 초 몽골국 과학원에서 활동할 때, 역시 이전 학자들이 발견한 칭톨고이 (하다이산긴) 성의 평면도를 작성하였으며 성곽 내부에 있던 돌거북 2기 근처의 발굴하여 해제와 그림을 그려 자료화하였으며 또한 남쪽 성곽 안쪽의 건축물 유구 한 곳을 발굴하여 주춧돌과 지붕 기와를 대량 발견하였으며 일부 유물은 역사 박물관에 인계해 주었다. [부키니치Букинич. Д.Д. 1933-1934.]

러시아 학자 S.V.키실리예프(S.V.Киселев)와 몽골 고고학자 Kh.페를레(X.Пэрлээ)가 1940년대말 몽골국 오르혼강 유역에서 행한 조사는 몽골의 성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의견과 평가, 실제 유물로 풍성하게 해 주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하다이산긴 발가스 성터 몇 군데에서 소규모의 시범 발굴을 행하여 거란 시대 유적으로 규정하였다. [키실리예프 Киселев.С.В. 1947].

S.V.키실리에프는 몽골의 고대 성시를 주제로 하는 서적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서 흥노, 위구르, 거란, 몽골 시대 성시를 평면도와 함께 간행하여 도시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집필, 출간하였다. [키실리에프Киселев.С.В. 1965].

1950년대부터 Kh.페를레는, 볼강도 다쉬치렌군에 있는 칭톨고이 성터, 탈린 올란 성터, 하르 보호 성터, 헨티도 머런군의 헤를렌강 유역에 위치하는 주운 헤렘 성곽, 바론 헤렘 성곽, 도르노드도에 위치하는 헤를렌 바르스 성터, 헨티도 바트쉬레트군의 어글릭친 헤렘 성곽 등 약 10여 성시를 발굴, 조사하면서 사료의 기사와 비교 연구하였다. [페를레Пэрлээ.Х. 1957 ;1959,].

거란 시대 성시는 군사 요새인 동시에 수공업과 둔전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그곳을 발굴, 조사했을 때 거란인들의 경제적 생산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적 발달과 관련있는 흥미로운 유물이 상당히 출토되었다. [페를레 Пэрлээ.Х., 1957., 1959].

Kh.페를레는 거란의 역사와 고고 유물을 연구하여 그들의 생활, 기원, 사회구조, 문화를 종합하여 단일 주제서를 집필하였다. [페를레Пэрлээ.Х, 1959]. 이는 몽골과 중앙 아시아 역사에서 거란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끄집어 낸 큰 학술서적이 되었다. 그는 거란인들의 문화와 연관된 자료를 상당수 발굴, 출간하였는데 그 중에서 칭톨고이 발가스 성터의 지붕 기와에 새겨진 글월, 헨티도 살바르산의 암벽에 새겨진 글월 등 흥미로운 유적이 많이 있으나 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거란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채이다. Kh.페를레는, 1951년 돈드고비도 사인차강군의 고분, 1967, 1968년 헨티도 바트쉬레군 턱신 업덕 (역자주: ‘업덕’은 무릎이라는 뜻으로, 산이나 계곡에서 무릎처럼 튀어나온 지형을 뜻하기도 한다), 호르힌강, 자르갈란틴강 유역에서 20여기 가량의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거란고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페를레Пэрлээ.Х. 1982]. 이 고분군에서 철기, 화살촉을 다듬는 칼, 투구의 철제 박편, 무늬가 있는 토기, 말 및 가축 뼈 등의 물품을 수습하였으며 그 외 불을 지피 의식을 행했던 사실이 발굴을 통하여 드러났다.

D.체웬도르지(Д.Цэвээндорж)는, 1986년 고비-알타이도 축트군 히르기스트 호올로이라는 곳의 흥노 무덤 둘레를 나중에 파서 7명을 매장한 고분을 발굴하였다. 고분에서 출토한 장신구나 물품, 특히 창, 화살촉, 갑옷 등에 근거하여 거란 시대 무덤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호디아코프Худяков.Ю.С, 체웬도르지Цэвээндорж..Д, 1988].

1970년 즈음 Kh.페를레와 E.V.샤코노프(Э.В.Шавкунов)가 하르보힌 발가스 성터의 무너진 돌담에서 몽골인들의 귀중한 문자 문화 유산인 자작나무껍질에 쓴 책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학술적으로 아주 희귀한 유물이다. 자작나무껍질에 쓴 책들은 종류가 수 십가지인데다, 7x 4센티미터부터 14x 5센티미터에 이르는 쪽과, 쪽마다 에둘러서 줄을 맞추고 색색으로 꾸몄으며, 쪽의 앞뒤와 행의 수를 균일화하고, 정형화된 상세한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상당히 숙련된 여러 문필가의 필체로 제작된 유물이었다. 이 거란 성터에 나중에 몽골인들이 다시 사원을 건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몽골국내의 고대 및 중세 시대 유목민들의 성시 연구에 있어 Kh.페를레의 논저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수 년간의 연구활동에 기반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의 고대, 중세 성시(城市) 역사”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그 책에서 흥노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부터 시작해 17세기말까지 중앙 아시아에서 존립했던 유목국가들 가운데 몽골국내에 남은 성시의 대략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며, 유목민의 성시가 정주민의 성시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저자인 [페를레] 본인이 직접

살펴보고, 조사할 수는 없었으나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옛 성시의 이름과 위치를 책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정보가 되었다. [페를레Пэрлээ.Х, 1961]. Kh.페를레는 또 다른 논저에서, 몽골국내 고대 성시에 대한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하였는데, 거란 시대 도성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페를레Пэрлээ.Х, 1959].

1980년 러시아학자 A.L.이블리예프(ИвлевА.Л.)가 몽골국내 거란 요나라 시대 성시를 화북 내몽골지역의 거란 성시와 비교연구하였다. [이블리예프Ивлев.А.Л, 1984].

1990년부터 몽골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어, 세계에 개방되므로써 우리의 고고연구는 이전보다 확대되는 동시에 선진국의 연구 이론-방법론, 장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몽골국의 고고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10여년간 외국 학자들과 몽골 고고학자들 사이의 공동 활동을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칭기스칸능을 찾으려는 “고르왕 골(역자주: ‘3 河’라는 뜻으로 툽강, 헤를렌강, 오논강을 가리킨다.)”이라는 몽골-일본 합동 조사단이 헨티도 어글릭친 헤렘 부근에서 항공도 탐사 및 지질물리탐사를 행하였다. [체웬도르지Цэвээндорж.Д, 바야르Баяр.Д, 메네스Мэнэс.Г, 빌렉트Билэгт.Л, 바트사이항Батсайхан.Б. 1990 ; 카토Като.С, 츠루마루Tsurumaru.G, 1991] 이 조사단 역시 헨티도 머런군 주운 헤렘과 바론 헤렘 등 성의 항공도를 찍었으며 살바르 올 산의 거란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어글릭친 헤렘 성곽에 가서 측량하였다 [체웬도르지Цэвээндорж.Д, 바야르Баяр.Д, 앵흐마트Энхбат.Б, 축트비아타르Цогтбаатар.Б 1992,1993].

몽골-대한민국 공동 조사단은 수흐바아타르도 다리강가군 숨틴 토이룸에서 거란 시대 성시라 보고 발굴, 조사하였다. [Mongol joint study-2.3.4.. Seoul., 1994,1995,].

일본 학자 시라이시(白石典之)는 몽골국내 고대 성시를 연구하여, 단일 주제서를 집필하였는데, 이 주제로 최근 간행된 서적 중 단연 눈에 띄는 저서로 마땅히 꼽힌다. 그는 몽골국내에서 고대에 축성되었다가 쓰러지고 무너져 폐허가 된 상당수 성터의 연대를 상세하게 산출하여, 성시 구조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거란시대 몇몇 성시에 관한 사료기사를 비교 분석하여, 유적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시라이시Ширайши, 2001].

몽골-한국 공동 “몽-술” 사업의 연구자들은 1998년 헨티도 빈데르군 어글릭친강의 석기제작지와 청동기시대 판석묘를 발굴, 조사하던 중 어글릭친 헤렘 성곽의 평면도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 간행하였다.

2000-2002년 몽골-미국 공동 “칭기스칸” 답사단은 헨티도 빈데르군 어글릭친 헤렘 성곽의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를 행하였다. [나왕Наваан.Д, 얼지바야르Өлзийбаяр.С, 2002]. 이 답사단의 구성원으로 미국측에서는 다마스쿠대학교 고고박물관장인 아모르(Amor) 교수, 몽골국립대학교 D.나왕(Д.Наваан) 부교수와 몽골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들이 활동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어글릭친 헤렘 성곽의 내부 중 전체 10군데를 발굴하였으며, 돌을 연이어 배치하여 축조한 “계(Г)” 자형의 구조를 발견하여 제단 또는 주거터라고 보았다.

2002-2003년 몽골국립 민족역사박물관의 고고 조사단이 몽골국 불간도 다쉬칠렌군에 위치한 하르 보호 발가스 성터를 조사하여, 그 중 16~17세기에 해당하는 석제 건축물 두 칸을 발굴, 정리하면서 도성 평면도를 새로 제작하였다. [오치르Очир.А, 앵흐터르Энхтөр.А.,

에르텐볼드Эрдэнэболд,2005]. 그리고 이 성터의 대형 토성 바깥에 구축한 성과 다른 유적도 역시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 하르 보호 발가스 일부를 발굴, 조사하는 동시에 툽강과 오르혼강 유역을 따라 면해 있는 곳을 지표조사하여, 거란 시대와 관련있는 상당수의 도시와 취락 유지를 새로 발견하였다. [오치르Очир.А, 앵흐터르Энхтөр.А.2004].

이렇게 수 십년간 계속된 연구 결과 몽골국내에서는 10여개 가량의 성곽이 있는 성시, 같은 수의 작은 취락지, 변방 성곽과 길 등을 발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의 위치를 살펴 보면 툽강 유역, 헤를렌강과 오논강 유역, 오르혼강 유역 이렇게 3군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툽강 유역의 성시

칭톨고이 발가스.

칭톨고이 발가스 성터는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하도록 축성되었다. 이 성은 북위 47°52' 810", 동경 107°14' 460" 지점, 해발 977미터에 위치한다. 칭톨고이는 흙을 다진 판축공법(版築工法)의 토성이다. 이 토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260도로 향하는 배치이다. 성의 북쪽은 680미터, 서벽 1260미터, 남쪽은 680미터, 동벽은 1260미터이다. 성곽은 대체로 네모구조이다. 성을 가운데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흙을 다져 경계를 짓고, 북쪽과 남쪽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북변의 동편은 700미터, 서편은 700미터로 네모꼴 구조이다. 그 남쪽 동편에는 바깥쪽으로 뻗치게 축조한 웅성의 궁형문(弓形門)의 흔적을 알 수 있다. 그 문은 약 10미터 거리에 있다. 이 문의 3면을 막아주는 토성을 축조하여 방어하였다. 그 규모는 45x 45미터이다. 북쪽 성의 서쪽과 동쪽 양측에는 바깥으로 내어 구축한 웅문이 있다. 그 두 문을 연결하는 중앙로가 있다. 중앙로의 길이는 640미터, 너비는 28미터이다. 칭톨고이 발가스 성터 북부에는 상당수의 건축물 유구가 관찰된다. 그러나 남부는 북부에 비해 약간 적은 수의 건축물이 있었다.

토성 남부의 서벽은 600미터, 남벽은 640미터, 동부는 600미터 규모이다. 이 부분의 동남면에도 역시 웅성의 궁형문이 있었다. 지금은 문폭 약 6미터의 흔적만 남았다. .

남부 또한 서변과 동변에 하나씩, 웅성의 궁형문과 두 문을 잇는 시가가 있었다. 이 시가에서 남문을 향하던 또 하나의 시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 길이는 500미터, 너비는 약 38미터이다.

칭톨고이 발가스 성터의 성곽 북측에는 6, 남측에는 6, 서측에는 10, 동측에는 10, 성의 네 모서리마다 1, 총 36개의 치 유구가 드러나 보인다. 이 치는 성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도록 설치하였다.

칭톨고이 발가스의 토성은 기단은 너비 35미터, 위로는 너비 4.5미터이다. 이 성곽은 지표면에서 2.5-4미터 높다.

보(堡), 해자(壕子). 칭톨고이 발가스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하며, 토성의 서북 모서리를 감싼 형태로 낸 1킬로미터 길이의 보(堡)는 일부에서는 분명하게, 일부에서는 희미해졌다. 이 보는 한 편으로는 성안으로 빗물이나 범람하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한 편으로는 칭톨고이에서 내려온 빗물을 모아, 둔전쪽으로 흘렸던 것 같다.

이 보의 서쪽 끄트머리는 성곽의 북쪽 해자와 합해졌던 것 같다. 그리고 칭톨고이 발가스의 중앙 성곽의 동남문 주변에서부터 작은 보가 딸린 해자 하나가 동쪽을 향하며, 한 작은 호수의 바닥이었을 구덩이까지 약 250미터 이어지고 있다.

칭톨고이 윗부분의 구조물. 칭톨고이 발가스 성터에서 북쪽으로 0.8킬로미터 부근에 언덕 하나가 있다. 그것을 칭톨고이라고 한다. 이 언덕의 꼭대기에는 돌을 나란히 쌓아올린 위엄있는 구조물이 조성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북위 47053429", 동경 104013.358" 지점, 해발 1016미터에 위치한다. 이 언덕 꼭대기의 돌구조물의 기단 둘레는 214미터, 높이는 지표면에서 12미터이다. 그 기단 면적은 약 3249 평방미터이다. 이 돌구조물을 조성할 때, 네 모서리를 치고, 모서리에서부터 아래쪽을 향해 돌로 칸을 쳤다. 돌구조물 꼭대기의 평평한 부분에는 자그마한 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다. 건물 지붕의 평기와와 기와등의 파편, 파란 전돌 파편이 이 구조물 위에 상당히 있다. [오치르Очир.А, 엔흐터르Энхтөр., 2004].

올란 헤렘

볼강도 바얀 노오르군 바얀올란 올 산의 동쪽 기슭과 샤르 탈 평원 두 곳이 만나는 지점에 대형 토성이 있다. 처음 Kh.페를레가 이것을 발견하였다. 이 성은 붉은 흙을 다지는 판축공법으로 축성하였기 때문에 멀리서 붉게 보인다. 지역민은 그것을 탈린 올란 헤렘 (역자주: '초원의 붉은 성'이라는 뜻), 올란 헤렘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올란 헤렘 부근에서 우리는 2002-2003년에 지표조사를 행하여 서남쪽과 서서북쪽은 바깥으로 토성이 있는 유구와 성이 없는 구조물의 유구 몇 군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올란 헤렘 서변의 북쪽과 남쪽 두 모서리에서 남쪽 및 북쪽을 향하는 보를 구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올란 헤렘의 해제와 평면도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때 Kh.페를레가 처음 발견한 대형 성곽은 올란 헤렘-1, 나중에 우리가 발견한 구조물에는 올란 헤렘-2, 3, 4, 5라고 번호를 부여해서 명명하였다.

올란 헤렘-1.

이 성은 흙을 다진 판축공법으로 축성하였으며 네모꼴이다. 이 성은 북위 47055.824", 동경 1040 32. 432", 해발 973미터에 위치한다. 그 길이는 북벽과 남벽은 각각 400미터, 서벽과 동벽은 각각 390미터이다. 성의 평균 높이는 2.5-3 미터, 너비는 성 바닥에서는 18-34미터, 위로는 2.5-4미터이다. 이 성은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3면에 큰 웅성이 있다.

이들 웅성의 평균 크기는 27x 24미터이다. 올란 헤렘 주변으로 깊게 파낸 해자가 있다. 지금도 분명하게 나 있는 해자는 방어용이었으며 그 깊이는 대략 2-3미터, 너비는 5-8미터이다. 성곽의 북벽에 5, 동벽에 5, 서벽에 5, 남벽에 4 개 이렇게 각각 바깥쪽으로 낸 치가 있었던 흔적을 알 수 있다. 이 성곽의 서문을 동문과 잇는 주작대로가 있다. 그 길이는 390미터, 너비는 대략 30미터이다. 그리고 성의 남문에서 북벽을 향하는 거리는 주작로를 지나 끝난다. 이 거리의 폭은 약 50미터이다. 앞서의 주작로에서 갈라지다가 거기에 이르러 합쳐지는 수많은 작은 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성의 서문과 동문의 웅성이 약간 훼손되었다.

이 성의 내측에는 많은 건축구조물이 있었다. 가능한한 이 건축물의 위치를 평면도에 반영하려고 애썼다. 올란 헤렘-1은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의 토성이었다. 이

성곽의 내부는 경영과 방어 등에서 살펴 볼 때, 주로 거란군 지휘자와 상인, 수공업자, 둔전 행정관 등이 거주했던 듯 하다.

올란 헤렘-1의 내측에서 건축물의 지붕 기와, 물방울무늬 도기류, 멧돌, 절구돌 등을 역시 수습하였다.

해자. 올란 헤렘-1의 동북 및 서남 모서리에서부터 양쪽으로 낸 보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이 보를 조성할 때 지표 아래에서 흙을 파내서 높였다. 우리는 바로 이 두 해자 중 서남쪽으로 낸 것을 제 1 해자, 동북쪽으로 낸 것을 제 2 해자라고 하였다. 해자의 위치를 살펴 볼 때,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아, 올란 헤렘-1의 방어용 해자로 들어오게 하였으며, 성을 방어하거나 또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아 고이게 해서, 농작물이나 야채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였던 것 같다. 해자의 일부는 그 깊이를 거의 알아채질 못할 정도로 모호해졌다.

제 1 해자의 길이는 1600미터, 너비는 1-1.5미터, 깊이 0.3-0.5미터이다.

제 2 해자는 동북향으로 1800미터 이어진다. 이 해자의 너비는 1-1.5미터, 깊이 0.3-0.5미터이다.

탈린 헤렘

볼강도 바얀노오르군 하르 누텐긴 샤르 탈 평원의 수염풀(Achnatherum Beauv.) 풀밭에 토성 하나가 있다. 지역민은 이것을 탈린 헤렘이라고 부른다. 흙을 다져 축성한 이 성곽의 북벽은 250미터, 남벽은 290미터, 동벽 320미터, 서벽 300미터 길이다. 서벽과 동벽은 각각 기단에서 12-14미터, 상단으로는 4미터 너비이다. 토성의 너비는 비교적 다르며 평균 약 0.5-1미터이다. 이 성곽은 북측과 남측 양쪽에 웅성이 하나씩 있었다고 한다. 이 웅성은 평균 20-25미터였다. 하지만 웅문의 규모는 각각 약 20x 20미터였던 듯 하다. 특히 북문의 웅문은 물에 휩쓸렸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성의 서남모서리, 동남벽 안쪽에는 토대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터인 것 같다. 대체로 성내에는 건물 몇 채가 있었던 듯한 흔적이 있다. 이 성은 북위 47055.218", 동경 104034.446" 지점, 해발 950미터에 위치한다.

이 성곽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3킬로미터 지점에 올란 헤렘, 동북쪽으로 6킬로미터에 차강 덴진 발가스 성터가 위치한다.

헤르멘 덴진 발가스

톨강의 동쪽 강기슭에 면해서 축조한 고대도시 유적 한 곳을 우리는 2002년 처음 발견하였으며 2003년 7월 이 고성을 다시 살펴보고, 그 평면도를 제작하였으며 성내 및 성외에 노출된 유물을 수습하고, 그 중 일부는 해제를 쓰는 등 최초의 연구를 행하였다.

이 성은 몽골국 터브도 자아마르군 헤르멘 텐즈라는 곳에 위치한다. 톨강쪽으로 동변에서부터 밀려들어가 형성된 아기트와 텡스트라는 두 산 사이의 드넓은 분지 남부를 지역민은 헤르멘 텐즈, 이 작은 구릉에 있는 고성을 헤르멘 덴진 발가스 성터라 부른다.

헤르멘 덴진 발가스 동변에서 2.5킬로미터에는 아기트라는 산, 서북변에서 2.5킬로미터에는 텡스트라는 산이 있다. 이 두 산 사이의 드넓은 분지 가운데는 골짜기로 나뉘어 있으며 이 골짜기 동변의 드넓은 하얀 구릉에 옷을 입힌 듯 성을 쌓았다.

헤르멘 덴진 발가스 성터 반대편인 툭강의 다른 강기슭에도 역시 토성터 1곳이 있다. 그것을 차강 덴진 발가스 성터라고 한다. 차강 덴진 발가스는 볼강도 바얀노오르군에 위치한다. 자아마르군과 바얀노오르군 이렇게 두 군이 툭강을 따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두 성터 사이는 약 3킬로미터 거리이며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이 확연하게 보인다. 툭강의 두 성터 사이의 일부 지점에 말과 차량으로 건너는 넓은 건널목이 있다.

헤르멘 덴진 발가스 성터에서 동북쪽으로 22킬로미터 거리에 자아마르군 중심, 서남쪽으로 20 킬로미터에 바얀노오르군 중심지가 위치한다.

헤르멘 덴진의 주성 중 위쪽과 아래쪽에 흠을 다져 축성한 토성과 성이 없는 작은 취락지 6 군데가 있다. 그것들은 헤르멘 덴진 발가스의 작은 부속 도시 흔적이다. 그리고 헤르멘 덴진 발가스의 위쪽과 아래쪽에 툭강에서부터 갈라져 조성한 해자 2개의 흔적이 있다.

헤르멘 덴진 발가스 개황. 헤르멘 덴진 발가스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큰 성시였다. 그 성터의 유구를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부여하여 간단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헤르멘 덴즈-1. 이 토성의 서벽과 동벽은 각각 160미터, 북벽과 남벽은 각각 110미터이며, 네모꼴 구조이다. 성곽의 현재 유구는 지표면에서 약 0.5미터 높이로 융기되었다. 이 성곽은 중심 성곽의 동벽에서부터 1킬로미터, 툭강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작은 구릉에 위치한다. 그 서벽과 동벽의 바깥쪽으로는 해자가 있었다. 해자의 현재 깊이는 약 0.3-0.5미터이다. 성곽 동남쪽에 약 18미터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는 문의 흔적이다. 성의 중앙부에는 40x 25미터 비율의 건축물 1채, 그 북측에는 이어서 30x 15 비율의 건축물을 지었다. 성곽의 가운데에는 건축물의 동쪽과 서쪽에 성벽과 연결해서 지은 건축물 유구가 관찰되었다.

성곽의 위치는 북위 47058'562", 동경 104039'376" 지점, 해발 973미터이다.

헤르멘 덴즈-2. 이 성곽은 남쪽에 툭강을 바라보는 문이 있다. 그 토성의 서벽과 동벽은 45미터, 북쪽과 남쪽은 각각 40미터이며, 직각 형태이다. 토성의 북벽을 따라 지은 건물터가 있다. 그 터는 지면보다 약 0.5미터 높게 보인다. 이 건축물의 서동쪽을 토성과 연결한 나지막한 보가 있었다.

성의 위치는 북위 47058'551", 동경 104040'776" 지점, 해발 973미터이다.

헤르멘 덴즈-3. 이 성의 위치는 북위 47058'254", 동경 104040'776" 지점, 해발 969미터이다. 이 취락은 제 4 성곽의 동쪽 아래부분인 20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여기에는 바깥쪽으로 아무런 성곽도 없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좁은 골짜기로 고립된 구릉이 있다. 여기에 서로 연이어 축조한 칸 15개의 흔적이 솟아 보인다. 이 토성의 유구는 높이 0.3-0.6미터, 너비 2-8미터이다. 건물터는 북남향으로 250미터,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30미터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터 중앙에는 너비 10미터, 길이 170미터의 대로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었으며 이 거리에서 갈라진 좁은 거리가 있었던 듯 하다.

헤르멘 덴즈-4. 이 성은 북위 47058'210", 동경 104040'476"지점, 해발 975미터에 있다. 이 취락은 중심 성곽의 동편 작은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은 바깥쪽으로는 아무런 성도 없지만, 서쪽과 동쪽으로는 돌강과 합쳐지는 골짜기로 고립되어 있다. 몇 칸을 연결해 조성하였다. 헤르멘 덴즈-4는 110미터로 길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어떤 토성의 유구 높이는 약 0.3-0.5미터이다. 이 성의 흙벽은 나지막한데다가 상당히 풍화되었다.

헤르멘 덴즈-5. 이 유적은 높은 토성이며, 최대 규모이다. 헤르멘 덴즈 발가스의 중심부이다. 위치는 북위 47058'723", 동경 104040'102", 해발 985미터이다. 이 중앙부는 토성으로 구분된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앙부의 동측의 남쪽으로 연장하여 축성한 토성부는 그 가운데를 성곽으로 구분하였으며, 동부와 남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중앙부 서쪽은 동부에서부터 바로 연결해 나지막한 보로 돌레에 조성하여 방어하였다. 이 서부는 내부를 다시 나누지 않았다. 중심 성곽의 동변 북부와 남부를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분리시킨 높은 토성이 있다.

주성곽 부분의 동변 북부는 다른 곳에 비해 가장 높은 성곽이며, 안쪽으로는 남문에서 정북쪽으로 향하는 주작대로로 서부와 동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성곽 현재 높이 4-9.5미터, 기단 25-32미터, 상단은 3-6미터 너비이다. 이 부분의 북벽 가운데 부분에 문처럼 트여 있다. 이것은 원래 문이 없고, 나중에 파손되면서 생긴 공간인 듯 하다. 성벽을 쌓을 때 진흙을 한번에 두께 14-20센티미터로 제작하여 두드리고 다져서, 다시 그 두께로 반죽한 흙 위에 쌓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그러므로 성벽에는 여러 토층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성곽 강화용으로 성곽의 두께와 동일한 길이의 나무들을 흙반죽 안쪽으로 가로질러 놓았다. 현재 이 나무들은 썩어 없어졌기는 하지만 있던 곳에는 구멍이 남았다.

중앙부의 토성에는 치(雉)가 있었다. 현재 총 8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북측 토성의 서벽은 360미터, 북벽은 310미터, 남측은 380미터, 동벽은 330미터 길이이며, 성은 대체로 네모꼴이다. 주성의 동벽 북부와 남부를 경계짓는 토성은 가운데 부분에 큰 궁형문이 있었다. 그 문은 현재 너비가 약 15미터이다. 중심 성곽의 북측은 남문에서부터 정북쪽으로 향하는 대로로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진다. 이 중심 시가의 폭은 8-10미터, 길이는 34미터이다. 주작로의 서쪽과 동쪽에서부터 와서 합쳐지는 몇 개의 작은 거리가 있었던 흔적이 관찰된다. 이 작은 거리는 너비와 길이가 제각각이다. 주작로 양쪽으로는 많은 건축물이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이들 건축물 중 일부는 역시 별도의 작은 토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중 성곽이 있는 건물 상당수를 이 성곽에서부터 연달아서 지었다.

중심 성곽 동부의 남측 성 서벽은 200미터, 동벽은 230미터 길이이다. 이 성의 북쪽은 북성의 남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380미터 길이이다. 이 남부의 남면은 토성이 없으며, 그 서벽과 동벽을 바로 돌강의 지형에 면한 채로 방치하였다. 하지만 돌강으로 향하는 두 대로 (길) 같은 것이 있다. 이 두 대로 사이는 약 34미터 간격이다. 바로 그 두 거리의 끄트머리에는 흙 기단 2곳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문이 있었던 흔적인 듯 하다.

남부의 안쪽의 건물의 유구는 북성보다 아주 적다.

이상의 중심 성곽의 북성과 남성의 북쪽 및 서쪽, 동쪽의 성 바깥쪽을 따라 해자를 구축하였다.

이 해자의 너비는 1.5-3.5미터, 깊이 0.5-0.7미터, 해자의 바깥 보의 높이는 약 0.5-1미터이다.

주요부의 북성과 남성의 서벽에서부터 이어, 서쪽으로는 나지막한 토성을 구축하였다. 이 야트막한 보를 구축할 때, 이 구릉의 경사면, 골짜기, 울퉁불퉁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토성은 대칭을 이룰 수 없게 된 듯 하다. 특히 이 보의 북측은 두 끄트머리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내서 둥근 형태가 되었다. 그 서쪽과 동쪽 두 모서리를 보로 활시위처럼 이었다.

서측 보는 높이 약 0.5-1미터이며, 그 북벽 및 서벽의 외호(外濠)의 깊이는 0.5-0.6미터, 너비 2-3.5미터이다. 이 해자의 흙을 역시 바깥쪽으로 내어, 작은 제방 같은 것을 만들었다. 서측 보의 북면은 780미터, 서면은 760미터 길이로 이어졌다. 이 성곽에는 총 13개의 작은 토대가 있는데 이것은 치(雉)의 흔적인 듯 하다.

성곽의 남쪽 보는 640미터 길이이며 상당히 많이 손상되고 끊어졌다. 서측 성내에는 아무런 건축물이나 건물터도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심부에는 대형 게르터 같은 흔적이 있긴 하다. 이 성곽에는 단지 게르, 장막, 천막 같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머무른 것 같다.

선행 연구자들은 고대 및 중세 시대의 성시 바깥 둘레에 판 해자를 수로라고 보아왔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 해자는 때로는 물이 없는 마른 상태였던 것 같다. 헤르멘 덴진 발가스 둘레에 판 외호는 말라 있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 성터의 가운데 부분의 서벽과 동벽을 따라 해자의 물이 항상 고여있을 가능성은 없으며, 이 곳은 툭강으로 대부분 역류하기 때문에 해자에 들어온 물이 바로 강으로 흘러 합류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헤르멘 덴진 발가스 성터 둘레의 외호는 해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건조하고도 깊은 해자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 그리고 이상의 예증에 따르면 고대 및 중세시대 유목민들의 성시, 취락 둘레로 판 호는 대부분 방어용의 건조한 해자였다는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겠다.

헤르멘 덴즈-6. 헤르멘 덴진 구릉의 중심 성곽의 서쪽에서 툭강의 동쪽 강기슭의 좀 낮은 구릉지대에 있다. 이 성곽은 중앙성에서부터 1.5킬로미터, 툭강에서 북쪽으로 250 미터에 있으며, 그 위치는 북위 47058'592", 동경 104038'720", 해발 960미터이다. 이 성은 네모난 구조이며 외호와 보가 있었던 것 같다. 성곽의 북쪽과 서북, 동쪽에는 보와 해자의 흔적이 보인다. 해자의 현재 깊이는 0.3-0.6미터이며 토성의 흔적은 높이 0.5미터로 높아 보인다. 성곽의 북벽 및 남벽은 각각 길이 100미터이지만, 동벽과 서벽은 각각 14미터이다. 성내 건축터들은 0.5-0.8미터 솟아올라 있다. 성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막고, 그것을 동쪽과 서쪽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둔전의 수로들. 헤르멘 덴진 발가스 성터 근처 툭강에서 끌어내 해자를 구축하여 농작물과 야채에 물을 공급했던 듯 하다. 현재 그 2 수로의 유구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아기트 울 산의 툭강으로 밀어부친 암벽의 돌출부분 중 상류 쪽 물굽이에서부터 동북쪽으로 끌어내었다. 이 수로를 툭강 서쪽으로 굽이치는 부분에서 가른 것은 물흐름을 감안했던 듯 하다. 툭강 서쪽으로 휘어지는 만곡에 활줄형태로 수로를 냈다. 이 수로는 4킬로미터나 이어지며 성터 중앙부의 윗부분에서 강과 합류한다. 이 수로 서쪽의 큰 만에서 재배한 야채와 농작물은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물대기를 했던 듯 하다.

두번째 수로는 중심 성곽에서부터 서쪽, 헤르멘 덴즈-6 아래쪽 툭강에서부터 갈라지고,

텀스트 올 산자락을 끼고서 물길을 내었다. 이 수로는 3.5 킬로미터를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강과 합류한다. 이 수로의 흠을 지표 아래에서 파서, 작은 보처럼 만들었다. 텀스트 올 산에서 흘러 내린 홍수, 빗물 역시 수로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수로를 낸 부분은 툽강 역시 서쪽으로 굽이졌으며 수로와 강 사이의 그 물굽이에 야채와 농사를 지었으며, 수로의 물을 끌어다가, 그것으로 물대기를 했던 듯 하다.

차강 덴진 발가스

볼강도 바얀노오르군 하라아트 올 산의 동쪽기슭 끄트머리 높은 언덕에 고대 토성 하나가 있다. 북위 47057.214", 동경 104039. 918", 해발 978미터에 위치하는 이 성곽을 지역민은 차강 덴진 발가스라고 한다. 이 성곽의 북면에서 800미터 부근에 툽강이 흘러 지나간다. 이 성곽의 북쪽 툽강 북안에 헤르멘 덴진 발가스 성터가 드러나 보인다. 차강 덴진 발가스에서 툽강을 건너 헤르멘 덴진 발가스까지는 2.3킬로미터 거리이다.

차강 덴진 헤렘은 네모꼴이다. 흠을 다지는 판축공법으로 이 성을 축조하였다. 이 성의 구조 특징 중 하나가 대형 외성 안쪽에 내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형 외성의 서변은 200미터, 북변은 165미터, 동변은 200미터, 남변은 165미터 길이이다. 이 성의 평균 높이는 0.6-1.2미터, 기단은 9-10미터, 상단은 3미터 너비이다. 성곽 남쪽의 가운데 부분에는 문이 있으며, 문의 간격은 약 33 미터이다. 이 문은 안쪽으로 30미터 들어간 두 치성이 있다. 안쪽으로 낸 이 치성의 두 끄트머리를 토성으로 연결하였으며, 약 7미터 간격을 두고 입구를 내었다. 안쪽으로 낸 치성내에는 약 5미터 간격으로 역시 가로지르는 토성이 있다. 그 높이는 외성과 거의 동일하다. 이 내성 중간 부분에 바깥으로 낸 치성 주변에 양 쪽을 높인 웅장한 문이 있었던 듯하다. 이 문이 있었던 부분은 다른 곳보다 상당히 솟아 보인다. 이 치성 양쪽의 문짝 자리였을 법한 네모지게 손질한 하얀 화강암 2개가 있다. 외성 서벽 안쪽 8미터 거리에 내성인 토성을 구축하여, 남쪽의 내성과 연결했다. 이 성곽은 기본 성곽보다 야트막하고 또한 약간 좁았던 것 같다.

차강 덴진 헤렘의 중앙부에는 흠구조물 3기가 있다. 이 남측과 가운데 구조물은 똑같이 길이 30미터, 너비 10미터, 높이 0.6미터로 네모꼴이다. 북쪽 구조물은 약간 작다. 그 길이는 12미터, 너비 10미터이며, 높이는 다른 둘보다는 약간 높다. 이 세 구조물은 흠으로 조성하였으며 윗부분은 평평하다. 그 사이를 목덜개처럼 좁고도 긴 토대가 잇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토대 역시 내성으로서 방형 토성이었던 것 같다. 그 성은 야트막하면서도 좁았다. 그 중 지금의 유구는 너비 1미터, 높이 0.3이다. 대형 외성의 동측에는 어떤 흠구조물이 있었던 흔적인 토대가 있다. 실제 어떤 형태였으며 구조물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게 되었다. 대형외성 북쪽 가운데가 약간 벌어져 있는데 입구 흔적인지 아니면 쓸리면서 생긴 공간인지는 불분명하다. 차강 덴진 발가스 근처에서 건축자재, 갖가지 토기 파편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차강 덴진 발가스는 헤르멘 덴진 발가스와 관계있으며 같은 시기에 건설된 유적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하르 보흐 발가스.

이 성터는 흠과 돌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의 대형 외성은 고운 황토를 다져 쌓았다. 9-11세기에 거란인들이 이 네모난 토성을 건설하였다. 이후 16-17세기초 몽골인들이 고대

거란시대의 대형 토성 내부에 석제 건축물과 성곽을 축조,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성터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해당한다.

이 성은 하르 보호 강의 중류, 강의 서변에서 6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성의 동쪽에 보록친긴 보르 탈 평원, 북쪽에는 하르 보호 강이 굽어지는 곳, 강의 저편에는 버어르 툽고이 언덕, 버어르 노오르 호수, 그 너머 약 5킬로미터 거리에는 야마아트 올 산이 있다. 성의 서쪽에는 후렘트라는 화산석인 현무암으로 대부분 형성된 작은 산이 있다. 그 중턱에서 샘솟는 나모온 불락이라는 작은 샘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하르 보호 강과 합류한다. 성곽 남쪽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 하다아산 툽고이 언덕, 3킬로미터 너머에는 보오랄 올 산이 보인다.

성은 대체로 네모난 구조이다. 이 때 그 동벽과 북벽은 규모가 비교적 다르기 때문에 성의 토성은 정확히 대칭을 이룰 수 없었다.

성곽의 바깥쪽으로 외호를 둘러 뒀으며 거기에서 갈라지는 많은 수로를 내었다. 이 대형 수로는 하르 보호 강에서 수원을 받아 성곽의 서문 근처에 이르러서는 성 둘레의 외호와 합류한다. 기본 해자는 돌담(砦) 흙담(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의 북쪽 벽 7군데는 길이 660미터, 동쪽벽은 길이 760미터, 남쪽벽은 길이 670미터, 서벽은 길이 690미터이다.

성곽의 기단은 28미터, 상단은 너비 3-4미터이며, 현재 높이는 2-2.5미터이다. 성의 네 방향의 벽은 각각 옹성구조이다.

서쪽 벽에는 7개의 치(雉)가 있다. 치 사이의 간격은 15-20미터이다. 성 둘레 해자의 너비는 3-3.5미터이다. 해자의 바깥 보는 1-1.5미터, 높이는 0.3-1.0미터이다. 성곽의 안쪽에는 네 문을 연결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는 대로가 있다. 대로에서 갈라진 수많은 좁은 거리의 흔적은 많이 희미해졌다.

성시의 중심부에는 지름 40미터로 이어진 2개의 높은 토대가 있으며, 거기에서 사방으로 두른 길이 200미터, 너비 150미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게 배치한 토성이 있다. 그 중심부는 서쪽과 동쪽으로 방향을 낸 좁은 성곽 두 곳과 합쳐진다. 이 네모난 토성 서북쪽에도 역시 네모난 구조의 건물 2채의 터가 있다. 이 건물의 규모는 50x 40미터이다. 그것의 현재 높이는 0.7-1.0미터, 평지에 올라 앉은 형태이다. 이상의 두 흙건물 동쪽에는 흙구조물 2기가 나란히 있으나, 실제 어떤 구조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성곽의 동북부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3개의 좁은 거리가 있으며, 이 거리에서 갈라지는 한 좁은 길에서 다른 길로 통과하는 문이 설치된 네모난 구조의 건물터가 관찰된다. 130-180미터 규모의 보 안쪽에는 내성인 토성이 있으며, 12x 15미터 규모의 흙구조물이었던 듯 하다. 그 북쪽에는 각각 작은 보로 둘러싸인 10x 15미터 규모의 구조물이 있었다. 현재 그 높이는 0.7-0.8미터이며 이를 성의 북벽 및 동벽에 기반해서 조성했던 것 같다. 성 동남부의 정중앙에는 북문과 남북을 이은 대로에서 갈라진 4개의 좁은 거리가 있다. 그 거리 안쪽에는 약 120x 120미터 규모의 흙건물터가 있으며 이 부근에서 현무암으로 제작한 절구, 화강암으로 제작한 맷돌 파편, 토기 파편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였다.

성곽의 서남부 중앙에는 110x 120미터 규모로 네모꼴이며 2칸으로 이루어진 토담이 있는 건물터가 있으며 그 서남쪽에 50x 20미터 규모에 역시 토담이 딸린 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다. 이 건축물터는 성곽 동남부의 건축터와 유사한 구조인데 이는 터의 상태로 알 수 있다.

성곽 동북쪽 모서리 주변은 비대칭형 구조이며, 보가 딸린 성곽이 하나 있다. 이 성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300미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180미터 규모였던 것 같다. 이 성의 동쪽과 이어서 보를 구축하였다. 그 너비는 100미터, 길이는 220미터이다. 이 토성을 관통하는 수로를 낸 점이 흥미롭다. 이는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수로일 수 있다.

성곽의 안쪽 및 근처에서 거란 시대에 해당하는 도기 파편, 사기 파편을 아주 많이 수습한다. 이들 도기 조각 중 일부는 9세기 위구르인들의 유물과 대체로 유사하다. 하르 보호 발가스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양식과 무늬의 용기가 흑룡강과 동지나해 유역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점을 연구자들이 밝혔다.

하르 보호 발가스를 10-11세기와 연결짓는 근거는 거란제국시대 대형 성시인 칭톨고이 발가스 성터에서 발견한 거란토기와 유사한 양식의 토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고학 논저에서 ‘거란식 무늬’로 유명한, 날카로운 끝로 파서 그려낸 홈 (물방울) 무늬 용기 파편이 이 도성에서 대량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주체의 해당 시기를 증명해 준다.

이 성터에서 발견되는 용기의 파편은 대부분 매끈한 표면에 무늬가 있으며, 바깥으로 과감하게 낸 입구이며 대부분 물레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이 용기의 파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용기가 대형이었음을 증명해 주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되던 마유주, 포도주, 곡물씨, 벼 등 먹거리 저장을 위한 대형 토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 성에서 발견된 대형 토기 파편의 두께는 평균 0.2-0.4센티미터이다.

토성 부근에서 옛날 경작했던 흔적, 관계수로 흔적, 탈곡, 제분용 맷돌과 돌절구 파편 등을 발견한다. 그리고 성곽 안쪽에는 건축물터가 많은데 이는 그곳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면서 성밖에서 곡물과 야채를 재배하며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엠겐틴 헤렘.

불강도 부락항가이군 부시인 하난이라는 산 안자락에 흙과 돌을 섞어 축조한 성 한 채를 지역민들은 “엠겐틴 헤렘”, “부시인 하난긴 헤렘”이라 부른다. 이 성은 처음 Kh.페를레가 발굴하였으며, 평면도를 제작, 간행하였다. 부시인 하난 울 산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곳의 동남쪽으로 바라보는 큰 바위산을 엠겐트, 그 남쪽에 작은 바위 구릉을 자라아 톨고이라고 부른다.

이 성곽은 부시인 하난 울 산의 남쪽 기슭, 하르 보호 강의 동쪽 강 기슭에 평평하고 탁 트인 곳에 있다. 이 성곽은 북위 48005.146”, 동경 106008.931” 지점, 해발 973미터에 위치한다. 성곽은 대체로 네모난 구조이다. 다진 토대 양쪽에 돌을 늘어세웠으며 그 가운데에 흙을 다지는 공법으로 이 성을 구축하였다. 성곽의 유구는 현재 약 1.2-0.9미터 높이이다. 성의 북쪽과 남쪽 두 곳이 3x 3.5미터로 트여 있는데 문이었던 것 같다. 성곽의 동벽 및 서벽은 각각 360미터, 북벽과 남벽은 각각 370미터이다. 성벽 너비는 기단이 약 10미터이다. 이 성곽 주변에서 거란 시대의 물방울무늬 도기 파편, 파도무늬 지붕 기와 파편을 상당히 수습하였다.

헤르멘 데르스.

이 토성은 불강도 고르왕-불락군 이호 차강 톨고이라는 작은 구릉 동변에 위치한다.

고르왕 불락 군 중심지에서 북쪽에 데르센 헤렘 성까지 거리는 5.4킬로미터이다. 성이 있는 곳은 평지이며 건천의 강기슭이다. 성의 서쪽에서 이호 차강 톨고이는 1.2킬로미터, 서북쪽으로 궁

부르드 호수는 1.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성곽의 대략적인 구조는 방형이며 성내에서 아무런 건축터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 성은 북위 47047.839", 동경 103029.383" 지점, 해발 1070미터에 위치한다. 성곽의 동북 모서리는 홍수에 쓸려 사라졌다. 서벽 280미터, 동벽 300미터, 북벽 290미터, 남벽 300미터이다. 이 성곽은 동남향으로 낸 성문이 있다. 문은 방어용의 흙으로 구축한 옹성이다. 이 성은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에 쓸리면서 성내의 건축물 유구, 성외곽에 판 해자와 보가 사라졌다. 현재 이 성의 동북을 따라 너비 2미터의 보와 성 중앙에 지름 6미터짜리 토대만 남았다.

성안 토대 근처에서 지붕 기와 파편, 용기 파편, 하얗고 귀퉁이처럼 제작한 물품을 수습하였다. 이 성터에서는 물방울무늬 생활용 도기 파편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 물방울무늬 도기를 거란 시대에는 널리 제작, 사용하고 있었다.

나이닥 올 산의 더르월진

불강도 다쉬칠렌군 나이닥 올 산 안쪽 사왕긴 골 강의 서쪽 기슭에 토성이 딸린 터 한 곳이 있다. 지역민은 이 터를 “더르월진 (역자주: ‘네모’라는 뜻)”이라 부르며 이것은 투데브 구니 후레에에서 동남쪽으로 1킬로미터, 한기다인 하드에서 서남쪽으로 약 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성의 동벽과 서벽을 가로질러 낸 찾길, 그리고 북벽과 남벽, 동벽을 거치는 가축이 다니는 길이 있다. 성곽의 동벽에는 1x 8 미터 규모의 네모난 석곽을 세웠다.

이 성은 네모난 구조이며, 성내외에서는 건축물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성곽의 동벽과 서벽의 길이는 108미터, 북벽과 남벽의 길이는 100미터이다. 성의 현재 높이는 0.4-0.6미터이다. 이 성은 북위 47052'249", 동경 103053'051" 지점, 해발 1015미터에 위치한다. 이 터에서도 역시 물방울무늬 도기 파편을 수습하였다.

축트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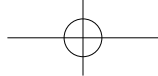
불강도 다쉬칠렌군 하르 박 지역, 사왕긴 골 강의 서쪽 기슭에 줄지은 토대를 지역민은 축트 타이지의 집터라 부른다. 이 두 토대는 서남쪽에서 동쪽으로 줄지어 배치되어 있으며 원형인데 집터와 비슷하다. 이 유적은 북위 47045.214", 동경 103053.918" 지점, 해발 1079미터에 위치한다. 서쪽 윗부분의 토대 부분은 지름 약 40미터, 동쪽 아래부분의 토대 부분은 지름 25미터, 일부 지점에서는 돌을 박아 조성한 것으로 관찰된다.

경사면에 이 토대를 조성했다. 이 토대 2곳은 현재 지표에서 평균 60-120센티미터 높이이다. 이 토대 근처에서 거란시대의 물방울무늬 토기 파편과 도드라지게 장식한 토기 파편을 수습하였다. 이 유적에서 서북쪽에 있는 나이닥 올 산의 사왕긴 골 강쪽으로 들어간 암벽 꼭대기에 돌 구조물 1기가 있다. 그것은 북위 47044.973", 동경 103053.637" 지점, 해발 1165미터에 위치한다.

이 돌 구조물은 규모 10x 6미터로 대체로 네모난 구조이며, 자연석을 그대로 줄지어 쌓은 망루였던 듯 하다. 석렬은 현재 약 1.4-0.7미터 높이이다.

차강 우주우린 헤렘.

불강도 다쉬칠렌군 라흐 박 사왕긴 골의 서쪽 기슭에는 차강 우주우르라는 튀어나온



언덕이 있다. 이 튀어나온 언덕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강으로 들어가 형성되었다. 이 튀어나온 언덕 끄트머리, 사왕긴 골 강기슭 흰수염풀 풀밭에 보가 딸린 고대 주거터가 있다. 이 성터를 지역민은 차강 우주우르의 더르월진 헤렘 성곽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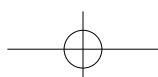
이 토성의 동남쪽에 라흐 올 산, 북쪽에는 나이다 올 산, 서쪽에는 차강 우루우르라는 작은 바위언덕이 자리잡고 있다. 흙을 다진 판축공법으로 축성된 이 성벽의 유구는 현재 높이 약 0.6-1미터이다. 성은 바깥쪽으로 외호와 보가 있었다. 현재 보의 높이는 약 0.3-0.5미터이다. 성곽의 동벽 가운데 부근에 높지않은 토대가 있으며 이것이 입구였던 것 같다. 이 성은 정방형이며 사방이 200미터규모이다. 성 둘레 해자의 깊이는 약 3미터이다. 이 성은 북위 47038.343" 동경 103053.388", 해발 1106 미터에 위치한다. 성 근처에서 물방울무늬토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차강 우주우르인 발가스에서 서북쪽으로 3킬로미터 근처에 보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약 2.5킬로미터 이어진 이 보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구축하였으며, 사왕긴 골의 강 서쪽에서부터 들어간 입구를 막았다. 사왕긴 골 강 서쪽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이 보를 이용하여 저수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차강 우주우르인 발가스의 거주민들은 그 북쪽 및 동쪽의 저지대에서 곡식과 야채를 재배한다. 이 둔전에 보의 물로 물대기를 했을 만하다.

데르센 헤렘.

볼강도 바얀노오르군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4킬로미터 부근, 바얀 올란 올 산 서남쪽의 수염풀이 자라는 기슭 북변에 고성 유구가 있다. 그것을 최초 몽골 학자 Kh.페를레가 듣고서 보고하였으나 평면도 등을 작성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았다. 이 성곽의 북쪽 고지대에도 역시 한 토성의 유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곳을 새로 발견하였다. 즉, 데르센 헤렘은 두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Kh.페를레가 발견한 성곽을 데르센 헤렘-1, 나중에 우리가 발견한 성을 데르센 헤렘-2라 부른다.

데르센 헤렘-1. 흙을 다져 축성한 방형 구조이다. 그 규모는 북벽 250미터, 남벽 290미터, 서벽 250미터, 동벽 300미터이다. 이 토성은 동벽과 남벽 가운데 부분에 각각 문이 하나씩 있다. 이 문의 양쪽은 높았던 듯하나, 지금은 토대가 오보마냥 쌓으로 높지않하게 남았다. 이것들은 현재 1.5-2미터 높이다. 이 성의 서벽 중앙, 그리고 서쪽 모서리, 동벽의 남면은 홍수에 쓸려 뚫렸다. 성곽의 폭은 기단 4-10미터, 상단 약1-2미터이다. 성 내부에는 적은 수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중심부에는 용기된 토대가 하나 있다. 이 토대는 지름 약45미터, 높이 1.5미터이다. 이 성곽의 유구는 너비가 비교적 다르다. 가운데는 3-4미터 너비이다. 이 성은 북위 47053.222", 동경 104028.541" 지점, 해발 960미터에 위치한다.

데르센 헤렘-2. 바얀 올란 올 산의 남쪽으로 들어가서 나지막한 언덕에 이 성을 축성하였다. 성곽은 네모난 구조이다. 흙을 다져 이 성을 쌓았다. 그 북벽및 남벽은 각각 300미터, 서벽 및 동벽은 각각 82미터이다. 이 성은 남쪽과 북쪽에 문이 있었던 듯 뚫려 있다. 현재 이 성의 높이는 지면에서 약 0.3-0.4미터이다. 이 성은 원래부터 데르센 헤렘-1보다 약간 낮았다고 한다. 데르센 헤렘-2의 위치는 북위 47053.221", 동경 104028.548" 지점, 해발 960미터이다. 토성의 현재 높이는 0.2-0.4미터이다.



그 너비는 4-3미터이다. 성의 내부에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데르센 헤렘-1과 2의 서, 남, 동쪽은 큰고랭이(Scirpus)와 수염풀(Achnatherum Beauv.)이 있는 습한 저지대이다. 그곳에는 고대 수로와 경작 흔적이 있다. 데르센 헤렘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키워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는 것을 이상의 사항에서 알 수 있다.

온드고인 더르월진.

볼강도 바얀노오르군, 바얀올란 울 산의 동쪽 산 안쪽 둔덕에 방형 토성의 유구가 남아 있다. 그것을 지역민은 온드고인 헤렘, 온드고인 더르월진이라고 부른다. 이 성곽의 동편에서 0.5킬로미터 부근에 우물이 하나 있다. 그것을 온드고인 호다이라고 한다. 이 성곽은 데르센 헤렘의 성곽들 북쪽, 탈린 올란 성 남쪽에 위치한다. 이 성곽은 방형 구조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형태이다. 성의 북쪽 및 남쪽 벽은 각각 200미터, 동쪽 및 서쪽 벽은 각각 120미터이다. 성의 토대는 높이 0.2-0.3미터이다. 성에는 남쪽을 향하는 문이 있다. 문의 규모는 약 4미터이다. 문 안쪽은 흙을 다져 조성한 가로 문이다. 성 동벽의 북단은 손상된 듯 낮아지는데 쏠린 것인지 아니면 문이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성 중앙에는 지름 20미터, 높이 0.6미터의 토대가 있다. 이 토대 주변에서 지붕 및 생활용 도기의 파편을 발견하고 있다. 생활용 도기의 파편은 물방울무늬가 있다. 성곽의 가운데 토대는 건축물이 있었던 흔적인 듯 하다. 온드고이성은 북위 47054. 223", 동경 1040 30. 311", 해발 971미터에 위치한다. 이 성은 거란시대에 축성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주운 헤렘.

헨티도 머린군에 두 성이 나란히 있는데 이를 고고학자 Kh.페를레가 1952-1953년 사이에 발굴하였다.

주운 헤렘 성의 규모는 남면 420미터, 서면 502미터, 북면 510미터, 동면 507미터이다. 서쪽 및 남쪽에 4, 북쪽과 동쪽에 각각 2개의 문을 내서 흙을 다졌으며, 바깥쪽으로 수로나 해자를 조성한 성곽이다. 성의 네 모서리와 총 28군데에 감시용 치가 있었다. 성은 현재 높이 1.5-2미터, 너비 4-6미터이다. 성의 남쪽과 동쪽의 엄폐된 문에서부터 중앙까지 이어지며, 양측으로 성과 2개의 넓은 대로가 있었다.

성의 내부에서 건물터가 관찰되는데 그 중 일부는 별도의 높은 기단 위에 세웠다. 이곳의 건물을 지은 상태와 사용한 자재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 별도의 자그마한 성곽에 청색 전돌 기와를 올린 건축물
2. 별도의 성곽없이 지붕 기와를 올린 건축물
3. 성곽도 없고 지붕 기와도 안 올린 건축물

이곳의 건축물은 온돌로 난방을 공급하였다.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마른 소똥을 연료로 주로 때웠으며, 공방에서는 화력이 세면서 연령이 낮은 나무, 완전연소된 자작나무 목탄을 사용하였다.

발굴을 통해 이곳에서 도기, 철기, 건축자재를 생산하던 몇 종류의 제작소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큰 규모는 도기제작장이다. 주운 헤렘의 주요 산업은 축산과 농업 2가지였다. 발굴을 통하여 가축 뼈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양과 소뼈는 많으나 말과 낙타뼈는 상당히 적었다. 멧돌, 곡물씨를

보관하는 대형 토기의 파편, 곡물을 빻는 돌절구, 절굿공이, 철제 쟁기머리의 파편, 탈곡기의 철제 끼움쇠테, 몽골산 곡물 등을 출토하였다. 헤를렌 강에서 물을 끌어다 썼던 수로 흔적이 남쪽에서 관찰된다. 1020-1031년 사이에 구조된 태평(太平)이라는 한자가 있는 거란시대 동전을 발견하였다. 동전은 이 성의 연대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발굴물이다.

바론 헤렘.

주운 헤렘에서 서쪽으로 2킬로미터 거리에 바론 헤렘이 위치한다. 성곽의 길이는 남면 826미터, 서면 803미터, 북면 825미터, 동면 862미터, 성벽 두께는 현재 7-12미터, 1.5-3미터 높이이다. 남쪽에는 2, 동쪽에는 3, 서쪽과 북쪽에는 각각 문이 하나씩 있었다. 성의 상부 및 모서리에 치(雉)의 흔적인 토대가 있다. 성밖으로는 역시 수로가 있다. 이 가운데로 성곽으로 잘랐으며, 일부에는 건물을 지었으나, 일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 성을 주운 헤렘의 생산지, 즉 지금은 비어 있는 곳에 야채를 키우고, 건물이 있던 곳에는 곡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이 성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1012년과 1015년에 헤를렌 상류에 살던 부족들이 거란에 반란을 일으키자 거란인들이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유민에 대해서는 헤를렌강 하구에 두번째 성을 쌓아 거주시켰다는 기록과 비교, 분석하여 이곳이 맞다고 보고 있다.

바르스 호트-1.

도르노드도 차강 오보 군 헤를렌강 북변, 바론 더러어 호수 동남쪽에 위치하는 높은 탑이 있는 대형 성곽에 대하여 고고학 서적에서는 바르스 호트-1이라 부른다. 1953년 이 지역에서 행한 고고 지표조사 중에 3 성곽 유지를 발견하였으며 이 성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바르스 호트라고 부르는 탑이 딸린 대형 성이 있는 도성을 바르스 호트-1이라고 쓰게 되었다. 이 성내 큰 성의 규모는 1600-1800미터, 두께 4미터, 높이는 1.5-2미터이다. 성의 서남부에는 안쪽에 건물 4채의 흔적이 있는 높은 토대 위에 돌로 구축한 작은 성곽의 흔적이 있다. Kh.페를레가 1953-1955년에 이 성내에서 건물 4채, 작은 성곽 주변의 작은 건물터, 그리고 석회가마터 등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다수의 불좌(佛座), 지붕의 파란 전돌기와, 크고 작은 크기의 꽃무늬 도안이 있거나 없는 전돌, 진흙 소상, 예술적으로 제작한 불상 파편, 불상, 목각, 진흙불상 등을 발굴하여 이 곳이 불교신앙지였다고 결론내렸다. 성의 안쪽 및 동쪽에 5층과 7층짜리 탑 2기가 있으며 5층탑은 1940년대 무너져서, 지금은 7층탑만 남았다.

바르스-1의 작은 성곽에서 진행한 발굴을 살펴 볼 때 거란의 요나라에서 불교가 아주 유행하였으며, 많은 가람을 조성하고 수 천명의 승려가 있었다는 거란사 사서 속의 기록에 부합된다. 이렇듯 이곳에서 진행한 소규모의 발굴로도 불교 의례와 관련있는 유물이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그 전체가 대형 군진이었다. 거란국이 점령한 서북쪽 부족들이 일으킨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헤를렌강 기슭에 주로 유목민들로 구성된 여러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그 중 일부가 바르스 호트의 큰 성곽에서 임시로 주둔했을 수도 있다.

역사 기록에서 보자면 거란 황제 耶律阿保機는 923년 몽골땅으로 침략해 오르혼 강기슭의 위구르족의 하르발가스에 이르렀다 . 당시에는 몽골 지역에 성을 쌓거나 군대를 주둔시키지는 않고 헤를렌강과 오르혼강 유역의 여러 부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10세기 후반 거란의 요나라측에서는 오르혼강과 헤를렌강 유역 등지 여러 부족의 배반과 항복이 빈번하다 고 보고 그들을 통제할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하가 강성해지자 거란 요나라는 서방과 행하던 전통적인 무역로(비단길)인 타림강 기슭의 천산 지대 하서주랑(河西柱廊)을 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란의 요나라를 배반하거나 따르는 일이 빈번하던 몽골계 부족들을 견제하고, 서방과의 무역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목적으로 (옛 위구르제국 시대에 이용되던 무역로 복원) 오르혼강과 헤를렌강 유역에 鎭州, 維州, 防州라는 군진 3곳과 상당수의 보루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새로 성곽을 구축하는데 있어 이전에 정복된 나라의 백성을 거주시켜 축성하였는데, 그 성을 어떤 부족민이 축성했느냐에 따라 성의 형태나 양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새로 성곽을 구축하는 동시에 옛 위구르제국 시대의 성시들도 역시 복구,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몽골국내에서 발견된 거란시대에 해당하는 성시는 그 용도에 따라 군진의 중심 진영, 요새, 부속 취락으로, 성의 시설 양식에 따라 3종류로 살펴 볼 수 있다.

1. 거란식 성
 2. 여진과 발해식 성
 3. 위구르식 성 또는 복구, 수리한 위구르 성
- 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란식 요새

이 종류에는 칭톨고이 헤렘, 하르보힌 발가스, 올란 헤렘, 준 헤렘, 탈린 헤렘 을 들 수 있다. 이런 류의 성시의 주된 차이는, 성곽 구조가 흙을 다지는 판축공법으로 축성하여 높게 벽을 쌓은 성이며 성 가운데에는 치(雉)나 기둥벽이 있다. 치는 성벽을 견고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감시와 방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성 외곽으로 낸 깊은 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치 바깥쪽으로 낸 곳에는 일정 간격으로 해자를 둘러서 나가도록 조성하였다.

성곽의 문은 성밖으로 밀어 낸 성곽(옹성) 형태의 문이다. 이런 종류의 성시의 문은 둘 또는 그 이상이며 성곽 내부는 문에서 문까지 직선으로 난 폭넓은 거리, 이 대로에서 갈라지는 수많은 좁은 거리에는 건축물이 있을 법하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보존하고 있는 성이 올란 헤렘, 칭톨고이 헤렘이다.

여진과 발해식 도성

이 부류에는 엠젠틴 헤렘, 어글릭친 콜린 헤렘 을 들 수 있다. 이 부류에 포함된 도성의 성벽은 돌로 축조하였으며 안쪽은 흙을 다져 축성하였다. 문은 홀문과 궁형문이다. 그리고 성곽은 산을 따라 축성하였다.

위구르식 또는 거란시대에 수리한 옛 위구르 도성

이 부류에는 하르 발가스, 칠렌 발가스, 헤르멘 텐즈 등 여러 시대에 걸쳐 거주한 도성을 들 수 있다.

성곽이 딸린 이 도성은 바깥쪽으로는 이전 위구르제국시대에 축조한 성으로서 나중에

거란인들이 다시 복구, 수리하면서 거주한 성들이다. 이 도성의 성곽은 옛 위구르의 성의 성격인 동쪽을 향한 홀문이 있는 큰 성곽과 그것을 둘러싼 별도의 많고 작은 성곽과 거리가 있었다. 게다가 거란 요나라 때 것이라는 도기 등 유물을 대량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란의 건축물 양식을 가미하여 복구한 흔적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 사서에 명칭이 나오는 거란 시대 변방성

可敦城 즉 鎮州. 이 성은 거란의 비빈이 994년에 쌓도록 하였다. 서북변의 阻卜 등 많은 부족을 견제하며 다스리기 위하여 군진 3군대를 차례로 설치하였는데, 그 중 한 곳이 鎮州이다. 이 성에 대하여, 사서에서 可敦城을 옛 위구르의 호툽성으로 오해하여 可敦으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聖宗本紀에는 可敦城을 1004년에 鎮州로 개칭하였다고 했다. 可敦城의 위치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였다.

1. 可敦城은 오르혼강에보다 북쪽에 있었다.
2. 可敦城은 헤를렌 강에 있었다.
3. 위구르의 可敦城은 오르혼강 평원에 있었다.
4. 위구르의 可敦城은 툽강유역에 있다.

그리고 Kh.페를레와 A.오치르는 몽골국내 지금의 볼강도 다쉬칠렌군에 위치하는 칭틀고이라는 큰 성터가 바로 鎮州의 흔적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鎮州에 서북(외부) 부족 중 20 000 명의 변방군 주둔 외에 발해, 한인, 여진 죄수 700호가량을 이치, 유배 보내왔다. 당시 성의 둔전은 병사 인력으로 아주 많이 확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농사가 잘 발달했던 상당히 큰 도시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오르혼강과 可敦城성을 연관시켜 살펴 본 견해가 더 근접할 것이며 그곳에서 상당량의 용기와 거란 시대 유물을 발굴한 동시에 하르 발가스의 기존 성보(城堡)를 다시 보수하여 주둔했다는 몇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성곽을 둘러싼 탑이라고 불리는 흙건물은 위구르 시대에는 이중성(二重城)이었다가 후대에 성을 잘라 다른 용도로 분리해 현재 한 쪽에는 8개, 다른 한 쪽에는 7개의 망탑을 나중에 세웠던 듯 하다.

2. 성곽의 서쪽에 있는 문이다. 이것은 거란 성곽의 문구조와 외관상 아주 똑같다. (웅성처럼)

3. 하르 발가스 성터의 성곽 북쪽에 위치한 호툽트산 꼭대기에는 팔각 망탑이 있다. 이 망탑은 거란 시대에 축조된 백탑, 헤를렌 바르스-1의 탑 등과 동일하다.

4. 도성의 성곽 범위, 둔전 흔적이다. 항공사진을 보면 서, 동, 북쪽에 대규모의 관개수로와 둔전이 있다.

도성이 있는 곳의 명칭이다. 하르발가스를 거점으로 축성된 곳의 산명을 호툽트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산을 하탄트산이라고 하다가 호툽트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8각 시설물을 하타니 샤릴(역자주: '황후, 비빈이나 귀부인의 시신'이라는 뜻)이라고 부르는 등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하르발가스는 위구르의 可敦城이라는 명칭이 시간이 흐를 수록 약간 변화되어 산명으로 남았다. 몽골국내에서 이 하르발가스를 들 수 있겠다. 이 성을 위구르의 수도성이라고

보았으며 이 성은 가장 범위가 넓고 당시 오르혼강 평원의 유지부와 경계를 접하는 지역이다.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란은 몽골족 지역에서 10세기말부터 성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의 기록에 나오는 鎭州, 維州, 防州라는 성 즉 군진이 있었으며 한 군진은 성곽이 딸린 여러 성시를 망처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성시들 사이의 간격은 20~30킬로미터 거리를 염두에 두고 건설하였으며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봉화대와 망루도 역시 구축하였다.

이 군진들 중에서 가장 서북면에 위치하는 군진은 鎭州 즉 위구르의 옛 땅인 오르혼강 하곡평원이었으며 그 중심지는 지금의 하르발가스였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 군진은 툽강 유역에 위치하는 칭톨고이, 올란헤렘, 하르보힌 발가스 성터, 세번째 군진은 헤를렌강과 오논강 유역의 어글릭칭 헤렘, 주운 헤렘, 바론 헤렘, 헤를렌 바르스-1 성일 수 있다.

참고문헌

몽골문

1. Амартүвшин.Ч,Рэгзэн.Г, Пак Жаншиг. Хятаны үеийн хотын туриас олдсон ширмэн эдлэлийн хийц загварын өөрчлөлт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Т XXXIII, F.9 УБ., 2005 тал 128-143.
2. Амартүвшин.Ч, Уильям Ханичёрч. 2006 Эртний нүүдэлчдийн төрийн байгууламжинд хийсэн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 УБ
3. Баяр.Д. Хөгшин тээлийн балгас дахь анхны малтлага судалгаа.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Т XXXIII, F.16 УБ., 2002 тал 155-176.
4. Баяр.Д. Уйгурын Байбалык хотын тухай тэмдэглэл. //Studia Archeologica.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Т (XXI) F. 10 УБ., 2003 тал 93-109.
5. Баяр.Д. Эрдэнэбат.У.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Хар Хорум хотыг археологийн талаар судалсан нь. //Studia Archeologica.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Т (XXI) F .12, УБ., 2003 тал 113-129.
6. Доржсүрэн.Ц. Умард Хүннү. УБ., 1961,
7. Доржсүрэн.Ц.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УБ., 2003.
8.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2. //Korea-Mongol joint study-2. Seoul., 1993.
9.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3. //Korea- Mongol joint study-3. Seoul., 1994.
10.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4. //Korea-Mongol joint study-4. Seoul., 1995.
11. Монгол-Туркийн хамтарсан хээ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2000, 2001, 2002 оны тай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хөмрөгт буй.
12. Монгол-Германы ХарХорум экспедицийн 2000, 2001 оны тайлан (KAR-2) УБ.,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хөмрөгт буй.
13. Монгол-Японы хамтарсан “Шинэ зуун” төсл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нгийн 2001, 2002, 2003 оны тай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т буй.
14. Очир.А. Энхтөр.А. Эрдэнэболд.Л. Чинтолгой балгасны тухай- <<Nomadic studies>> (Нүүдэл судлал). 2004 18 тал 53-59.
15. Очир.А. Энхтөр.А. Чилэн балгасны тухай “Үндэсний Монгол судлал” УБ, 2004 тал 6-13
16. Очир.А. Энхтөр.А. Хэрмэн дэнжийн балгас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II Симпозиумын илтгэлийн эмхтгэл>> Сөүл 2004. Монгол хэлээр 15-23-р

талд,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24-38-р талд

17. Сэр-Оджав.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 илтгэлийн эмхтгэл. УБ.,2003.
18. Сэр-Оджав.Н. Баяр.Д. 1979-1980 оны Хар хорины шинжилгээний ангийн тай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19. Ханс-Георг Хюттель\ Уламбаярын Эрдэнэбат. Хар Балгас ба Хархорум- Орхоны хөндий дэх хожуу нүүдэлчдийн суурьшмал хоёр хот УБ., 2009
20. Худяков.Ю.С, Цэвээндорж.Д, Реконструкция комплекса вооружение панцирного войно из памятника Цогт-Хиргист хоолой в Гобийском-Алтай-`Проблемы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I. М., 1988,стр 22-28
21. Цэвээндорж.Д. Худяков.В.С.. Керамика Орду-балыка. //Археологий Север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1982г.
22. Цэвээндорж.Д. Батсайхан.З. Төрбат.Ц. Сүннүгийн хот суурины асуудалд. УБ., //Монгол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мэдээ. 1994 он. 13-4.
23. Цэвээндорж.Д. Монголын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 I, II. УБ., 2003 он.
24. Пэрлээ.Х.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товчоон. УБ., 1961 он.
25. Пэрлээ.Х. Хятан нар тэдний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гдсон нь. УБ., 1959 он.
26. Х.Пэрлээ. Хятан улсын хоёр бэхлэлт (хот)-ийн үлдэгдэл УБ.1957;
27. Х.Пэрлээ. Хэрлэн барс гэдэг эвдэрхий хотыг малтан шинжилсэн тухай. ШУХБ нийгмийн ухааны анги 1 2 УБ.,1957;
28. Х.Пэрлээ. Хятан нар тэдний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гдсон нь УБ. 1959. ТС.Т.И.ф.И;
29. Х.Пэрлээ. Зүүн хэрэм гэдэг эвдэрхий хотыг 1953 онд малтсан нь. УБ.,1956;
30. Х.Пэрлээ. К истории древних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ении в Монголии. СА. 13., 1957. стр 43-44.
31. Пэрлээ.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лүүд I, II. УБ., 2001
32. Пэрлээ.Х. Монгол ба Төв Азийн соё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хоёр ховор сурвалж бичиг. УБ., 1974. //Monumenta historica. Т. VI. F. 1-2.
33. Эрдэнэбат.У. Саарь хээрийн халиут орд хаана байсан бэ? //Studia Archeologica. Т XVII, F.11, УБ.,1996 тал 136-143.

러시아문

34. Артемьева.Н.Г. Домо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журчженей Приморья(ХII-ХII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пресс 1998
35. Букиныч.Д.Д. Общий отчет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работам за 1933-1934 гг.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Ф-9, Т-11, ХН-23.
36. Болдин.В.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в 2004

году/Отчё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Бохо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России в 2004г., Сөүл., 2005г/

37. Букинич Д.Д. Дневник разведок и раскопок на обратном пути от Эрдэни-цзу до Уланбатора 1933г.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сан хөмрөгт хадгалагдаж буй.

38. Владимирцов.В.Я., Отчет поездке на Бага Хэнтий.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Ф-9, Т-3, ХН-07.

39. Данилов.С.В. Города в кочевых обще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лан-Удэ. 2004.

40. Казакевич.В.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Монголии в свете археологии // Современная Монголии ¹⁴(7)УБ.,1934.с ,3-24

41. Казакевич.В.А. Отчет поездке Хэсэк байши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42. Козлов.П.К. Краткий отчет о Монголо-Тибетской экспедиции-II.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1923-1926 гг. ¹⁴.

43. Кондратьев.С. Краткая заметка о старинной крепости в Уклекчи 1926.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гар бичмэлийн хөмрөг. Ф-9, Т-6.

44. Ивлиев.А.Л. Городища киданей.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 средней 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и см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ладивосток., 1983

45. Кисилев.С.В. Монголия в древности.-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Серия истории и философии. 1947г. ¹⁴.

46. Кисилев.С.В. Древние города Монголии.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57г. ¹².

47. Кисилев.С.В. Древние Монгольские города. М., 1965г.

48. Кюннер. Н.В. Китайские известия о народах Южной Сибир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М 1961. Материалы комиссии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Монгольской и Танну Тувинской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Бурят Монгольской СССР>> Вып. 4. Ленинград1929. стр 8-9

49. Мэнь-гу-ю-му-цзи. Записка о Монгольских кочевьяхъ. Перевод с китайского П.С.Попо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5, стр-339;

50. Мацуй Хитоси. Киданьский город Кэдуньчэн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географии и истории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Т- I, Токио., 1915. стр 295. Үүнийг А.Г.Малявкин.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йгуров в IX-XII вв. Новосибирск., 1974. 142,180 талаас дам эшлэв.

51. Киселев С.В. Монголия в древности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Сер. истории и философии” 4. М., 1947. Стр 95.

52. Падерин.А. О Каракоруме и других развалинах близ Орхона-II. //Извест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IX. Вып. 10, СПб; 1874. Стр. 350-370.

53. Поппе Н.Н. Отчёт о поездке на Орхон летом1926 года.

54. Позднеев.А. Монголия и Монголы. Спб., 1896. Т 1.

55. Радлов.В.В. Атлас древностей Монгол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ып. I, 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2г,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I. 1892г, вып. II. 1893г, вып. III. 1896г, вып. IV. 1899 г: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V.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1г: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2. Стр 2-54.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Орхон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95. Стр 48-59.

56. Шавкунов.Е.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Л., 1968

57. Ядринцев.Н.М.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отчет о поездке 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целью в северную Монголию и вершины Орхона. //ИВСОРГО-Иркутск. 1889. т. XX. ¹⁴. стр 1-13.

기타 외국어문

58. Album of the Turkish monuments in Mongolia. Ankara 2001.

59. Grano.J.G. Archaologische Beobachtungen von meiner reise in Suesibirien und der nordwest Mongolei im Jahre 1909. Helsingfors. 1910.

60. Joint Korea-Mongol expedition: Eastern Mongolia. //Korea-Mongol joint Studies Association, Mongolia academy of sciences. Seoul., 1992.

61. Мацуи Хитоси. Киданьский город Кэдуньчэн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географии и истории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Т- I, Токио., 1915. стр 295. Үүнийг А.Г.Малаявкин.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йгуров в IX-XII вв. Новосибирск., 1974. 142,180 талаас дам эшлэв.

62. Qara qorum city /Mongolia/ I. Preliminary report of the excavations 2000- 2001. Bonn Contributions to Asian Archeology. vol-1. 2002.

63. Shiraishi Noriyuki. Chingis khan no kouogaku. Tokyo 2001. /Япон хэлээр/.

64. Takao Moriyasy and Ayudai Ochir. Edited by, Provisional Report of Researches on historical sites and inscriptions in Mongolia from 1996 to 1998. The Society of Central Eurasian studies. Tokyo 1999.

65. Wittfogel.K.A, FENG CHIA-S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1949. p.67-68

66. Ростхорн.А. Төв Азийн уулын цайз (эрдмтэн Хиртийн ойн ёслолын цуврал бичиг) 1920. Нью-Йорк, тал 292 (герман хэл дээ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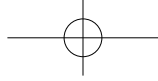
(국역 : 양혜숙)

거란성 원류에 대한 초보연구

복기대 국제뇌교육대학 국학과 교수 1

1. 글쓴이는 이 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遼”라는 나라이름을 쓰지 않고, “거란”이라 쓴다. 그 이유는 거란역사 200여 년간 “遼”라고 부른 적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국명은 거란 사람들이 지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遼”라는 말의 뜻은 지역을 나타낼 때는 “멀다”는 뜻인데 거란사람들이 스스로 멀다는 뜻의 국호를 지었다고 보는 것은 글쓴이가 알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시 송나라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방위 감각에서 붙였던 것이 훗날 거란이 없어지면서 거란의 역사를 쓴 사람들이 “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아메리카라는 나라 이름을 일본에서는 “미국”, 중국에서도 “미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遼”라는 나라 이름보다는 거란으로 쓰고자 한다.



1. 머리말

916년 후세에 天皇帝로 불리게 되는 질라부 출신의 耶律阿保機는 임황부에 도움을 정하고 “거란”이라는 나라를 세운 후 사방으로 세력을 펼쳐나갔다. 그는 외적으로는 건국초기 이미 훗날 거란의 거점이 될 지역들을 거의 모두 정복하였고, 내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하여 나갔다.

모든 왕조가 그렇듯이 거란도 건국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聖宗 代에 이르러 안정이 되면서 그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압박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거란은 5경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내치를 공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란은 각 지역에 많은 성을 쌓았다. 이 성들은 거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왜냐하면 전통시대에는 대부분 그렇지만 거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크기 그리고 성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거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거란성의 원류를 파악함으로써 거란문화의 기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거란 城 중 고고학적으로 조사가 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무엇보다도 거란성의 원류를 파악하여 거란지역의 전후시대 계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거란성의 종류와 축성법의 특징

지금까지 조사된 거란의 성은 약 560여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동으로 오늘날 요양부터 서로는 산서성 대동까지의 서쪽까지 이어지는 거란의 경내에서 발견된 것이다.²⁾ 기록을 보면 거란의 성들은 그 기능에 따라 都城, 두하군주성, 州·縣城, 변방을 방어하는 기능의 邊方城, 그리고 특수 목적의 봉릉읍으로 나눌 수 있다. 거란에는 都城의 기능을 한 곳이 다섯 곳이 있었는데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5경은 발해의 伍京制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³⁾

이 성들의 위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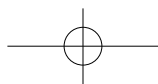
1) 도성(5京)

① 上京城

오늘날 內蒙古 赤峰市 林東지역에 위치한다. 이 성은 거란태조 야율아보기가 질리부에서 방목하던 곳에 성을 쌓은 것이다. 이 성은 神冊 3年(909)에 쌓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야율아보기는 이 성을 거점으로 거란을 건국하였다. 즉 초기 거란의 정치중심지인 것이다. 『遼史』에 기록된 상경성은

2. 이들 성들 가운데 현재 지역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보면 요녕성 지역이 70%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거란의 伍京制는 발해의 伍京制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는 발해에서 유래한 것 보다는 이 지역 전통이 아닌가 한다. 즉 거란지역을 5개 구역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것은 부여에서부터 시작한다. 부여의 5가제도, 고구려의 5부제도, 발해의 5경제도, 그리고 거란의 5경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북 양성과 외곽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상경성지에는 외곽성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상경성만이 남아 있다(그림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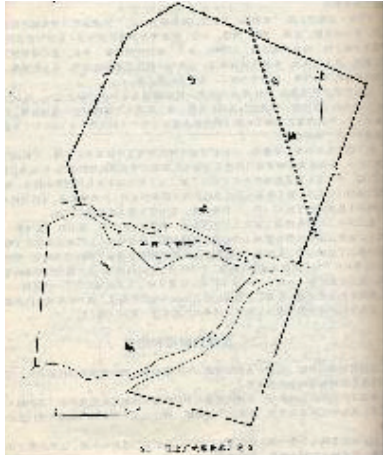


그림1. 상경성 평면도

1960년대에 이미 상세하게 조사되었는데 북쪽성을 황성으로 부른다. 전체 城의 둘레는 6398m이다. 평면은 불규칙한 6변으로 되어있고, 성벽은 흙을 다지며 쌓아 올렸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벽은 6~9m이며 너비는 15m이다. 성벽에는 약 110m 간격으로 雉를 쌓았다. 성의 모퉁이에는 누각을 세웠다. 성문은 동문, 서문, 북문이 있으며 각 문의 문지는 현재까지 잘 남아 있다. 문도는 각 하나인데 너비는 5.5m이다. 문에는 옹성을 세워 방어에 철저를 기한 것을 볼 수 있다.

궁궐은 황성의 동쪽 편에 건설되었다. 상경성의 정문은 동문이었다. 성안의 건물은 동쪽 정문을 기준으로 삼아 남원과 북원으로 나뉘었다. 이것은 거란의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거란의 활동지역은 서북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를 등에 지면 동남방이 바람을 등지는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경성은 동향으로 설계되었고 모든 건물은 동향을 향하고 있다(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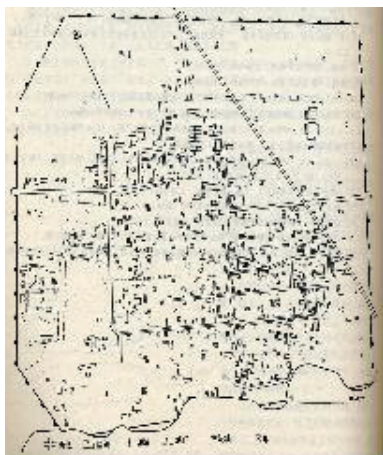


그림2. 궁성지평면도

4. 內蒙古文物研究所:〈遼上京址勘查報告書〉,《內蒙古文物考古研究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4년.

상경성의 남쪽은 “漢城”이라고 하였는데 주로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공관들과 무역 상인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남성은 사각형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 성벽은 황성의 남벽을 이용하였고, 서벽은 새로 쌓았다.⁴⁾ 雉를 세운 것은 방어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거리가 약 110m이다. 이것은 당시 무기 체제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⁵⁾

② 中京城

이 성은 內蒙古 赤峰市 寧城縣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성은 거란 聖宗 때 건설하였는데, 거란후기에 정치적 중심지였다. 이 성은 주로 송나라와의 관계에 많이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란내에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후일 거란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경성은 거란 성종 통화 21년(1003)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5년 만에 완공하였다. 평지에 건축되었으며 크기는 동서 4200m, 남북 3500m이다. 성의 구조는 외성, 내성, 궁성으로 되어 있다. 평면은 정사각형이다. 성벽은 흙을 다져서 쌓았다. 누각은 있지만 마면은 없다.⁶⁾

성안은 남문을 시작으로 중앙에 큰 길이 있는데 너비가 64m이다. 양측으로 종으로 6개, 횡으로 다섯 개의 길이 있는데 길의 너비는 4~15m이다.

중경성은 외성, 내성, 그리고 궁성이 한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면은 정사각형인데 이 형태는 北宋의 開封城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성안의 거주 형태이다. 北宋 시기에는 이미 도시경제에 있어서 상업경제가 중시되면서 성안의 사람들의 거주지가 거리를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이 형식은 隋·唐 시기의 마을단위에서 거리 중심으로 변형된 형태이다. 그런데 거란 중경성은 마을단위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의 기본적인 형태는 북송시기의 형식을 모방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부구조는 북송의 성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⁷⁾

중경성에 나타난 마을형식의 거주형식은 매 구역마다 담을 쌓아 경계지역을 표시하였고, 출입문은 군대가 지키고 있어 출입이 까다로운 것으로 추측된다. 성안에서는 많은 점포들이 있었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거란 중경성의 내성은 동서길이가 2000m, 남북의 너비가 1500m이다. 내성에는 雉를 건설하였다.⁸⁾ 이런 현상은 상경성에도 나타나는데 상경성 중 皇城에는 雉가 있고, 한성에는 雉가 없는 것과 같다. 중경성은 이미 正南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주지하다시피 雉에서는 적이 성벽을 타고 올라올 때 방어하는 기능이다. 이 때 雉에서 활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양 雉의 거리가 약 110m라면 당시 활의 사정거리는 약 110m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A지점의 雉에서 B지점의 雉를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遼中京發掘委員會:《遼中京城址發掘的重要收穫》,《文物》,1961年 第9期.

7. 이런 현상은 거란 중경성의 거주형태를 隋·唐시기를 모방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란의 민족구성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거란은 유동성이 강한민족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성도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단위로 거주하는 것은 각 지방의 지역성을 보조하기 위한 형태가 아닌가 한다.

8. 외성에는 雉를 건설하지 않았다.

③ 東京城

현재 요녕성 요양시에 자리하고 있다.⁹⁾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동시에 발해유민들이 건국한 동단국사람들을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요양의 동경성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거란 백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경성의 위치는 오늘날 요양시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3. 참고).



그림3. 동경성지백탑

④ 南京城

현재 북경시에 위치한다. 이곳은 거란의 남쪽인 송나라의 北上을 방지하고 동시에 한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⑤ 西京城

산서성 대동에 위치한다. 서쪽의 서하, 회족 등 여러 민족들이 거란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설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란의 京城은 그 위치에 따라 축성목적은 다르다. 상경성과 중경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통치자가 거주하는 곳이었고 나머지 성들은 변경에 위치하여 변경지역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동경성은 일찍 건설되어 발해유민들을 다스리고, 고려와 늘 국경분쟁을 일으키던 곳이었다.¹⁰⁾

頭下軍州城은 거란귀족들의 城인데 포로들을 이용하여 황제가 하사한 방목지에 성을 쌓는데 큰 것은 州로 부르고 작은 것은 軍이라 부른다. 거란의 규정에서 왕, 국서, 공주 등은 州를 세울 수 있는데, 거란 중기이후 이 頭下軍州城은 폐지되었다.

9. 현재 동경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단 추측을 해볼 때 고구려시대에 이곳에 요동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이 성을 계속 사용하다가 거란 때도 이성을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요동성에 대한 추측은 바로 요양시내에 있다.

10. 현재 동경성, 남경성 그리고 서경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 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확인되었다.

이 구조는 거란이 늘어나는 왕족이나 귀족들에 대한 예우차원도 있지만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거란의 중요지역에는 이 두하군주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頭下軍州의 절도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그 나머지는 城主가 임명을 한다. 성 및 관할지역의 수입 중 주세는 중앙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성주에게 귀속된다.

이미 조사된 것에 의하면¹¹⁾ 거란시기의 약 60개 정도의 頭下軍州城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성들의 분포지역은 주로 상경도 동남 외곽지역에 반정도가 분포하고, 약 20개가 동경도에 분포하며 나머지 중 몇 개씩 중경도와 서경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지역에 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분포하는데 초원지대와 농경지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생활관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거란인 들은 농경과 축목, 그리고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농경과 축목, 그리고 사냥이 가능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 성들의 크기는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둘레가 400m에서 2500m내외이다. 한 예를 보면 거란시기의 가장 큰 주군성인 白川城은 동서의 길이가 700m, 남북의 너비가 500m둘레가 2400m이다.¹²⁾ 거란의 行政州城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차이가 있다. 이 성들은 각대, 치, 웅성이 없는 특징이 있다.

3) 주현성

주현성은 2개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서경도에 당나라 성곽을 모방하여 한인들을 거주하게 만든 것이다. 상, 중, 하 3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경 및 중경도에 쌓은 성인데 모두 치, 각대, 웅성 등이 없다.

4) 변방성

변방성은 변방을 지키기 위한 성들이다. 이 성들은 순수한 전쟁용 성으로 군대만 주둔하는 성이다. 성의 기능이 주로 방어이며 거의 대부분이 치, 각대, 웅성을 설치하고 있다.

5) 봉릉읍

봉릉읍은 황제의 묘역을 지키며 때때로 제사를 모실 때 모든 준비를 하는 곳이다. 이곳은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다. 성안에 주로 황제 관목을 안배하는 재궁과 제사용 대전, 향당, 선방 등이 있다. 내몽고지역에서 조릉, 경릉, 회릉이 있는데 이것은 곧 작은 행정구역으로 변하여 조주, 경주, 화주라는 봉릉읍이 있다.¹³⁾

위에서 분석 해본 바와 같이 거란의 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1. 馮永謙:〈遼代頭下州探索〉,《北方文物》, 1986년 제 4기 참조.

12. 이 성은 中國 遼寧省 北票市 八家鄉 四角板村에 위치한다.

13. 임동의 '조주성'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도성과 변방성은 군사주둔지로 군사목적에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성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옹성, 치, 각대 등이 설치되었다.

이에 반하여 두하군주성이나 주, 현성은 순수한 행정이나 주변지역 통제이기 때문에 성자체가 무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도성이나 변방성은 군대가 주둔하지만 두하군주성이나 주현성은 군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거란성을 쌓은 방법은 주로 평지에 토성을 쌓아 활용하는 것이다. 성을 쌓은 방법은 흙을 다져 쌓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 한층 한층 다져 쌓아 올렸다.(그림4·5. 참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점토성이 강한 흙을 사용했을 것이다. 성의 높이는 현재의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높이를 고려해볼 때 3m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특징은 사다리꼴인데, 성 안쪽은 경사가 완만한데 바깥쪽은 직각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것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징은 거란사람들의 생활방식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거란인 들은 축목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생활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관계들이 연관되어 거란인은 평지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속에서도 일부 문화요소에서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4. 흑성 단면도



그림5. 흑성 단면도 구체현황

14. 黑城은 내몽고 적봉시 寧城縣 甸子鄉 黑城村에 위치한다. 이 성은 이문신에 의하여 서한의 우북평군으로 분류되었다. 黑城은 평면이 긴 네모꼴인데 대, 중, 소 3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성의 서로 차용하거나 보수 확장하여 쌓은 흔적이 있어 모두 다른 시기에 쌓은 것이다. 雉는 성벽 밖으로 둥그렇게 크게 쌓는데 보통 성벽의 높이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3. 거란성의 기원 및 영향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거란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성은 대부분 평지에 쌓은 토성이다. 거대한 토성을 쌓아올리면서 성벽 둘레로 雉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특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상경성과 내몽고 적봉시 영성현에 남아 있는 黑城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그림6. 참고). 뿐만 아니라 중경성에도 외성은 雉가 없지만 내성에는 雉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흑성의 치

이런 성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먼저 거란의 활동지역을 살펴보면 거란은 동으로는 오늘날 요녕성 요양일대, 북으로는 흑룡강성 남부지역, 서로는 현재 내몽고 서부지역, 남으로는 오늘날 북경지역을 활동지역으로 삼았다.

이 지역 가운데 거란의 주 활동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내몽고 적봉일대와 요녕성 중·서부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雉가 있는 성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기원전 17세기 무렵부터이다.¹⁵⁾



그림7. 삼좌점석의 치(발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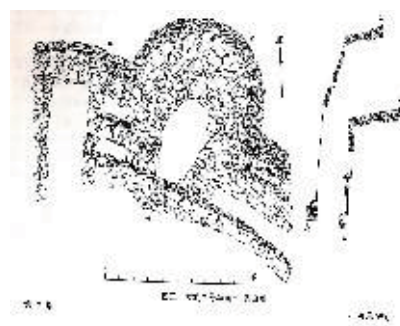


그림8. 삼좌점석성의 雉 (발굴후 평면도)

14. 黑城은 내몽고 적봉시 寧城縣 甸子鄉 黑城村에 위치한다. 이 성은 이문신에 의하여 서한의 우북평군으로 분류되었다. 黑城은 평면이 긴 네모꼴인데 대, 중, 소 3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성의 서로 차용하거나 보수 확장하여 쌓은 흔적이 있어 모두 다른 시기에 쌓은 것이다. 雉는 성벽 밖으로 둥그렇게 크게 쌓는데 보통 성벽의 높이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15.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05年赤峰市三座店庫區考古調查記」, 『考古』2006년 4期, 7-11쪽.

徐光冀, 「赤峰英金河, 陰河流域的石城遺址」, 『中國考古學研究』-夏 先生考古伍十年紀念論文集-文物出版社, 1986년, 82-93쪽.

당시는 청동기시대로 거란시기와는 약 2500년 정도의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청동기시와 거란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거란 바로 전시기인 발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거란이 일어나면서 발해를 무너뜨리면서 나라를 건국한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발해의 성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대부분이 고구려 城을 이어서 사용한 흔적들이 많다. 그러므로 고구려성과 발해성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결국 거란시기와 가장 가까운 성의 구조는 고구려 城들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주로 남아 있는 고구려성은 주로 산성들이다. 이 산성들에서는 많은 雉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 그렇다면 이러한 雉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두 시기의 성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고구려에 평지 토성이 있었겠나 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분명하게 평지에 토성이 존재하였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 요녕성 桓因에 남아 있는 下古子토성 같은 것이 그 한 예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요양지역 같은 곳에서는 평지에 석성보다는 토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토성은 후대에 헐어버려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거란성의 기본 형태는 고구려 성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란이 무너진 후 거란성의 영향은 어디로 갔을까? 거란의 멸망은 금나라와의 전쟁이다.

금나라는 건국하면서 거란을 무너뜨렸다. 금나라의 흔적은 지금의 흑룡강성 일대에 남아 있다. 이 지역은 거란시기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금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지역에는 많은 金 초기의 유적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 유적 가운데 雉가 있는 성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거란성의 특징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거란성은 고구려 성을 계승하였고, 금나라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거란성은 고구려성의 특징을 이어받고 금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전해준다. 雉가 있는 성을 쌓은 방법은 만주지역의 고유한 축성양식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땅에서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받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거란史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러나 역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는 현대에 들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로 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주었던 거란의 역사는 민족이동사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거란史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거란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전체 만주지역의 민족사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민족이동사와 결부시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고구려성』, 한국방송공사, 1994년 참조.

契丹大字研究概况与展望

额尔敦巴特尔 内蒙古大学

契丹文字有两种，一种是契丹大字，辽太祖神册五年（920）所制，另一种是契丹小字，没有记载确切的制字年代，但在契丹大字创制之后，是无疑的。契丹大字和小字创制以后，与汉字一起在辽朝境内广泛使用。辽亡以后，甚至在女真文字创制以后，契丹文字还被沿用到金朝中期。直到金章宗明昌二年（1191），才被金朝废止。契丹文字从神册五年创制到明昌二年为止，使用了将近三百年，到了元代，世间对契丹文字皆已遗忘，契丹字成了无人可识的死文字了。契丹族在历史上创造了辉煌灿烂的文化，契丹文字是记录其文化的重要载体，所以契丹文字的研究历来受到研究者的重视。本文参考前人的研究成果，对七十年多年来契丹大字的出土和研究情况做一回顾和总结，并对以后的研究工作做一展望。如有不妥之处，尚乞海内外专家不吝赐教。

一、契丹大字资料的出土情况

1) 《故太师铭石记》：1939年出土，但出土地点不详，原石下落不明。现仅存1942出版的伪满《国立中央博物馆论丛》第3号上发表的三张该碑的照片。志盖上刻写汉字“故太师铭石记”6字。志文刻契丹大字40行，约有1700多字。是重熙二十五年（1056）的文物。

2) 《萧孝忠墓志》：1951年出土于辽宁省锦西县西孤山。辽道宗大安五年（1089）的文物。志文有契丹大字15行326字，现存辽宁省博物馆。

3) 《耶律延宁墓志》：1964年出土于辽宁省朝阳县柏树沟村。辽圣宗统和五年（986）的文物。该墓志所刻文字24行，前18行上半部分为契丹大字，下半部及最后6行均为汉字。契丹大字共271字，汉字512字。现存辽宁省博物馆。

4) 《萧袍鲁墓志铭》：1965年出土于辽宁省法库县柏家沟乡前山村。辽大安六年（1090）文物。志文有契丹大字15行326个字，现存辽宁省博物馆。

5) 《北大王墓志》：1975年出土于内蒙古赤峰市阿鲁科尔沁旗昆都镇伊和嘎查。是重熙十年（1040）的文物。志盖上刻“北大王墓志”5个隶书汉字，志盖背面刻汉字21行，共510字。志文刻契丹大字27行785字。现存阿鲁科尔沁旗博物馆。

6) 《耶律习涅墓志》：1987年出土于赤峰市巴林左旗乌兰坝苏木小罕山。志盖上篆书阴刻“大横帐节度副使墓志”3行9字。志盖背面楷书阴刻契丹大字37行，每行字数不等，共1616字，是天庆三年（1113）文物。现存巴林左旗博物馆。

7) 《大辽大横帐兰陵郡夫人建静安寺碑》：此碑原立于内蒙古赤峰市宁城县十家村，现在移往宁县辽中京遗址白塔下。该碑正面刻汉字，背面刻契丹大字，由于磨毁改刻和风化，契丹大字部分漫漶不清。

8) 《应历碑》：原石出土地点和下落不详，中国学者贾敬颜在1949年以前从旧书店购得一份应历十六年（966）契丹大字拓片，拓片上共有契丹大字16行，约390字。

9) 《耶律祺墓志》：1993年内蒙赤峰市阿鲁科尔沁旗罕庙苏木朝格图山南麓。契丹大字46行，2800多字，现存内蒙古考古所。

10) 《清宁二年墓志》：墓志上有契丹大字二十七行，原碑下落及出土地点不详¹⁾。

11) 《永宁郡公主墓志》：2000年2月出土于内蒙古赤峰市巴林左旗宝力罕图乡王家沟村一座被盗的辽墓中。该墓为辽道宗西北路招讨使萧兴言与其妻永宁郡公主的合葬墓，墓中出土的文物中有萧兴言的汉文墓志和永宁郡公主的契丹大字墓志。《萧兴言墓志》刻于道宗大安三年（1087）。《永宁郡公主墓志》刻契丹大字36行，计1480字。该碑现存巴林左旗博物馆。

12) 《耶律昌允墓志》：刻于辽道宗清宁八年（1062年）。2000年出土于内蒙古赤峰市元宝山区小五家回族乡大营子村的一座辽墓中。该墓为耶律昌允与其妻兰陵郡夫人萧氏合葬墓，墓中同时出土契丹大字《耶律昌允墓》一合和汉文《耶律昌允其萧氏墓志》一方。耶律昌允墓志，志石长66厘米、宽65厘米，阴刻契丹大字30行，共870余字。

13) 《多罗里本郎君墓志铭》：墓碑为红色砂岩质，上圆下方，原碑出土地点、时间以及收藏地等均不详。从墓碑的文字内容来看，可能出土于内蒙古赤峰市阿鲁科尔沁旗罕苏木苏木的耶律羽之的家族墓群。正面刻契丹大字15行，背面可契丹大字6行，共21行。

14) 《契丹大字木牋》：1999年在内蒙古兴安盟科尔沁右翼中旗代钦塔拉苏木的一处辽代墓群中发现了两件木牋。第一件木牋长145厘米，宽4.3至5.6厘米，厚0.9至1.8厘米。两面墨书契丹大字。第一面竖写契丹大字62行，每行1至6字不等，最后另有1行。第二面竖写契丹大字66行，每行1至6字不等，最后另有横写1行，共67行。第二件木牋长63.7厘米，宽1.5厘米，厚1.8厘米，另有一面墨书契丹大字。文字仅有1行，分成9个段落。本木牋的照片及释文见刘凤翥等《两件契丹大字木牋之研究》。

15) 《蒙古国肯特省契丹大字刻石》：这块契丹大字刻石位于蒙古国肯特省的青克尔满达勒（Chengker Mandal）县境内萨尔巴日（Salbar）山中，20世纪50年代由蒙古国考古学者发现。铭文借天然岩石刻就，共四行，竖写，末行为刻石的时间，包括年月日。

此外还有《辽太祖墓碑残石》（现存内蒙古博物馆）、《辽上京出土契丹大字残石》（现存赤峰市博物馆）、《“太付太太”银匕铭文》、黑龙江省阿城市出土的符牌（现存黑龙江省博物馆）和若干契丹大字的印章、摩崖题字等。契丹大字见于史载的仅有元代陶宗仪撰的《书史会要》中提到“朕、敕、走、马、疾”5个契丹字，这又是宋代王易的《燕北录》中转引过来。

二、研究概况

契丹大字的真正研究是自从上世纪五十年代开始的。1951年在辽宁省锦西县西孤山出土的《萧孝忠墓志》为契丹文字研究提供了珍贵的资料。从那以后，契丹大字和小字问题也基本上得到了解决。中国学者阎万章是研究契丹大字的先驱者。他在《考古学报》1957年第2期上发表了《锦西西孤山出土的契丹文墓志的研究》一文²⁾。作者根据汉文志盖和其它材料，运用契丹文字和女真文字的比较法，对契丹大字的“大安”、“重熙”、“咸雍”等年号及“木龙”、“马”、“兔”、“牛”等干支、数字

1. 刘凤翥在其《契丹大字六十年之研究》一文中说：“1997年一月下旬，自称古钱币收藏家的陈阁造访寒舍，向我出示了一张契丹大字墓志的拓片小照片，上有契丹大字二十七行，字均刻得很工整，其中两次出现‘承天太后’，并有‘清宁二年’的纪年，姑且称之为‘清宁二年墓志’。”

2. 《考古学报》1957年第2期，页69—84。

进行了考证。但是，当时由于资料的局限把“大康”误释为“大安”，把“蛇”误释为“兔”。阎氏认为，萧墓出土的契丹文字为契丹小字，但是后来他对自己的看法进行了修正，接受了金光平先生的萧墓式契丹文字为“契丹大字”的看法。

金光平在《内蒙古大学学报》1962年第2期上发表了《从契丹大字到女真大小字》一文³⁾。作者认为，锦西西孤山出土的《萧孝忠墓志》是契丹大字，庆凌哀册是契丹小字。女真大字应出于契丹大字，女真小字应出于契丹小字。现在流传下来的女真字是女真大字。

上世纪八十年代以后，随着契丹大字墓志的陆续出土，契丹大字的研究也活跃起来了。阎万章《契丹文“萧袍鲁墓志铭”的考释》一文⁴⁾，对契丹大字的“六”、“九”等数字进行了释读，从而为解读契丹大字其它数字和干支提供了方便。该文证实了刘凤翥、马俊山所释读的契丹大字“铭曰”的正确性。作者还提出，相当于汉文“铭”字的契丹大字，在《故太师铭石记》和《北大王墓志》，都是用三个契丹大字表示的，这与贾敬颜所藏拓本和《萧袍鲁墓志铭》中的两个契丹字表示者虽不相同，但其末一字是相同的。如果把用两个契丹字表示者的第一个契丹字拆开而成为两个契丹字，或者把用三个契丹字表示者的前两个字合在一起而为一字，那么就完全一致了。阎氏的这个观点关系到契丹大字的认识问题，值得我们注意。该文也对意为“守太子太傅”的契丹大字进行了考释。阎万章《关于契丹大字墓志铭纪年的考释》⁵⁾，是释读契丹大字纪年问题的力作。文章的主要内容如下：一、对巴图、山路广明等学者所主张的天干“五色”说提出质疑，重新阐述自己所主张的契丹人的天干“五行”说；二、对刘凤翥误释读的“开泰”、“太平”、“元年”、“庚辛”等词进行了正确的修正；三、对他自己《西孤山出土萧孝忠墓志的考释》一文中误释的“大安”、“兔”等词做了修正。并对契丹大字的“统和”年号进行了正确的释读。该文中作者还认为契丹大字“纒”的读音为“gun”。

在契丹大字研究领域，中国学者刘凤翥做了很多工作。他先后发表了十多篇关于契丹大字的文章，对契丹大字的年号、干支和有些契丹语官职等进行了考释，并提出了不少很有见地的看法。下面介绍一下刘凤翥论文的主要内容及看法。他的《关于混入汉字中的契丹大字“纒”的读音》一文⁶⁾，认为“纒”字，始见于辽代，是参照汉字的“幼”或“么”而制成的一个读音为“幼”的契丹大字，就在辽代，这个契丹字混入汉字，在使用过程中与字形相近的固有汉字“纒”字相混淆，于是汉字“纒”反而被视为“纒”的异体字。他认为“纒”的读音为“iou”。另外，作者在本文中，对一些契丹字进行了释读。

刘凤翥《契丹大字和契丹小字的区别》⁷⁾，赞同金光平关于契丹大字与小字区别的看法，并进一步做了论证和补充。刘凤翥《契丹大字中的纪年考释》一文⁸⁾，对契丹大字的年号“大康”、数字“四”、十二生肖的“蛇”以及“正月”的“正”等契丹大字进行了释读。

3. 《爱新觉罗三氏满学论集》，远方出版社，呼和浩特，1996年，页2—7。

4. 《民族语文》1988年第3期，页25—27。

5. 《辽海文物学刊》1990年第1期，页82—98。

6. 《民族语文》1979年第4期，页263—267。

7. 《内蒙古社会科学》1981年第5期，页105—112。

8. 《民族语文》1982年第3期，页49—53。

刘凤翥与马俊山《契丹大字“北大王墓志”考释》⁹⁾，参照汉文，运用与字形相似的汉字和女真字的比较法，并参照契丹小字的研究成果，对一些“圣宗皇帝”、“仪天皇后”、“万辛”、“铭曰”、“契丹”、“北大王”等契丹大字进行了释读。在本文中作者还指出，“契丹大字中除了不拼音的音节文字之外，也存在拼音字”。这对今后契丹大字的解读有着指导意义。此文还认为，“在契丹语中，‘西南’可能说成‘南西’，‘东北’说成‘北东’”。

刘凤翥与于宝林《〈耶律延宁墓志〉的契丹大字释读举例》一文¹⁰⁾，对契丹大字的“金吾大将军”、“小将军”、“天赞皇帝”等词进行了释读。刘凤翥《若干契丹大字的解读及其它》一文¹¹⁾，是契丹大字研究的一篇力作。文中从解读契丹大字“岁”入手，从而对契丹大字中的“七”、“八”、“三十”、“四十”、“六十”、“七十”等一系列十位数字和年号“乾统”进行了释读。文中还提出了契丹语中的十位数字“不是个位数与十的简单组合，而应是一个不可再分割的单独的单词”的观点，并讨论了契丹大字的性质问题。作者认为，“契丹大字除了表意文字之外，还有一部分表音文字。这类文字是一个声符，没有意义，与其它文字拼成一个单词之后才有意义”。刘凤翥《契丹大字中若干官名和地名之解读》一文¹²⁾，通过与女真字对比，从而释出了契丹大字中的“州”字，进而释出契丹大字中的“云内州”、“静江军”等地名和“辟离刺”等人名以及“金紫崇禄大夫检校太尉”、“衙内”等词语。还对一些契丹大字拟了音，并进一步讨论了契丹大字基本上为音节文字的性质。

刘凤翥《契丹大字六十年之研究》一文¹³⁾，不仅概述了契丹大字60年的研究概况，还把已经发表的尚有拓片可寻的全部契丹大字墓志及相关的汉字墓志集中摹录附于文末，并初次发表了《应历碑》的摹本和在公开刊物上首次发表了契丹大字《萧袍鲁墓志》拓片照片。

聂鸿音《契丹大字解读浅议》¹⁴⁾，认为“推导字形应以当时通行的俗体汉字为基础，推导字音应区分契丹对汉字的音读和训读”。本文还对契丹的造字、用字原则以及前人对一些契丹大字的说解进行了辨析。作者对刘凤翥的契丹大字性质问题提出了质疑，他说：“刘先生在这里使用的‘音节拼音文字’这个术语令人感到含义不够清晰，我们很难理解他实际指的是文字学上的‘音节—音位文字’（藏文）还是纯粹的‘音节文字’（例如凉山规范彝文），但无论是‘音节—音位文字’还是‘音节文字’，都是以数量有限的‘字母’为基础的，而契丹大字的字符仅已发现的就达1800个以上，《新五代史·四夷附录》更说当时曾‘曾作文数千’，数量几与流行汉字相等，则其非字母文字可想而知。”不过，刘凤翥对聂鸿音提出的“契丹对汉字的音读和训读”说也提出了不同的意见，他说：“日本在创造文字时，大量地把汉字借用到日本文字中。这些被借入的汉字构成了日本字中的骨架，再把日本自创的假名和少量的自创的日本字与借用的汉字结合起来就构成了日本文字。日文中借入的汉字不仅字形与汉字相同，绝大数字义也与源出的汉字相同。这些字形字义与源出汉字相同的日本字的读音一般却有两种”，就是“音读”和“训读”。刘凤翥接着说：“契丹文字无论是契丹大字还是契丹小字都没有一个字有两种读音的情况，因而用不着音读和训读的术语来互相处理区别。姑就契丹大字而论，契丹大字中

9. 《文物》1983年第9期，页23—50。

10. 《文物》1984年第5期，页80—81。

11. 《汉学研究》第11卷第1期，台湾，1993年，页383—398。

12. 《民族语言》1996年第4期，页38—43。

13. 《中国文化研究所学报》1998年，新第7期，香港中文大学，页313—338。

14. 《民族语文》，1999年第4期，页51—57。

的绝大多数都是按汉字横平竖直、有撇、点、钩、捺的字形结构而自行创制的新字。这些字猛一看像汉字，仔细一看又都不是汉字。契丹大字中固然也借用了少量的汉字，有些借入的汉字固然与源出的汉字的字形、字义、字音相同，但这些字一般用来记录契丹语中的特殊的汉语借词。例如，‘皇帝’、‘太后’、‘太子’、‘公主’等等。契丹民族原来没有这些概念，因而其语言中原先也没有这些单词。随着与其汉族交往的日渐增多，于是也就有了这些概念，并把汉语中的这些单词借入契丹语中，构成了契丹语的一部分。契丹语中的汉语借词虽然不少，然而记录契丹语的契丹大字并不是全部直接借用汉字来记录契丹语中的所有汉语借词。用直接借用汉字的办法来记录汉语借词在契丹大字中属于个别现象。这些形、音、义均与源出汉字相同的契丹大字只有一种音，并没有两种读音。”¹⁵⁾

契丹语和女真语不是汉语式的孤立语言，而是粘着型语言，具有发达的词尾变化。用表意字表示不变化的词干不会有什么困难，而表达这些语言的形态变化和语法形式却要困难得多。在这种情况下，契丹大字若没有表音文字的话，就无法完整地表达契丹语言。契丹大字并不是有些人想象的那样落后的文字。辽亡以后，甚至在女真文字创制以后，在金朝也用了相当长的时间。《金史》卷五十三《选举三·国史院书写》载：“正隆元年（1156），定制：女真书写，试以契丹字书译成女真字，限百字以上。契丹书写，以熟于契丹大、小字，以汉字书史译成契丹字三百字以上，诗一首，或五言七言四韵，以契丹字出题。”¹⁶⁾金世宗也说过：“契丹文字年远，观其所撰诗，义理深微，当时何不立契丹进士科举。今虽立女直字科，虑女直字创制日近，义理未如汉字深奥，恐为后人议论。”¹⁷⁾以此看来，契丹大、小字发展成相当相当完备的文字体系了。1973年，西安碑林发现的女真字书残页记录的是完颜希尹最初创制的女真大字。这些残页上的女真文字几乎都是一个字代表一个词义的“表意文字”。值得注意的是，还有一些由两个字表示一个词义的文字，说明女真大字也有表音成分，并不是所有的字都是一个字代表一个词的表意字。我们知道，女真大字是在契丹文字的基础上产生的，可以说契丹大字和女真大字是性质相同的文字体系，所以，契丹大字也不完全是“表意文字”，也存在一定的表音成分¹⁸⁾。但是，在契丹大字中，表音成分到底占多少，现在无法推测。更重要的是，契丹大字要是“音节文字”或者是“拼音文字”的话，完全没有必要再创制契丹小字了。

刘凤翥、唐彩兰《‘萧兴言墓志’和‘永宁郡公主墓志’考释》¹⁹⁾，认为萧兴言为《辽史》有传的萧玉之孙讹笃斡，而永宁郡公主为耶律隆祐之孙女骨浴。文中对契丹大字的国号“契丹”、“仲父方”、“孟父方”、“上京”、“六院”以及“申猴”、“戎狗”、“亥猪”等词语进行了考释。

刘凤翥、王云龙《契丹大字‘耶律昌允墓志铭’之研究》²⁰⁾，对“天子皇帝”、“令公之长子留隐·海里大王”、“五院大王”、“上京留守”、“郡王”、“观音太师”、“佛山之足”等契丹大字进行了释读。此文的另一个意义是把《契丹大字音值构拟表》附于文末。

丛艳双、刘凤翥、迟建学《契丹大字〈多罗里本郎君墓志铭〉考释》²¹⁾，探讨了本墓志铭中涉

15. 刘凤翥：《最近20年来的契丹文字研究概况》，《燕京学报》新十一期，2003年，页210—211。

16. 《金史》卷五十三《选举三·国史院书写》，中华书局，北京，1975年，页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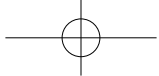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17. 《金史》卷五十二，选举一，页1142。

18. 拙文：《简论契丹大字和女真文字的比较研究》，《内蒙古大学学报》（汉文版），1996年第3期，页57。

19. 《燕京学报》2003年新第14期，页71—93。

20. 《燕京学报》2004年新第17期，页61—99。

21. 《民族语文》，2005年第4期，页55—55。



及的多罗里本的生、卒年及家人情况，还构拟了两个契丹大字的音值。

刘凤翥、丁勇、孔群、白玉《两件契丹大字木牒之研究》²²⁾，认为木牒甲的内容为两份清单，木牒侧面上涂的墨点表示数字；木牒乙上的刀刻刻痕也表示数字。此文同时讨论了“刻木为信”和“刻木之约”。

此外，金永田《契丹大字“耶律习涅墓志铭”的考释》²³⁾，首先介绍了该墓志的发现经过及墓志的一般情况，然后对契丹大字的“辽国”、“西京留守”、“忠良”、“于越”、“兴复军”、“副使”、“撰”、“天辅皇帝”、“天庆”等词进行了考释²⁴⁾。已故香港中文大学中国语言文学系高级讲师阮廷焯，于1992年8月12日至17日在台北举行的第三十五届世界阿尔泰学会会议宣读的《若干契丹大字之解读》一文对契丹大字的“天年”、“嘉鹿山”进行了考释。该文后来录入台北国学文献馆于1993年出版的《第三十五届世界阿尔泰学会会议记录》²⁵⁾。笔者《简论契丹大字和女真文字的比较研究》²⁶⁾，介绍了前人研究者对契丹文字和女真文字关系的研究情况和契丹大字墓志及碑文的出土情况。同时对契丹大字的性质等问题提出了自己的看法。

孙伯君《蒙古国肯特省契丹大字刻石考释》²⁷⁾，将肯特省契丹大字刻石的全文释读为：“山神(?)晓谕：御史都统胡特奴(耶律赵三)率领军队(于)古州胜阻卜。大康十年五月日”。

乌拉西春的《契丹大字研究》一书，于2005年出版。可惜，由于我本人还没看到此书，所以无法进行评论。

在日本，在文章中论述契丹大字的学者有西田龙雄、长田夏树等人，但进行释读契丹大字的有丰田五郎一人。丰田五郎《契丹隶字考》²⁸⁾，对契丹大字的“元年冬”、“猴年”、“鸡日”等进行了释读。丰田五郎《关于契丹大字的日期》一文²⁹⁾，对契丹大字的“鸡”、“正月”、“蛇”、“火鼠”、“六”和年号“大康”等词进行了释读。于1993年8月中旬，在赤峰召开的“中国北方古代文化国际学术研讨会”上，丰田氏发表了题为《解读契丹大字的线索》一文，此论文收录于由苏赫、田广林、薛志强等人主编的《中国北方古代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³⁰⁾。

在金元史籍中屡见的“纒”之记事，涉及到金元历史许多重大事件，是历来研究者所关注的课题。由于“纒”字又写作“紉”，曾引起研究者的一番争论。所争论的焦点比外乎以下几点：一、“纒”和“紉”哪一个是正字，哪一个是别字；二、“纒”是汉字还是契丹字？三、“纒”字的读音问题。“纒”字不见于辽代以前的文献，于1974年出土的契丹大字《北大王墓志》中首次出现，据此，刘凤翥、阎万章等学者考订为契丹大字。不过，贾敬颜、杨若薇等学者仍坚持认为汉字“紉”是正字，契丹字中出现的汉字“纒”的简写、俗写。至于“纒”的读音，学者们的意见很不一致。箭内互认为其读

22. 《民族语文》2006年第5期 页62-67。

23. 《考古》1991年第4期 页372-379。

24. 《考古》1991年第4期 页372-379。

25. 《第三十五届世界阿尔泰学会会议记录》,页52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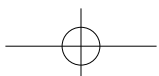
26. 《内蒙古大学学报》(汉文版)1996年第3期 页5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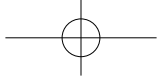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27. 《世界民族》2006年第4期 页44-52。

28. 《东洋学报》第46卷第1号, 1963年, 页1-39。

29. 《京都产业大学国际言语科学研究所报》第6卷第1号, 1984年10月, 页57-65。

30. 苏赫、田广林、薛志强等人主编 《中国北方古代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北京文史出版社，1995年，页298-314。





音为“敌”、“迪”字相同；王国维认为与“主”、“欧”字相同；陈述认为，纥字读音为“哈刺”；邵循正、蔡美彪认为纥字读音为“札或察”；刘凤翥认为“纥是参照汉字‘幼’、‘么’而创制的一个读音为‘幼’的契丹大字”；而阎万章认为“纥字读音为gun，是汉语军字之意”。笔者认为，纥字的读音很可能是“tiou”或“diu”。³¹⁾

三、对今后契丹大字研究的思考和展望

作为民族学共同体，契丹人在元代最终消失了，此后，契丹文字也成为一种无人可识的死文字了。契丹人的语言资料，保存下来的不多。所以，对契丹语有亲属关系的蒙古语、达斡尔语女真语及满洲语进行比较研究很重要。首先，了解蒙古语的历史，对契丹语的研究极为重要，因为，契丹人和蒙古人都是古代东胡人的后裔。远在公元前五到三世纪，东胡人居住在今天的内蒙古赤峰松林到呼伦贝尔草原上。他们使用一种属于阿尔泰语系的古老的语。到了汉代（公元前206年—公元8年），东胡人的后裔称为乌桓人和鲜卑人。大约公元一世纪到三世纪，鲜卑人占据了整个蒙古地区。他们的一支——拓跋鲜卑人，以今内蒙古地区为根据地，建立了北魏王朝。北魏以后，在东胡故地就出现了契丹人和室韦人。1992年7月出土于赤峰市阿鲁科尔沁旗罕庙苏木耶律羽之墓志铭文中对耶律氏族源方面的记载是：

“羽之姓耶律氏，其先兮佶首，派出石槐，历汉魏隋唐以来，世为君长。”志文中的“石槐”就是东汉时的鲜卑首领檀石槐。这一记载再次印证了契丹源于东胡系，是鲜卑的一支³²⁾。八世纪，室韦——靺鞨人中就有蒙兀部，居住在额尔古纳河东南岸。室韦—靺鞨人是原蒙古人，他们的语言是原蒙古语。根据文献记载，鲜卑人、契丹人、室韦人的语言有一脉相承的联系。《北史》卷九十四《室韦传》明确说：“契丹、室韦语言相同”。³³⁾伯希和认为“室韦”就是“鲜卑”一名的异译³⁴⁾。在契丹语的基本词汇中，有与蒙古语互通的部分。如，契丹语的“河、五、百、卯（兔）、辰（龙）、戌（狗）”等基本词汇是与蒙古语互通的，不可能是各族之间相互借用的文化词。契丹语的所有格附加成分-an、-en、-in、-on、-un与蒙古语的-yin、un^hün、u^hü有同一个起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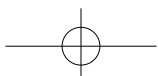
虽然契丹语与蒙古语同属一个大的语系，在两者之间完全划等号，那是不对的。东胡后裔的语言不是现代蒙古语族各语言、方言的古代形式。就是说，东胡后裔各族的语言同现代蒙古语族各语言的关系并不是简单的古今之别。东胡后裔各语言自成一个古老的语言集团，经历了已经无法确知的多次的分化、融合过程，它曾有鲜卑、契丹、室韦等许多语言和方言，大都绝灭了，现代蒙古语只是其中一两种语言、方言分支发展出来的。另一方面，九世纪以前，外蒙古高原还是一片突厥语族诸语言的世界。九世纪以后，回鹘人由外蒙古高原向西迁去，原蒙古人纷纷进入外蒙古高原和锡林郭勒高原，一部分更深入阴山地区，同突厥语族各部，主要是古突厥—回鹘方言各部牧人混杂在一起，原蒙古语经历了

31. 关于“纥(亂)”的研究情况 参阅拙文《再谈契丹大字“纥”的读音及其相关问题》，《阿尔泰学报》，第18号，首尔，2008年，页79—88。

32. 梁万龙：《耶律羽之及其族氏考析》，《内蒙古社会科学》1994年第1期，页67—71；盖之庸编著：《内蒙古辽代石刻文研究》，内蒙古大学出版社，2002年，页1—18。

33. 《北史》卷九十四 室韦传，中华书局，1974年，页3129。

34. 伯希和：《吐火罗语与库车语》，《吐火罗语考》，中华书局，1957年，页79。



几百年的突厥化过程。原蒙古语的语音构成发生了很大变化。大量的突厥词被移植到蒙古语词汇中，有的突厥词作为同义语，与蒙古词并行，有的干脆代替了蒙古词。古蒙古语中大量的突厥语借词，其中有许多一直保留到今天。如，古蒙古语的“年”有两个词：“on”和“zhil”。前者是原蒙古语，后者是借突厥语，作为同义语并存至今。又如，契丹人把“铁”叫作“曷术(*khazhu)”，而在几乎没有经历过突厥化发展过程的达斡尔语中，“铁”叫作“khasu”。这说明，东胡后裔各族的语言中“铁”并不叫“temur”。古蒙古语的“temur”是显然借自突厥语的tämür~tämür。这样，原蒙古语的许多单词在突厥化过程中被排挤掉了³⁵⁾。在辽金元三代，东胡后裔室韦—靺鞨人的语言发生了巨大的变化，终于形成了古蒙古语。换句话说，原蒙古语是东胡后裔各部落方言中的一支，它在东胡后裔各部落的语言和方言几乎全部消逝之后，经过深刻的突厥化过程，变成了古蒙古语，成为一个独立的语言。十五世纪以后，蒙古的瓦剌部兴起，一度统治蒙古高原。这又引起了蒙古高原瓦剌化的过程。瓦剌语音影响了大漠南北许多部落，特别是外蒙古高原。经过瓦剌化以后，古蒙古语才过渡为近代蒙古语³⁶⁾。所以，把契丹、蒙古词汇中的相同成分无限扩大，用纯粹的蒙古语来释读契丹字，这就走到反面³⁷⁾。所以，诸如乾隆时期编纂的《钦定辽史语解》等书对契丹语言和辽代史学几乎没什么价值³⁸⁾。

达斡尔语属于阿尔泰语系的蒙古语族语言。如上所述，达斡尔语没有经历过突厥化的过程，所以达斡尔语中肯定保存大量的原蒙古语。历史上也吸收过一些满洲语词。有人把达斡尔人指为契丹人，但是尚没有确凿的证据。

第二，加强契丹大字与女真字的比较研究。契丹语和女真语均属于阿尔泰语系两个古老的语言，前者属于蒙古语族，后者属于满洲——通古斯语族。已知不多的契丹语材料中也有契丹语与女真语及满洲语相同的材料。如，契丹语的“孤稳”（意为玉）与女真语相同。更重要的是，契丹大字是女真文字的源头，女真文字是契丹大字的流。由于《女真译语》这样工具的存世，女真语言文字的研究获得可喜的成果。很多学者认为，加强契丹大字与女真文字的比较研究，是解读契丹大字的重要手段之一。

第三，契丹大字和契丹小字的对比研究。契丹大字和契丹小字都是记录契丹语的文字。同一个单词无论用契丹大字记录还是用契丹小字记录，读音都是相同的。契丹小字的研究工作比大字起步早，所取得的成果也较契丹大字为多。要参照或借鉴契丹小字的解读方法和解读成果来进行解读契丹大字的工作。契丹小字已经构拟出读音的契丹语单词，其拟音成果可直接移到已释出的契丹大字的同义字中去。

总之，契丹语言的资料聊聊无几，更没有类似《华夷译语》那样的工具书传世，契丹语言文字的研究成为当今世界最难攻克的堡垒之一。时至今日，契丹小字研究虽然取得了很大的进步，但对契丹大字的研究仍停留在探索阶段。正如刘凤翥先生说的那样，经过契丹大字研究者的不懈的努力，这一领域取得了一些成绩，但经常出现一些错误，大家都在探索中前进。另外，我们对契丹语与蒙古语、达斡尔语和女真语及满洲语进行对比研究时，“大胆的假设”固然很重要，同时更应该注重“小心的求证”的科学方法。

35. 亦邻真(2001-2), 页511—513.

36. 亦邻真(2001-2), 页580—581.

37. 清格尔泰、刘凤翥、陈乃雄、于宝林、邢复礼(1977), 页26.

38. 刘浦江(2008), 页185—200.

参考文献

- 刘凤翥(1998):《契丹大字六十年之研究》,《中国文化研究所学报》新第七期。
- 刘凤翥(2003):《最近20年来的契丹文字研究概况》,《燕京学报》新十一期。
- 清格尔泰、刘凤翥、陈乃雄、于宝林、邢复礼(1977):《内蒙古大学学报》第4期,契丹小字专号。
- 清格尔泰、刘凤翥、陈乃雄、于宝林、邢复礼:《契丹小字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北京,1985年。
- 亦邻真(2001-1):《畏吾体蒙古文与古蒙古语语音》,《亦邻真蒙古学文集》,内蒙古人民出版社,呼和浩特。
- 亦邻真(2001-2):《中国北方民族与蒙古族族源》,《亦邻真蒙古学文集》,同上。
- 齐木德道尔吉:《从原蒙古语到契丹语》,《中央民族大学学报》2002年第3期。
- 吴英哲(2007):《契丹语静词语法范畴研究》,内蒙古大学出版社,呼和浩特。
- 孙伯君、聂鸿音(2008):《契丹语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北京。
- 刘浦江(2008):《从〈辽史·国语解〉到〈钦定辽史语解〉》,《松漠之间——辽金契丹女真史研究》,中华书局,北京。
- 说明(使用后删掉):伯希和:《吐火罗语(Tokharian)与库车(Kuča)语》,《吐火罗语考》,中华书局,1957年。

거린대자 연구현황과 과제

EERDUNBATEER 내몽골대학

거란문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거란대자(契丹大字)로 요 태조(辽太祖) 신책(神册) 5년(920)에 창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란소자(契丹小字)이다. 거란소자 창제년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거란대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창제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거란대자와 소자가 창제된 이후, 한자와 함께 요대(辽代)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요 멸망 이후, 심지어 여진문자(女真文字)가 창제된 이후에도 거란문자는 금조(金朝) 중기까지 차용되었다. 금 장종 명창(金章宗 明昌) 2년(1191)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금조에서 그 사용이 폐지되었다. 거란문자는 신책5년 창제에서 명창2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300여 년 동안 사용되다가 원대(元代)에 이르러 세인들의 기억에 잊혀져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죽은 문자가 되었다. 거란족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꽃피웠는데, 거란문자는 그러한 문화를 기록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거란문자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중시를 받기에 충분했다. 본 논문은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70여 년의 거란문자의 출토와 연구정황을 회고 총괄해 보고 이후의 연구과제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언급한 내용 중에 타당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의 아낌없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1. 거란대자자료의 출토 현황

1) 《故太师铭石记》: 1939년 출토되었으나 출토지점이 확실치 않고 그 원석은 행방불명. 현재 1942년 출판된 만주국(满洲国)의 《国立中央博物馆论丛》3호에 해당비문 3장의 사진이 남아있다. 이 묘지덮개(墓志盖)에 “故太师铭石记”라는 6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다. 지문(志文)에는 거란대자 40행 약 1700자가 새겨져 있다. 중희(重熙) 25년(1056)의 문물.

2) 《萧孝忠墓志》: 1951년 요녕성 금서현(锦西县) 서고산(西孤山)에서 출토. 요 도종(道宗) 대안(大安) 5년의 문물. 지문에 거란대자 15행 326자가 새겨져 있다. 현재 요녕성 박물관 보존.

3) 《耶律延宁墓志》: 1964년 요녕성 조양현(朝阳县) 백수구촌(柏树沟村)에서 출토. 요 성종(圣宗) 통화(统和) 5년(986)의 문물. 묘지(墓志)에는 24행이 새겨져 있으며 전면 18행 상반부는 거란대자로 하반부와 후면은 6행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거란대자는 총 271자, 한자는 512자이다. 현재 요녕성 박물관에 보존.

4) 《萧袍鲁墓志铭》: 1965년 요녕성 법고현(法库县) 백가구향(柏家沟乡) 전산촌(前山村) 출토. 요 대안(大安) 6년의 문물. 지문에 거란대자 15행 326자. 현재 요녕성 박물관에 보존.

5) 《北大王墓志》: 1975년 내몽골 적봉시(赤峰市) 아르 호르친기(阿鲁 科尔沁旗) 혼토진(昆都镇) 이흐 가차(伊和 嘎查)에서 출토. 중희(重熙) 10년(1040)년의 문물. 묘지개(墓志盖)에 “北大王墓志”라는 다섯 자의 예서체 한자가 새겨져 있고, 묘지개 뒷면에는 21행 510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다. 지문에 거란대자 27행 785자가 새겨져 있다. 현재 아르 호르친기 박물관에 보존.

6) 《耶律习涅墓志》: 1987년 적봉시 바아린 좌기(巴林 左旗) 울란 다와(乌兰 坝) 솜(苏木) 소한산(小罕山)에서 출토. 묘지개에 3행 9자 “大横帐节度副使墓志”라는 전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묘지개 뒷면에는 매 행마다의 글자수가 같지는 않지만 거란대자 37행 1616자가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천경(天庆) 3년(1113)의 문물로 현재 바아린 좌기 박물관에 보존.

7) 《大辽大横帐兰陵郡夫人建静安寺碑》: 이 비석은 내몽골 적봉시 녕성현(宁城县) 십가촌(十家村)이 원소재지였으나, 현재는 녕성현(宁城县) 요 중경(中京) 유적지 백탑 아래로 옮겨져 있다. 이 비석의 정면은 한자, 뒷면은 거란대자가 새겨져 있지만 (후대의) 마구잡이식 낙서 등과 풍화로 인해 거란대자 부분은 희미해져 선명하지 않다.

8) 《应历碑》: 본 비석은 출토지점이 정확하지 않으며 현재 그 원석의 행방이 묘연하다. 중국학자 贾敬颜이 1949년 이전, 한 고서점에서 응력(应历) 16년(966) 거란대자 탁본 한 부를 구입하였는데 이 탁본에 16행 약 390자의 거란대자가 있다.

9) 《耶律祺墓志》: 1993년 내몽골적봉시 아르 호르친기 한숨 솜(罕庙 苏木) 축트 산(朝格图山) 남측에서 출토. 거란대자 46행 2800여자가 있으며, 현재 내몽골 고고학연구소에 소장.

10) 《清宁二年墓志》: 묘지에 거란대자 27행이 있다. 원본 비석의 소재지와 출토지점이 분명치 않다.¹⁾

11) 《永宁郡公主墓志》: 2000년 2월 내몽골 적봉시 바아린 좌기 불간트향 왕가구촌(宝力罕图乡 王家沟村)의 도굴된 요대 묘에서 출토. 이 묘는 요 도종(道宗) 서북로초토사(西北路招讨使) 萧兴言과 그의 처 永宁郡公主의 합장묘이다. 이 묘에서 출토된 문물 중에 萧兴言의 한문묘지와 거란대자로 쓰여진 永宁郡公主의 묘지가 있다. 《萧兴言墓志》는 도종 대안 3년(1087)에 제작되었다. 《永宁郡公主墓志》에는 36행 1480자의 거란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현재 바아린 좌익기 박물관에 소장.

12) 《耶律昌允墓志》: 요 도종 청녕(清宁) 8년(1062)에 만들어졌다. 2000년 내몽골 적봉시 원보산구(元宝山区) 소오가회족향(小五家回族乡) 대영자촌(大营子村)의 요대 묘에서 출토되었다. 이 묘는 야를창윤(耶律昌允)과 그의 처 란릉군부인(兰陵郡夫人) 소씨(萧氏)의 합장묘이다. 여기에서 거란대자로 된 《耶律昌允墓》와 한문으로 된 《耶律昌允其萧氏墓志》가 동시에 출토되었다. 耶律昌允墓志의 지석의 길이는 66미터, 넓이는 65미터로 거란대자 30행 870여자가 음각되어 있다.

13) 《多罗里本郎君墓志铭》: 본 묘비는 붉은색 사임질로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게 만들어졌다. 원 비석의 출토지점, 시간 및 소장지 등이 불분명하다. 묘비 문자상의 내용으로 보아 출토지는 아마 내몽골 적봉시 아르 호르친기 한숨 솜(罕庙 苏木)의 耶律羽之의 가족묘군인 것 같다. 정면에 거란대자 15행, 후면에 6행, 모두 21행이 새겨져 있다.

14) 《契丹大字木牋》: 1999년 내몽골 흥안맹 호르친 우익중기(右翼中旗) 다이친 탈라(代钦塔拉) 솜의 요대 묘군에서 두 건의 목간이 발굴되었다. 첫 번째 목간은 길이가 145센티미터, 넓이가 4.3에서 5.6센티미터, 두께가 0.9에서 1.8센티미터로 구성된 두 면의 거란대자 묵서(墨书)이다. 첫째 면에는 세로로 쓴 거란대자 62행이 있으며, 매 행의 글자수는 한 글자에서 여섯 글자까지 그 수가 같지 않으며, 마지막에 기타 다른 한 행이 있다. 두 번째 면의 세로로 쓴 거란대자 66행에는 매 행마다의 글자수는 1~6글자로 그 단어수가 다르며, 마지막은 가로쓰기 한 행을 포함해 모두 67행의 거란대자가 존재한다. 두 번째 목간은 길이가 63.7센티미터, 넓이가 1.5센티미터, 두께가 1.8센티미터로 만들어진 거란대자 묵서이다. 문자는 단지 1행이며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1. 刘凤翥는 《契丹大字六十年之研究》라는 논문에서, "1997년 1월 하순, 자칭 고화폐수집가 陈阁가 집을 방문하여 내게 거란대자묘지의 탁본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 거란대자 27행이 있었다. 그 글자들은 모두 아주 정밀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그 행간에 두 번의 '承天太后' 그리고 '清宁二年'라는 년호표시가 출현했다. 고로 이를 '清宁二年墓志'라고 칭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목간의 사진 및 해석문에 대해서는 刘凤翥 등의 《两件契丹大字木牋之研究》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15) 《몽골국헨타이막거란대자석각》: 이 거란대자 비석은 몽골국 헨타이막 첩헤르만달 (Chenkermandal) 솜 지역의 살바르(Salbar) 산에 위치해 있다. 1950년대 몽골국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명문(铭文)은 천연암석에 새겼으며, 총4행의 세로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행에는 년월일을 포함한 석각제작 시간이 적혀있다.

이외에도《辽太祖墓碑残石》(현재 내몽골박물관 소장), 《辽上京出土契丹大字残石》(현재 적봉시박물관 소장), 《“太付太太”银匕铭文》, 흑룡강성(黑龙江省) 아성시(阿城市)에서 출토된 부패(符牌)(현재 흑룡강성 박물관 소장)와 약간의 거란대자 인장, 마에석각문 등이 있다. 거란대자는 사서에서도 보여지는데 元代 陶宗仪의 《书史会要》에는 “朕、敕、走、马、疾” 다섯 개의 거란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송대 王易의《燕北录》에서 재인용해 온 것이다.

2. 연구개황

거란대자의 진정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1년 요녕성 금서현(锦西县) 서고산(西孤山)에서 출토된 《萧孝忠墓志》는 거란문자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거란대자와 거란소자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학자 阎万章은 거란대자 연구의 선구자이다. 그는 《考古学报》1957년2기에 《금서 서고산 출토 거란문묘지 연구(锦西西孤山出土的契丹文墓志的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했다.¹⁾ 작자는 이 논문에서 한문 묘지개와 기타 자료를 토대로,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비교법을 통해 거란대자의 “大安”, “重熙”, “咸雍” 등의 연호와 “木龙”, “马”, “兔”, “牛” 등의 간지(干支)와 숫자 등에 대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大康”을“大安”으로, “蛇”를“兔”으로 오역하였다. 그는 《萧孝忠墓志》에서 나온 거란문자를 거란소자로 인식하였지만, 후일 다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해 金光平의 주장대로 《萧孝忠墓志》의 거란자는 “거란대자”라는 것을 수용하였다.

金光平은 《内蒙古大学学报》1962년 2기에 《거란대자에서여진소자까지(从契丹大字到女真大小字)》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²⁾ 그는 금서 서고산에서 출토된《萧孝忠墓志》는 거란대자이며 경릉(庆陵) 애책(哀册)은 거란소자라고 보았다. 여진대자는 거란대자에서 여진소자는 거란소자에서 나왔으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여진문자는 여진대자이라고 보았다.

1980년대 이후 거란대자의 묘지가 계속해 출토됨에 따라 거란대자의 연구도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阎万章은 《거란문“萧袍鲁墓志铭”의 해독(契丹文“萧袍鲁墓志铭”的考释)》라는 논문³⁾을 통해, 거란대자 “六”“九”등의 숫자에 대한 고증과 해독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거란대자의 기타숫자와 간지를 해독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다. 이 논문은 刘凤翥, 马俊山이 해독한 거란대자 “铭曰”의 정확성을 증명해주었다. 작자는 또한 한자 “铭”에 해당하는 거란대자가

1. 《考古学报》1957年第2期, 页69-84.

1. 《爱新觉罗三氏满学论集》, 远方出版社, 呼和浩特, 1996年, 页2-7.

2. 《民族语文》1988年第3期, 页25-27.

《故太师铭石记》와《北大王墓志》에는 세 글자의 거란대자를 이용해 표시가 되었다. 이는 贾敬颜가 소장하고 있는 탁본과《萧袍鲁墓志铭》에서와 같이, 두 글자의 거란문자로 표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비록 글자 개수는 같지 않지만 그 마지막 사용한 글자는 동일한 문자이다. 만약 두 글자의 거란문자로 표시된 것의 첫 번째 거란문자를 쪼개어 두 글자의 거란문자가 되게 하거나, 혹은 세 글자의 거란문자로 표시된 것에서 앞부분 두 글자를 하나로 합쳐 한글자가 되게 한다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거란대자의 인식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의를 기울일만한 주장이다. 阎万章의《거란대자묘지명 연호에 대한 해독(关于契丹大字墓志铭纪年的考释)》이라는 논문³⁾은 거란대자의 연호 문제에 대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수행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트(巴图), 山路广明 등의 학자가 주장한 천간(天干) “伍色”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주장한 거란인의 천간“五行”설을 새롭게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둘째, 刘凤翥가 잘못 해독한 “开泰”, “太平”, “元年”, “庚辛”등의 단어에 대해 정확한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자신의《西孤山出土萧孝忠墓志的考释》라는 논문에서 잘못 해독한 거란대자의 “大安”, “兔”등의 단어에 대해 정확한 수정을 가하였다. 또한 거란대자“统和”라는 연호에 대해 정확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 본문 중 작자는 거란대자 “纮”의 발음이 “gu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란대자의 연구영역에서, 중국학자 刘凤翥는 상당한 양의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거란대자에 대한 십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거란대자의 문장, 거란대자의 년호, 간지와 거란어 관직 등에 대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래에 刘凤翥의 논문의 주요내용과 그의 견해를 소개해 보도록 하자. 그는《한자에 혼입된 거란대자 “纮”의 독음에 대해(关于混入汉字中的契丹大字“纮”的读音)》라는 논문¹⁾에서, “纮”라는 글자는 요대에 처음 보이기 시작하며, 한자의 “幼”혹은“么”를 참조하여 창제된 “幼”독음을 지닌 거란대자라고 보았다. 즉 요대에 이 거란자는 한자 속으로 혼입되어 그 사용과정 중 자형이 비슷한 한자 “紉”와 서로 뒤섞였다. 이런 연유로 한자 “紉”가 도리어“纮”의 이체자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는 “纮”의 발음을 “iou”라고 보았다. 그 외에도 작자는 논문에서 몇몇 거란자에 대한 고증과 해독작업을 시도했다.

刘凤翥는《거란대자와 거란소자의 차이(契丹大字和契丹小字的区别)》라는 논문²⁾에서 金光平의 거란대자·소자 구별법에 동의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더 상세한 보충과 논증을 추가하였다. 刘凤翥는《거란대자중의 연호에 대한 고증 및 해독(契丹大字中的纪年考释)》라는 논문³⁾에서 거란대자의 년호 “大康”와 숫자 “四”, 십이지생초(十二支生肖)의 “蛇”및 “正月”의 “正”등의 거란대자에 대한 고증과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

刘凤翥는 马俊山과 함께한《거란대자 “北大王墓志”의 고증 및 해독(契丹大字“北大王墓志”考释)》이라는 논문¹⁾에서 한문과 자형이 유사한 한자 및 여진자와의 비교연구법 그리고 거란소자의 연구성과를 두루 참고해 “圣宗皇帝”, “仪天皇后”, “万辛”, “铭曰”, “契丹”

3. 《辽海文物学刊》1990年第1期, 页82—98.

1. 《民族语文》1979年第4期, 页263—267.

2. 《内蒙古社会科学》1981年第5期, 页105—112.

3. 《民族语文》1982年第3期, 页48—53.

1. 《文物》1983年第9期, 页23—50.

“北大王”등의 거란대자에 대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자는 “거란대자 중에는 음절문자 외에 표음문자 또한 존재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거란대자 해독에 있어 선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또한 “거란어에서는 ‘西南’을 ‘南西’로, ‘东北’을 ‘北东’로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刘凤翥는 于宝林과 함께 한 《〈耶律延宁墓志〉의 거란대자해독용례(〈耶律延宁墓志〉的契丹大字释读举例)》라는 논문²⁾에서, “金吾大将军”, “小将军”, “天赞皇帝”등의 거란대자에 대한 고증과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 刘凤翥는 《약간의 거란대자해독과 기타(若干契丹大字的解读及其它)》라는 논문³⁾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거란대자 연구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거란대자 “岁”에 대한 해독작업을 착수함으로써, 거란대자 중의 “七”, “八”, “三十”, “四十”, “六十”, “七十”등 일련의 십단위 숫자와 년호 “乾统”에 대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 거란어 가운데 십단위 숫자는 “십(十)과 한자릿수와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란대자의 성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작자는 “거란대자는 표의문자(表意文字) 이외에 일부 표음문자(表音文字)도 존재한다. 이러한 (표음)문자는 일종의 소리부호(声符)로 뜻이 없지만, 다른 문자와 결합해 하나의 단어가 된 이후에서야 뜻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刘凤翥는 《거란문자중의 약간의 관직명과 지명의 해독(契丹大字中若干官名和地名之解读)》이라는 논문¹⁾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여진문자와의 비교를 통해 거란대자 가운데 “州”자를 해독해 내었으며, 나아가 “云内州”, “静江军” 등의 지명과 “辟离刺”등의 인명 및 “金紫崇禄大夫检校太尉”, “衙内”등의 단어도 해독하게 되었다. 또한 몇몇의 거란대자에 대한 의음(拟音)을 통해 거란대자는 기본적으로 음절문자의 성질을 지닌다고 논의하였다.

刘凤翥는 《거란대자 60년 연구(契丹大字六十年之研究)》라는 논문²⁾에서, 거란대자 60년의 연구사를 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되어 수집 가능한 모든 거란대자묘지 및 이와 연관된 한자묘지 탁본들을 모아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첨가하였으며, 또한《应历碑》의 모사본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공개간행물상에는 최초로 거란대자《萧袍鲁墓志》의 탁본사진을 발표하였다.

聂鸿音은 《거란대자해독논의(契丹大字解读浅议)》라는 논문³⁾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형은 당시 통용되던 속체자한자(俗体字汉字)를 기초로 했지만 그 음가는 한자의 음독과 훈독처럼 구별된다”라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거란문자의 창제와 그 운용원칙 및 선학들이 연구한 몇몇 거란대자에 대한 설명등에 분석과 비판을 가하였다. 작자는 刘凤翥가 주장한 거란대자에 대한 성질문제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그는 “刘凤翥가 사용한 ‘音节拼音文字’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또한 그가 실제 지적하고

2. 《文物》1984年第5期, 页80—81.

3. 《汉学研究》第11卷第1期, 台湾, 1993年, 页383—398.

1. 《民族语言》1996年第4期, 页38—43

2. 《中国文化研究所学报》1998年, 新第7期, 香港中文大学, 页313—338.

3. 《民族语文》, 1999年第4期, 页51—57.

있는 것이 문자학상의 ‘음절-음위문자(音节—音位文字)’(예를 들어 티벳어)인지 아니면 단순한 ‘음절문자(音节文字)’(예를 들어 량산(凉山)의 표준 이족(彝族) 문자) 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音节—音位文字’이든 ‘音节文字’이든 간에 모두 수량이 한정된 ‘자모(字母)’를 기초로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거란대자의 자형이 이미 1800개 이상이 발견되었고, 《新五代史·四夷附录》에 의하면 당시 ‘이미 수천의 문자가 만들어져(曾作文数千)’, (그) 수량이 지금 널리 통용되는 기본한자의 규모와 비슷하니, 오히려 이것은 비자모문자(非字母文字)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刘凤翥는 聂鸿音이 제기한 “거란문자에는 음독과 훈독이 있다”라는 견해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일본은 당시 문자를 창제할 때, 다량의 한자를 일본글자에 차용했다. 이렇게 차용된 한자는 일본문자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일본인 스스로 창제한 가나(Kana)와 소량의 일본자를 차용한 문자와 결합해 일본문자가 구성되었다. 일본어에 차용된 한자는 그 자형이 한자와 같을 뿐만 아니라 글자의 뜻(字义)도 원래의 한자와 대다수는 같다. 그러나 이렇게 자형·자의가 원래의 한자 같은 일본문자의 독음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 즉, “음독”과 “훈독”이 있다”. 계속해 그는, “거란문자 즉 거란대자 뿐만 아니라 거란소자도 한 글자에 두 종류의 독음을 가지지 않는다. 음독과 훈독이라는 전문용어를 통해 따로 구별해낼 필요가 없다. 거란대자를 논하자면, 거란대자중의 대부분은 모두 횡평수직(横平竖直), 삐침(撇), 점, 갈고리(钩), 파임(捺) 등 한자의 자형구성에 의거해 창제한 새로운 글자이다. 이 글자는 얼핏보면 한자와 닮았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가 아니다. 거란대자 중에는 물론 소량의 한자를 차용했으며, 이렇게 차용된 한자는 원한자의 자형, 뜻 및 음가가 서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한 글자는 일반적으로 거란어 중의 특수한 한어외래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皇帝’‘太后’‘太子’‘公主’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거란족에는 원래 이러한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없었다. 그러나 한족과의 교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자중의 이러한 단어들을 거란어에 차용해 거란어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거란어 가운데는 한자차용어가 비록 적지는 않지만, 거란어를 기록한 거란대자 전체를 한자에서 차용한 것은 아니며 (순수)거란대자 자체로도 기록한 것이 존재한다. 직접 한자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기록한 한자외래어는 거란대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현상에 속한다. 이렇게 자형, 발음, 뜻이 모두 원래의 한자와 같은 거란대자는 단지 하나의 발음만이 존재할 뿐 두 종류의 독음을 가지지는 않는다.”¹⁾

거란어와 여진어는 한어와 같은 고립어가 아니라 교착어로 왕성한 어미변화를 수반한다. 표의문자는 변화하지 않는 어간을 표시하는 것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지만, 교착어 같은 이러한 언어의 형태변화와 어법형식을 표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거란대자에 만약 표음문자가 없었다면, 거란언어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란대자는 몇몇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후된 문자가 아니다. 요의 멸망 이후, 심지어 여진문자가 창제된 이후의 금조(金朝)에서도 상당기간 사용되었다. 《金史》卷伍十三《选举三·国史院书写》에는 “정릉원년(正隆元年)(1156)에 제도를 정해, 여진어로 적을 때, 거란자를 여진어로 번역하는데 그

1. 刘凤翥: 《最近20年来的契丹文字研究概况》, 《燕京学报》新十一期, 2003年, 页210-211.

자수를 일백자 이상으로 한다. 거란어로 적을 때, 거란대자와 소자에 익숙한 이들은 한자서를 거란문자로 3백자이상 번역한다. 시 한 수, 혹은 伍言, 七言, 四韵은 거란자로 출제한다.”²⁾ 금 세종도 언급하기를, “거란문자는 만들어진지 오래되었고, 거란자로 지은 시를 보면, 그 내용과 이치가 깊고 오묘하다. 당시 왜 거란어 진사과를 세우지 않았는가? 비록 지금은 여진어과를 세웠지만 여진자가 만들어 진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과 이치가 한자처럼 심오하지 않아서 후인들이 흥 볼까 두렵다.”³⁾ 이를 통해서 거란대자와 소자는 매우 완전한 문자체계를 가진 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3년, 서안 비립에서 발견된 여진문자의 잔본기록은 完顔希尹가 창제한 여진대자이다. 이 잔본상의 여진문자는 아마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의미를 가지는 “표의문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글자는 두 글자가 하나의 단어의미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여진대자에도 역시 표음성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며, 모든 글자가 표의자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진대자는 거란문자에 기초해 창제된 문자이며, 거란대자와 여진대자는 그 언어적 성질이 같은 문자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란대자 역시 불완전한 “표의문자”이며 일정량의 표음성분이 존재한다.⁴⁾ 그러나 거란대자에서 표음성분이 도대체 얼마만큼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 추측이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란대자가 만약 “음절문자” 혹은 “표음문자”이라면 거란소자를 다시 창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刘凤翥, 唐彩兰은 《‘萧兴言墓志’와‘永宁郡公主墓志’해독(‘萧兴言墓志’和‘永宁郡公主墓志’考释)》이라는 논문²⁾에서 萧兴言은 《辽史》에 열전을 가지고 있는 萧图玉의 손자 讹笃翰이며, 永宁郡公主는 耶律隆祐의 손녀 骨浴라고 보았다. 또한 거란대자의 국호 “契丹”, “仲父方”, “孟父方”, “上京”, “六院” 및 “申猴”, “戌狗”, “亥猪” 등의 단어에 대한 고증과 해석작업을 수행하였다.

刘凤翥, 王云龙은 《거란대자 ‘耶律昌允墓志铭’의 연구(契丹大字‘耶律昌允墓志铭’之研究)》라는 논문³⁾에서 “天子皇帝”, “令公之长子留隐·海里大王”, “伍院大王”, “上京留守”, “郡王”, “观音太师”, “佛山之足” 등의 거란대자에 대한 독해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의의는 《(거란대자음가재구성표(契丹大字音值构拟表))》를 논문말미에 부기한 것이다.

丛艳双, 刘凤翥, 迟建学 《民族语文》 2005년 제4기에 《契丹大字多罗里本郎君墓志铭》라는 논문⁴⁾에서 이 묘지명(墓志铭)에 언급된 多罗里本의 생졸년 및 가족사항을 고증해 냈으며 또한 두 개의 거란대자에 대한 음가를 재구성했다.

刘凤翥, 丁勇, 孔群, 白玉은 《두 건의 거란대자 목간의 연구(两件契丹大字木牋之研究)》라는 논문¹⁾을 발표하였다. 목간 甲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목간 측면의 칠해진 점은 숫자를 표시한다. 목간 乙에는 칼로 새겨 숫자를 표시하였다.

이외에 金永田은 《거란대자“耶律习涅墓志铭”의 해독(契丹大字“耶律习涅墓志铭”的考释)》

2. 《金史》卷五十三《选举三·国史院书写》，中华书局，北京，1975年，页1182。
 3. 《金史》卷五十二，选举一，页1142。
 1. 拙文：《简论契丹大字和女真文字的比较研究》，《内蒙古大学学报》（汉文版），1996年第3期，页57。
 2. 《燕京学报》2003年新第14期，页71—93。
 3. 《燕京学报》2004年新第17期，页61—99。
 4. 《民族语文》，2005年第4期，页55—55。
 1. 《民族语文》2006年第5期，页62—67。

이라는 논문²⁾에서 먼저 이 묘지의 발견경과와 묘지의 일반상황을 소개하고 거란대자 “辽国”, “西京留守”, “忠良”, “于越”, “兴复军”, “副使”, “撰”, “天辅皇帝”, “天庆” 등의 단어에 대한 고증 및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³⁾.

이미 고인이 된 홍콩중문대학의 중국어과 阮廷焯은 1992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제35회 세계 알타이학회회의에서 《약간의 거란대자의 해독(若干契丹大字之解读)》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거란대자 “天年”, “嘉鹿山”에 대한 고증과 해독을 하였다. 이 논문은 후에 타이베이국학문헌관 1993년판 《第三十五届世界阿尔泰学会会议记录》에 수록되었다⁴⁾ 필자는 《거란대자와여진문자와의 비교연구(简论契丹大字和女真文字的比较研究)》라는 논문⁵⁾에서 선학들의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개황 및 거란대자 묘지 및 비문출토상황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거란대자의 성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孙伯军은 《몽골국 헨티 아이막의 거란대자 석각 고증 및 해독(蒙古国肯特省契丹大字刻石考释)》이라는 논문⁶⁾에 헨티 아이막의 거란대자 석각전문을 다음과 같이 고증·해독 하였다. “산신에게(?) 알리노니, 어사도통 胡特奴(耶律赵三)가 군대를 이끌고古州에서 타타르를 물리쳤다. 대강(大康) 10년 5월일.”

乌拉西春的《거란대자연구(契丹大字研究)》라는 책이 2005년 출판되었다. 아쉽게도 필자본인에게 이 책이 없어서 서평을 할 방법이 없다.

일본에서는 논문상으로 거란대자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자는 西田龙雄, 长田夏树 등이 있지만 거란대자에 대한 해독작업을 수행한 이는 丰田五郎 한 명뿐이다. 丰田五郎은 《契丹隶字考》라는 논문¹⁾에서 거란대자 “元年冬”, “猴年”, “鸡日” 등에 대한 해독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1984년 10월판 《京都产业大学国际言语科学研究所报》제6권 제1호에 《关于契丹大字的日期》라는 논문²⁾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거란대자 “鸡”, “正月”, “蛇”, “火鼠”, “六”과 年号“大康” 등의 단어에 대한 해독작업을 진행하였다. 1993년 8월 중순, 적봉에서 개최된 “중국북방고문화국제학술심포지움(中国北方古代文化国际学术研讨会)”에서 《解读契丹大字的线索》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苏赫, 田广林, 薛志强 주편의 《中国北方古代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에 수록되었다.³⁾

金·元 사적에서 늘 보이는 “紉”의 기사는 금 원 역사에 중대한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는 연구주제였다. “紉”자는 “紉”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연구자들의 한바탕 쟁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한 쟁론의 초점은 아래 몇 가지이다. 첫째, “紉”와“紉”중 어떤 것이 정자(正字)이며

2. 《考古》1991年第4期, 页372—379.

3. 《考古》1991年第4期, 页372—379.

4. 《第三十五届世界阿尔泰学会会议记录》, 页521—527.

5. 《内蒙古大学学报》(汉文版)1996年第3期, 页50—57.

6. 《世界民族》2006年第4期, 页44—52.

1. 《东洋学报》第46卷第1号, 1936年, 页1—39.

2. 《京都产业大学国际言语科学研究所报》第6卷第1号, 1984年10月, 页57—65.

3. 苏赫, 田广林, 薛志强等人主编 《中国北方古代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北京文史出版社, 1995年, 页298—314.

어떤 것이 별자(別字)인가? 둘째, “纒”는 한자인가 아니면 거란자인가? 셋째, “纒”의 독음문제이다. “纒”는 요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 1974년 출토된 거란대자 《北大王墓志》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刘凤翥, 阎万章 등의 학자들은 거란대자로 고증했다. 그런데, 贾敬颜, 杨若薇 등의 학자들은 여전히 “纒”가 정자이며, 거란어에서 나타난 한자 “纒”의 간체로 보고 있다. “纒”의 독음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箭内互은 이 단어의 독음을 “敌”와 “迪”와 같은 발음으로 인식했다. 王国维는 “主”나 “欧”자와 같다고 보고 있다. 陈述은 纒字의 독음을 “하르(哈刺)”라고 보았으며 邵循正, 蔡美彪은 纒자의 독음은 “札或察”로, 刘凤翥는 “纒는 한자 ‘幼’나 ‘么’를 참조해 창제된 독음 ‘幼’의 거란대자”로 보고 있다. 阎万章은 “纒자의 독음은 “gun”으로 한어 군(軍)의 뜻을 지닌다”라고 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纒자의 발음은 아마 “tiou” 혹은 “diu”일 가능성이 높다.¹⁾

3. 금후 거란대자연구의 사고와 전망

민족공동체로서의 거란인은 원대에 마지막으로 소멸되었으며 거란어 또한 사어가 되었다. 거란인의 언어자료는 보존되어 내려온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거란어와 친속관계에 있는 몽골어, 다고르어, 여진어 및 만주어에 대한 비교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거란어 연구를 위해서는 몽골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거란인과 몽골인은 모두 고대 동호(东胡)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5~3세기경에, 동호인은 현재의 내몽골 적봉 송림지역에서 홀룬 보이르 호 지역 사이에 거주했다. 그들은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옛언어를 사용했다. 한대(汉代, 公元前206年—公元8年)에 이르러, 동호인의 후예들은 오환과 선비로 불려졌다. 대략 기원후 1~3세기에 선비인은 전체 몽골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들의 일파인 탁발선비는 현재 내몽골지역을 근거지로 해 북위왕조를 건립하였다. 북위 이후에는 동호의 고지에서 거란인과 실위인이 출현했다. 1992년 7월 적봉시 아르호르친기 한슌 숲에서 출토된 耶律羽之의 묘지명에 耶律씨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羽之姓耶律氏, 其先兮佶首, 派出石槐, 历汉魏隋唐以来, 世为君长.” 이 지문에서 “石槐”는 동한시대 선비의 수령 단석괴(檀石槐)이다. 이 기록에서 볼 때 거란의 근원은 동호계이며 선비의 한 지파이다¹⁾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8세기, 실위—타타르 가운데 몽골부(蒙兀部)가 있었으니 그들은 에르군네 동남에 거주하였다. 室韦—靺鞨人是 原몽골인으로 그들의 언어 역시 原몽골어였다.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선비인, 거란인, 실위인의 언어는 모두 일맥상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北史》卷九十四 《室韦传》에는 “거란어와 실위어는 상통한다”²⁾라는 기록이 있다. 펠리오는 “실위”는 “선비”라는 단어의 이역(异译)인 것이다라고 인식하였다.³⁾ 거란어 기본어휘 중에 몽골어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거란어의 “河, 伍, 百, 卯(兔), 辰(龙), 戌(狗)” 등의 기본어휘는 몽골어와 서로 통한다. 그러나 이것은 두 민족간의 차용된 문화어라고는 볼 수 없다. 거란어의 소유격

1. “纒(纒)”에 대한 연구상황은 물론 참조: 《再谈契丹大字“纒”的读音及其相关问题》, 《알타이학보》, 第18号, 서울, 2008年, 页79—88.

1. 梁万龙: 《耶律羽之及其族氏考析》, 《内蒙古社会科学》1994年第1期, 页67—71; 盖之庸编著: 《内蒙古辽代石刻文研究》, 内蒙古大学出版社, 2002年, 页1—18.

2. 《北史》卷九十四, 室韦传, 中华书局, 1974年, 页3129.

3. 펠리오, 《토카리안과 쿠차어》, 《토카리어고》, 中华书局, 1957年, 页57.

부가성분인 -an, -en, -in, -on, -un은 몽골어 소유격 어미인 -yin, un~ün, u~ü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다.

비록 거란어와 몽골어가 동일한 언어계통이라고 해도 양 언어 사이를 완전히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호 후예들의 언어가 현대몽골어족 각 언어 및 방언의 고대형식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동호후예 각 민족들의 언어와 현대 몽골어족 각 언어와의 관계를 예전 언어와 현재 언어 차이라고 인식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호 각 후예들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집단을 스스로 형성했으며, 이미 여러 차례의 분화와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선비, 거란, 실위 등 여러 언어와 방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어는 사장되었고 현대몽골어는 단지 그러한 언어 중의 한 두 지파가 발전되어 내려온 것이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9세기 이전의 당시 외몽골 지방의 몽골고원은 투르크계 제언어의 세계였었다. 9세기 이후, 위구르인이 외몽골 고원으로 유입되었으며 원몽골인 역시 외몽골 고원과 실링골 고원으로 잇달아 들어왔으며, 그 일부는 더 깊숙히 음산지역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투르크어족 각 부족, 주로 고대 투르크-위구르방언을 사용하던 각 부의 유목민들이 혼재하였으니, 원몽골어는 수백 년간의 투르크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원몽골어의 어음(語音)형성에 크나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다량의 투르크어가 몽골어 어휘로 유입되었으며, 어떤 투르크어는 동의어가 되어 몽골어와 병행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며, 어떤 것은 아예 몽골어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고몽골어중에는 다량의 투르크 차용어가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예를 들어, 고 몽골어의 “년(年)”에 해당하는 단어는 “on”과 “zhil”이다. 전자는 원 몽골어이며 후자가 투르크어 차용어이며 동의어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거란인은 “철(鐵)”을 “曷朮 (*khazhu)”라고 하였으며 투르크화 발전과정을 겪지 않은 다고르어에서도, “철(鐵)”을 “khasu”이라고 한다. 이것은 동호 후예 각 부족들의 언어에서는 “철(鐵)”을 “temur”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고몽골어의 “temur”는 확실히 투르크어 “tämir~tämur”에서 차용된 말이다. 이렇게 원몽골어의 다량의 단어가 투르크화 과정 중에 배제 당했다. ¹⁾ 요·금·원 시기에 이르러 동호의 후예 실위-타타르인의 언어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나서 결국 고몽골어로 완성되었다. 달리 말하면, 원몽골어는 동호후예 부족의 방언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이 동호후예 부족들의 언어 및 방언들이 아마 모두 소실된 후, 심각한 투르크화 과정을 거친 후 고몽골어로 변화하여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완성된 것이다. 15세기 이후, 몽골 오이라트가 흥기하고, 한동안 몽골고원을 장악했다. 이는 다시 한번 몽골고원의 오이라트화의 과정을 이끌어내었다. 오이라트어음(語音)은 고비사막 남북 여러 부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몽골고원에 그 영향을 많이 주었다. 오이라트화 과정을 겪은 이후에서야 비로서 고몽골어는 근대몽골어가 된다. ¹⁾ 이렇게 긴 역사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거란어와 몽골어 단어중에서 발음이 같다는 등의 단순히 비슷한 점만을 과장, 확대해석 해 순전히 몽골어만을 이용해 거란자를 해독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²⁾ 따라서 건륭(乾隆)시대에 편찬된 《钦定辽史语解》등의 사서는 거란의 언어학과 요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³⁾

1. 亦邻真 (2001-2), 页511—513.

1. 亦邻真 (2001-2), 页580—581.

2. 清格尔泰、刘凤翥、陈乃雄、于宝林、邢复礼 (1977), 页26.

3. 刘浦江 (2008), 页185—200.

다고르어는 알타이어계 몽골어족언어에 속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고르어는 투르크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다고르어 중에는 다량의 원몽골어가 보존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만주어 단어도 들어왔을 것이다. 어떤 이는 다고르어를 가르켜 거란인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둘째, 거란대자와 여진자와의 비교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거란어와 여진어는 모두 알타이어계의 옛 언어 계통이며, 전자는 몽골어족에 후자는 만주-통구스어족에 속한다. 거란어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거란어가 여진어 및 만주어와 일치한다는 자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거란어의 “孤穩(옥玉이란 뜻)”은 여진어와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란대자는 여진문자의 시초이며, 여진문자는 거란대자의 분파라는 것이다. 《女真译语》라는 이러한 공구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진언어 문자연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많은 학자들은 거란대자와 여진문자의 비교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이것이 거란대자를 해독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거란대자와 거란소자의 대조연구이다. 거란대자와 거란소자는 모두 거란어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이다. 동일한 한 단어를 거란대자를 이용해 기록했는지 아니면 거란소자를 이용해 기록했던 간에 그 발음은 모두 같다. 거란소자의 연구작업은 거란대자보다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며 취득한 연구성과 역시 거란대자보다 많다. 거란소자의 해독방법과 해독성과를 참조해 본보기로 삼아 거란대자 해독작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거란소자는 이미 거란어 단어의 음가를 재구성해 내었으며, 이렇게 재구성된 의음(擬音)성과는 이미 해독된 거란대자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거란어 자료는 얼마 되지 않으며, 《华夷译语》와 같은 이러한 공구서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란언어문자의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학문분야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란소자연구는 비록 많은 연구성과와 진전이 있었지만, 거란대자의 연구는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刘凤翥 선생이 말한 것처럼, 거란대자연구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일정수준의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착오와 잘못된 추론 역시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거란어와 몽골어, 다고르어, 여진어 및 만주어와의 비교 연구작업을 할 때,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실증해내는” 과학적 연구방법에 더욱 중점을 뒀야 한다.

거린어와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성규 단국대 몽골학과 교수

1. 서론

A.D. 4세기 무렵 역사 기록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는 거란은 922년에서 1125년까지 200여년 동안 북방왕조 요(遼)를 이루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은 금(金)에게 왕조를 넘겨준 이후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며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였던 거란어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 현재 거란어는 사라져 버렸지만 다행히 거란이 자신들의 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만든 거란 대자와 소자 자료가 남아 있어 거란어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히 해독이 되지 않아 거란어의 정확한 모습을 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어와 한국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먼저 알타이어족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G.J.Ramstedt에 의해 제기된 알타이어족설은 지금의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어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갈라져 서로 다른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알타이어족에 한국어까지도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학설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어의 기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상고시대 언어 자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료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어, 일본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왔다.

알타이어족 가운데서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대 몽골어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국어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명, 지명, 관명 등의 고유명사와 향가(鄕歌) 등이 전해지고 있어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다. 반면 몽골어는 흉노, 선비, 실위 시대의 어휘들이 일부 남아 있어 고대 몽골어의 모습을 어렵듯이 파악할 수는 있으나 온전한 문장 형태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비교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거란어는 몽골계 언어이며 시기적으로는 고대 몽골어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연구하기 위해서는 거란어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거란어와 한국어를 비교연구를 하기 전에 한국어와 거란어 사이에 언어 접촉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만일 한국어와 거란어 사이에 오랫동안 언어 접촉이 있었다면 두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원적으로 동일한 조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인접한 언어 간의 접촉에 의한 차용이나 영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거란어의 본격적인 비교 연구의 전 단계로 첫째, 거란어와 한국어 간에는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는지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둘째, 한국어와 거란어의 일부 단어들을 비교하여 향후 두 언어를 비교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거란어와 한국어의 접촉

거란은 과거 우리 민족의 조상과 많은 접촉을 가졌다. 상고시대에는 동호(東胡)란 이름으로 고조선의 영역, 혹은 고조선과 이웃한 곳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이웃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발해 시대에는 인접한 국가로 있었다. 이후 거란이 요 왕조를

수립한 이후에 발해는 거란에 복속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200년간 고려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고 거란이 멸망한 후에는 상당수의 거란인들이 고려에 복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는 고구려와 거란, 고려와 거란과의 관련 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거란과 고구려의 접촉

거란과 고구려의 역사적인 접촉 사실을 문헌 기록에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

- 소수림왕(小獸林王) 8년(378) 가을 9월에 거란이 북변을 침범하여 8부락을 함락하였다.²⁾
- 광개토왕(廣開土王) 元年(392) 9월에 북으로 契丹을 토벌하여 남녀 5百口를 노획하고 高句麗의 함몰된 民口 1萬을 데리고 돌아왔다.³⁾
- 太和 3年(479)에 高句麗는 靺靱(柔然)과 모의하여 地豆于를 취하여 나누려고 하였다.⁴⁾
- 後魏時代에 고려(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부락 만여호가 내부를 원하며 백랑수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 그 후(584), 다시 돌궐의 꺾박을 받아 또 1만여가가 고려에 기탁하였다.⁵⁾

2) 거란과 고려의 접촉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사항⁶⁾

- 고려와 거란은 1021년(현종 12)부터 1125년(인종 3)까지 105년간 고려에서 142회, 거란에서 180회에 걸쳐 使行을 파견하여 서로 교류하였다.
- 고려 태조 26년(943), 거란은 금수의 나라로 풍속이 다르고 언어도 역시 다르다.⁷⁾
- 고려 성종 14년(995), 아이 10명을 거란에 보내어 그 말을 배우게 하였다.⁸⁾

고려와 거란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며 상대국의 포로들을 잡아 자신들의 영역에 거주시켰다. 고려사와 요사에 나타나는 양국 간의 포로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16(현종7)부터 1029(현종20)까지의 投歸者는 모두 거란인이었는데 1030년 이후의 투귀자는 거란, 발해, 해(奚), 한인(漢人)의 혼합된 소단위였다.
- 1216년(고종3)부터 1219년(고종6) 사이에 거란인 수만 명이 침략하여 왔으며 고려, 몽고, 東眞이 강동성을 공략하여 함락하였다. 이때 잡은 포로들을 각도의 나누어 배치하고 농경지를 주어 살게 하였으며 이를 속칭 ‘契丹場’ 이라한다.

1. 삼국 시대 거란과 고구려와의 역사적인 접촉 사실에 관한 기록은 李在成,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996.에서 인용하였다.
 2. 三國史記 卷 18, 高句麗本紀, 小獸林王條, 八年, 秋九月, 契丹犯北邊, 陷八部落.
 3. 三國史記 卷 18,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元年條,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伍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一萬而歸.
 4. 魏書 契丹傳, 太和三年, 高句麗竊與靺靱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 其莫弗賀率其部落 車三千乘 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于白狼水東.
 5. 隋書 卷84, 契丹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餘家寄於高麗.
 6. 고려 시대 거란과의 접촉에 대한 기록은 金潤顯,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2004. 제1부 契丹과의 關係(1쪽-172쪽)에서 인용하였다.
 7. 高麗史 卷2, 太祖26年條,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慎勿効焉
 8. 高麗史 卷3, 成宗 14年條, 遣童子十人於契丹, 習其語.

- 고주(高州), 개태 년간에 성종이 고려를 정벌하고 포로를 고주에 두게 하였다. 호수가 5천이다.⁹⁾

- 통화 29년에 고려를 정벌하고 발해(고려)포로를 두게 하였다.¹⁰⁾

한편 고려와 거란간의 문화교류 중에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거란 불경의 전래이다. 1063(문종17)년 거란대장경의 전래에서 비롯하여 1107(예종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경이 전래되었다. 반대로 의천(義天)에 의하여 고려 불경이 거란에 전래되기도 하였다.¹¹⁾

이 시기 거란 문화가 고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는 고려 인종의 조서에 잘 나타난다.

- 華夏之法, 切禁丹狄之俗. 今則上自朝廷, 下至民庶, 競華靡之風, 襲丹狄之俗, 往而不返, 深可嘆也¹²⁾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거란의 고려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거란어가 고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반대로 거란에 잡혀간 고려인들의 거란에 대한 문화적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거란어와 한국어의 비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란과 고구려,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많은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 거란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관계로 비교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거란 대자와 소자로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어 거란어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으나 아직 해독이 충분하지 않아 비교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충분하게 해독되지 않은 거란 문자 관련 자료는 논외로 하고 요사에 나타나는 거란어 어휘들을 한국어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요사의 본문과 국어해에 나타나는 거란어 어휘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 어휘들을 통하여 거란어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이들 어휘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최근 孫伯君·聶鴻音(2008)의《契丹語研究》는 한자로 기록된 거란어 어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130여 어휘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절운(切韻)계의 한자음보다는 광운(廣韻)계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거란어 개별 어휘에 대하여 라틴 문자 순서로 각 어휘에 대하여 자세한 풀이와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9. 遼史, 卷39, 地理志3, 中京道 高州, 條 . . . 開泰中, 聖宗伐高麗, 以俘戶置高州, . . . 戶伍千

10. 遼史, 卷38, 地理志2, 東京道 歸州, 條, 統和二十九年伐高麗, 以所俘渤海戶復置

11. 金潤顯,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2004. 78쪽-83쪽 참고.

12. 高麗史 卷16, 仁宗7年 5月 甲辰條

거란어의 재구 형태까지 도출하고 있어 지금까지 나온 거란어 어휘 연구 중에서 돋보이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孫伯君·聶鴻音(2008)의《契丹語研究》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한국 한자음의 활용

기존의 거란어 연구에서는 중고음(中古音)에 속하는 광운(廣韻), 절운(切韻)과 송대(宋代) 음(音)을 이용하여 거란어를 재구하고 있다. 또 중국 북방음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원음운(中原音韻)의 한자음과 몽골비사(蒙古秘史), 몽고 자운(蒙古字韻)의 한자음도 활용하고 있다. 거란어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 위로는 동호를 거란의 조상으로 본다면 기원전후까지 소급하여야 하고, 아래로는 서요(西遼)의 멸망을 거란의 종결로 본다면 13세기에 도달한다. 또 요사는 14세기에 기록되었으므로 14세기 한자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거란어 재구에는 중국 상고음(上古音), 중고음(中古音), 북경조기관화(北京早期官話) 등 매우 많은 시기의 한자음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거란어의 이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운서에 나타나는 한자음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떤 어휘에서는 일치하는 한자음이 다른 단어에서는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자음을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 한자음(韓國 漢字音)을 활용하여 거란어를 재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거란어 중국과 접촉한 시기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당대(唐代)에 거란어는 중국과 많은 접촉을 하였는데 이는 신라(新羅)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음으로 송대(宋代)에 거란어는 송과 수많은 접촉을 하였는데 이는 고려와 흡사하다. 그리고 일부 어휘는 고대시기의 중국 한자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우리와 흡사하다. 이처럼 거란어와 한국의 중국 한자음 수용의 유사점을 감안하여 한국 한자음으로 거란어를 해석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거란어	孫·聶(2008)	의미	한국 한자음	재구형	한국어	관련어
孤穩(吳展)	*güγön	玉	고온(go'on)	*göbon	곱돌	곱다

2) 거란어와 한국어의 비교

기존 연구에서는 거란어가 투르크어, 몽골어, 만주어, 통구스어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주로 이들 언어와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거란어의 관련성을 생각하여 한국어와 비교를 하려고 한다.

(1) 孤穩 玉也

孫·聶(2008)에서는 *güγön으로 재구하였다. 한국 한자음으로는 고온(*go'on)으로 재구된다. 몽골어의 γoa(예쁜)와 연결이 가능하며 한국어에서도 '곱다, 곱돌' 등의 단어와 연결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옥(玉)은 '구슬'인데 '구슬'보다는 '곱다'와 더 어울린다.

(2) 迺捏咿呢 正月朔旦也

孫·聶(2008)에서는 捏咿呢를 *neri로 재구하고 몽골어의 naran(日)과 연결하였다. 한국어에서도 이 단어는 ‘날’(日)과 연결이 가능하다.

(3) 陶里樺 上巳日, 射兔之節名

孫·聶(2008)에서는 陶里를 *töli로 재구하고 몽골어의 tulai(兔)와 연결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토끼(중세국어 툃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4) 阿斯 寬大也

孫·聶(2008)에서는 *as로 재구하였다. 거란어의 아사(阿斯)는 고조선의 수도를 나타내는 단어인 아사달(阿斯達)에 나타난다. 아사달(阿斯達)은 다른 말로는 평양(平壤)인데 ‘넓은 들판’이란 뜻으로 한자어 관대(寬大)와 완전히 일치한다. 현대 한국어에는 ‘아스라히’같은 단어에 흔적이 남아 있다.

(5) 女古 金也

孫·聶(2008)에서는 nürgü/nürga로 재구하였다. 현대 한국어에는 고유한 단어가 사라지고 한자어 금(金)이 사용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는 ‘金曰 那論 歲(누른 쇠/nürön soi, 계림유사 고려방언), 金 쇠 금 又 黃金(훈몽자회 예산본, 中, 15) 등과 같이 나타난다.

몽골어나 투르크에서 금을 나타내는 alt도 원래는 금에 대한 고유 명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alt란 단어가 원래 al(붉은 색)이란 단어에 -t라는 접사(부가성을 나타내는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즉, 금이란 것은 ‘붉은 색을 띠는 것, 붉은 것’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실제 몽골에서 생산되는 금은 누른색보다는 붉은 색을 많이 띠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생산되는 금은 붉은 색보다는 누른색을 많이 띠고 있다. 그렇다면 거란어의 女古(nürgü/nürga) 한국어의 ‘누르고’와 연결되는데 이것은 ‘누른 것’이란 단어로 보인다. 몽골어에 보이는 ‘붉은 것’과 ‘누른 것’은 동일한 단어 형성법이다. 따라서 거란어의 女古를 ‘누른 것’으로 본다면 아마 고대 한국어에서 금은 ‘누른 것’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성규 2009:199-200).

(6) 于越 貴官

孫·聶(2008)에서는 *üyö로 재구하고 투르크어 차용어로 보았다. 현대 한국어에는 해당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우거(右渠)와 재구음이 유사하여 흥미를 자아낸다.

(7) 爪 百數也

孫·聶(2008)에서는 특이하게 이 단어를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단어는 몽골어의 jayu와 연결되며 한국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온(계림유사 고려방언 醜)’과 연결이 가능하다.

(8) 討賽咿呢 重伍日也

孫·聶(2008)에서는 토(討)를 *taw로 재구하고 몽골어의 taban과 연결하였다. 重伍日은 단오절을 말하는 것으로 5월 5일이다. 여기서 토(討)는 숫자 5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한국어의 ‘다섯(계림유사 고려방언 打戌)’과 연결이 가능하다.

(9) 陶里樺 上巳日, 射兔之節名

孫·聶(2008)에서 樺를 *qa로 재quist하였다. 몽골어의 harbuhu와 연결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활(계림유사 고려방언 活)’과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거란어와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거란은 고구려, 고려와 매우 많은 접촉을 하였다. 고구려 시대에는 거란이 주로 고구려의 영역 주위에서 수동적으로 접촉하였으며 언어학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고려 시대에는 약 200 여년 간에 걸쳐 고려와 접촉하면서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려에서 거란어를 배우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보낸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는 거란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거란 불경의 전래는 불경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고려 시대 불경에 나타나는 고유어 표기와 연결 고리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사 국어해에 나타나는 거란어와 한국어를 비교해 보면 다수의 어휘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비교한 어휘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요사나 거란 관련 기록에 나타나는 어휘들과 한국어를 비교한다면 더 많은 어휘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어	의미	孫·聶(08)	한국한자음	한국어	몽골어
孤穰	玉	*güγön	고온(go'on)	곱돌	γoa
捏咿呢	日	*neri	날이아(nalia)	날	nar(an)
陶里	兔	*töli	도리(dori)	토끼	taulai
阿斯	寬大	*as	아사(asa)	아사(지명)	-
女古	金	*nürgü	녀고(niögo)	누르	-
于越	貴官	*üγö	우월(iiwöl)	우거(인명)	-
爪	百	-	조(zo)	온	jayu(n)
討	伍	*taw	토(to)	다섯	tab(an)
樺	射	*qa	화(qua)	활	harbuhu

5. 참고문헌

자료

- (宋) 叶隆礼《契丹国志》，贾敬颜、林荣贵点校本，上海古籍出版社，1985年°
(元) 脱脱《宋史》，中华书局，1977年°
(元) 脱脱《辽史》，中华书局，1974年°
(元) 脱脱《金史》，中华书局，1975年°
(明)《元朝秘史》12卷，四部丛刊三编本，商务印书馆，1936年°
(清) 德灵额《辽金元三史国语解》，上海古籍出版影印文渊阁《四库全书》第296册°
(清) 陈士元《诸史夷语解义》，中国社会科学院民族研究所藏本。

연구서와 논문

- 贾敬颜：《契丹文》，中国民族文字研究会编《中国民族古文字》，天津古籍出版社，1982年
姜信沆：《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成均館大學校出版部，1991.
_____：《韓漢音韻史 研究》，대학사，2003.
金渭顯：《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景仁文化社，2004.
白鸟库吉：《东湖民族考》，原载于《史学杂志》第21-24编，1909-1912.
四库全书编纂小组（主编）：《辽金元三史国语解索引》，台湾商务印书馆，1986年°
孫伯君·聶鴻音：《契丹語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年.
沈汇：《论契丹小字的创制与解读-兼论达斡尔族的族源》《中央民族学院学报》1980年 第四期°
杨耐思：《中原音韵音系》，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1年°
杨富学：《回鹘语文对契丹的影响》，《民族语文》2005年第1期°
鳴鳳霞 編：《遼史，金史，元史 研究》，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2009年.
鳴英喆：《契丹語 靜詞 語法範疇 研究》，內蒙古大學出版社，2007年.
王民信：《辽史“契丹官名”杂考》，《幼师学报》第4卷第1'2期，1961年°
이성규：〈광물 이름의 비교를 통한 알타이어족의 분화시기 연구〉，《몽골학》27，
한국몽골학회，2009，187쪽-204쪽.
李在成，《古代 東蒙古史研究》，法仁文化社，1996.
照那斯图 杨耐思：《蒙古字韵校本》，民族出版社，1987年°
赵荫棠：《中原音韵研究》，商务印书馆，1936年°
清格尔泰、刘凤翥、陈乃雄 于宝林、刑复礼：《契丹小字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5年°

『요사(遼史)』를 통해 본 渤海의 西邊에 대한 試論

변은숙 관동대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발해의 서쪽 경계에 대한 제(諸) 설

3. 발해의 요서진출

- 1) 요서지역 고구려유민의 동태와 발해건국
- 2) 동란국(東丹國)의 설치
- 3) 거란 동경도 내 요서지역의 주(州)

4. 맺음말

1. 머리말

고구려의 옛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북쪽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발해의 영역은 『신당서(新唐書)』에서 사방 5천 리까지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아직 발해의 강역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발해의 강역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고, 특히 발해인 자신들에 의한 역사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발해의 서쪽 변경이 어디까지였는가를 푸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발해의 서쪽 부주(府州)와 그 치소(治所)도 잘 모르고,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존치 시기와 치소 등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¹⁾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서변에 대한 견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요동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요동지역이 포함된다 해도 언제부터였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요사(遼史)』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 기록의 신빙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²⁾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요사』기록을 토대로 하고, 담기양(譚驥讓) 주편(主編)의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에 실린 ‘동경도(東京道)’를 근거로 하여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 시론(試論)격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해의 서변에 대한 제(諸) 설을 살펴보고, 요서지역에 대한 발해의 영향력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서술을 토대로 발해의 서변은 요서지역까지였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2. 발해의 서변에 대한 제(諸) 설

발해는 그 영토가 최대일 때에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마주했는데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이었고, 서쪽은 라오허 강[遼河] 경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북쪽은 대체로 헤이룽 강[黑龍江]과 우수리 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거쳐 동쪽으로 연해주 남단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판도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이후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1대 고왕 대조영부터 3대 문왕 대흠무까지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갔고, 4대 대원의부터 9대 간왕 대명충까지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10대 선왕 대인수 대에 대대적인 영토 확장이 이루어져 사방 5천 리에 이르는 강역을 차지하게 되었다.³⁾

그러나 발해의 서변에 대해서는 한·중·일의 견해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압록강 하류의 박작구와 신성(新城[撫順])을 발해 서쪽 경계로 한다는 설은 중국학계의 통설이다.⁴⁾ 중국 학계에서 발해의 서쪽 경계를 확정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주요 기록은 賣耽(730~805)의

1. 한규철, 「발해국의 서쪽 邊境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47, 경남사학회, 2003, 3~4쪽.

2. 박시형, 『발해사』, 이론과 실천, 176쪽.

3. 김동우,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새롭게 본 발해사』, 2005, 61쪽.

4. 임상선, 「중국 역사 교과서의 발해사 내용비판」,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06.

『道里記』에 전하는 “박작구(泊汜口)에 이르러 발해의 경계에 도착하였다”는 구절이다. 이 견해는 김육불의 『渤海國志長編』과 王承禮의 저서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⁵⁾

그러나 8세기 전반기에 이미 요동은 당나라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요동은 발해의 영역이었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자들과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요동의 발해 영역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국내 학계에는 안사의 난(775~763)보다 훨씬 이전부터 요동 지역이 발해영역이었다는 주장이 있다.⁶⁾ 중국의 위국충과 담기양은 안사의 난 이후 당의 안동도호부가 폐지됨으로써 발해가 요동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손진기(孫進己) 등의 『동북역사지리』에서도 요동을 발해 영역으로 표시하였다.⁷⁾

『요사』의 다음 기록도 요동이 발해 영역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東京은 옛 발해 땅으로서 태조가 힘써 싸워 20여년 만에 이를 얻었다”⁸⁾ 라는 기록은 요동이 발해 영역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동란국을 요양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요양 옛 성들을 수축하고 渤海戶와 漢戶로 東平郡을 세워 방어주로 삼았다”⁹⁾ 는 기록도 요동이 발해영역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특히 담기양은 당의 안동도호부가 폐지된 숙종 지덕(至德, 756~757) 이후에는 요동 지역이 발해로 넘어갔다고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이 영주(營州)에 평로절도사를 두고, 발해의 위치를 요동이 아니라 영주에서 기점을 삼고, 요양(遼陽)이 발해의 땅이라고 하였으며, 발해 양평현(襄平縣)의 존재로 당과 마주한 서쪽 경계는 영주라고 하였다.¹⁰⁾

이처럼 발해 영역의 서쪽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설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담기양의 설로, 발해의 서쪽 영역을 요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주에서 기점을 삼아 요서까지라고 한 점이다.

3. 발해의 요서진출

1) 요서지역 고구려유민의 동태와 발해의 건국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영토를 지배하고자 했으며,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부흥운동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배층 및 부유하고 강한 자들[호강한 자]을 중심으로 2만 8천여 호를 중국 내지로 옮겼다. 유민들에 대한 강압책은 오히려 유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강력한 저항을 가져오게 하였다. 발해건국자인 대조영 집안도 당나라 내지로 옮겨간 세력이었다.¹¹⁾

5. 王承禮 著, 宋基豪 譯, 『발해의 역사』,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부록; 발해 강역도 참조.

6. 한규철, 위의 글.

7. 孫進己, 馮永謙 總纂(1989), 『東北歷史地理』 제2권, 黑龍江人民出版社; 임상선, 위의 글, 191쪽 재인용.

8. 『遼史』 권 28, 天祚帝 6년 정월조와 『契丹國志』 권 10.

9. 『遼史』 권 38, 『地理志』 2, 東京道條.

10. 譚驥讓 主編(1988), 90~92쪽; 임상선, 위의 글, 192쪽 재인용.

11. 김현숙, 「발해의 건국」,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0~37쪽

한편 요동에서 중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영주(營州; 현 朝陽)였는데, 이곳에도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7세기 후반 경 돌궐이 영주를 비롯한 그 일대를 차지하면서 당의 동쪽 지역의 정세도 불안정 해졌고 중원과 요동 지역이 차단되기도 하였다.

영주는 거란(契丹), 해(奚), 실위(室韋), 말갈(靺鞨)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있었다. 이 지역 이민족 통치의 중심부는 영주도독부였는데, 요서군(遼西郡)을 영주총관부로 삼고 치소를 유성(柳城; 조양)에 두고 영주, 요주(遼州), 유성현(柳城縣)을 관할하게 하였다. 당은 영주총관부를 영주도독부로 바꾸어 소수민족 부락을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영주도독 조문해(趙文翽)가 폭정으로 악명이 높자, 696년 거란인 이진충(李盡忠)과 손만영(孫萬榮)이 조문해를 죽이고 영주를 점거하였다.

이진충의 반란을 계기로 영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 중 일부는 친당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결결중상(乞乞仲象)과 결사비우(乞四比羽)의 지휘를 받으며 영주를 떠나 당나라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후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당나라의 군대가 토벌군대로 나서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대조영은 동쪽으로 옮겨가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처럼 영주는 발해가 건국되기 전 원래 거란, 대조영과 고구려유민, 말갈족이 살던 곳이었다. 특히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에서 안동도호부를 격하시키면서 고구려 영토 내에 있던 것을 영주지역으로 후퇴한 이후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다.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영주까지 후퇴시켜 관할권도 영주도독에게 맡겼다는 것은 요동뿐만 아니라 이곳에 대한 통치력도 그만큼 약해진 반면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의지와 세력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2) 동란국(東丹國)의 설치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황제 야율아보기는 “발해왕 大誼讓을 포로로 잡고 발해를 동란왕국으로 삼았으며, 황태자 야율배(耶律倍)를 인황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였다.”¹²⁾ 동란국은 동쪽 거란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발해국의 옛 땅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아보기는 동란국왕에게 천자의 관복을 하사하고 감로(甘露)라 건원시켰으며, 발해의 3성(省)을 합해 중대성(中臺省)으로 하였다. 관료는 거란인과 발해인을 함께 기용하여 마치 독립국과 같았으나 포(布)와 말을 거란에 조공품으로 바치게 하였다.¹³⁾

그러나 발해 유민들은 거란의 발해유민 포섭에 따른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각지에서 계속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는 와중 거란 태조인 야율아보기가 급서하면서 발해 유민들의 견장을 수 없는 붕기가 이어졌다. 이에 거란은 발해의 옛 땅을 포기하기로 하고, 天顯 3년(928)에 동란국을 요양으로 옮기고 동란국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으며, 南京으로 승격시켰다. 그 뒤 938년에는 남경을 동경으로 고치고 遼陽府를 두었다.¹⁴⁾ 그리고 城의 이름을 天福이라 하고, 그 四方의 문 이름을 발해府의 명칭으로 하였다. 이런 일련의 시책들은 요양을 중심으로 한 요동 지역이 발해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12. 『遼史』권38, 『地理志』2, 東京道條.

13. 서병국, 『발해제국사』, 서해문집, 2005, 214~216쪽.

14. 『遼史』권38, 『地理志』2, 東京道條.

이곳에는 발해 유민을 이주시키기 이전에 이미 발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 성들을 수축하여 발해인과 한호로 동평군을 세웠던 것이며, 동란국을 옮기면서는 남경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발해인들을 위무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란국을 서쪽으로 옮긴 것은 발해 옛 영역의 동쪽에 대한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지만, 발해유민들은 강제로 이주시켰던 것이다.¹⁵⁾ 동란국을 요양으로 옮기면서 발해의 유민도 함께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유민들의 반란과 단합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강제이주에 따른 불만과 등은 거란에게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3) 거란 동경도 내 요서지역의 주(州)

거란의 東京道는 발해를 멸망시킨 후 동란왕국으로 삼아 발해의 수도였던 홀한성에 두었던 동란국을 요양으로 옮긴 뒤, 남경으로 승격시켰던 것을 그대로 동경으로 삼은 것이다.¹⁶⁾ 동경도에는 동란국이 옮겨오기 전부터 발해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거란은 옛 성을 수축하여 발해인과 한인들로 동평군을 삼았다. 이러한 조치는 동경도에 대한 발해의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기록상에 착오가 있다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遼史』는 발해의 요동 영역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며, 더 나아가 발해의 세력이 요서지역에도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학자인 담기양도 발해의 서쪽 경계가 요서까지였다고 하는데, 그의 동경도 지도를 참조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遼史』와 담기양의 동경도 지도를 보면 발해의 서쪽 경계는 요서지역까지 뻗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경도에 포함되어 있는 州縣의 이름에는 옛 발해 주현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다. 특히 “顯州는 본래 발해 현덕부의 땅 이었다”¹⁷⁾ 라는 기록은 잘못되었지만, 현주가 동란국왕이었던 인황왕의 능인 顯陵을 받들기 위한 것임을 보면 이곳이 발해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 원년(947)에 거란 세종은 인황왕의 영가를 변경으로부터 직접 모시고 와서 인황왕이 의무려산의 수려한 산수를 사랑했기에 여기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더구나 발해 백성들이 스스로 현릉의 산역을 돕는 것을 세종이 가상히 여겨 현을 설치하기도 하였다.¹⁸⁾

동경도의 구역을 보면 요하를 건너 서쪽까지 경계로 하고 있으며, 소속된 州들은 발해와 연관이 깊다. 영주를 기점으로 해서 요서지역부터 발해의 영역이었다는 담기양의 설을 주목하면서 발해의 서쪽 경계는 요서지역까지였다고 생각한다.

15. 서병국, 위의 책, 216쪽.

16. 『遼史』권38, 『地理志』2, 東京道條.

17. 『遼史』권38, 『地理志』2, 東京道條.

18. 『遼史』권38, 『地理志』2, 東京道條.

4. 맺음말

이상에서 『遼史』를 중심으로 발해의 서쪽 경계에 대해 제 설을 정리하고, 요동설을 넘어 요서지역까지가 발해의 영역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 근거로는 『遼史』의 기록과 동란국의 서천과정, 동경도의 구역 등을 들었다. 이로 볼 때 이곳이 동란국이 옮겨 오기 이전부터 발해의 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고는 발해의 서쪽 경계가 요서까지였음을 시론으로 살펴보았다.

东京道





북방문화연구소
Institute of Northern Cultures